

국립국어원 2011-01-08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29-01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연구 책임자
김경령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
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19일

연구책임자: 김경령(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연구 용역

주관 연구 기관 협력 연구 기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 연구소 리서치앤리서치
책임 연구원	김경령(숙명여자대학교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공동 연구원	이홍식(숙명여자대학교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부 교수)
	문금현(숙명여자대학교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연구 보조원	김유리(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석사과정 수료)
	임초희(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석사과정 수료)
	방지선(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석사과정 수료)
	윤소화(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석사과정 수료)
연구원	박지훈(리서치앤리서치 책임 연구원)
	김남인(리서치앤리서치 연구원)
	강성민(리서치앤리서치 연구원)
	양효연(리서치앤리서치 연구원)
	김민선(리서치앤리서치 연구원)
	유미진(리서치앤리서치 연구원)

요 약

I. 조사 개요

□ 조사명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 조사 내용

- 전국 규모의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을 조사·분석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 확보
-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 사회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 언어 태도, 한국어 교육, 한국어 능력
아동: 국어 사용 환경, 한국어 능력

□ 조사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집단 면접 또는 응답자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 전국 결혼 이민자 표본 2,026명, 아동 200명
- 출신 국가: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할당
※ 모집단의 규모가 작아서 비례 할당의 수가 30명 이하인 국가는 정확한 통계 정보를 위해서 30명씩 임의 할당함.
- 권역별: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할당
- 시, 구 및 군 단위: 시, 구 및 군 단위 거주 지역 모집단의 규모에 따른 비례 할당
- 거주 기간: 균등 할당

□ 기초 변인

- 높은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즉 한국어 능력은 핵심적인 변인으로 작용함.
- 출신 국가, 거주 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

II. 가정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

□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언어

- 결혼 이민자는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지만, 자녀와는 모어와의 언어 전환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첫째 자녀와는 응답자의 모어 사용과 언어 전환이 자주 일어남.
- 중국(한족), 필리핀, 일본, 태국,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들은 대화 시 40% 정도의 비율로 언어 전환을 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한국계)의 경우 20% 정도의 비율로 언어 전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거나, 거주 기간이 길수록 가정에서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함.
- 한국어로 대화 시 22.2%가 '반쯤 이해하고 반쯤 짐작한다.'라고 답하였고, 35.8%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라고 답함.
- 대화 시간은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1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이 감소하고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배우자(44.5%)', '첫째 자녀(21.7%)', '둘째 자녀(11.4%)', '배우자의 어머니(4.3%)', '셋째 자녀(3.3%)', '배우자의 아버지(1.2%)',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0.6%)' 순으로 나타남.
- 자녀끼리 대화할 때 한국어 사용 비율과 언어 전환 비율은 언어 문화권별로 차이가 나타남.

□ 가족 구성원

-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감소함. 의사소통이 힘든 사람은 '배우자(18.6%)', '배우자의 어머니(15.4%)', '배우자의 아버지(7.5%)',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5.5%)', '첫째 자녀(4.8%)', '둘째 자녀(3.5%)', '없음(1.2%)' 순으로 나타남.
-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는 '첫째 자녀(65.1%)'라고 답한 비율이 높음.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의 나이는 '8세 이상(47.3%)'인 비율이 가장 높고, 응답자의 70.0% 이상이 중국 출신 결혼 이민자(한국계 중국)임.

□ 자녀 교육

- 전체 응답자의 72.8%가 미취학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24.6%가 보내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중국(한국계 80.2%)과 몽골(82.1%)에서 온 응답자 가정의 자

녀가 어린이 집에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비례하여 증가함.
- 캄보디아에서 온 응답자가 미취학 자녀 양육의 방법에 대해 가장 다양하게 답함.

□ 자녀 과제 확인

- 초등학생 자녀의 과제 확인은 58.1%가 '응답자 본인이 한다.'라고 답하고, 28.1%는 '배우자가 한다.'라고 답함.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가 좋을수록 본인이 확인하는 비율이 높음.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20대 미만의 응답자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자녀의 과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음.
-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40.9%가 '배우자'라고 답하고, 37.8%가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없음', 4.1%가 '그냥 넘어간다.', 4.0%가 '행정기관 담당자', 3.1%가 '배우자의 부모', 1.8%가 '이웃' 순으로 답함. '그냥 넘어간다.'라는 답은 태국(11.5%)과 캄보디아(21.3%)에서 온 응답자가 많이 선택함. 캄보디아에서 온 응답자는 '행정 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다(17%).'라고 답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는 '행정 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없다(0%).'라고 응답함.

□ 모어 교육

- 응답자의 상당수가 자녀가 모어를 배우기를 바람. 일본(55.4%), 몽골(59.3%), 캄보디아(57.4%)에서 온 응답자가 '꼭 배우게 하고 싶다'라고 많이 응답함.
- 응답자나 배우자의 직업이 사무직(57.1%, 40.6%)인 경우 '꼭 배우게 하고 싶다.'라는 비율이 높음.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52.5%) 졸업이거나,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가 90~100점(44.5%)인 경우에도 '모어를 꼭 배우게 하고 싶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모어를 교육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한국계44%), 중국(한족55.3%), 캄보디아(47.8%), 중앙아시아(60.9%) 출신 응답자는 '두 나라의 말을 모두 잘하게 하고 싶다.'라고 답하고, 일본(38.4%) 출신 응답자는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려고', 몽골(30.8%) 출신 응답자는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니까'라고 응답함. '취직과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중국(한국계 10.5%) 출신 응답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남성 응답

자의 경우 여성 응답자보다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45.5%)'라는 답을 더 많이 함.

- 응답자 모어 교육의 어려움은 23.6%가 '가르칠 시간 부족', 14.6%가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 13.2%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8.3%가 '다른 가족들의 반대', '학교 공부에 지장', 8.1%가 '응답자의 모어를 가르치는 기관 부족', 4.1%가 '정체성 혼란' 순으로 답함.
- 대구 지역은 '가르칠 시간 부족(45.9%)', 광주 지역은 '다른 가족들의 반대(23.4%)', 충청남북도 시 단위 지역은 '모어를 가르치는 기관 부족(22.7%)', 강원 시 단위 지역은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33.3%)'를 모어 교육의 가장 어려운 요인이라고 답함.

III. 사회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

□ 대화 시간

- 하루 동안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은 '1시간 미만(36.4%)', '1시간에서 2시간 미만(23.7%)', '2시간에서 3시간 미만(13.9%)', '3시간에서 4시간 미만(5.7%)', '4시간 이상(16.5%)', '모름/무응답(3.7%)'으로 나타남. 중국(한국계)에서 온 응답자만이 '4시간 이상(31.9%)'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고, 응답자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줄고,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 교류

- 한국에서 여러 사람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분석한 결과 언어 문화권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임.

□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

- 한국인과 대화할 때 언어는 응답자의 89.4%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5.1%가 '한국어와 모어', 1.8%가 '기타', 1.1%가 '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 태국이나 몽골 출신 응답자는 모국인과 대화할 때에 절대적으로 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 출신 응답자는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한국어(50.2%)나

모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 모임 참여

- 가족, 친척 모임에 참여한 연 평균 횟수는 31.4%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22.2%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17.9%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8.1%가 '일 년에 한 번 정도', 5.3%가 '참석한 적 없음.' 순으로 응답함.
- 모국인 친구 모임에 참여한 연 평균 횟수는 응답자의 51.6%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19%가 '모임 없음.', 14.5%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5.7%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5.6%가 '참석한 적 없음.' 순으로 답함.
- 지역 친구 모임에 참여한 연 평균 횟수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모임 없음.', 19.1%가 '참석한 적 없음.', 18.5%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5.9%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5%가 '일 년에 한 번 정도', 4.5%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순으로 답함.

□ 언어 태도

- 응답자의 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41.9%).',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20.6%).', '모르겠다(12.1%).', '매우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11.5%).', '매우 낮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4.9%).', '낮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8.9%).' 순으로 응답함. 몽골 출신 응답자들의 49.1%가 모어의 위상이 한국에서 특히 낮게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 한국어 능력 검사에서 고득점을 맞은 응답자일수록 '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한국어 방언 사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답이 17.3% 정도 나온 것으로 보아 결혼 이민자는 방언 사용 여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언어 입력

- 하루 평균 한국어 인터넷 이용 시간은 '1시간 미만(38.5%)', '1시간~2시간 미만(21.8%)', '이용하지 않음(19%).' 순으로 응답함.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이용하지 않음(38.5%).'이 가장 많이 나와 인터넷 활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 이용 이유를 베트남 출신 응답자의 45.1%가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을 위해서'라고 답했고, 필리핀 응답자의 42.6%는 '한국의 뉴

스,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일본 응답자의 36.8%는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물건을 찾아 주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답해 언어 문화권별로 사용 용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17.5%만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42%가 인터넷을 활용해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를 응답자의 35.6%가 '읽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29.9%가 '1주일에 1회 읽는다.'라고 답함. 특히, 캄보디아에서 온 응답자의 52.4%가 '읽지 않는다.'라고 답함.

□ 한국어 교육

-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 53.3%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44.7%의 응답자가 경험이 없다고 답함. 교육 경험은 한국어 학원(34.0%), 혼자(29.6%), 학교(21.2%), 기타(7.4%), 종교 기관(4.5%), 방송(3.3%), 모름/무응답(3.3%) 순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을 받은 기관은 행정 기관(69.9%), 모름/무응답(13.9%), 사설 한국어 학원(5.7%),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5.3%), 종교 단체(2.4%) 순으로 응답함.

□ 언어 기능

- 응답자들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습득 단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생활의 어려움

- 응답자들은 공공 기관을 이용할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23.5%)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남.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와의 의사소통(25.4%)이 가장 힘들고,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어로 전화하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23.5%)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남.

IV. 다문화 가정 자녀

- 가정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아버지(68.7%), 어머니(45.7), 형제(62.7%) 순으로 이해한다고 답함.
- 학교에서 친구들이 본인이 말하는 한국어를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57.9%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친구의 한국어를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 55.8%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베트남에서 온 응답자의 자녀는 38.8%가, 필리핀에서 온 응답자의 자녀는 81.3%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고, 아동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역시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30점 미만인 아동의 경우 25% 정도가 '무응답'으로 답함.
-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41.6%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자주 하는가라는 질문에 13.2%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 공부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43.6%)', '어머니(26.7%)', '방문 교육 지도사(12.1%)'라고 답함. 방과 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음.
- 이주 여성과 아동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TV 시청 시간이 짧음. 아동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가 '30분 미만'이라고 답함. 아버지나 어머니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 스스로가 '집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한 응답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70점 미만'의 점수대는 감소하고, '92~100점'대는 증가함.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nguage usage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in various environments in Korea in 2011. To do so, 2,026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were interviewed as subjects. Over 1,800 bilingual adult speakers and 200 children who have bilingual parents answered for the survey questions and took a Korean proficiency test. This research consists of three major themes for examining language usage. The first is on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Usage of Korean, usage of mother tongue, language attitude, language code, etc were examined. the second is on communication among social members. Language code, dialect, language attitude, language input, etc were examined. The third is on children with bilingual parents and their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attitude, language usage both at school and home, etc were examined.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are presented below.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The purpose of the study - Research methods - Participants - Survey Questions & Language Test questionnaire - The result of the pretest
Chapter 2	Language usage among family members - General views - Usage of Korean at home - Usage of mother tongue at home - Caring person for children's school activity at home - Language attitude at home - Korean language institute in Korea
Chapter 3	Language usage with social adult members - General views -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 Usage of Korean in social grou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age of mother tongue in social groups - Language attitude in social groups - Dialects - Language input - Korean Language institute outside Korea - Language proficiency in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Chapter 4	<p>Analysis of language te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ror analysis on open questions - Error analysis on multiple choice questions
Chapter 5	<p>Children's language us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guage usage among family members - Language usage at school - Language attitude - Language Input
Chapter 6	<p>Correlational analys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guage, mother tongue, age, occupation, income, education, gender, staying period, residential area, etc. - Language experience, identity, learning method, etc.
Chapter 7	<p>Conclusion and Impl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for inter-ministry policy and support - Implication for future research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Depending on their different mother tongue backgrounds, Korean proficiency varied. Period of stay in Korea was a very critical factor to influence the language proficiency. There exist different level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depending on different regions of residence. Educational background also influence language proficiency. College graduates got the highest scores, while elementary school graduates got the lowest scores in the test.

Participants were found to code-switch frequently from/to Korean and their mother tongues. This seems to be a very natural phenomena among bilingual and/or multilingual speakers. But most of the code switchings occurred because of inadequate Korean proficiency.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not balanced

bilinguals. Thus, it is hardly expected that code switching occurs for the sociolinguistic reasons.

One of the surprising finding is that inadequate language proficiency do not prohibit communication with native Korean speakers. Even a novice Korean learner can maintain conversations over 3 hours. This conversation pattern was found in most cases. Family members were found to maintain conversation using various language codes, not restricted to Korean only.

A child who has many Korean friends after school to play, a child who can get help when s/he has assignments from school, a child who has abundant materials or references for a school activity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the test.

Participants who try to speak in Korean when having conversations with Korean performed better in the language test. However, no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language proficiency was found. The most difficult occasions for the participants to experience in Korea was when they visit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imply the following.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osed to various and complicated language environment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Korean language programs in more extensive and sophisticated ways. If the government insists on a uniform language education policy, the policy would have marginal impacts to facilitate the transitions for foreigners to mingle into Korean society. Adult learners, who had learned Korean language in their country before coming to Korea, tend to have less adjustment efforts in Korea. In order to rais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s balanced multi-lingual speakers, systematic/integrated supports from different government ministries are called for. A school system has to be developed for young multi-lingual children, with the support from professional staffs.

목 차

1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1
1.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1.2. 기초 통계 자료 확보	4
1.1.3. 이론적 배경	5
1.2. 조사 개요	10
1.2.1. 조사 과정	10
1.2.2. 조사 대상	13
1.2.3. 표본 할당 기준 및 배분 방식	15
1.3. 조사 도구 개발	19
1.3.1. 설문조사 문항 개발 틀	19
1.3.2. 사전 조사 결과 분석	23
1.3.3. 문제점	26
1.4. 성인 표본 기초 인구학적 조사 분석	28
1.4.1. 한국어 능력 검사	28
1.4.2. 거주 지역	28
1.4.3. 거주 기간	29
1.4.4. 성별	30
1.4.5. 직업	30
1.4.6. 종교	31
1.4.7. 연령	31
1.4.8. 학력	32
2장. 가정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	33
2.1. 대화	34
2.2. 가족 구성원	52
2.3. 자녀 교육	57
2.4. 과제 확인	63

2.5. 모어	68
3장.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76
3.1. 교류	77
3.2.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	84
3.3. 모임 참여	87
3.4.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의 사용 언어	97
3.5. 언어 태도	106
3.6. 언어 입력	113
3.7. 한국어 교육	122
3.8.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	127
4장. 언어 기능과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130
4.1. 언어 능력	131
4.2. 개방형 문항 분석	147
4.3. 선택형 문항 분석	152
4.3.1. 정답률 개관	152
4.3.2. 문항별 정답률 분석	154
5장.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환경	160
5.1. 응답자 변인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161
5.2. 선택형 문항 결과 분석	162
5.3. 가정에서 아동의 국어 사용 환경	171
5.4. 아동의 학교 생활 및 교우 관계	179
5.5. 학업 및 언어 입력	184
5.6. 학업 보조	188
6장. 다양한 변인들과 한국어 사용 능력	192
6.1. 한국어 능력	193
6.2. 교차 분석	214

7장. 결론 및 제언	222
참고 문헌	230
부록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실태조사 설문지)	
한국어(성인용).....	236
한국어(아동용).....	249

〈표 목 차〉

〈표 1〉 다문화 가족 출신국 분류	13
〈표 2〉 다문화 가족 출신국별 모집단 현황	14
〈표 3〉 지역별 다문화 가족 거주 현황	14
〈표 4〉 성인 표본 규모 설계(임의 할당)	16
〈표 5〉 성인 표본 규모 설계(표본 할당)	17
〈표 6〉 본 조사 성인 표본	17
〈표 7〉 언어권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194
〈표 8〉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196
〈표 9〉 거주 지역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2
〈표 10〉 다문화 가족 거주 지역	204
〈표 11〉 연령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5
〈표 12〉 학력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6
〈표 13〉 성별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7
〈표 14〉 직업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8
〈표 15〉 소득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9
〈표 16〉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10
〈표 17〉 사회에서 한국인과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와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11
〈표 18〉 다문화 가족 아동과 한국어 능력	213
〈표 19〉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대화 이해도 관계	215
〈표 20〉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이해 정도와 대화 시간	216
〈표 21〉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응답자 모어 교육 태도	217
〈표 22〉 모어 위상과 한국인과 대화할 때 사용 언어	218
〈표 23〉 모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와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	219
〈표 24〉 서툰 한국어 사용과 대화 시간	220
〈표 25〉 모임 참석 여부와 한국어 습득 의지	221

〈그림 목 차〉

〈그림 1〉 한국어 능력 검사 사전 조사 결과	25
〈그림 2〉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하는 언어	35
〈그림 3〉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35
〈그림 4〉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하는 언어-거주 기간별	35
〈그림 5〉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수준	36
〈그림 6〉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수준-언어권별	37
〈그림 7〉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수준-거주 기간별	37
〈그림 8〉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38
〈그림 9〉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언어권별	39
〈그림 10〉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거주기간별	39
〈그림 11〉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40
〈그림 12〉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41
〈그림 13〉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거주 기간별	41
〈그림 14〉 첫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42
〈그림 15〉 첫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43
〈그림 16〉 첫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거주 기간별	43
〈그림 17〉 둘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44
〈그림 18〉 셋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45
〈그림 19〉 배우자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46
〈그림 20〉 배우자의 어머니와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47
〈그림 21〉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48
〈그림 22〉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	49
〈그림 23〉 대화할 때에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사람	50
〈그림 24〉 자녀들끼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51
〈그림 25〉 자녀들끼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51
〈그림 26〉 함께 살고 있는 가족	52
〈그림 27〉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	53
〈그림 28〉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의 나이	54
〈그림 29〉 한국에 함께 온 자녀의 체류 기간	55
〈그림 30〉 현재 자녀 유무	56
〈그림 31〉 어린이집 이용 여부	57

<그림 32> 어린이집 이용 여부-언어권별	58
<그림 33> 어린이집 이용 여부-거주 지역별	58
<그림 34>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가족	59
<그림 35>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가족-언어권별	60
<그림 36>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가족-거주 지역별	60
<그림 37>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가족	61
<그림 38>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가족-언어권별	62
<그림 39>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가족-거주 지역별	62
<그림 40> 초등학생 자녀 과제를 확인	63
<그림 41> 초등학생 자녀 과제를 확인-언어권별	64
<그림 42> 초등학생 자녀 과제를 확인-거주 지역별	64
<그림 43>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	65
<그림 44>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언어권별	66
<그림 45>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거주 지역별	66
<그림 46>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거주 기간별	67
<그림 47> 응답자의 모어 배우기 여부	69
<그림 48> 응답자의 모어 배우기 여부-언어권별	69
<그림 49>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1순위)	71
<그림 50>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2순위)	71
<그림 51>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중복 응답)	71
<그림 52>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언어권별	72
<그림 53>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1순위)	74
<그림 54>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2순위)	74
<그림 55>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중복 응답)	74
<그림 56>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언어권별	75
<그림 57>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평균 시간	77
<그림 58>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평균 시간-언어권별	
78	
<그림 59>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평균 시간-거주 기간별	78

<그림 60> 한국인과의 교류	79
<그림 61> 한국인과의 교류-언어권별	79
<그림 62> 모국인과의 교류	80
<그림 63> 모국인과의 교류-언어권별	80
<그림 64> 모국인과의 교류-거주 지역별	81
<그림 65> 모국인과의 교류-거주 기간별	81
<그림 66>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	82
<그림 67>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언어권별	82
<그림 68>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거주 기간별	83
<그림 69>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거주 지역별	83
<그림 70> 한국인 친구와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	84
<그림 71> 모국인 친구와의 대화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85
<그림 72> 다른 나라 사람과의 대화할 때에 시에 사용하는 언어	86
<그림 73> 한국 가족 친척 모임 참여	87
<그림 74> 한국 가족 친척 모임 참여-언어권별	88
<그림 75> 한국 가족 친척 모임 참여-거주 기간별	88
<그림 76> 한국 가족 친척 모임 참여-거주 지역별	89
<그림 77>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	90
<그림 78>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언어권별	91
<그림 79>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거주 기간별	91
<그림 80>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거주 지역별	92
<그림 81>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 참여	93
<그림 82>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 참여-언어권별	94
<그림 83>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 참여-거주 기간별	94
<그림 84>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 참여-거주 지역별	95
<그림 85> 학부모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	96
<그림 86> 은행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97
<그림 87> 우체국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98
<그림 88> 자녀 학교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99
<그림 89>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을 방문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100
<그림 90> 주민 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101
<그림 91> 마을회관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102
<그림 92> 복지회관을 방문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103

<그림 9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104
<그림 9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105
<그림 95> 한국 사회에서 모어의 위상	106
<그림 96> 한국 사회에서 모어의 위상-언어권별	107
<그림 97> 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108
<그림 98> 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언어권별	109
<그림 99> 한국사회에서 한국어 필요성	110
<그림 100> 한국사회에서 한국어 필요성-언어권별	110
<그림 101> 방언 사용	111
<그림 102> 방언 사용-언어권별	112
<그림 103> 방언 사용-거주 지역별	112
<그림 104> TV 시청 시간	113
<그림 105> TV 시청 프로그램	114
<그림 106>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간	115
<그림 107>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	117
<그림 108> 모국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 시간	118
<그림 109> 모국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 이유	119
<그림 110> 한국어 라디오 청취 시간	120
<그림 111> 한국어 발행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시간	121
<그림 112> 한국어 교육 유무	122
<그림 113>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	123
<그림 114>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언어권별	123
<그림 115>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유무	124
<그림 116> 한국어 학습 기간	
<그림 117> 한국어 학습 기간-언어권별	125
<그림 118> 가장 오랫동안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	126
<그림 119>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1순위)	128
<그림 120>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2순위)	128
<그림 121>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언어권별	128
<그림 122>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거주 기간별	129
<그림 123>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거주 지역별	129
<그림 124> 간판 읽기	131
<그림 125> 메모 안내문 읽기	132

<그림 126> 한국어 편지, 설명서 읽기	133
<그림 127> 한국어 신문, 잡지, 일반 문헌 읽기	134
<그림 128> 한국어 인사	135
<그림 129> 한국어 일상 대화	136
<그림 130> 설명 및 보고	137
<그림 131> 연설이나 토의, 통역	138
<그림 132> 한국어로 된 간단한 문장 듣기	139
<그림 133> 한국어로 된 일반적인 사항의 대화 내용 듣기	140
<그림 134> 한국어로 된 광고, 인터뷰, 일기 예보를 듣고 이해	141
<그림 135> 한국어 뉴스	142
<그림 136> 한국어로 사물 이름이나 숫자, 위치 쓰기	143
<그림 137> 한국어로 편지, 일기, 기사문 쓰기	144
<그림 138> 한국어로 일상적인 내용 쓰기	145
<그림 139> 한국어로 전문적인 글쓰기	146
<그림 140> 성인 전체 정답률 분포	153
<그림 141> 선택형 질문의 정답률	163
<그림 142> 아버지나 어머니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171
<그림 143> 형제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172
<그림 144> 한국어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 정도	173
<그림 145> 한국어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 정도	174
<그림 146> 한국어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해 정도	175
<그림 147> 한국어에 대한 할머니의 이해 정도	176
<그림 148> 아동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형제의 이해 정도	177
<그림 149> 부모의 모어를 배우고 싶은지 의향	178
<그림 150> 친구의 본인 한국어 이해 정도	179
<그림 151> 본인의 친구 한국어 이해 정도	180
<그림 152> 친하게 지내는 친구	181
<그림 153> 수업 내용 이해 정도	182
<그림 154> 수업 시간 발표 횟수	183
<그림 155> 공부할 때 필요한 책 또는 자료 소유	184
<그림 156> TV 시청 시간	185
<그림 157> 컴퓨터 사용 시간	186
<그림 158> 한국어 책 독서 시간	187

<그림 159>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	188
<그림 160> 공부할 때 물어볼 사람	189
<그림 161> 방과 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190
<그림 162> 방과 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191
<그림 163> 언어권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194
<그림 164>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196
<그림 165> 거주 기간과 한국어 읽기	197
<그림 166> 거주 기간과 한국어 말하기	198
<그림 167> 거주 기간과 한국어 듣기	199
<그림 168> 거주 기간과 한국어 쓰기	200
<그림 169> 거주 지역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2
<그림 170> 다문화 가족 거주 지역	204
<그림 171> 연령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5
<그림 172> 학력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6
<그림 173> 성별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7
<그림 174> 직업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8
<그림 175> 소득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09
<그림 176>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10
<그림 177> 사회에서 한국인과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와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211
<그림 178> 다문화 가족 아동의 한국어 능력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변인들	213
<그림 179>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대화 이해도 관계	215
<그림 180>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이해 정도와 대화 시간	216
<그림 181>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응답자 모어 교육 태도	217
<그림 182> 모어 위상과 한국인과 대화할 때 사용 언어	218
<그림 183> 모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와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	219
<그림 184> 서툰 한국어 사용과 대화 시간	220
<그림 185> 모임 참석 여부와 한국어 습득 의지	221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1.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00년대 초반에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여성 결혼 이민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서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성 결혼 이민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초점이 변화되었다. 결혼 이민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주로 취업, 사회 복지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주제를 연구 초점으로 맞춘 실태 조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결혼 이민자 가족 현황과 가족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 혹은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가족 단위 복지 방안에 초점을 둔 보고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소규모의 표본을 채집하여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서 및 연구 자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2009년 결혼 이민자 1,544,33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 실태 조사 보고서가 나와 다문화 가족의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결혼 이민자 가정이 사회에서 어떠한 언어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받는지 등에 대한 조사, 연구는 국소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한국교육개발원, 2008). 학술지나 기관지, 보고서 등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적응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언어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심층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2009)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힘든 점으로 언어 문제(22.5%)와 경제 문제(21.1%)를 들었다. 결혼 이민자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사용 환경에 대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와는 달리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며 가족을 구성하게 되면서 크고 작게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오늘날 다문화 가족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언어 문화권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특성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특성만큼이나 가정과 사회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태 분석을 시도한 연구 보고서 자료는 정책 수립 시의 기초 자료로 매우 필요하다.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 혹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 및 사용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은 매우 포괄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다문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사회언어학적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 조사 없이 포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제는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에 환경이 어떻게 투영되는지에 대한 기초 실태 조사를 꼼꼼히 하여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은 언어 문화권, 거주 기간, 연령, 학력, 직장, 가족 형태, 농촌과 도시 지역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고려한 기초 표본 조사가 절실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언어 환경과 관련하여 제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언어 환경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태 자료 조사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였다. 출신 국가별, 거주 기간별, 거주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언어 환경에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계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실태 조사는 언어 정책을 펴는 데에 있어서 방만하지 않은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결혼 이민자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사회 차원의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 임신·출산 교육과 자녀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생활 상담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은 주로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을 단편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결혼 이민자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보다 복잡한 사회 언어적 환경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언어는 활발한 상호 작용을 거쳐야 습득이 원활하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는 특히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국어 사용 환경은 다문화 가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변수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혼 이민자 개인만을 보는 연구가 아닌 가족 단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서툰 한국어가 자녀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현재 결혼 이민자의 자녀 연령은 6세 미만인 경우가 66.5%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으로 6세에서 11세로 27.5%, 중학교 취학 연령은 12~14세로 4.6%, 고등학교 취학 연령인

14세에서 17세는 1.4% 수준으로 집계되었다(여성가족부, 2009).

일부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설명에서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유아기·학령기 자녀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업 지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상에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인 어머니가 한국어에 서툰 경우 자녀의 언어 발달에 지장을 주고 언어 장애로 자녀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 기간 동안 필요한 양육이나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일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 조사에서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가정에서 언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양육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010년 한국 사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8만 명에 육박하며 다문화 사회로의 본격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다문화 진전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다문화와의 공존이 초래할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창의성의 측면은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경제적 비용이나, 문화적 갈등 및 사회적 분열 등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도 한국이 안고 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과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국어 사용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 실태를 조사 분석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 확보 및 맞춤형 정책을 개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을 한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 대화 시간, 한국어 이해 정도,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의 언어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둘째, 사회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을 한다.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 및 언어활동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교류하는 외국인과 모국인, 그리고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모임이나 활동 참여 정도, 공공 기관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언어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 셋째,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능력과 다문화 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변인이 한국어 능력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넷째, 다문화 가족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 능력에 대한 기초 조사와 국어 사용 및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을 한다. 다문화 가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 한국어 능력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국어 사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본 연구 조사의 목적이다.

1.1.2 기초 통계 자료 확보

본 연구는 국어기본법 제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국민의 언어 사용 환경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규모의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을 조사·분석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 확보에 목적이 있다. 먼저 언어 문화권, 거주 기간, 연령, 학력, 직장, 가족 형태, 농촌과 도시 지역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 실태를 조사한다. 다문화 가족의 언어 태도, 언어 사용 양상, 언어 기능, 한국어 구문 이해력 검사를 통한 숙달도 분석 등을 통해 한국어 습득 경로와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변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9조(실태 조사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1.3 이론적 배경

2000년대 초반에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다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9년에 이루어진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 실태 조사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가 전국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결혼 이민자의 취업, 결혼 생활 및 가족 관계, 자녀 양육, 건강 및 보건 의료, 사회생활, 복지 욕구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하였다. 이미 발표되었던 기존 연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한국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과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지적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언어적 특성과 관련하여 국소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많은 표본수가 응답한 결과이기 때문에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결혼 이민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한국어 실력을 언어 기능과 연결하여 조사한 결과 말하기, 읽기, 쓰기 세 영역 중 한국어 말하기와 읽기에서 '매우 잘한다.'고 답한 것은 37.3%, 38.0%였고 '매우 서툴다.'는 각각 24.1%, 24.2%로 나타났다. 반면 쓰기는 '매우 잘한다.'가 33.0%, '매우 서툴다.'가 31.6%로 나타난 것을 보면, 쓰기가 말하기나 읽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문화권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캄보디아나 태국 출신 결혼 이민자가 쓰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결혼 이민자의 특성을 지역별, 문화권별로 국소적으로 나누어 조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선정(2007)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453명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지방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표준어보다 방언을 먼저 배워서 사용하고 있고 표준어와 사투리를 구분하여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기능은 체류 기간이 긴 학습자일수록 읽기, 쓰기에 더 관심을

보이고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말하기와 듣기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예절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잘못 습득된 언어 표현이 많고 이 표현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여성들의 경우 조음 방법에 관한 이해가 없어 주로 가정에서 듣고 따라하는 방법만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한 반면 실생활 어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에 대한 지식 없이도 문장을 생성하지만 오류가 많고 대충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정도이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재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나와 있는 교재는 통합 교육에 따라서 지나치게 가정 중심의 상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법 제시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사회언어학적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10년을 거주해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문법적 형태를 갖춘 문장의 사용이나 읽고 쓰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잘못된 어법과 형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심(2007)은 일본, 필리핀 지역에서 온 결혼 이민자가 타 문화권에서 온 결혼 이민자보다 한국어 사용에 능숙하며 자기 문화권에 대한 자부심도 강해 자녀에게 모국어 교육을 매우 강조한다고 밝혔다. 강진숙(2009)은 한국어 사용에 능숙하여 비교적 한국에서의 생활이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발음과 억양의 차이로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 의외로 자존감이 타 문화권의 결혼 이민자보다 낮게 나타나며 표준어를 사용하여 본인의 출신 지역이 표시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답해 이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언을 사용하는 타 문화권 결혼 이민자보다 더욱 표준어 사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김태우(2008)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고, 강현화 외(2008)도 다문화 가정 자녀를 학습자로 제한하고 있는 교재인데 내용을 보면 아동인 자녀와 성인인 이주 여성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황인교(2008)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문화 교육 항목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는데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항목을 초급, 중급, 고급의 수준별로 나누고 범주별로도 나누어 고찰하였다. 범주로는 크게 일상 문화, 예술 문화, 역사, 문학의 네 가지를 나누고 그 각각의 하위 범주 내용을 설정하였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현대와 과거로 나누었다.

결혼 이민자가 한국 문화를 습득할 때 언어 간의 거리(language distance)만큼이나 사회문화적 거리(social distance)도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Ellis(1994)는 새로운 언어문화를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 대화를 무심히 듣는 중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

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의 대화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사용해보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입력에 대한 노출이 많아도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 속에서 언어적 입력이 이해되어야만 비로소 습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결혼 이민자의 언어적 특성을 다양한 언어문화권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연구 보고가 계속 발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중 언어 혹은 다중 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은 다언어 환경에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도 교차적 언어 전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양쪽 언어에 노출된 정도와 능숙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언어 전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어휘의 유창성에 있어 두 언어 중 한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언어 우위 현상은 이중 언어 환경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이해할 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호 혼합 현상은 부모의 입력 패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모의 입력 패턴이 아동 언어 패턴 변수의 8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족 아동들의 30%가 언어 발달 지체를 보이며, 극심한 경우는 장애에 해당된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언어 입력 패턴이 너무나 중요하며 특히 언어 발달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청각적 입력의 양이다. 결혼 이민자 자녀의 경우 언어 습득 시기에 이중 언어에 노출되면 모국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가산적 이중 언어와 언어적 기술이 축진된다는 가산적 이중 언어의 관점을 외국의 사례가 아닌 한국의 언어 환경을 배경으로 분석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가산적 이중 언어자를 배출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경제, 교육, 제도, 연구 지원을 해 왔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한국의 여건에서 가산적 이중 언어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배경 속에서 역시 경제, 교육, 제도, 연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형 다문화 가족 사회 언어 적응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기에 가산적 이중 언어자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다. 오히려 현재는 가산적 이중 언어자가 양성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들어 결혼 이민자 개인을 넘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 특히 자녀의 언어 사용 및 환경에 대해 소규모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2008), 보건복지가족부(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에서 계획하는 '다문화 가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이중 언어 역량 개발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의 언어학자들의 경우 실증적인 실험 연구들을 통해 모어 교육이 다문화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지적 발달이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이중 언어 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다문화 자녀를 위한 모어 프로그램 교육이 두 언어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인지 또한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중 언어 교육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할 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균형 잡힌 이중 언어 교육 환경에서 가산적 이중 언어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라는 기본 전제가 반드시 따른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2006년에는 2만 5천 명, 2007년에는 5만 8천 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14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구가 늘게 되면서 결혼 이민자 개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 연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정정희(2007)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평균 출산율은 2.06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세 미만이 33,140명, 7~12세는 18,691명, 13~15세는 3672명, 16~18세는 2,504명으로 집계되었다. 과거에는 다문화 가족이 일본, 중국 중심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졌다가 이후 필리핀으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로 변화됨에 따라 연령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부모 출신국 또한 바뀌어 가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취학 이전에 가정에서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일반 취학 아동의 한국어 능력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점을 안고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결혼 이주 여성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자녀 출생이 잇따르면서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철호(2008)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맞춤형 언어 교육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기옥(2009)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과 언어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부모와의 상호 작용의 어려움, 준비물 챙기거나 과제 수행하기의 어려움 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한국어는 78% 정도 사용하는 반면 부모의 언어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는 17.3%, 어머니의 언어(외국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소영(2009)은 어머니 혹은 유아의 한국어 능력이 출신국, 거주 기간, 취업 여부, 학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총 71명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하였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조선족, 일본인, 필리핀 순으로 한국어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인과 조선족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언어 능력은 3세경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져 또래보다 언어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성숙(2003)은 어머니 개인 변인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언어 능력 차이에서는 국적, 연령,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머니가 다중, 이중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유아의 언어 능력에서는 수용 어휘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언어 표현에서는 복문보다 단문을 사용하며, 어머니와 모국어로만 의사소통을 한 자녀의 경우 또래와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두 언어에 유창할 경우 아동은 수용 및 표현 언어에서 혼란이나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성배(2007)의 연구에서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에 가면서 학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어휘력,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 변인과 유아의 언어 능력 간에는 어머니의 주사용 언어가 한국어일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동의 언어 능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사용이 능숙한 어머니가 사회문화적 맥락이 고려된 언어 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어 자녀의 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가정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자극이 유아의 언어 발달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잘못된 어법과 형태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더라도 한국어 발음과 어휘력이 능숙하지 못하여 자녀들의 언어 체계 형성에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부분적인 모국어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부분적인 한국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언어생활에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형식을 갖춘 질문이나 고급 읽기, 쓰기 관련 활동에는 매우 취약하여 형식 언어에 관련하여 결손이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이숙영(2000)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머니가 한국어에 서툰 경우 유아는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단문의 사용이 증가하며, 같은

연령의 또래들보다 한국어 수용 어휘가 제한되어 문법 형태소의 기능이나 복잡한 구문 구조를 가진 문장을 이해하는 오류를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김영태, 성태재, 이윤정, 2003).

부모의 양육 방식 및 태도가 다양한 장면에서의 정확한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어휘 확장의 기회, 부모 언어의 질적 수준에 따라 제공해 주는 인지적 정도가 아동의 언어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 보고서 등에서 밝히고 있다.

다문화 융합을 위해 서구에서 펼쳐 온 언어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1965년에서 1984년까지 이주민 자녀 학교 적응을 위한 정보 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 지역 교사들 대상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통합 정책을 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독일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자녀의 학령기 이전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등 언어 지원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특이하게 누리집(홈페이지) 및 정보 제공의 다언어화를 꾀하고 있고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도 다언어로 제공된다. 취업, 생활 민원, 상담, 종합 정보 센터 등 대부분의 공공 기관에서는 다언어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즉 모국어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는 나라와 소수 민족 언어를 지원하는 다언어 수용 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는 나라로 구분될 수 있겠다. 한국의 경우 이민자의 모국어 유지 정책을 고수하며 다문화 통합을 이끌어 낼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한국어 강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통합에 힘쓸 것인지를 선택에 따라 다문화 정책 및 지원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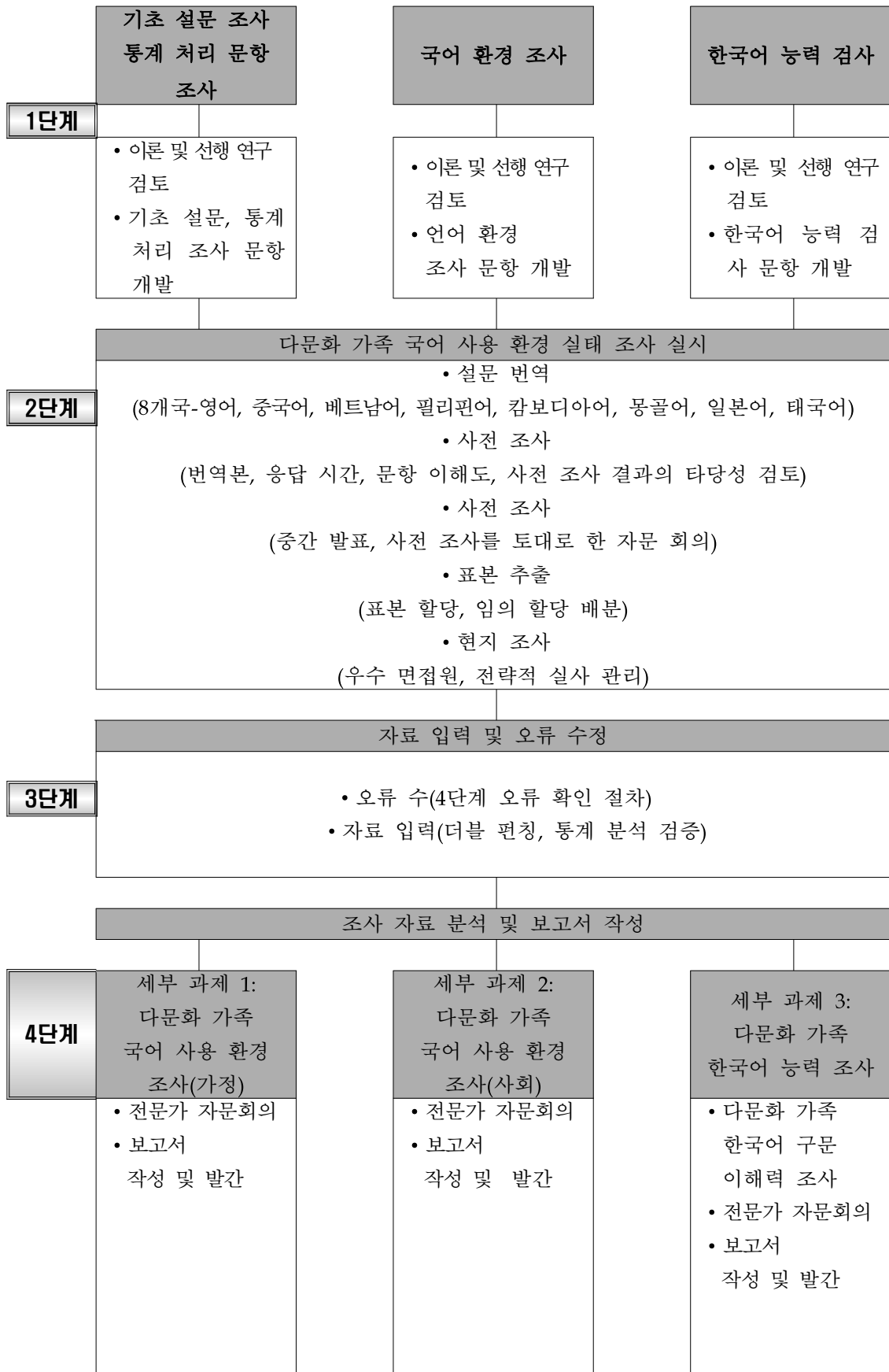
1.2. 조사 개요

1.2.1 조사 과정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조사’ 사업의 계획 수립에서 본 조사 결과 발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조사 방향과 계획, 다문화 가족 선정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1차 자문회의 이후 신뢰도 높은 설문지 개발을 위해 연구진은 많은 참고 문헌과 연구 논문을 살펴보고 항목 개발에 힘썼다.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제 작업과 문항 수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2차 자문회의 이후 사전 조사를 통해 응답자 언어 문화권별 선정의 타당성, 설문 내용 및 구성에 대한 검증은 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3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다문화 가족 표본 설계도를

여러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 번역 및 인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동시에 전국 조사를 위한 조사원 교육도 철저히 진행되었다. 마침내 다국어로 번역된 설문지가 완성되어 다문화 가족 2026명,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배포되었고, 조사 결과를 계량화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조사' 사업의 계획 수립에서 본 조사 결과 발표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진과 조사 전문 업체인 RNR과 협력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추진 과정 일자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조사 실시 계획 보고: 2. 1
- 조사 방향, 내용에 관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 1. 18
- 설문 조사 내용 및 구성에 관한 2차 전문가 자문회의: 5. 2. ~ 4.
- 설문지 개발 : 7. 10.
- 설문지 번역, 인쇄 : 7. 26.
- 조사원 교육 : 7. 26. ~ 27.
- 사전 조사 실시(설문지 배포, 회수) : 7. 25. ~ 8. 30.
- 사전 조사 이후 조사 문항 검토를 위한 3차 전문가 자문회의: 6. 16
- 본 조사 실시(설문지 배포, 회수) : 9. 5. ~ 10. 20.
- 조사 자료 검증 및 전산 입력 : 10. 21. ~ 10. 23.
- 조사 결과 계량화 : 10. 24. ~ 10. 26.
-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11. 19.



1.2.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혹은 혼인 귀화자와 그 자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결혼 이민자 또는 혼인 귀화자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표본 규모는 결혼 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 2026명과 자녀 200명이다.

가. 출신국 분류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몽골, 태국,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기타 11개국으로 분류하였다.

<표 1> 다문화 가족 출신국 분류

위치	국가
동북아시아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홍콩, 기타
남부아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기타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기타
기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기타 다른 국가

※행정안전부가 2010년 1월 발행한 '다문화 가족 관련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나. 출신국별 인원 및 비율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다문화 가족 출신국 분포를 보면 중국이 42.0%로 가장 많고, 베트남(28.3%), 필리핀(8.6%), 일본(4.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태국, 미국,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경우 2% 이하로 다문화 가족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수가 큰 중국, 베트남, 필리핀, 기타의 경우 모집단 규모에 따라 비례 할당을 하였고, 일본의 경우 '어순의 유사성', '한자 문화권'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175명을 임의 할당하였다.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 이민자들은 국가별로 국어 환경 및 언어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최소 분석 단위 30명을 임의 할당하였다.

<표 2> 다문화 가족 출신국별 모집단 현황 (단위: 명, 2010년 1월 기준)

	다문화 가족 수(명)	비율(%)
계	120,918	100.0
중국	50,835	42.0
베트남	34,214	28.3
필리핀	10,382	8.6
일본	5,257	4.3
기타	5,942	4.9
캄보디아	3,309	2.7
몽골	2,591	2.1
태국	2,259	1.9
미국	1,661	1.4
남부아시아	2,343	1.9
중앙아시아	2,125	1.8

다. 지역별 현황

지역별 다문화 가족 거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지역별 다문화 가족 거주 현황 (단위: 명, 2010년 1월 기준)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동남아 기타	기타	캄보디 아	몽골	태국	미국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합계	120,918	50,835	34,214	10,382	5,257	849	5,093	3309	2,591	2,259	1,661	2,343	2,125
서울	18,872	8,591	3,486	1,091	1,335	162	1,678	235	454	335	691	460	354
부산	5,774	2,250	1,849	457	240	59	406	143	48	75	75	82	90
대구	3,952	1,389	1,482	218	170	29	198	130	27	61	69	116	63
인천	7,927	4,697	1,339	456	211	62	275	104	171	184	45	222	161
광주	2,832	1,115	816	346	107	14	90	114	67	51	29	31	52
대전	3,095	1,218	1,038	251	88	21	126	114	41	22	70	27	79
울산	2,533	734	1,197	192	63	10	83	85	65	24	19	21	40
경기	31,104	16,014	6,120	1,980	1,291	261	1,367	509	853	723	440	941	605
강원	3,651	1,226	1,148	553	158	13	88	167	49	81	36	27	105
충북	4,599	1,821	1,451	499	147	17	135	112	193	90	17	48	69
충남	7,165	2,613	2,475	918	258	45	144	237	122	138	31	60	124
전북	5,933	2,223	1,909	851	217	28	86	307	84	73	29	39	87
전남	6,836	1,869	2,501	1,203	354	27	61	377	172	141	17	29	85
경북	7,495	2,220	3,538	606	275	54	144	265	98	115	41	58	81
경남	9,150	2,855	3,865	761	343	47	212	410	147	146	52	182	130

1.2.3 표본 할당 기준 및 배분 방식

본 조사를 위한 표본 할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본 배분은 출신 국가별, 권역별, 거주 기간별로 표본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였다. 다문화 가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변인들로 출신 국가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거주 기간의 차이가 민감하고 중요한 변인이라 고려되어 표본 할당의 주요 기준으로 세웠다. 표본 배분은 출신 국가의 경우 모집단 규모에 따라 비례 할당을 하였고, 권역별 및 시군단위 또한 거주 지역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할당을 하였다. 거주 기간은 4년 이하, 4년 이상으로 일단 균등 할당하였고 조사된 설문 답지의 조사 기간에 따라 2년 이상, 2년에서 5년 사이, 5년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출신 국가 중 일본의 경우 권역별 25명씩 임의 할당 후 타출신국 할당 기준을 적용하여 재분류하였다.

가. 표본 할당 기준 및 이유

할당 기준	이유
출신국	: 출신국 언어가 국어 사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권역	: 전국 조사를 위한 대표성 있는 표본 설정
권역 내 시, 구 및 군 단위 거주 단위	: 거주지 규모 및 환경이 언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거주 기간	: 거주 기간이 국어 습득 및 국어 사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표본 배분 방식

- ① 출신국가 :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할당
- ② 권역별 :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할당
- ③ 시, 구 및 군 단위 : 시, 구 및 군 단위 거주 지역 모집단에 규모에 따른 비례 할당
- ④ 거주 기간 : 균등 할당
- ⑤ 일본의 경우 권역별 25명씩 임의 할당 후 타출신국 할당 기준 적용

다. 성인 표본 규모

다문화 가족을 대표하는 표본 할당은 행정안전부의 다문화 가족 관련 통계 자료를 근거로 출신 국가, 거주 지역, 거주 기간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출신 국가 변인 중 모집단의 비율이 10% 이상인 중국(한족 및 기타), 베트남, 필리핀은 모집단 규모에 따라 비례 할당하였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도 비례 할당하였다. 출신 국가 변인 중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는 모수가 매우 작아서 유의미한 통계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 표본 수를 임의 할당하였다. 중국(한국계)은 모수가 모집단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지만 비교적 한국어가 능숙하여, 다른 출신국과의 비교를 위해 100명을 임의 할당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은 전국 권역 및 도시 규모, 출신국, 거주 기간에 따른 할당 표집을 하였다. 권역, 도시 규모 및 출신국은 모집단 규모의 추정이 가능하므로 비례 할당 후 거주 기간에 따라 균등 할당하였다. 본 조사 비례 할당 표본 설계의 경우 전국 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고른 표집을 위해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사 과정에서 각 항목별로 약간의 미세한 조정을 하더라도 기본 설계 방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표 4. 성인 표본 규모 설계(임의 할당)>

태국	몽골	남부아시아	캄보디아	미국	중앙아시아
30	30	30	30	30	30

<표 5. 성인 표본 규모 설계(표본 할당)>

	중국 (한족및기타)	베트남	필리핀	기타	일본	중국 (한국계)
합계	674	454	138	79	175	100
서울/인천	88	32	10	14	51	12
	88	32	10	14		
부산/울산	20	20	5	3	10	12
	20	21	4	4		
대구	9	10	2	2	6	6
	9	10	1	1		
광주	7	5	3	1	4	6
	8	6	2	-		
대전	8	7	2	1	3	6
	8	7	1	1		
경기_시	103	37	12	10	23	6
	104	38	13	11		
경기_군	2	2	1	1	20	6
	2	2	1	-		
충청_시	18	12	4	1	7	6
	18	12	5	2		
충청_군	11	14	4	1	7	6
	12	14	5	1		
전라_시	18	13	6	1	10	6
	18	14	7	1		
전라_군	9	16	7	1	9	6
	10	15	7	-		
경상_시	27	34	7	3	10	6
	27	35	7	2		
경상_군	7	15	2	1	10	6
	7	15	2	-		
강원_시	5	4	2	1	3	5
	5	5	2	-		
강원_군	3	4	2	1	2	5
	3	3	2	-		

<표 6. 본 조사 성인 표본>

출신국가	중국(한국계)	235
	중국(한족및기타)	528
	베트남	546
	필리핀	258
	일본	236
	태국	39
	몽골	57
	캄보디아	69
	중앙아시아	30
	기타	28

라. 다문화 가족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표본 규정

본 조사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가족 초등학교 자녀 표본 수는 학년별 최소 분석 단위를 40명으로 최저 한계를 두고 총 200명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초등학교 미만인 아동의 경우 설문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고 조사 접근 방법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초로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를 대상으로 삼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부터는 국어 능력과 학습 능력이 결부되면서 아동의 언어 인지력이 일정 수준 이상 발달했을 것으로 예측되어 다문화 가족 성인에게 사용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지를 동일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아동의 경우 사회 생활이 막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3학년생까지로 조사 대상을 좁혔다.

마. 단계별 검증 통계 분석

설문 조사 단계는 4단계 검증을 통해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충실하고 오류나 누락이 없는 답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조사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설문지 에디팅으로 문항 간 논리적 오류 등을 검토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육안으로 보았을 때 누락된 응답 내용이나 문항 간 논리적 오류가 일어났을 경우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담당 감독과 조사 요원의 꼼꼼한 검토가 시행되는 1차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원이 충실하게 설문을 회수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더블 편칭 시스템으로 회수된 설문을 계량 작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한 사람이 조사 결과를 입력할 경우 정확한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인이 조사 결과 입력을 하고 2가지 입력 결과를 전산으로 비교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하여 바로 잡는 과정을 거쳤다. 입력 과정에 있어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더블 편칭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통계 분석 검증 단계로 다시 4단계에 거쳐 정확한 분석을 끌어내었다. 오류 유형별 사례 수를 분석하여 이유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체 결과를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특별히 심층적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를 범주화하여 통계 정보를 제공하였다.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고 36단계로 구체화하여 최종 분석단계로서의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였다. 조사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진행 사항 및 진행 절차를 기록 및 점검하고 통계 목록을 작성하여 끊임없이

조사 결과 시스템 분석 과정에서 생길 오류를 방지하였다.

전문 실사 요원과 전문 통계 분석 요원 간의 긴밀한 협력 아래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다. 응답자별 응답 내용을 수시로 검증하여 면접원의 신뢰성에 대한 검정 작업을 수시로 하였다.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문항별 항목화 작업도 병행하였다. 척도 문항 분석 처리를 통해 응답이 중복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편칭 데이터 변환 기능을 분석 시 사용하며 분석된 결과를 통계 테이블 보고 기능으로 전환하여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유의성 검정(비율 검정) 기능, 통계표 프린팅 기능도 보고서 분석 시 사용하였다.

바. 통계 해석 시 유의 사항

본 조사에서 남성, 20대 미만 배우자, 힌두교, 이슬람 종교 신자 등은 사례의 수가 매우 적어 해석할 때에 주의를 요한다. 무응답 변인은 비율을 계산할 때에 결측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출신국별로 결혼 이민자들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설문 문항 전체 또는 특정 문항에서 일부 국가 출신 결혼 이민자들에서 무응답 값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3 조사 도구 개발

1.3.1 설문 조사 문항 개발 틀

가. 설문지

문항 개발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고 사전 조사까지 모두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설문 조사 문항 개발을 위해 힘썼다. 일반 사항 4개 문항은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 변수 분류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항목으로 설정하여 설문 시작 전 분류용 질문으로 설문 구성상 가장 상단에 제시하여 질문하였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가족과의 거주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여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는 설문에 응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출신 국적, 거주 지역,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앞서서도 밝혔듯이 모수 추정 과정의 필수 변인으로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 가장 앞부분에 제시하여 자료 입력

시 분류 작업을 쉽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중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활동에 관한 질문으로는 가족과의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정도, 가족과의 대화 시간, 자녀의 양육 시설 이용, 자녀와의 의사소통 등으로 상위 질문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질문을 하위 요소로 넣었다. '사회'에서의 언어 사용 활동에 관한 설문은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의 대화 시간, 한국에서 알고 지내는 한국인, 모국인, 외국인과의 대화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공공 기관 방문 시 사용하는 언어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언어 태도 및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모어에 대한 태도, 위상, 교육 의지 등에 대한 질문과 TV 시청, 라디오,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항목도 첨부하였다. '한국어 교육' 관련 사항으로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학습 경험 등에 대해 질문하고 네 가지 언어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부분	내용
일반 사항	① 가족과의 거주 여부 ② 출신 국적 ③ 거주 지역 ④ 한국 거주 기간
국어 사용 환경 (가정)	① 가족과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 ②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정도 ③ 가족과의 대화 시간 ④ 가족 관련 문항-함께 살고 있는 가족,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 가족과 주로 사용하는 언어(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가족, 의사소통이 힘든 사람 등) ⑤ 자녀 양육 ⑥ 미취학 자녀만 있는 경우: 미취학 자녀의 양육자 및 시설 이용 현황-어린이집 이용 유무,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가족 등 ⑦ 초등 자녀만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자녀 양육-초등자녀를 돌보는 가족, 과제 확인 가족 ⑧ 미취학 자녀와 초등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미취학 자녀 및 초등학교 양육-자녀 양육, 과제 확인 ⑨ 자녀와의 의사소통-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응답자 모어 교육 이유, 모어 교육의 어려움 등
국어 사용 환경 (사회)	① 하루 동안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이야기하는 시간 ② 현재 한국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한국인, 모국인, 외국인 ③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한국인, 모국인, 외국인 ④ 모임이나 활동 참여 정도-가족, 친척, 모임 참여,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지역 친구 모임 참여, 학부모 모임 참여 등

	⑤ 공공 기관 방문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은행, 우체국, 학교, 시장, 마트, 백화점, 주민 센터, 마을 회관
언어 태도 및 환경	① 모어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② 언어 사용 태도 및 방언 사용 여부-한국어 필요성, 미숙한 한국어 사용에 대한 태도 ③ TV 시청 시간 ④ TV 시청 프로그램 ⑤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간 ⑥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 ⑦ 모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간 ⑧ 모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 ⑨ 라디오 청취 시간(한국어) ⑩ 신문이나 잡지 구독(한국어)
한국어 교육	①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배운 경험 ② 한국에 있는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 ③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 ④ 한국에서 한국어를 교육 받은 기관 ⑤ 방문 교사의 한국어 수업 ⑥ 한국어 읽기 능력-간판 읽기, 메모나 안내문 읽기, 편지, 설명서 읽기, 신문이나 잡지 읽기 ⑦ 한국어 말하기 능력-일상 대화 말하기, 설명하기, 연설, 토의, 통역하기, ⑧ 한국어 듣기 능력-간단한 문장 듣기, 일반적인 대화 내용 이해하기, 광고, 인터뷰, 일기 예보 듣기, 뉴스 듣기 ⑨ 한국어 쓰기 능력 -사물, 이름, 위치, 숫자 쓰기, 편지, 일기, 게시문 쓰기, 일반적인 사항 쓰기, 전문적인 회의 개요 쓰기 ⑩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경우
통계 처리 문항	① 성별 ② 본인 나이 ③ 배우자 나이 ④ 종교 ⑤ 본인 직업 ⑥ 배우자 직업 ⑦ 본인 학력 ⑧ 배우자 학력 ⑨ 연 평균 가구 소득

나. 한국어 능력 검사

한국어 능력 검사 문항은 총 16문항으로 내용은 1개의 개방형 질문과 15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문	내용
쓰기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
유의어 문제 (TOPIK 초급 문제)	1. 가: 다음에 만나요. 나: 네, 또 (). ① 가요 ② 봐요 ③ 사요 ④ 써요
유의어 문제 (다문화센터 성취도 평가 시험 3급 문제)	2. 엄마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① 궁금해요 ② 답답해요 ③ 당황해요 ④ 지루해요
유의어 문제 (TOPIK 고급 문제)	3. 잘 팔리는 것을 보니까 그 소설은 재미있는 것이 틀림 없다. ① 특별하다 ② 당연하다 ③ 정확하다 ④ 확실하다
유의 표현(연결 어미) 문제 (TOPIK 고급 문제)	4. 김 감독의 이번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에게서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 ① 성공하고서도 ② 성공한 까닭에 ③ 성공하더라도 ④ 성공할 바에야
통사 구조(조사) 문제 (TOPIK 초급 문제)	5. 어제 선물() 받았습니다. ① 이 ② 에 ③ 으로 ④ 을
통사 구조(조사) 문제 (TOPIK 초급 문제)	6. 가게에서 우유() 빵을 삽니다. ① 는 ② 의 ③ 하고 ④ 에게
문장 연결(연결 어미) 문제 (다문화센터 배치고사 3급 문제)	7. 제 동생은 고집이 조금 () 정말 마음이 따 뜻해요. ① 세기는 하지만 ② 크기는 하지만 ③ 강하기는 하지만 ④ 무겁기는 하지만
문법 범주(시제 어미) 문제 (TOPIK 초급 문제)	8.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일요일에 (). ① 공부해요 ② 공부했어요 ③ 공부하겠어요 ④ 공부할 거예요
문장 연결(연결 어미) 문제 (TOPIK 초급 문제)	9. 가: 지금 뭐 해요? 나: 음악을 () 청소를 해요. ① 들으면 ② 들어도 ③ 들으면서 ④ 들으니까
TOPIK 중급	10. 가: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 버스를 타고 () 깜빡 잠이 들어서 정류장을 지나 쳤어요. ① 오려면 ② 오기로 ③ 오던데 ④ 오다가
문법 범주(시제 및 양태 어미) 문제 (다문화센터 배치고사 3급 문제)	11. 가: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나: 아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문화센터에서 (). ① 배우는군요 ② 배워도 돼요. ③ 배우기로 했어요 ④ 배운 적이 있어요
문장 연결(연결 어미) 문제	12. A: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준 숙제 다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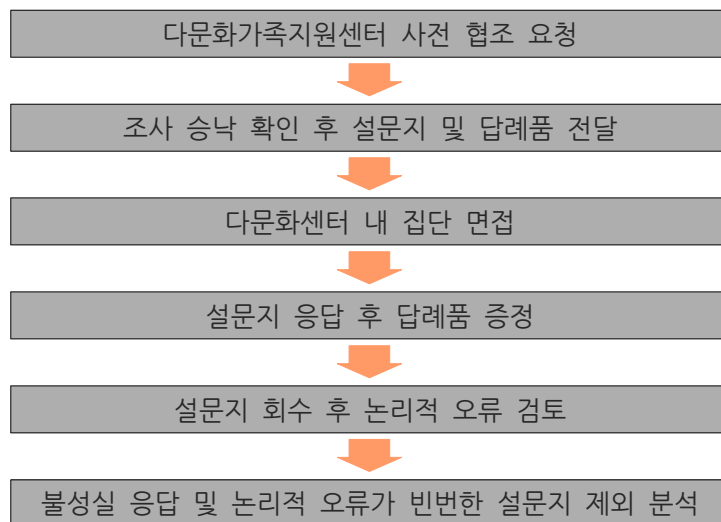
(TOPIK 중급 문제)	B: 아니요, 이 책을 () 하려고요. ① 읽고 나니까 ② 읽고 나서 ③ 읽고 나도록 ④ 읽고 나느라고
문법 범주(양태 어미) 및 담화 지식 문제 (다문화센터 배치고사 4급 문제)	13. 가: 병원에는 무슨 일로 가요? 나: 아버님이 입원하셨어요. 가: 그래요? _____. ① 걱정해야지요 ② 걱정되지겠어요 ③ 걱정하더라고요 ④ 걱정하는 중이에요
문법 범주(양태 어미) 및 담화 지식 문제 (다문화센터 배치고사 4급 문제)	14. 가: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나: _____.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① 잘하기는요 ② 잘한다던데요 ③ 잘한다고 봐요 ④ 잘하기는 어려워요
문법 범주(양태 어미) 및 담화 지식 문제 (다문화센터 성취도 평가 4급 문제)	15. 가: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낮에 너무 피곤해요. 나: _____ 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 드릴까요? ②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실까 말까 해요. ③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게 나아요. ④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 보지 그래요?

1.3.2 사전 조사 결과 분석

사전 조사 설계 표본은 130 표본으로 한국계 중국인 30명, 한족 등 중국인에 해당하는 20명, 베트남 20명, 필리핀 20명, 일본 20명, 기타 지역 20명의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효 부수는 총 164 표본으로 한국계 중국인 30명, 한족 등 중국인 20명, 베트남 37명, 필리핀 14명, 일본 14명, 기타 5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다. 사전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은 출신국별로 임의 할당을 하였다. 사전 조사는 두 군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집단 면접을 통해 자기기재식 설문 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RNR 면접원과 숙명여자대학교 연구 보조원이 공동으로 설문 조사 작업을 도왔다. 사전 조사는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23일에 걸쳐 시행되었다.

설문 개발은 오랜 시간을 공들여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언어로 구성된 설문 내용은 그 번역이 비교적 잘되어 깔끔하게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작성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 시간은 30분 정도가 소

요되었다. 다문화 센터에서 여러 단체로부터 설문 조사 요구가 너무 많고, 센터에서 외부인과 다문화 가족이 접촉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원활한 설문 조사를 위해 공문 협조를 요청하였다. 번역된 설문지 이외에도 한국어로 된 설문지도 같이 전달하여 설문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설문 조사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사전 조사는 다음과 같은 실사 진행 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설문 문항 수정 보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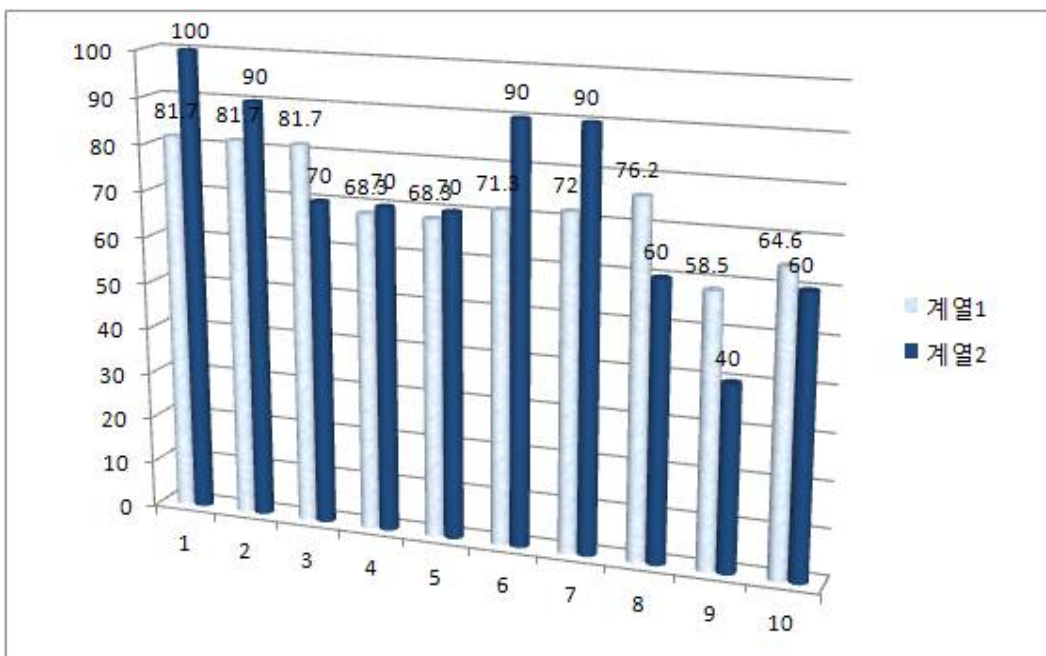
수정 보완이 필요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 문항 11의 경우 결혼 이민자 나라말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문구를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였다. 문항 DQ5는 통계 처리 문항으로 ⑦ *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에서 학원 강사 문구 삭제 검토하였고 ④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숙련 공장 노동자 등) ⑤ 단순 노무(미숙련 공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육체 노동자) 중 두 항목 구별이 어렵다는 응답자가 있어 문구를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로 조정하였다. 문항 14-3의 경우 '자녀의 학교'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자녀 학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모름이나 무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던 문항은 DQ9 통계 처리 문항으로 연 평균 소득에 대한 질문, 문항 20의 인터넷 이용 이유나 모어 인터넷 이용 시간(29.3%, 20.7%), 문항 22 한국어 인터넷 이용 이유(19.5%), 한국어 인터넷 이용 시간 '모름/무응답(29.3%)'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인터넷이란 개념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2배 가까이 무응

답으로 답해 이런 해석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무응답 비율이 타 문항에 비해 높았으나 결과가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여 문항 수정을 하지 않았다. 문항 23은 라디오 청취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 '모름/무응답(31.1%)'로 나왔다. 라디오를 청취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듣지 않는다.'라는 선택 응답을 추가하였다. '읽지 않는다.'라는 보기가 있는 24번 문항은 '모름/무응답' 비율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선택 응답을 추가하였다.

나. 한국어 능력 검사 수정 보완 사항

구어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쓰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문장으로 답하기보다는 단어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동의 경우 단답형으로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는 취미가 여행합니다.(베트남)라고 답을 하는 응답자도 있었지만 '드라이브'(일본)라고 간단한 단답형으로만 답을 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많은 양의 선택형 질문에 답한 후 개방형 질문에 답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였고 답변 또한 매우 산발적으로 나타나 개방형 문항 숫자를 줄이게 되었다. 선택형 10문항에 대한 성인과 아동의 간단한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적절히 조정되어 있어서 많지 않은 문항이지만 응답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 한국어 능력 검사 사전 조사 결과>



계열1: 아동, 계열 2: 성인

1.3.3 문제점

설문지 내용 구성은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성 단계가 쉽지는 않았다. 연구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언어적 특징보다는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것이므로 설문 내용이 이를 위한 조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전체 목적은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설문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했기 때문에 설문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표본 수도 크고 조사 대상 범위도 넓은데다가 여러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설문지 내용 수정 보완 작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체 연구진이 워크숍 형태의 모임으로 문항 하나하나 같이 읽어 내려가며 설문 내용을 수정하고 통일하는 작업을 거쳤다. 완성된 설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충분히 문항별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증해 본 후 전국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대상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하나의 예로 직업 분류도 다문화 가족 특성에 맞게 재분류하였다. 한국의 표준 직업 분류 체계를 무작정 따른 것이 아니라 응답자 특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것이다.

설문 형식 과정에서 설문 응답 시간, 한국어 능력 검사 시간 등도 모두 고려하여 너무 많은 설문의 양과 검사 질문으로 응답자가 위축되거나 지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솔직한 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조사 내용 중 하나의 항목을 제시 문항 한 개로 응답하도록 하지 않고 심층 조사를 위해 하위 항목 구성을 많이 추가하였다. 문항 설계 과정에서 문항들은 내용상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영역별 분석이 유의미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되 문항 배열 순서는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여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순서를 구성하였다. 11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번역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쉬운 표현을 쓰기 위해 문장 수정 또한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국어 능력 검사 문항은 처음에는 구문 이해력과 어휘력 검사 문제로 나누어 시행해보려 했으나 설문 문항 자체도 많은데 검사 문제까지 너무 많으면 응답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어휘 검사의 경우 문항의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아 구문 이해력 중심으로 검사 내용을 좁혔다. 소량의 문제로 효율적으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출제된 한국어능력시험 문제 내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배치 평가 때 사용한 문법,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등의 문제 자료를 검토 분석한 것을 근간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시험의 난이도도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사용하는 배치 평가 1급과 2급 수준의 문제를 많이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검사 문제를 쉽게 풀어 내려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

국어 능력 검사만으로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의 언어 능력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기
능별 언어 능력에 대한 항목을 설문 구성 중 한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말하기, 듣
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수행 능력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한
국어 능력에 대한 단계별 평가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하여 본 조사 실시 후 이 두 항
목 간의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문항 설계를 하였다.

표본 설계 또한 설문 내용 구성 못지않게 오랜 시간 논의하였다. 한국계 중국인
을 제외한 다문화 가족 출신국 분포를 보면 중국이 42.0%로 가장 많고, 베트남
(28.3%), 필리핀(8.6%), 일본(4.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태국, 미국,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경우 2% 이하로 다문화 가족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표본 할당만으로 표본 설계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모수가 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모집단 규모에 따라 비례 할당을 하였고 일본의 경우 모수
를 조정하지 않으면 역시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일정수를 임의 할당하였다.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등의 경우 최소 분석 단위인 30
명씩을 임의로 할당하는 등의 조정 작업을 하였다. 중국 출신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과 한족을 분리하여 표본 집단 설계를 하였다. 비례 할당과 임의 할당을 병행하
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 또한 오랜 시간동안 다문화 가족 인구 분석 자료와 여러 자
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근간으로 깊이 고심하여 표본 설계를 하였다.

거주 지역을 나누는 단위로 광역시와 도의 일반시를 함께 묶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서도 검토하였다. 광역시와 도 단위의 중소 도시를 같은 집단으로 묶는 문제는 심각하
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었다. 광역 도시와 지방 도시는 다문화 가족에게 환경적인 면에
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교육 기관의 접
근성이나 생활환경에서 오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초기에 구상한 거주 지역 분류
도 수차례 논의와 사전 조사 결과 검토를 통해 거주 지역을 현실성 있게 재분류하였다.

설문 조사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크고 작은 설문 조사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상태여서 본 조사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는가가
큰 문제였다. 결혼 이민자 모수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
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조사 표본 설계가 지역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센터 규모
가 그 지역 결혼 이민자 모수와 일정 부분 일치하고 있어 표본 설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 센터의 협조¹⁾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어원
에서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고 다행스럽게 매우 성실하게 응답자들이 설문
조사에 응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유출해 낼 수 있었다.

1)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에 감사드린다.

1.4. 성인 표본 기초 인구학적 조사 분석

1.4.1 한국어 능력 검사

한국어 능력 검사에서 70점 이상 나온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7.1%를 차지했다. 90점 이상의 고득점 분포를 차지한 언어 문화권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일본(62.7%)과 한국계 중국(55.7%) 출신이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일본과 한국계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한 경우는 몽골(45.4%)에서 온 응답자로 나타났다. 30점 미만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를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필리핀(21.3%)과 기타 지역(21.4%)에서 온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SUMS).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는 고득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 90점에서 100점 사이를 받은 응답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도 비례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SQ4).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와 직업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아질수록 '전업 주부'의 비율은 감소했으며 '전업 주부'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한국어 능력 검사가 90~100점인 경우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10.7%)'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가 능숙할수록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DQ5).

1.4.2 거주 지역

응답자 변인에 따른 거주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광주(12.4%) 지역에, 태국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충청군(23.1%)에, 몽골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전라군(28.1%)에, 중앙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경상군(16.7%, 25.0%)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여 살고 있는 응답자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다. 대전에는 베트남(39.1%)에서 온 응답자가 특히 많이 거주했고, 인천에는 중국(50.5%)에서 온 응답자가 많이 거주했다. 광주에는 필리핀(35.6%)에서 온 응답자가 많이 거주했으며, 경기군 단위에는 일본(42.0%)에서 온 응답자가 많이 거주했다(표 SQ2,3).

서울, 경기군, 충청군, 강원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주, 경기도, 충청시, 전라시, 강원시의 경우 거주자하는 응답자들의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충청군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대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경기도, 강원시, 강원군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의 연령에 따른 응답으로 울산과 충청군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수가 증가했지만, 서울, 경기도, 강원시, 강원군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수가 감소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응답자가 특히 경기도(33.3%)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SQ3).

전라도 군 단위의 경우 거주 기간 2년 미만에서 10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응답자 분포가 있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자 분포가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표 SQ4).

전국적으로 응답자들의 소득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지역은 시 군 단위에 따른 소득 격차가 타 지역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시의 경우 '1000만 원 미만(26.8%)'의 저소득 가정이 유독 많이 나타났다(표 DQ9).

거주 지역과 직업과의 관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직업이 전업 주부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직업이 전업 주부라 답한 경우는 서울(75.3%)이 가장 많았고 전라도 군 단위(57.5%)에서 전업 주부라 답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 울산(13.6%)의 경우 응답자의 직업이 '전업 주부' 다음으로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DQ5).

1.4.3 거주 기간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전체 응답 중 '2년~5년 미만(30.3%)'이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18.7%)'이 가장 적었다. '2년 미만'이라 답한 경우는 베트남(39.0%)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으며 '2년~5년 미만'이라 답한 경우는 캄보디아(63.8%)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고, '5년~10년 미만'이라 답한 응답자는 태국(41.0%)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고, '10년 이상'이라 답한 경우는 일본(35.1%)과 중국계 한국인(22.7%)로 나타났다 (표 SQ4).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가장 많이 답한 응답자의 경우 인천(41.2%)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년~5년 미만'이라고 가장 많이 답한 응답자의 경우 서울(35.7%)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5년~10년 미만'이라고 가장 많이 답한 응답자는 대전(28.3%)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충청군(30.7%)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자의 연령대도 비례적으로 높아졌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 주부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했으며 그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다(SQ4). 또한 응답자들은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반적으로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아졌다(표 SUMS).

1.4.4 성별

성별의 차이는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전업 주부(68.9%)'가 가장 많았지만, 남성 응답자의 경우 '판매/서비스직(23.5%)'이나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23.5%)'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표 SUMS).

여성 응답자 분포를 보면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가 많았고, 남성 응답자의 경우 일본(23.5%)에서 온 결혼 이민자가 특히 많았다(표 SQ2). 남성 응답자의 경우 '판매/서비스직(29.4%)'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DQ6). 남성의 응답자의 경우 '대학교(47.1%)' 졸업 학력자가 가장 많았지만 여성 응답자의 경우 '고등학교(47.1%)' 졸업 학력자가 가장 많았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연소득이 '3000만 원 ~ 4000만 원 미만(23.5%)', '4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23.5%)'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1000만 원 ~ 2000만 원 미만(30.3%)'이라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DQ7).

1.4.5 직업

응답자들이 '사무직(61.1%)'에 종사하는 경우에 응답자들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뛰어나게 높았다(표 SUMS). 응답자의 직업이 '사무직, 노무직, 농업/어업/임업'의 경우 전라군의 경우 다양하게 집중된 분포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직업 또한 '농업/어업/임업'인 경우 전라군에 거주하는 많은 응답자가 이에 속하였다(표 SQ3). 출신 국가에 따른 응답으로 '전업 주부'가 가장 많았지만 이례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20.0%)'가 직업인 경우가 전업 주부 다음으로 많았다(표 DQ5).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21.5%)'이 가장 많았고,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3.0%)'가 가장 적었다. 베트남, 태국, 몽골에서 온 응답자의 배우자의 직업은 '단순 노무(27.5%, 28.2%, 28.1%)'가 가

장 많았고, 캄보디아,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의 배우자의 직업은 '판매/서비스(20.3%, 26.7%)'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 지역에서 온 응답자의 배우자의 직업은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군, 강원군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배우자의 직업은 '단순 노무(20.8%, 24.0%, 22.5%)'가 가장 많았고, 충청군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배우자의 직업은 '전업 주부(18.7%)'가 가장 많았으며 경상군, 전라군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배우자 직업은 '농업/어업/임업(21.6%, 25.6%)'이 가장 많았다(표 DQ6).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직업이 전업 주부라 응답한 경우는 감소하여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12.3%만이 전업 주부로 종사하고 그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SQ4).

응답자의 직업이 '농업/어업/임업'의 경우 배우자의 직업은 '전업 주부(46.9%)'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직업이 '노무직'인 경우 배우자의 직업은 '판매/서비스(23.7%)'가 가장 많았다(표 DQ5).

1.4.6 종교

응답자들은 '불교'를 믿는다거나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불교 신자는 베트남(49.7%)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고, 천주교 신자는 필리핀 (68.2%)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고, 기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일본(50.0%)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다(표 SQ2).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 응답자의 경우 '판매/서비스업'(10.5%)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DQ5). 힌두교와 이슬람교 신자라 답한 경우 대학교(100.0%, 50.0%) 졸업자가 많았다(표 DQ7). 기타 종교(47.3%)나 기독교(36.4%)를 믿는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았으며 천주교 (22.4%)를 믿는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낮았다(표 SUMS).

1.4.7 연령

응답자의 연령이 '20대 미만'인 경우 배우자의 직업은 '단순 노무(23.9%)'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무 직업'과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직업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 직업과 '단순 노무' 직업 그리고 '무직 및 기타 직업'의 비율이 증가했다(표 DQ6).

서울, 경기군, 충청군, 강원군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수가 증가했는데, 광주, 경주시, 충청시, 전라시, 강원시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수가 감소했다(표 SQ4).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미만'의 경우 '베트남(49.4%)'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고, '30대'의 경우 '중국(37.7%)'에서 온 경우가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일본(40.1%)'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다(표 SQ2).

1.4.8 학력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온 응답자의 수가 감소한 반면 필리핀에서 온 응답자의 수는 증가했다. 배우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표 SQ2). 필리핀, 일본, 몽골,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출신 응답자의 경우 '대학교(46.9, 54.2%, 54.4%, 43.3%, 50.0%)'를 졸업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표 DQ7). 본인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경상군(19.2%)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전라군(22.0%)에 많이 나타났다. 경기, 충청, 전라, 강원 지역의 경우 시 군 단위에 따라 거주하는 응답자의 학력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SQ3).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업 주부의 비율은 감소했다.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직업은 '사무직',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직의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배우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무직',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표 DQ5).

'연 4000만 원 이상'의 연평균 가구 소득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중국계 한족(41.5%)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연 2000만 원 미만'의 낮은 가구 소득이 있다고 한 경우는 베트남(31.1%)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다(표 SQ2).

제2장 가정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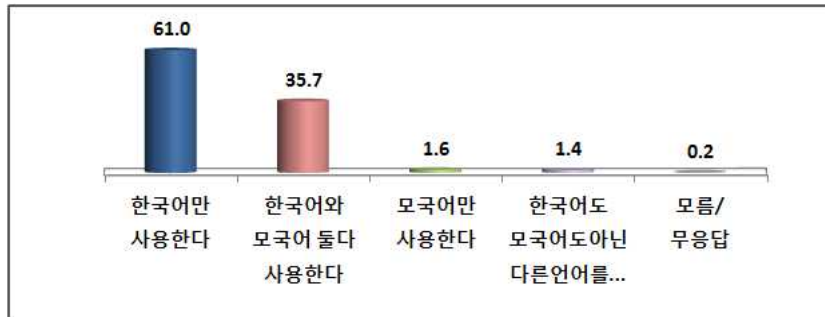
2장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과 대화할 때에 사용 언어,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정도, 대화 시간, 자녀 양육, 미취학 자녀 아동 양육, 초등 자녀 양육, 과제 확인, 의사소통 어려움, 모어 교육 등에 관련한 설문 조사를 하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2.1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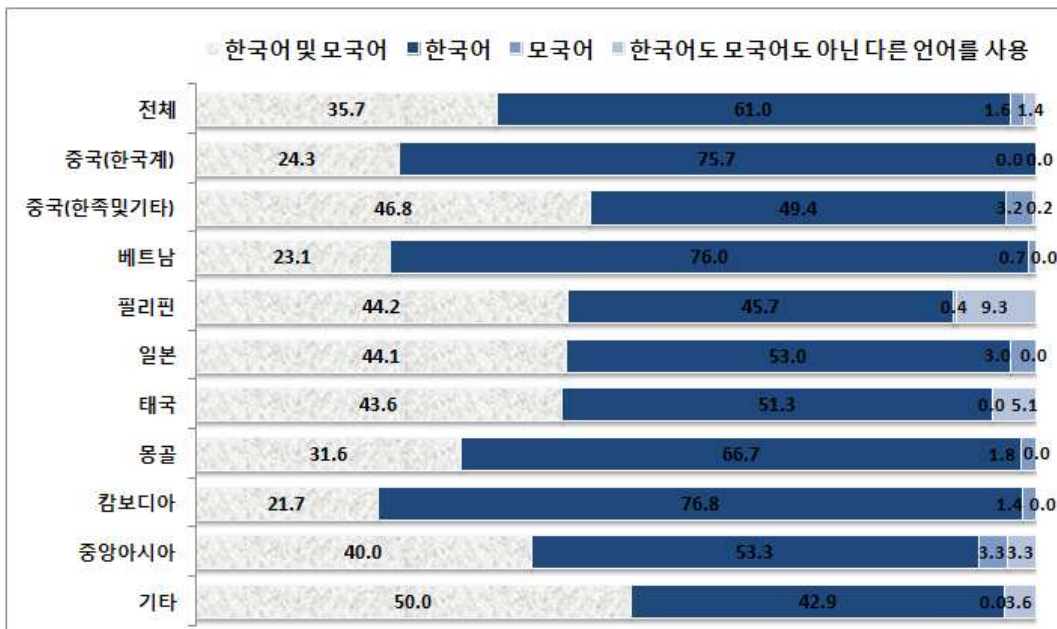
1)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하는 언어

-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한국어만 사용한다(61.0%).’ ‘한국어와 모어 둘 다 사용한다.’, ‘모어만 사용한다(35.7%).’, ‘한국어도 모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1.4%).’, ‘모름/무응답(0.2%)’ 순으로 답함.
-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한국어만 사용한다(76.0%, 76.8%).’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이 경기 군 지역인 경우 ‘한국어와 모어를 다 사용한다(50.0%).’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지역, 충청 지역, 전라 지역, 강원 지역의 경우, 시 군 단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짐.
- 2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에 비해 2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한국어만 사용한다.’라는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함.
- 응답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이 농업/어업/임업인 경우 ‘한국어만 사용한다(79.7%, 77.9%).’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국어와 모어를 다 사용한다.’, ‘모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도 모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증가하였으나,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은 감소함.
- 배우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국어와 모어를 다 사용한다.’, ‘모어만 사용한다.’의 비율이 증가했고, ‘한국어만 사용한다.’라는 응답은 감소함.
- 배우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국어와 모어를 다 사용한다.’와 ‘모어만 사용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감소했고 ‘한국어만 사용한다.’라는 비율은 증가함.
-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인 경우가 ‘한국어만 사용한다(61.2%).’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 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어와 모어를 다 사용한다.’가 많았고, ‘한국어만 사용한다.’의 응답은 감소함.
- 한국어 능력 검사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국어와 모어 다 사용한다.’는 응답은 감소했고,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은 증가함.
- 소득, 학력이 높을수록, 시 지역일수록 모어 사용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응답자의 가족들이 이주민의 언어를 배려하고 배워서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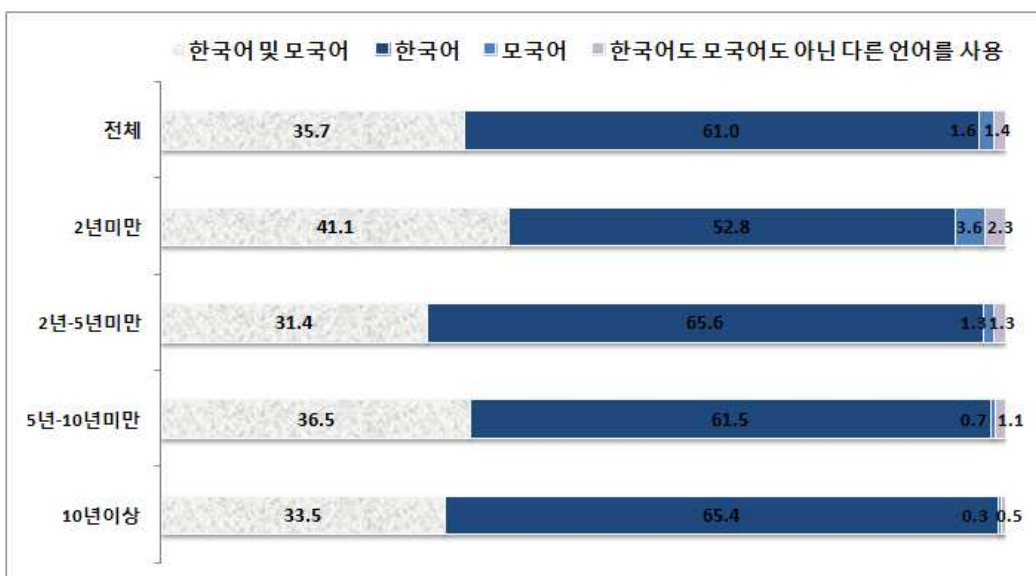
<그림 2>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하는 언어>



<그림 3>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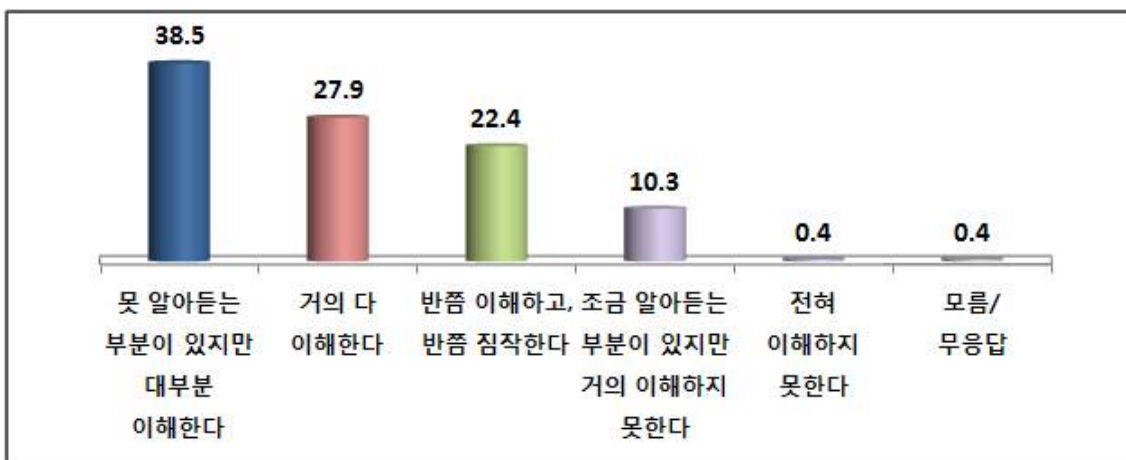
<그림 4>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하는 언어-거주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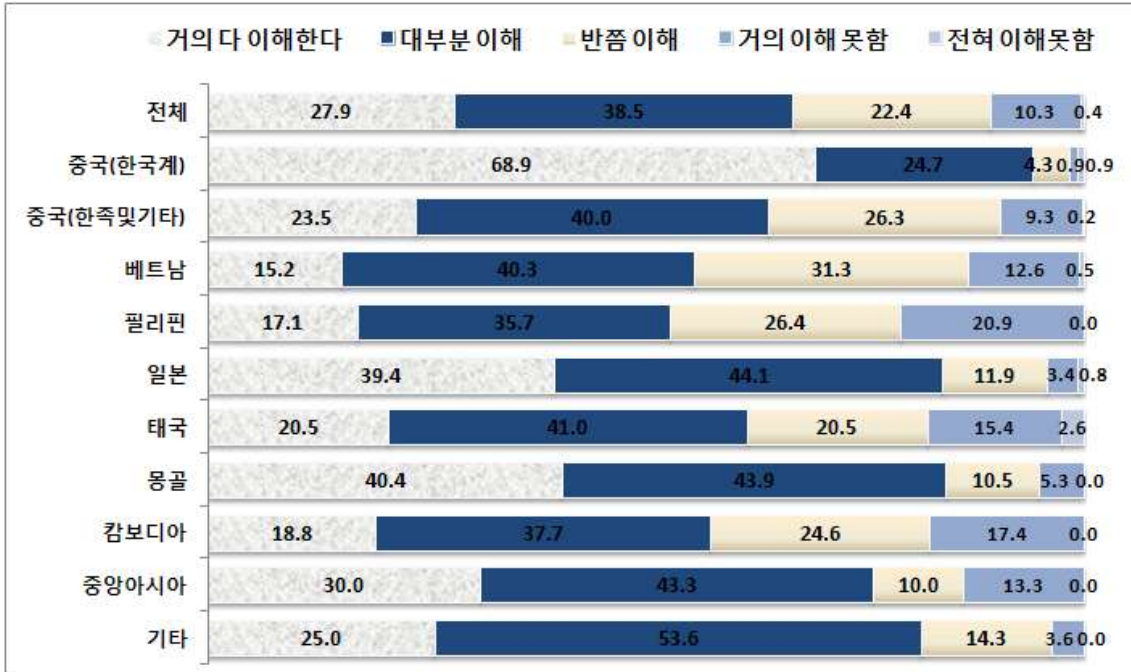
2)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수준

-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38.5%).’가 가장 많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0.4%).’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적었음.
- 한국계 중국인은 ‘거의 다 이해한다(68.9%).’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는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 대전, 전라 군 지역과 강원 군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거의 다 이해한다(37.0%, 39.6%, 35.2%).’가 가장 많은 반면, 충청 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반쯤 이해하고 반쯤 짐작한다(43.6%).’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반쯤 이해하고 반쯤 짐작한다(42.4%).’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된 응답자의 경우 ‘거의 다 이해한다(57.8%).’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거의 다 이해한다(41.2%).’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성인 경우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38.6%).’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의 다 이해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증가했고, ‘반쯤 이해하고 반쯤 짐작한다.’와 ‘조금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크게 감소함.
- 기독교 신자의 경우, ‘거의 다 알아듣는다(40.5%).’라는 답이 유독 많았음. 이는 기독교 신자가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아질수록 ‘거의 다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고, ‘반쯤 이해하고 반쯤 짐작한다.’와 ‘조금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함(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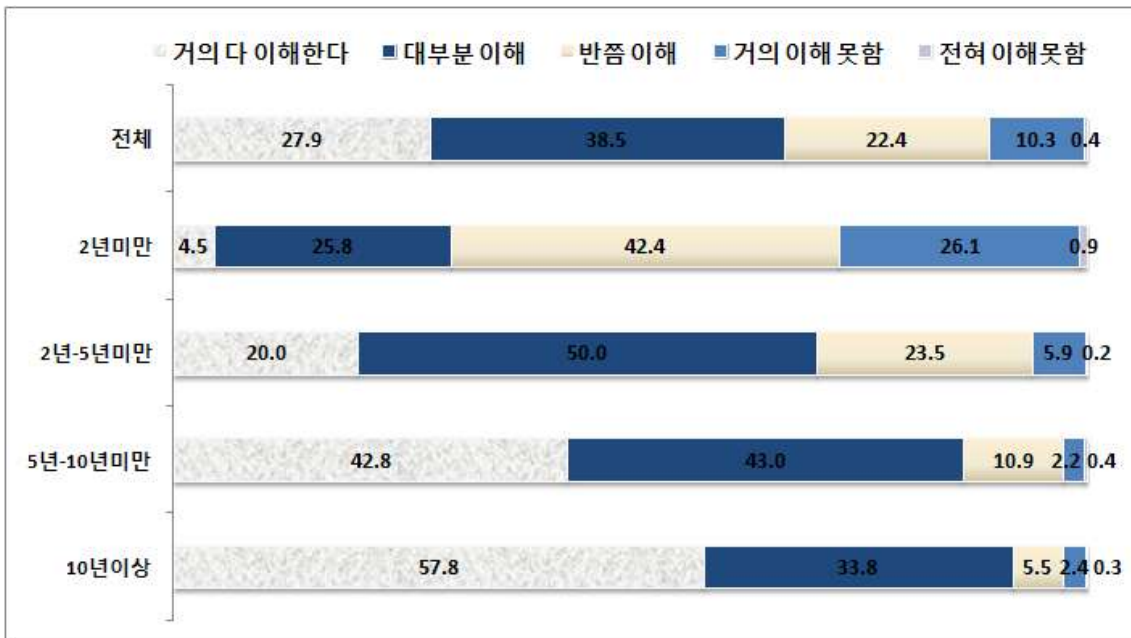
<그림 5>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수준



<그림 6>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수준-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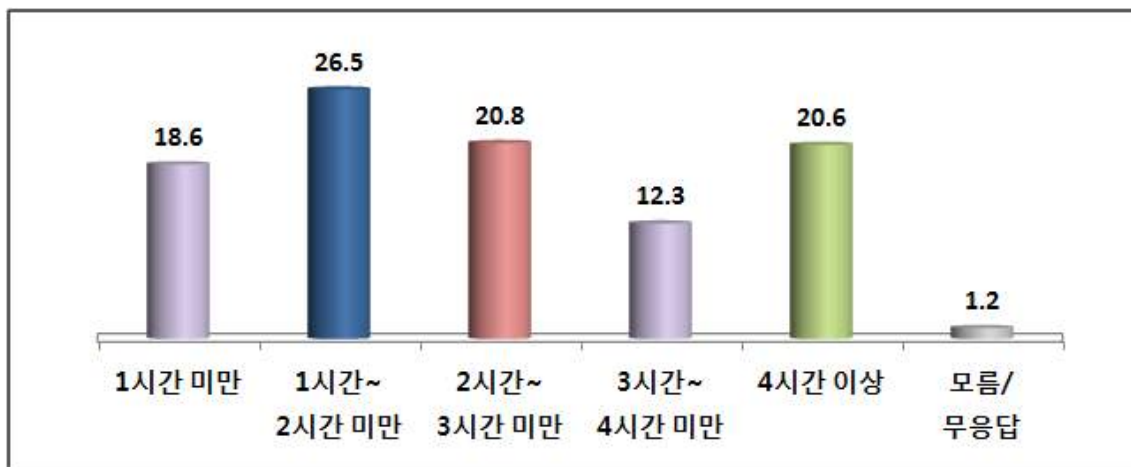
<그림 7>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의 이해 수준-거주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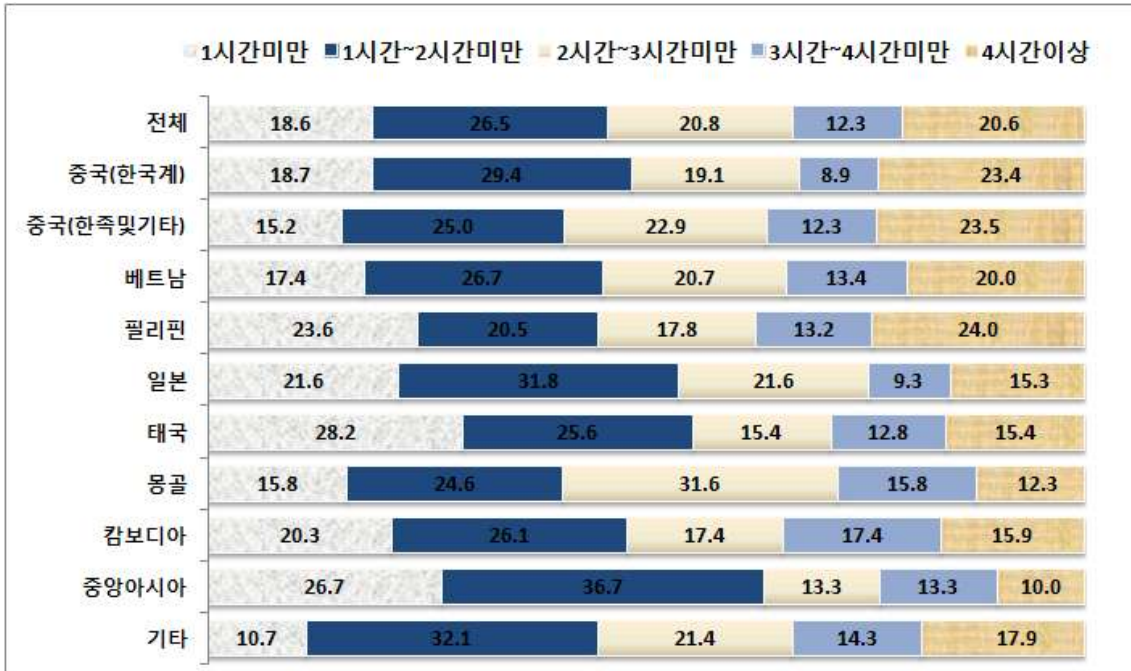
3)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하루에 가족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26.5%)'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가족과의 대화 시간에 대해 전라 시 지역, 강원 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1시간 미만(26.1%, 24.4%)'이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군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2시간~3시간 미만(25.8%, 30.0%, 27.1%, 28.2%)'이 가장 많았으며, 대전, 경기 군 지역, 경상도 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4시간 이상(34.8%, 26.0%, 25.9%)'이 가장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고 '2시간~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화 시간이 '2시간~3시간 미만'이라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3시간~4시간 미만'과 '4시간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은 감소함.
- 천주교 신자의 경우 '4시간 이상(26.5%)'의 대화 시간을 가진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응답자의 학력과 배우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3시간~4시간 미만'과 '4시간 이상'의 대화 시간을 가진다고 답한 비율이 증가함.
- 응답자의 연평균 가구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화 시간이 '4시간 이상(29.2%)'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연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1시간 미만'과 '3시간~4시간 미만'의 비율이 감소했고, '4시간 이상'의 대화 시간을 가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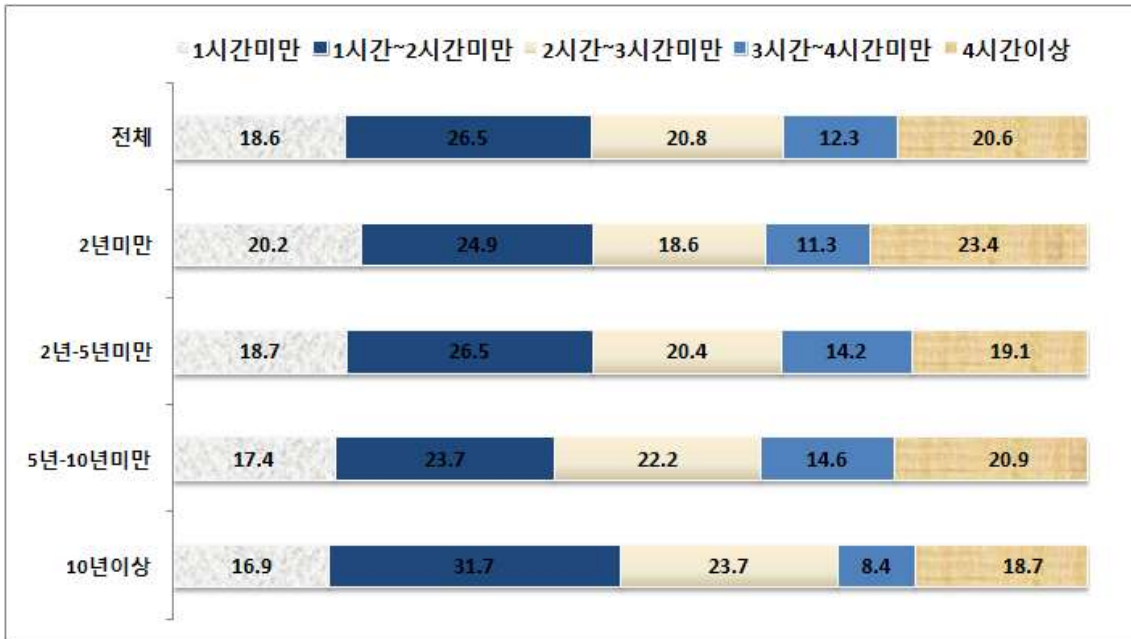
<그림 8>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그림 9>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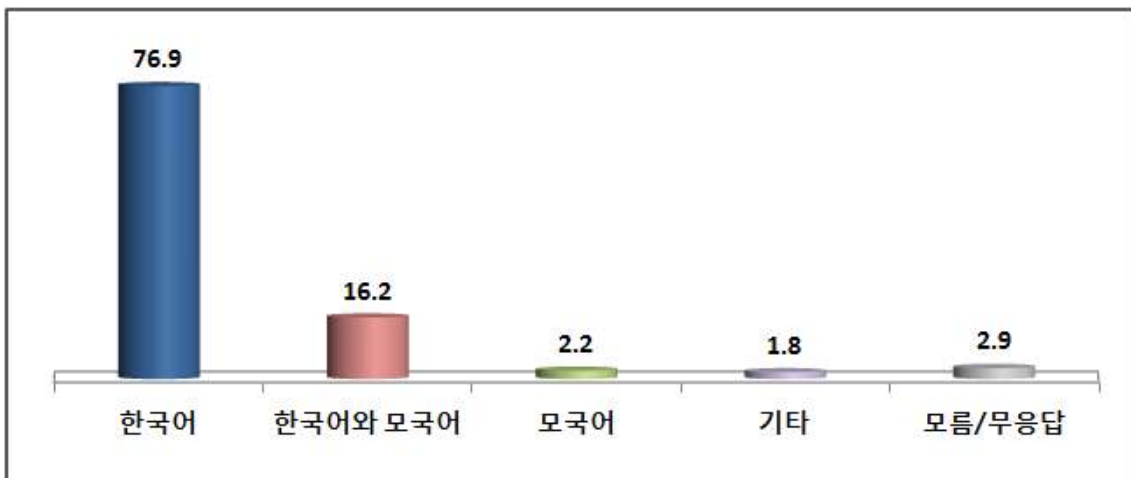
<그림 10>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거주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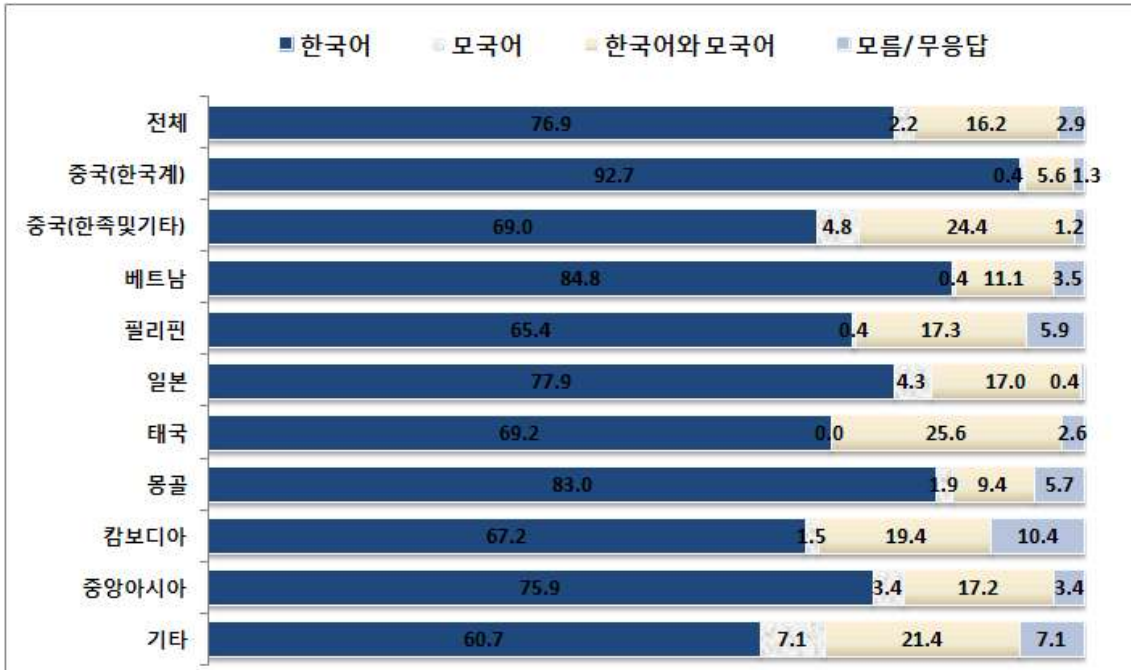
4)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 ‘한국어(76.9%)’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와 모어(16.2%)’, ‘모름/무응답(2.9%)’, ‘모어(2.2%)’, ‘기타(1.8%)’ 순으로 답함.
- 한국계 중국인 경우는 ‘한국어(92.7%)’라고 응답한 경우가 특히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의 비율은 증가했고 ‘모어’, ‘한국어와 모어’, ‘기타’의 비율은 감소함.
- 남성은 여성보다 ‘모어(23.5%)’라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음.
- 응답자와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어’라 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한국어와 모어’라고 답한 비율은 감소함.
- 응답자와 배우자의 학력이나 연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국어’라 답한 비율이 감소하고 ‘모어’, ‘한국어와 모어’, ‘기타’라고 답한 비율이 증가함.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라고 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모어’와 ‘한국어와 모어’라고 답한 비율은 감소함(표 4-5:1).

<그림 11>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그림 12>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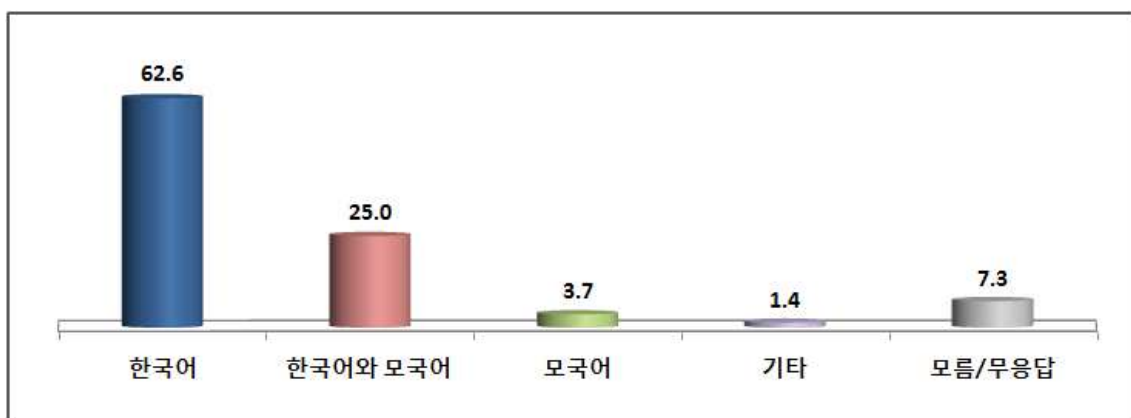
<그림 13>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거주 기간별



5) 첫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 첫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한국어(62.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어와 모어(25.0%)’, ‘모름/무응답(7.3%)’, ‘모어(3.7%)’, ‘기타(1.4%)’순으로 나타남.
-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40.9%)’ 비율이 가장 낮고 ‘한국어와 모어(45.5%)’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모어’, ‘기타’,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감소함.
- 경기를 제외한 도의 경우에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한국어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응답자와 배우자의 직업이 농업/어업/임업인 경우, ‘한국어’라고 답한 비율이 높음.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라고 답한 비율이 증가함.
- 다른 가족 구성원과 대화할 때보다 자녀와 대화할 때 모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에게 한국어와 모어의 이중 언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해됨(표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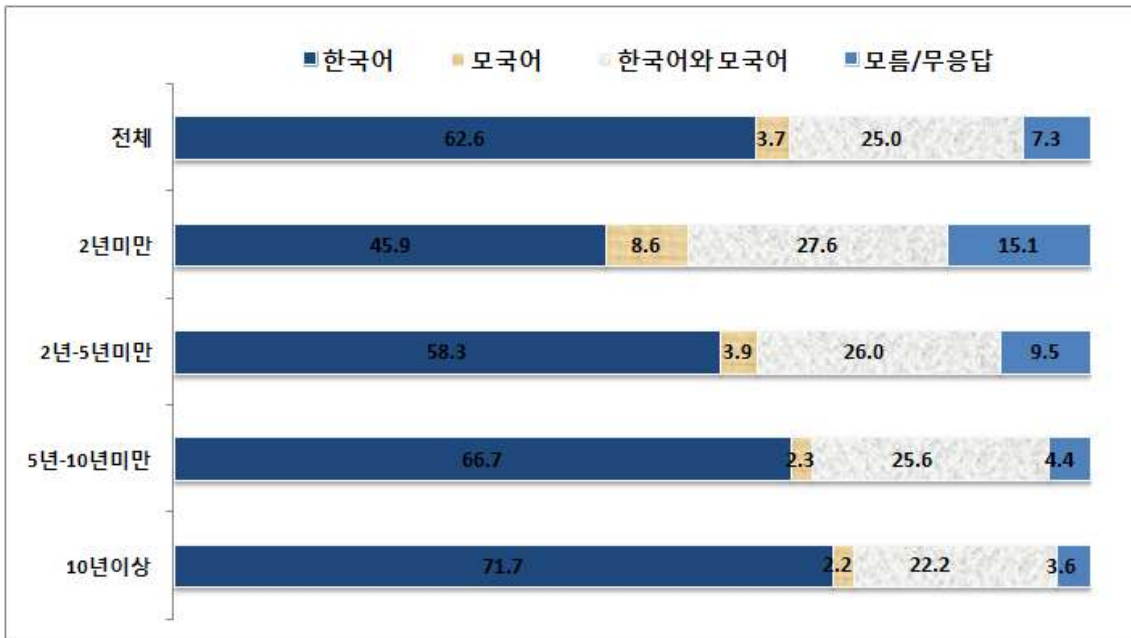
<그림 14> 첫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그림 15> 첫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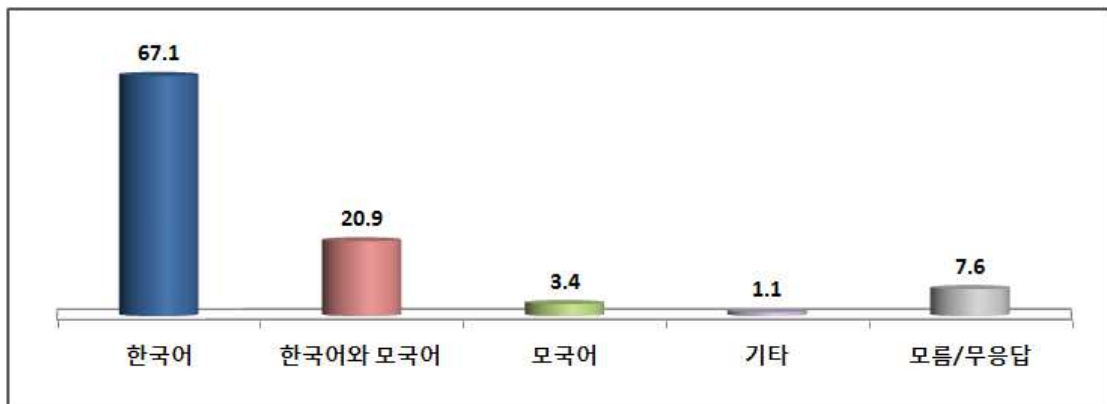
<그림 16> 첫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거주 기간별



6) 둘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 둘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 '한국어(6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어와 모어(20.9%), '모름/무응답(7.6%)', '모어(3.4%)', '기타(1.1%)' 순으로 나타남.
- 출신국가, 거주 지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어와 모어' 역시 많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와 모어(50.0%)'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 배우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국어', '기타',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한국어와 모어'라고 답한 비율은 감소함(표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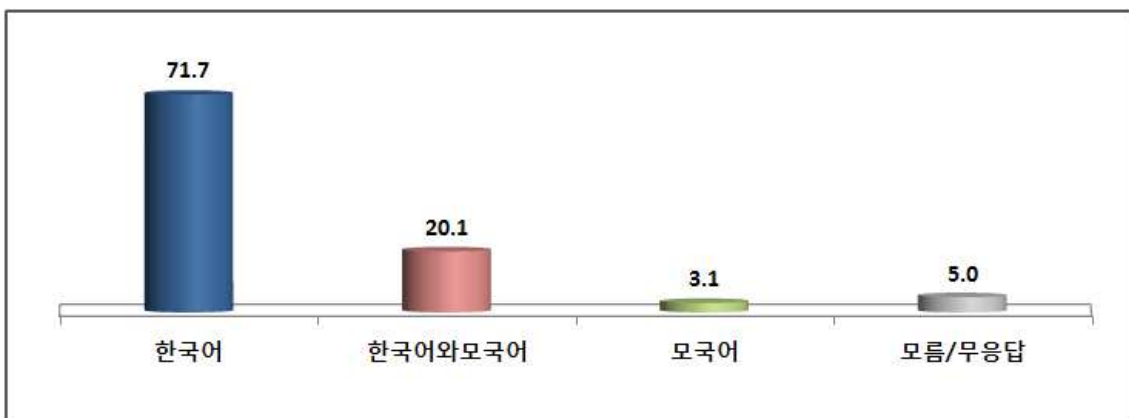
<그림 17> 둘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7) 셋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 셋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한국어(7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어와 모어(20.1%)', '모름/무응답(5.0%)', '모어(3.1%)'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모어(50.0%)'라 답한 경우가 많았고, 광주의 경우 '모름/무응답(33.3%)'도 많았음. 인천, 대구, 경기 시 지역, 충청 군 지역, 경상 군 지역, 전라 시 지역, 강원 시 지역의 경우 '한국어와 모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 남성 응답자인 경우는 '한국어와 모어(100.0%)'라 답한 경우가 많았고, 여성 응답자인 경우 '한국어(72.2%)'라 답한 경우가 많았음.
- 응답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한국어와 모어(66.7%)'라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모어'와 '한국어와 모어'역시 많았으며,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아질수록 '모어'의 비율이 감소했고 '한국어와 모어'의 비율이 증가함(표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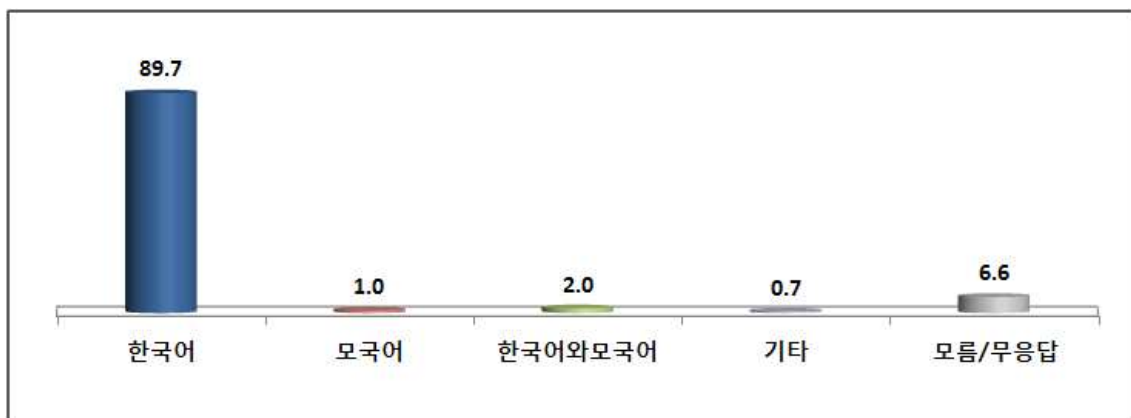
<그림 18> 셋째 자녀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8) 배우자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배우자의 아버지와 대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한국어(8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모름/무응답(6.6%)', '한국어와 모어(2.0%)', '모어(1.0%)', '기타(0.7%)'의 순으로 나타남.
- 몽골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와 모어(12.5%)'와 '모름/무응답(12.5%)'으로 답한 경우가 많았고,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에도 '모름/무응답(50.0%)'이라 답한 경우가 많았음.
- 응답자와 배우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국어와 모어'라 답한 비율이 증가했고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감소함(표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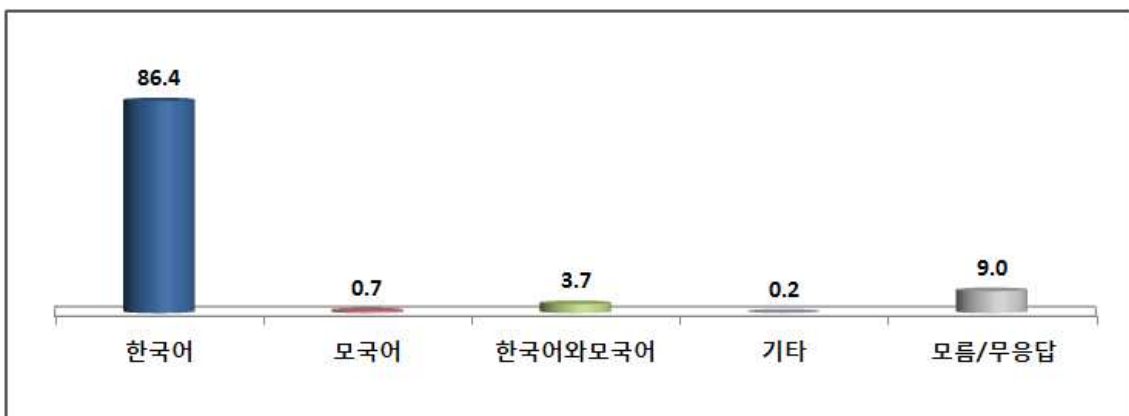
<그림 19> 배우자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9) 배우자의 어머니와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한국어(86.4%)’가 가장 많았으며 ‘모름/무응답(9.0%)’, ‘한국어와 모어(3.7%)’, ‘모어(0.7%)’,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남.
- 몽골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100.0%)’라 답한 경우가 특히 많았음.
- 부산, 울산, 충청시의 경우 ‘모름/무응답(17.4%, 27.3%, 16.7%)’의 응답이 많았음.
- 한국어 능력 검사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국어’의 비율이 증가했고, ‘한국어와 모어’의 비율은 감소함(표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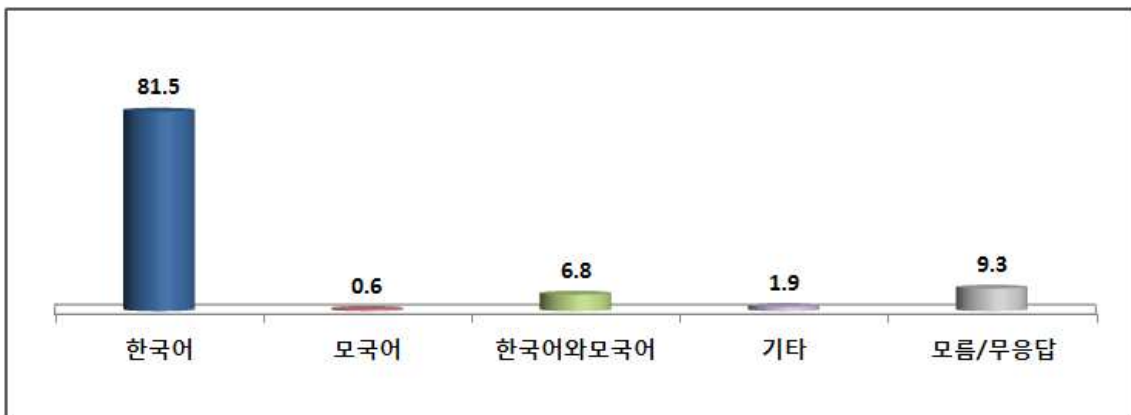
<그림 20> 배우자의 어머니와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10)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한국어(81.5%)'가 가장 많았고, '모름/무응답(9.3%)', '한국어와 모어(6.5%)', '기타(1.9%)', '모어(1.9%)'의 순으로 나타남.
- 태국과 몽골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100.0%)'라 답한 경우가 특히 많았음.
- 대구, 충청 시 지역, 충청 군 지역, 경상 시 지역, 전라 시 지역, 강원 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100.0%)'라 답한 경우가 특히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의 비율이 증가했고 '한국어와 모어', '기타' 비율이 감소함.
- 한국어 능력 검사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국어' 사용 비율이 증가했는데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50점 미만까지인 경우 '한국어와 모어'와 '모름/무응답'이라 답한 경우가 많았음(표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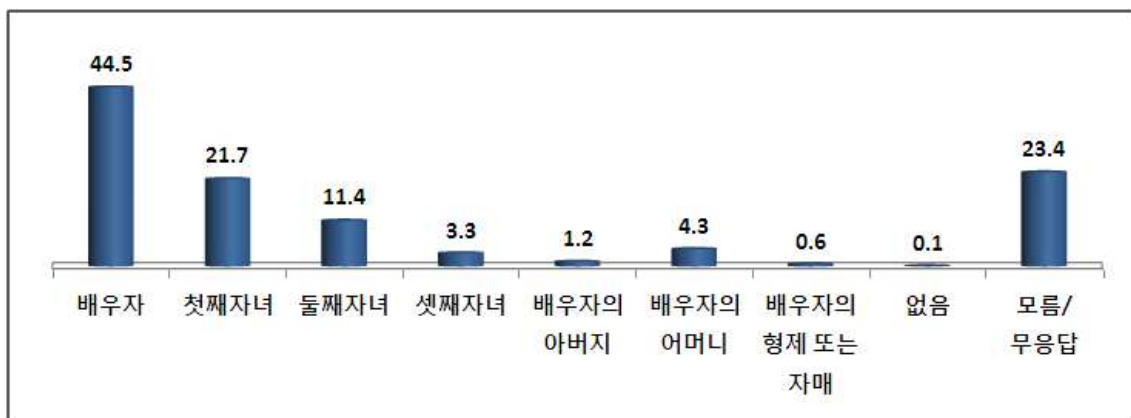
<그림 21>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11)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

-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배우자(4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첫째 자녀(21.7%)', '둘째 자녀(11.4%)', '배우자의 어머니(4.3%)', '셋째 자녀(3.3%)', '배우자의 아버지(1.2%)',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0.6%)' 순으로 나타남.
- 대전이 거주지인 경우 '배우자(65.2%)'가 특히 많았으며, 강원 시 지역의 경우 첫째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했으나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함(표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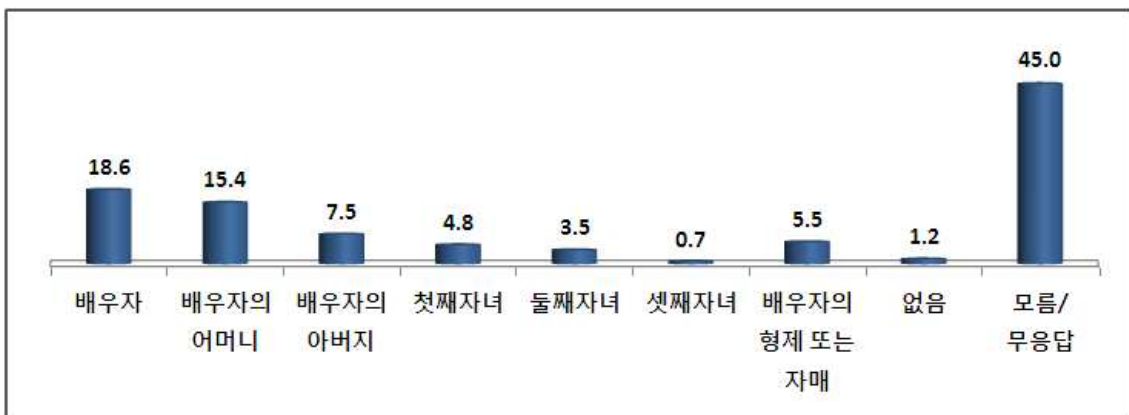
<그림 22>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



12) 대화할 때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사람

- 대화할 때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모름/무응답 (45.0%)'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18.6%)', '배우자의 어머니 (15.4%)', '배우자의 아버지(7.5%)',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5.5%)', '첫째 자녀 (4.8%)', '둘째 자녀(3.5%)', '없음(1.2%)', '셋째 자녀(0.7%)' 순으로 나타남.
-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직업에 따른 차이 없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어머니'라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남성 응답자의 경우 '첫째 자녀(17.6%)'란 응답도 많았음.
- 응답자의 학력이 중학교인 경우 '배우자의 어머니(17.4%)'라 답한 경우가 많았음.
- 배우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함(표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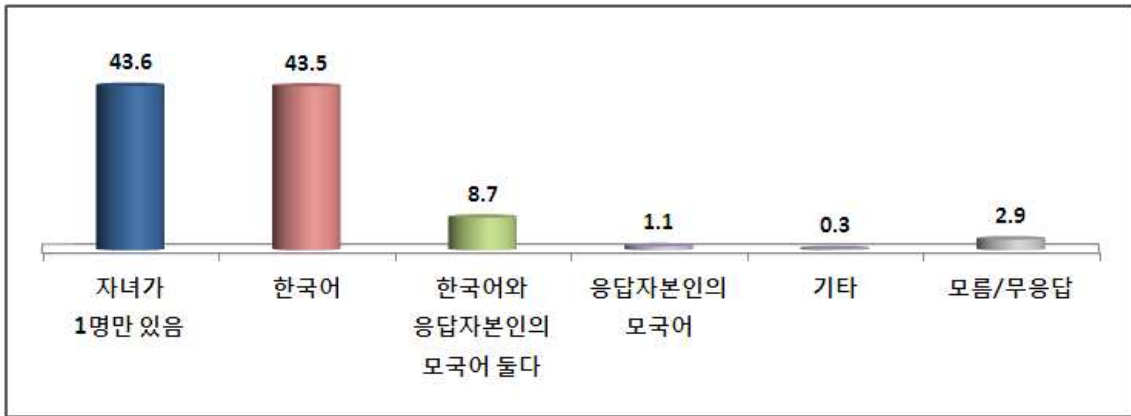
<그림 23> 대화할 때에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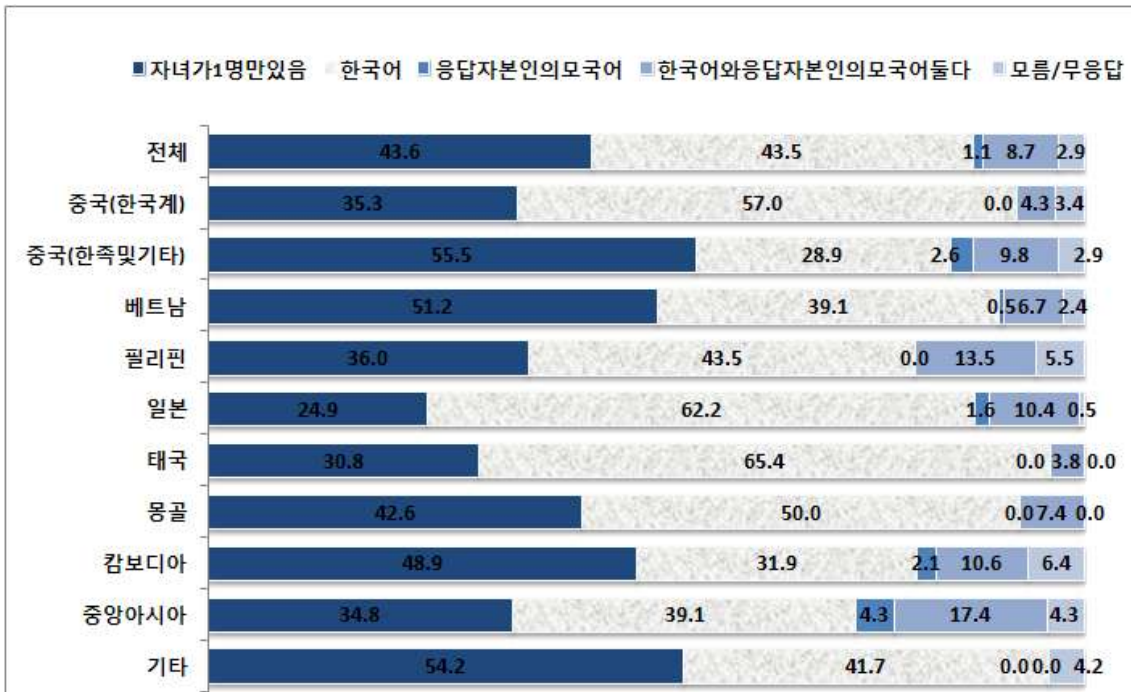
13) 자녀들끼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43.6%)를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의 43.5%가 ‘한국어’라고 답하였고 1.1%가 ‘응답자 본인의 모어’, 8.7%가 ‘한국어와 응답자 본인의 모어 둘다’라고 답함.
-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가 좋을수록 자녀들끼리 한국어로 의사소통한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 응답자나 배우자의 직업이 ‘농업, 어업, 임업(71.2%, 71.6%)’인 경우 자녀들끼리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음(표 9-2).

<그림 24> 자녀들끼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그림 25> 자녀들끼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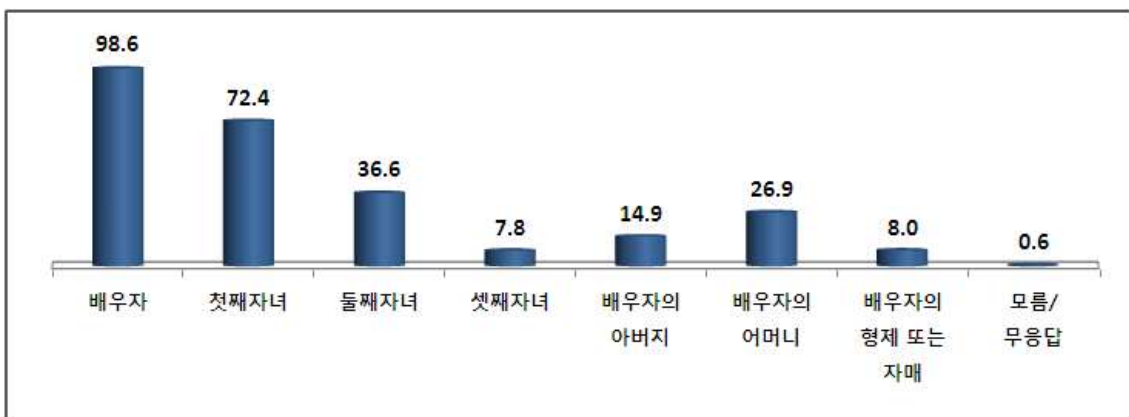


2.2 가족 구성원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는 '배우자(98.6%)'가 가장 많았으며 '첫째 자녀(72.4%)', '둘째 자녀(36.6%)', '배우자의 어머니(26.9%)', '배우자의 아버지(14.9%)',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8.0%)', '셋째 자녀(7.8%)' 순으로 나타남.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들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배우자 집안의 가족들의 비율은 감소함.
-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지역은 시 군 단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아짐.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들과 산다고 답한 비율은 증가했으나 '배우자의 어머니'와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산다고 답한 비율은 감소함(표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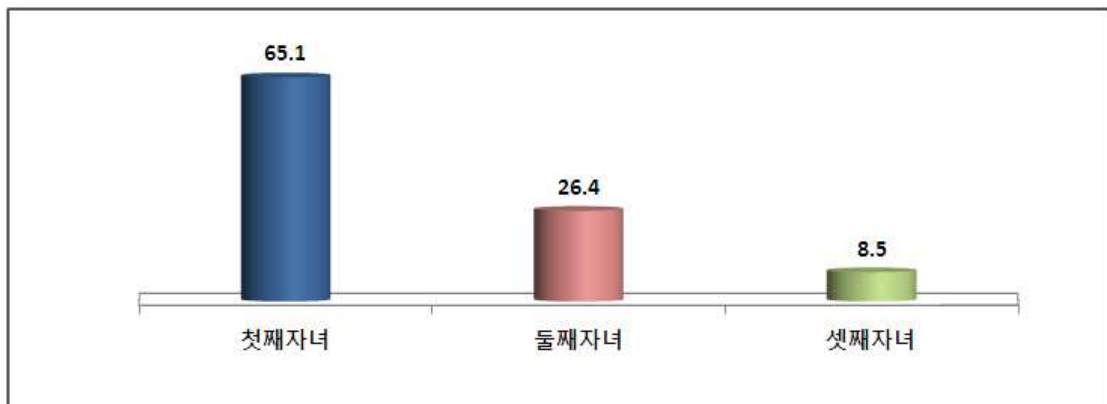
<그림 26> 함께 살고 있는 가족



2)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

-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는 '첫째 자녀(65.1%)'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둘째 자녀(26.4%)', '셋째 자녀(8.5%)' 순서로 나타남. 한국계 중국 출신과 한족 및 기타 중국 출신의 경우 '첫째 자녀(70.0%, 80.0%)'라 답한 경우가 많았음.
- 서울과 인천 지역의 경우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가 '첫째 자녀(76.5%, 81.8%)'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첫째 자녀'의 비율은 감소했고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의 비율은 증가함.
- 기독교 신자인 경우 '첫째 자녀(86.7%)'가 유독 많았고, 응답자와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연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첫째 자녀'라고 답한 비율이 증가함 (표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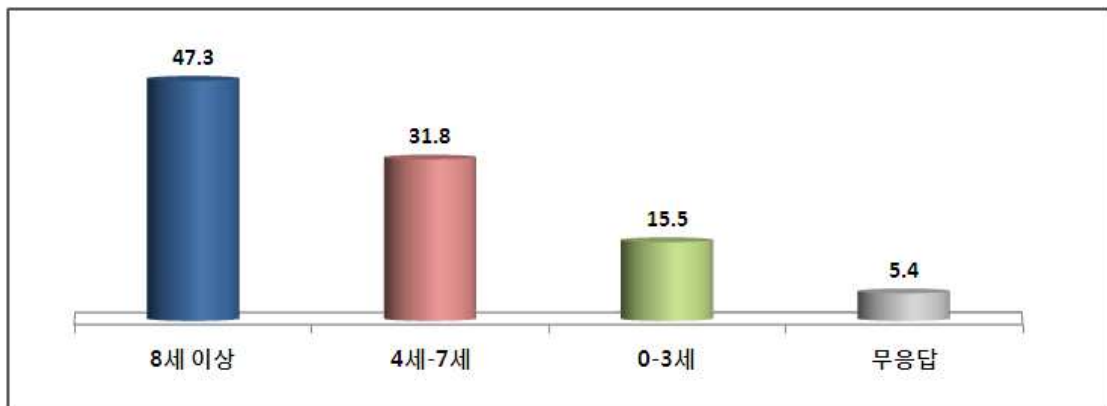
<그림 27>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



3)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의 나이

-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의 나이는 '8세 이상(47.3%)'이 가장 많았으며 '4세~7세(31.8%)', '0~3세(15.5%)'순으로 나타났고, '무응답(5.4%)'이 가장 적었음.
- 한국계 중국 출신의 경우 '8세 이상(70.0%)'이 특히 많았고, 거주 지역이 서울인 경우 '4~7세(70.6%)'가, 전라 군 지역의 경우는 '8세 이상(75.0%)'이 많았음.
- 20대 미만 응답자의 경우 이례적으로 '0~3세(41.2%)'라 많이 답했으며, 4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8세 이상(57.6%)'이라 답한 경우가 많았음.
-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데려온 자녀의 나이가 '0~3세'라 답한 비율은 증가했고 '무응답'의 비율은 감소했으며, 배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응답자의 경우 데려온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100.0%)'이라고 답함(표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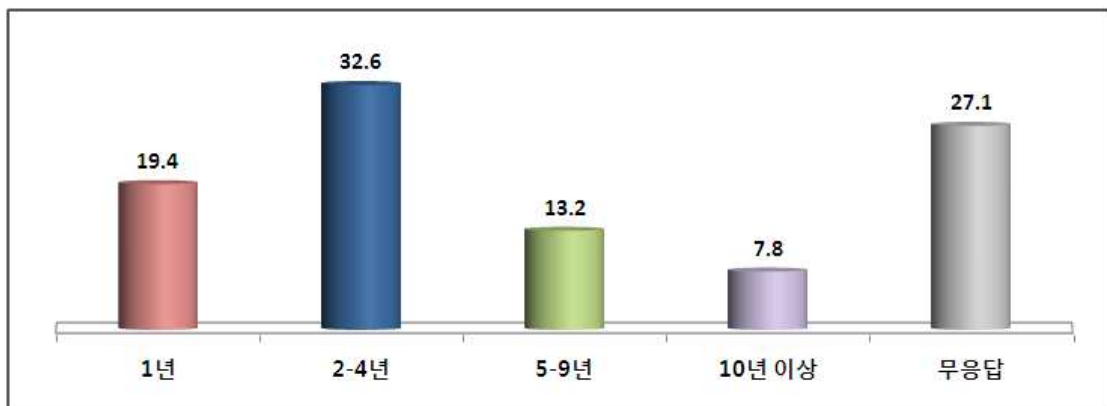
<그림 28>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의 나이



4) 한국에 함께 온 자녀의 체류 기간

- 한국에 함께 온 자녀의 체류 기간은 '2~4년(32.6%)'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무응답(27.1%)', '1년(19.4%)', '5~9년(13.2%)' 순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7.8%)'이라 답한 경우는 적었음.
- 출신 국가가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무응답(70.0%, 52.6%, 31.3%, 75.0%)'이 많았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년'과 '무응답'의 비율은 감소했으며 '5~9년'과 '10년 이상'이라 답한 비율은 증가함.
- 배우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5~9년'과 '무응답'의 비율이 증가함(표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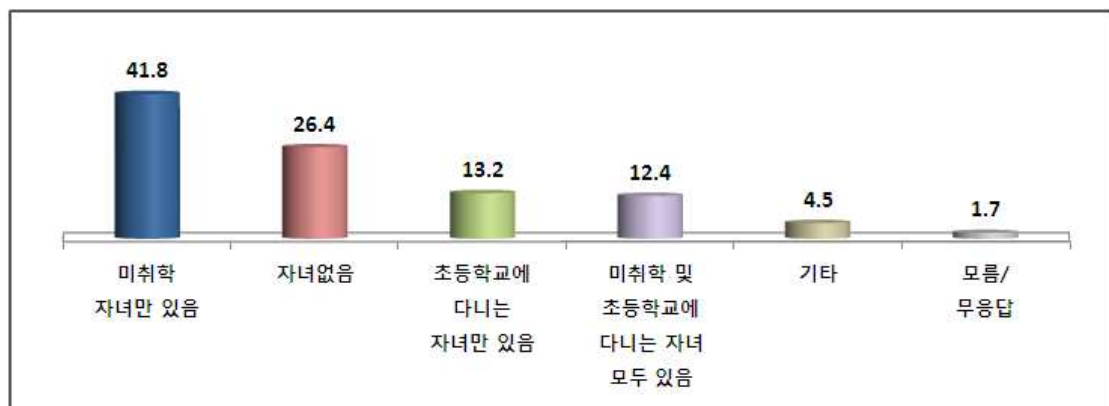
<그림 29> 한국에 함께 온 자녀의 체류 기간



5) 현재 자녀 유무

- ‘현재 자녀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미취학 자녀만 있음(41.8%)’, ‘자녀 없음(26.4%)’,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음(13.2%)’, ‘미취학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모두 있음(12.4%)’, ‘기타(4.5%)’, ‘모름/무응답(1.7%)’의 순으로 답함.
- 태국 출신의 경우 ‘자녀 없음(33.3%)’이 많았음.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자녀 없음(65.5%)’이 많았고, 10년 이상인 경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음(47.8%)’이라는 답이 많았음.
-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없음.’과 ‘미취학 자녀만 있음.’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음.’과 ‘미취학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모두 있음.’의 비율이 증가함.
- 한국어 능력 검사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녀 없음.’의 비율은 감소했으며, ‘미취학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모두 있음.’의 비율이 증가함(표 5).

<그림 30> 현재 자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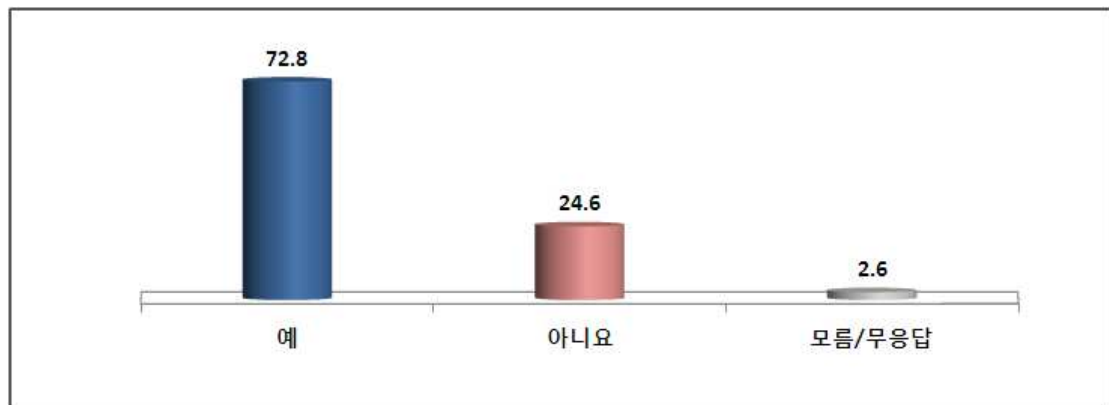


2.3 자녀 교육

1) 어린이집 이용 여부

- 미취학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2.8%가 '예'라 하였고 24.6%가 '아니요.'라고 답함.
- 한국계 중국(80.2%)과 몽골(82.1%)에서 온 응답자가 캄보디아(36.8%)와 태국(33.3%)에서 온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더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 지역(95%)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시 지역(52.9%)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직(93.2%)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 전업 주부(69.6%)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높음.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높아짐.
-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낮은 점수일수록 보내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표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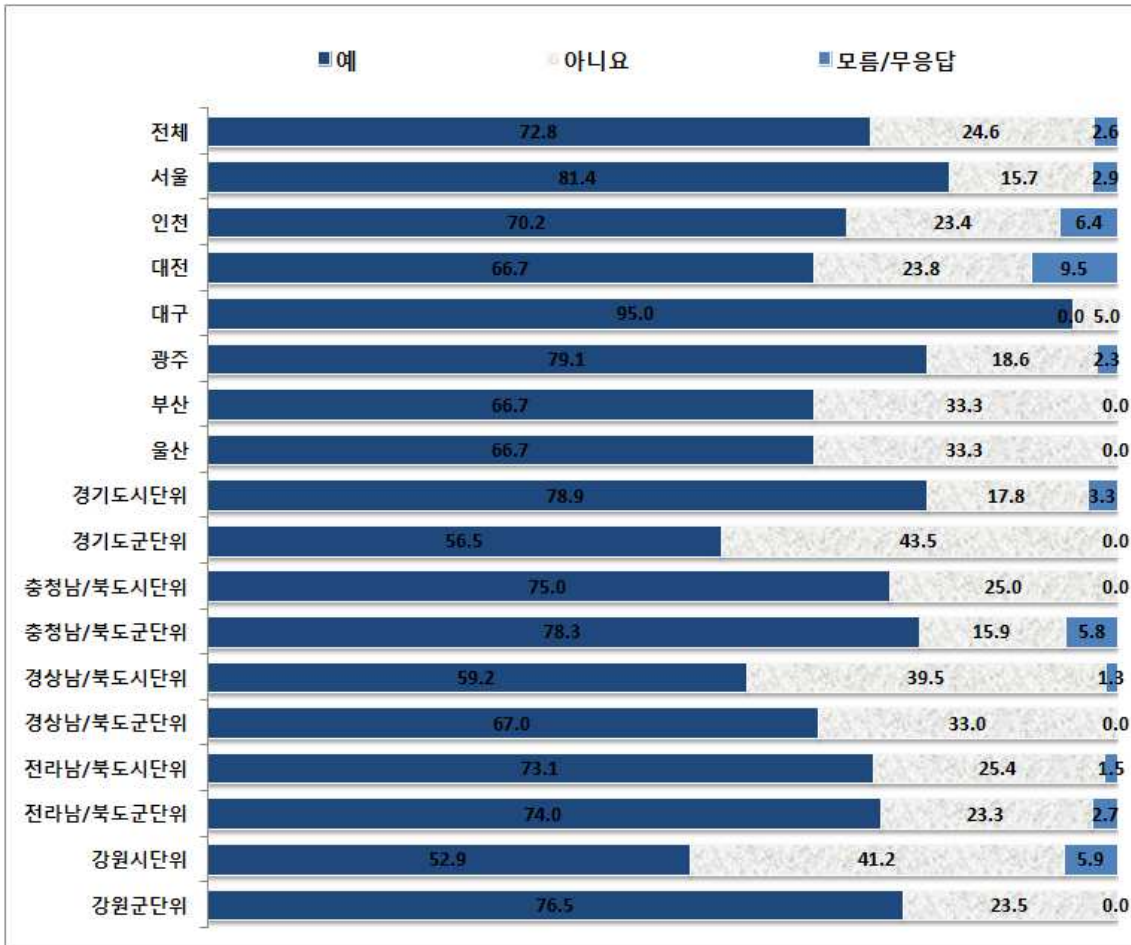
<그림 31> 어린이집 이용 여부



<그림 32> 어린이집 이용 여부-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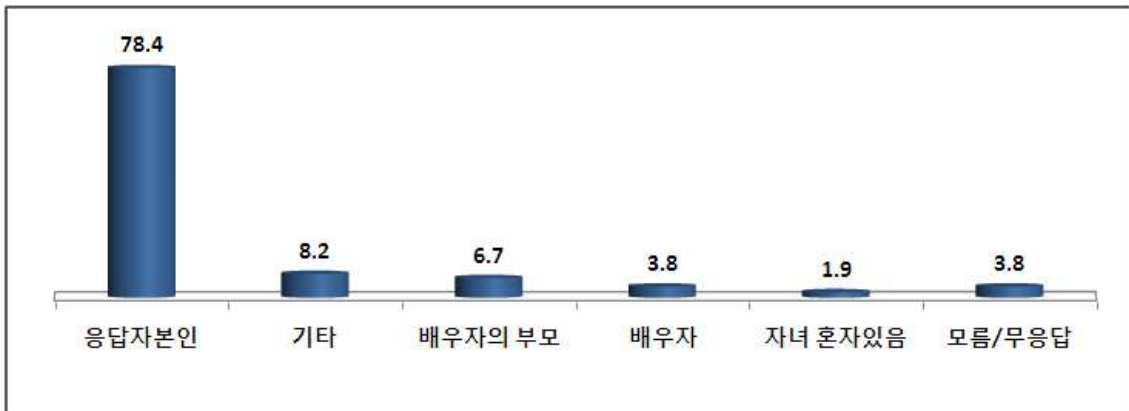
<그림 33> 어린이집 이용 여부-거주 지역별



2)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가족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본인(7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타(8.2%)', '배우자의 부모(6.7%)', '배우자(3.8%)', '모름/무응답(3.8%)', '자녀 혼자 있음(1.9%)' 순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이 대구인 경우는 '배우자의 부모(100.0%)'가 가장 많았고 강원 군 지역의 경우 '기타(50.0%)'가 가장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으며 '배우자의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함.
- 응답자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는 '기타(50.0%)'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부모'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함. 연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응답자 본인'과 '자녀 혼자 있음'의 비율이 감소했고, '배우자의 부모'와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늘었음(표 6-2).

<그림 34>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가족



<그림 35>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가족-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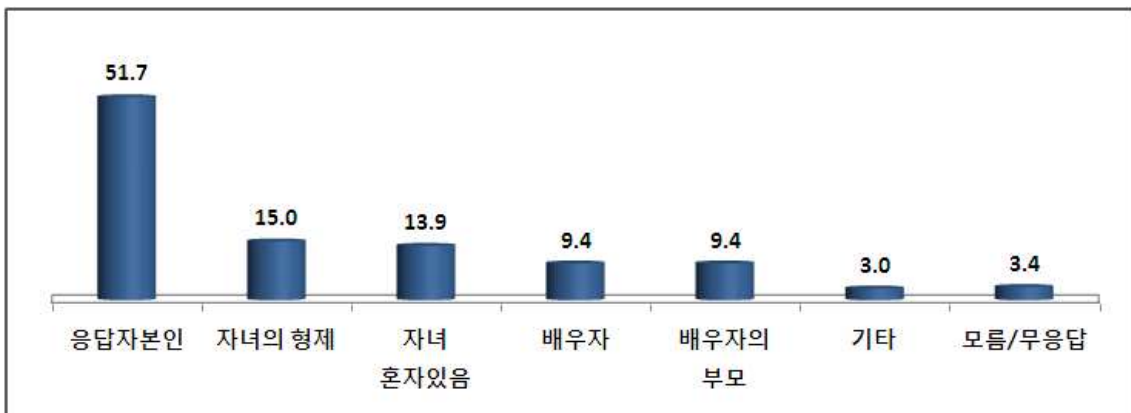
<그림 36>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가족-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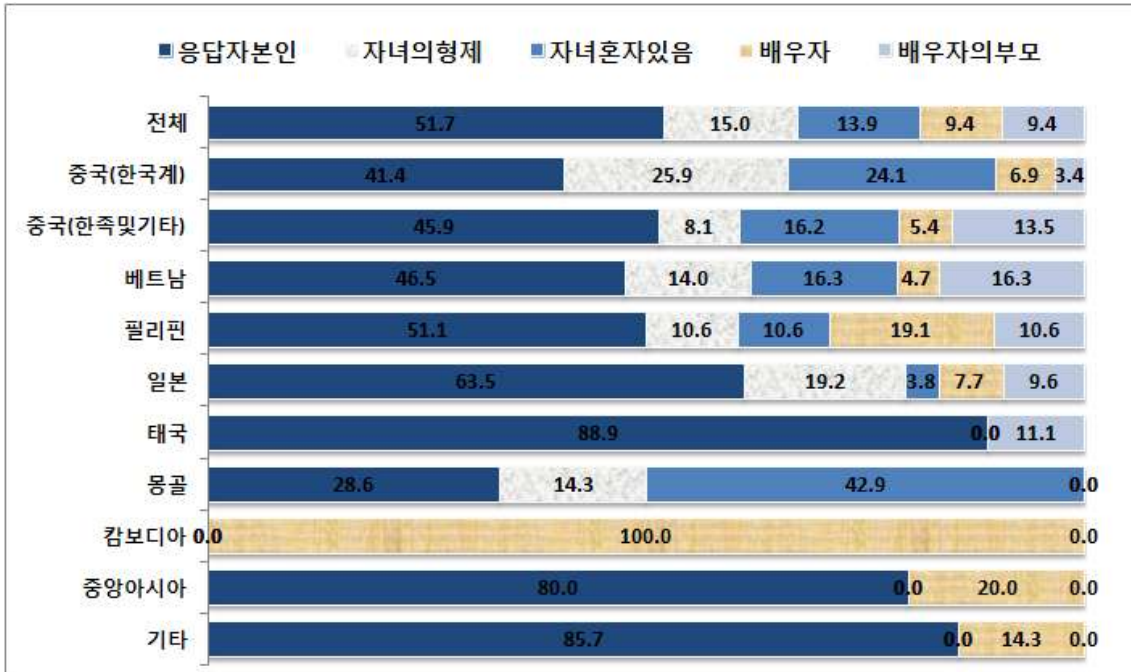
3)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는 가족

- 자녀가 방과 후 집에 가면 주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응답자 본인(51.7%)’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녀의 형제(15.0%)’, ‘자녀 혼자 있음(13.9%)’, ‘배우자(9.4%)’, ‘배우자의 부모(9.4%)’, ‘모름/무응답(3.4%)’ 순으로 답함.
- 거주 지역이 인천인 경우는 ‘배우자의 부모(50.0%)’가 가장 많았고, 강원 시 지역의 경우 ‘배우자(50.0%)’라 답한 경우가 많았음. 충청 지역, 경상 지역, 전라 지역은 본인이 돌보는 경우가 군 단위에서보다 시 단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라 지역의 시 단위는 본인이 돌보는 경우가 72.7%인데 반해 군 단위는 33.3%로 나타남.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의 형제’와 ‘자녀 혼자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증가함.
- 연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부모’의 비율이 감소했고,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증가함(표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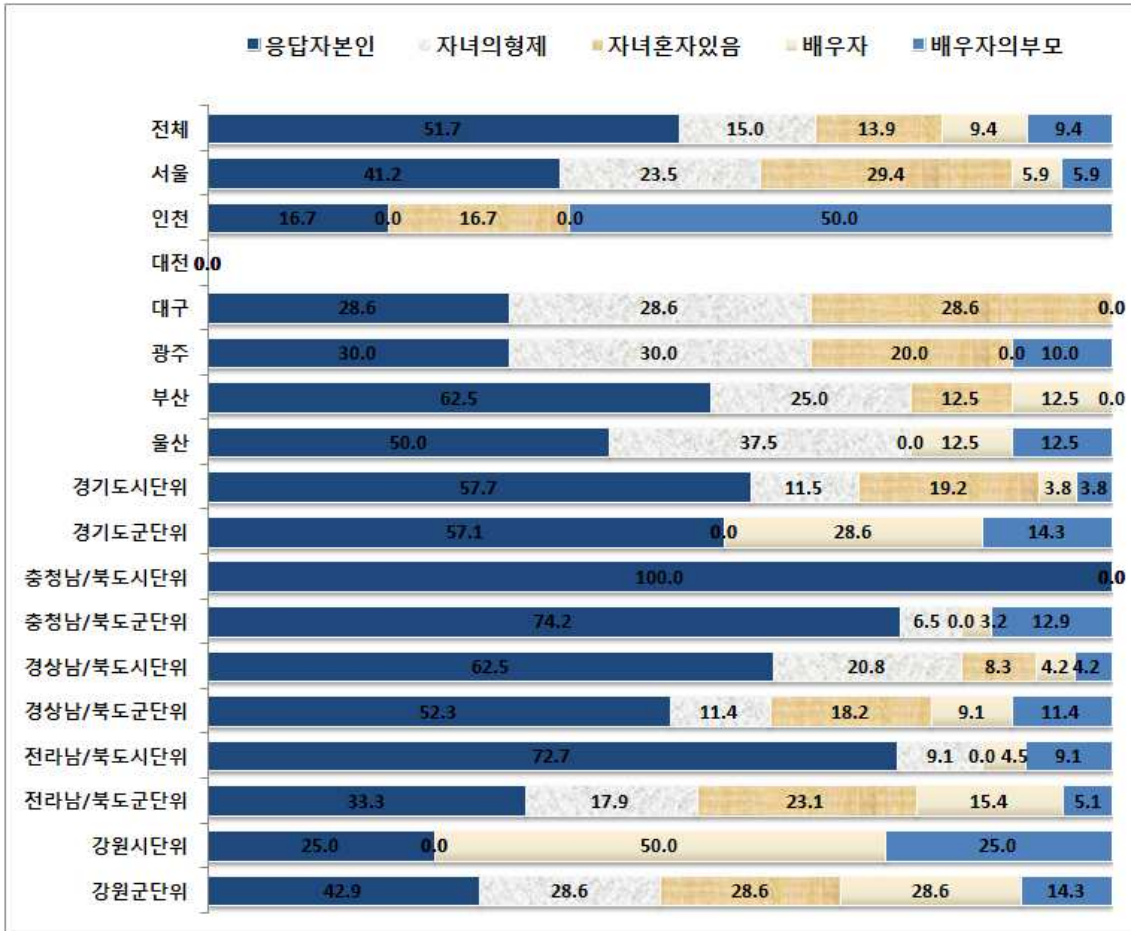
<그림 37>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는 가족



<그림 38>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는 가족-언어권별



<그림 39>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는 가족-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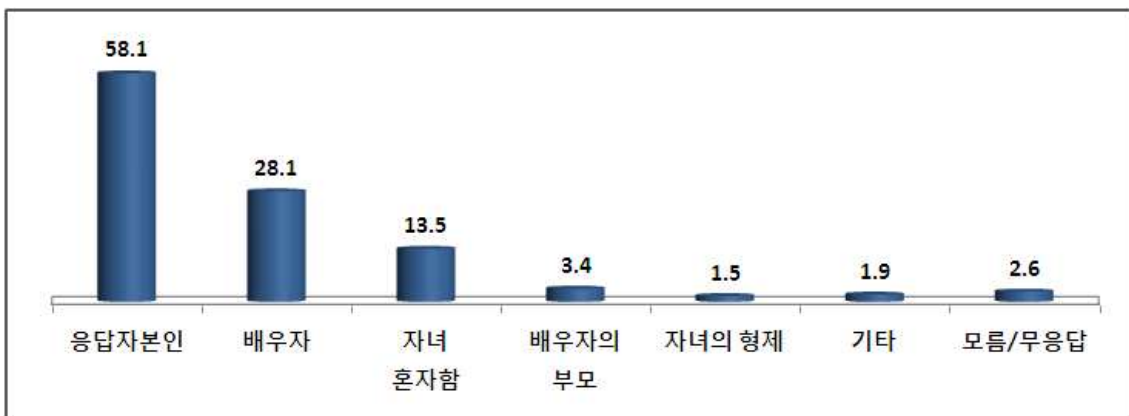


2.4 과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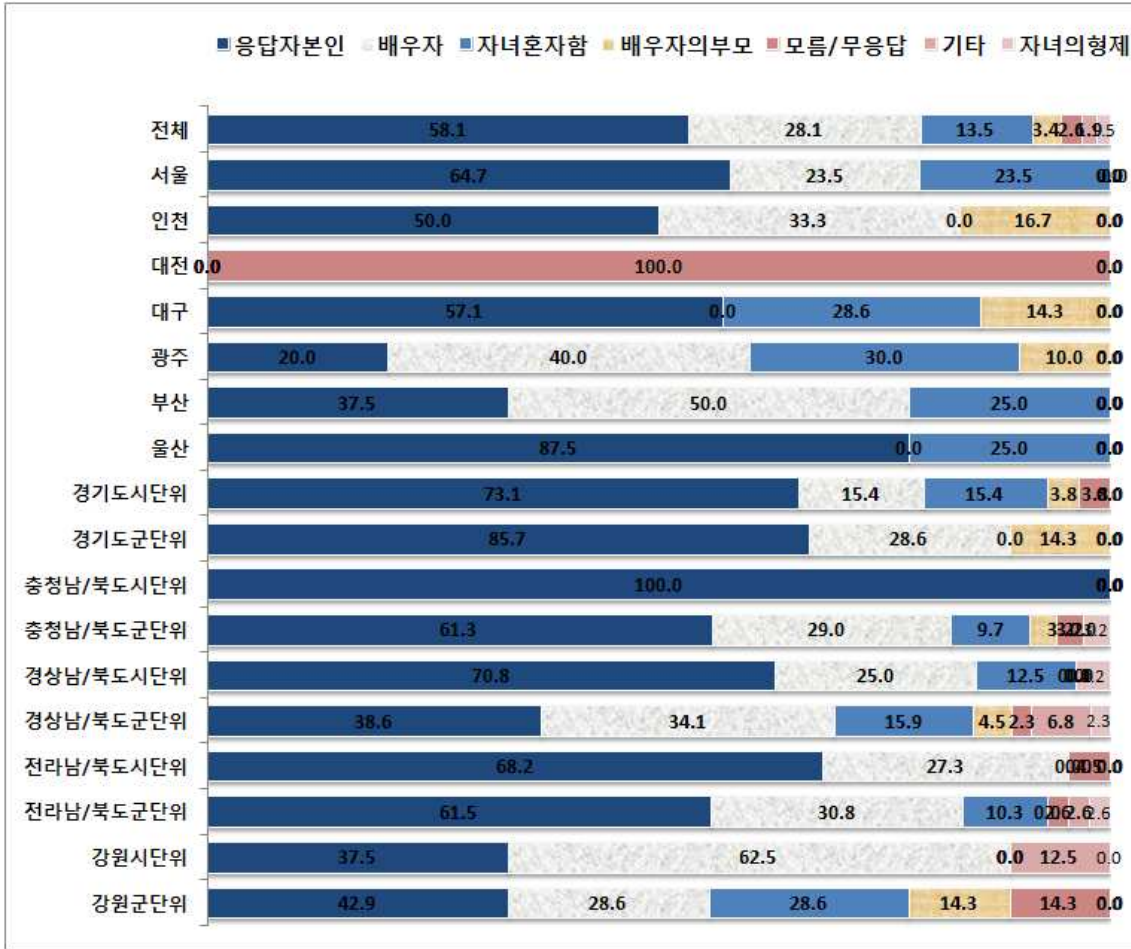
1) 초등학교 자녀 과제 확인

-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 과제를 누가 확인해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8.1%가 '응답자 본인이 한다.'고 답하였고, 28.1%의 응답자가 '배우자가 한다.'고 답함.
- 일본(80.8%)과 몽골(71.4%)에서 온 응답자들은 '본인이 확인한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고, '배우자가 확인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광주(40%), 부산(50%), 강원 시 단위(62.5%)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남.
- 응답자가 사무직(58.6%)이거나 배우자가 사무직(66.7%), 주부(60%)의 경우에도 본인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가 좋을수록 본인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음.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20대 미만의 응답자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자녀의 과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음(표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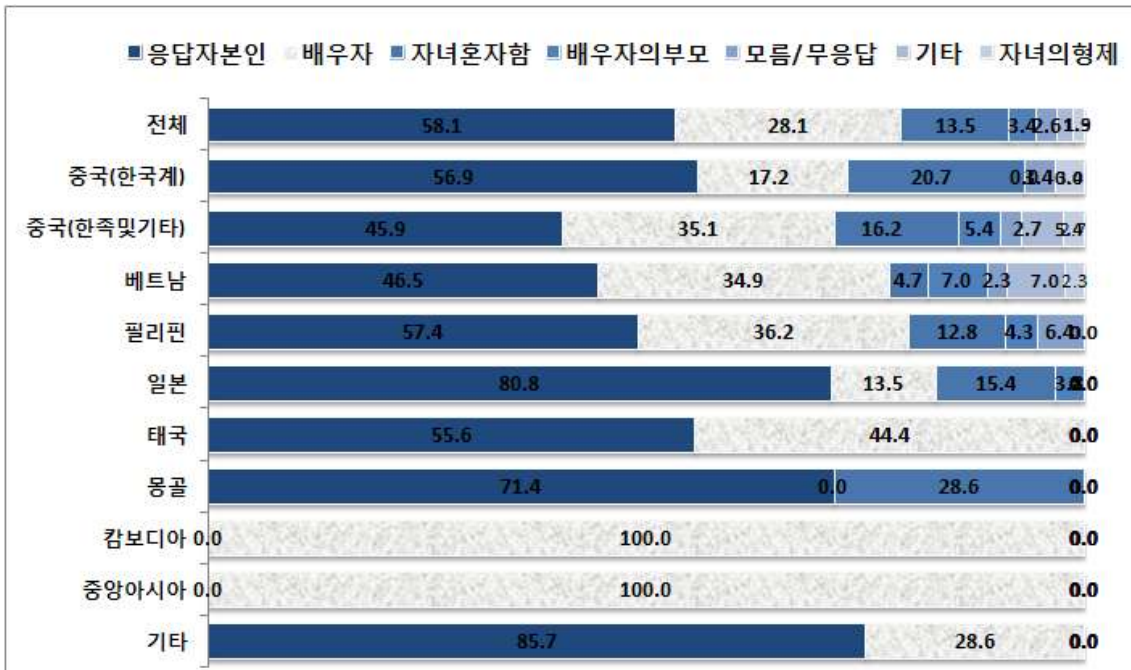
<그림 40> 초등학교 자녀 과제 확인



<그림 41> 초등학교 자녀 과제 확인-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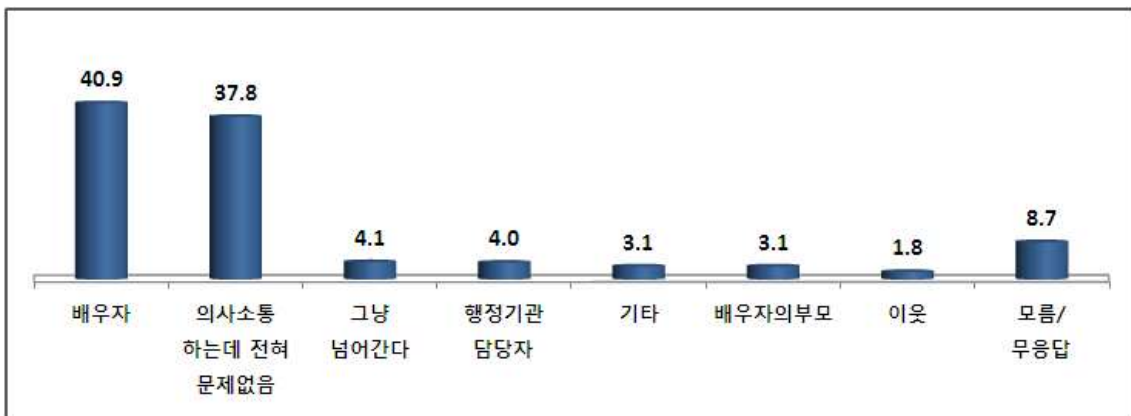
<그림 42> 초등학교 자녀 과제 확인-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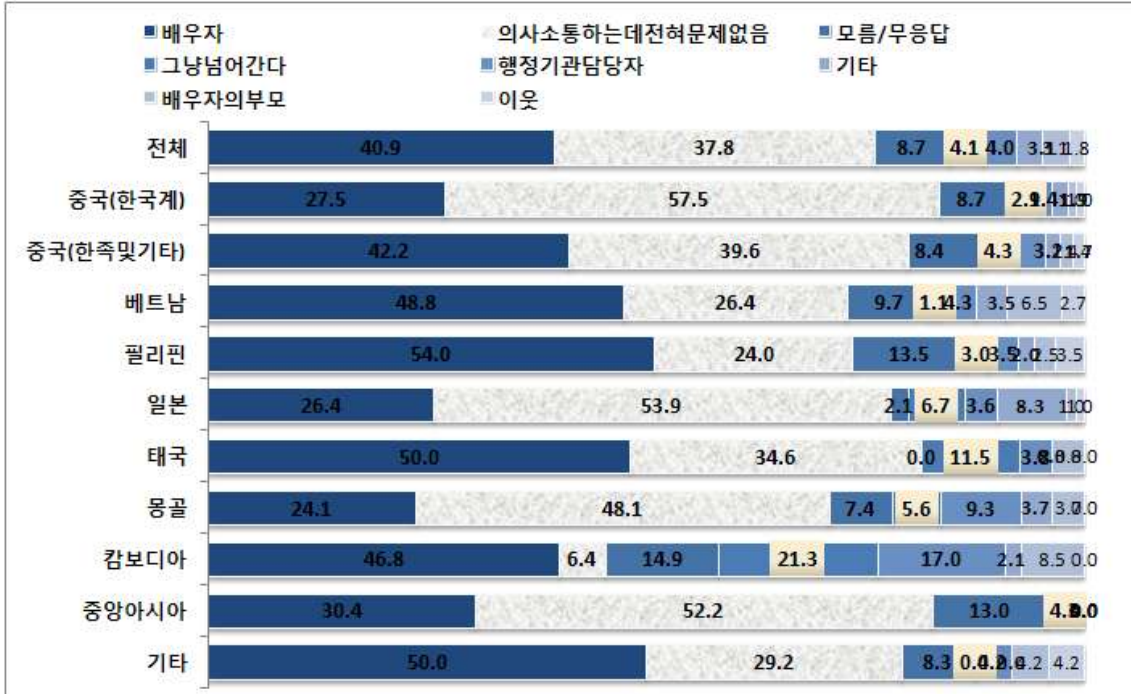
2)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

- 전체 응답자의 40.9%가 '배우자'라고 답하였고 37.8%가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없음.', 4.1%가 '그냥 넘어간다.', 4.0%가 '행정기관 담당자', 3.1%가 '배우자의 부모', 1.8%가 '이웃'이라고 답함.
- 중국(한국계, 57.5%), 일본(53.9%), 몽골(48.1%), 중앙아시아(52.2%)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많이 하였고, 중국(42.4%), 베트남(48.4%), 필리핀(54%), 태국(50%), 캄보디아(46.8%)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음. 태국(11.5%)과 캄보디아(21.3%)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그냥 넘어간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행정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다(17%).'고 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온 응답자보다 많았음.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들의 경우 '행정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응답함.
- 응답자가 사무직(52.8%)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른 직업군 응답자에 비해 의사소통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주부(42.8%)의 경우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의사소통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음(표 9-1).

<그림 43>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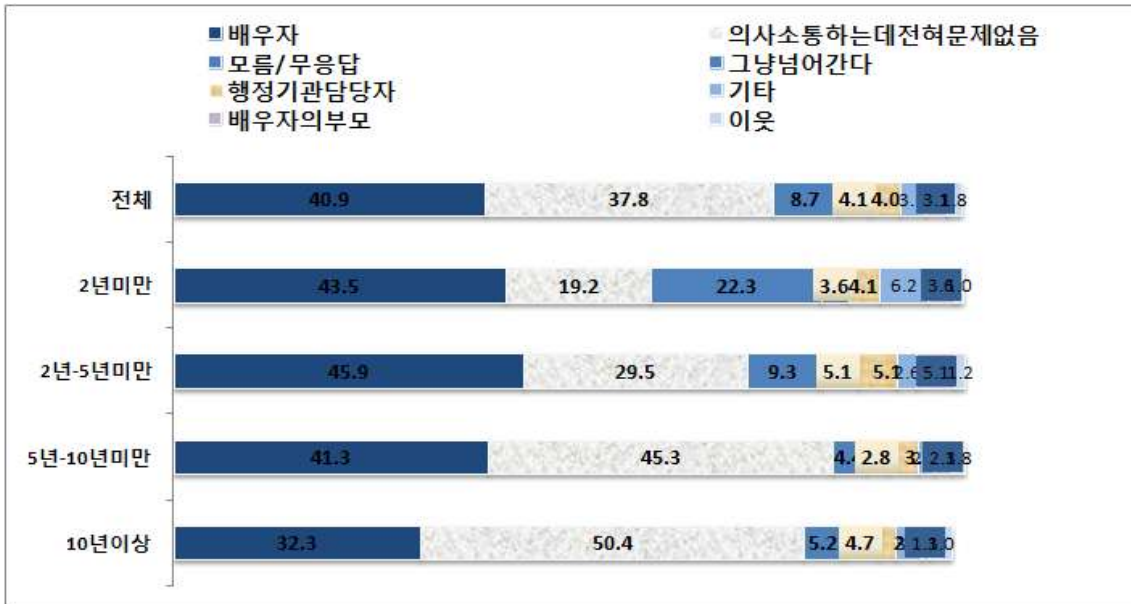
<그림 44>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언어권별



<그림 45>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거주 지역별



<그림 46>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거주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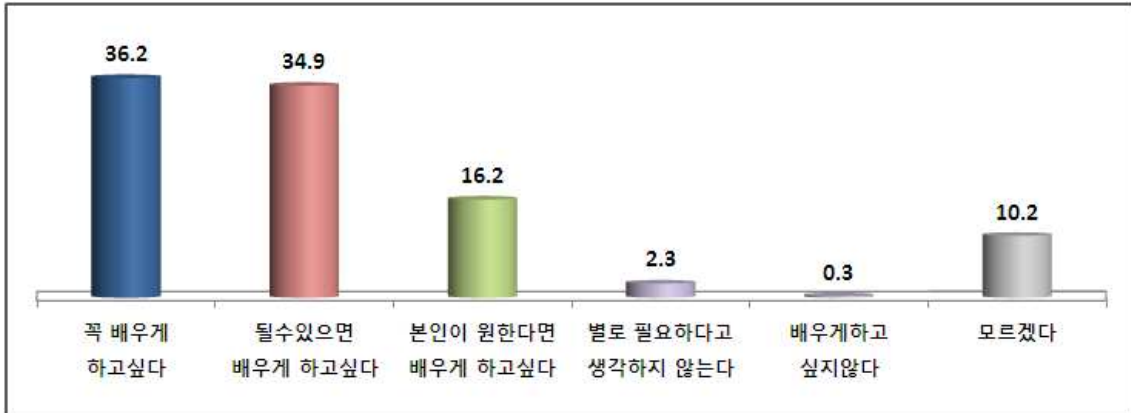


2.5 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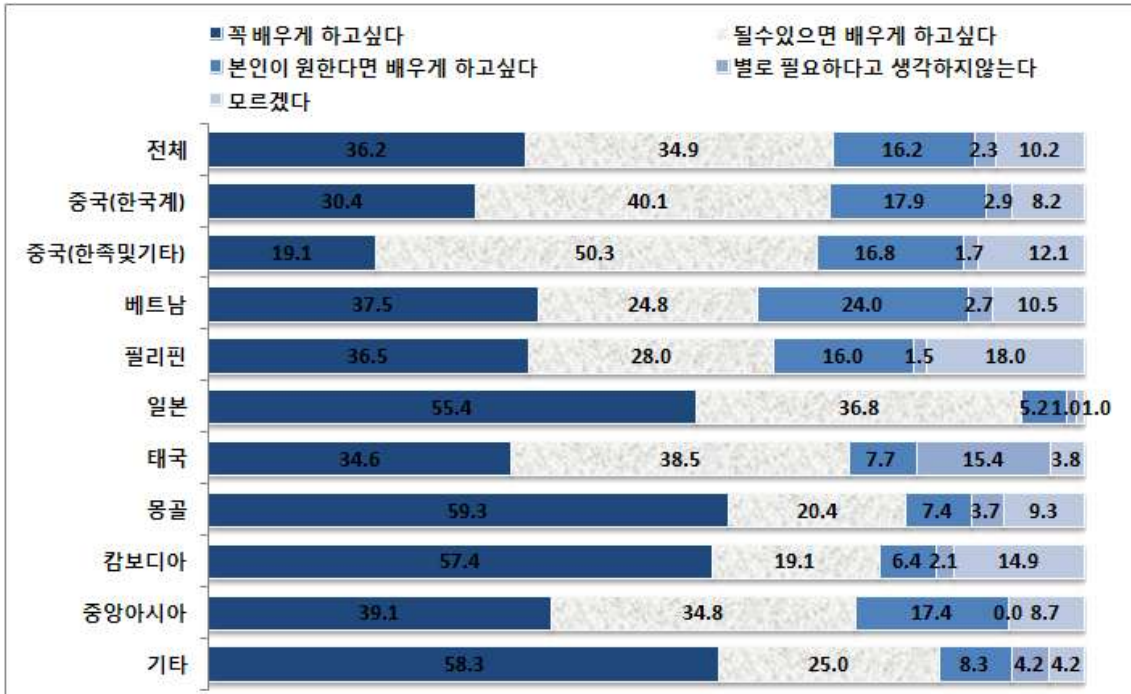
(1) 응답자의 모어 배우기 여부

- 자녀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모어를 꼭 배우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2%가 '꼭 배우게 하고 싶다.', 34.9%가 '될 수 있으면 배우게 하고 싶다.', 16.7%가 '본인이 원한다면 배우게 하고 싶다.', 2.3%가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0.3%가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 10.2%가 '모르겠다.' 순으로 답함.
- 일본(55.4%), 몽골(59.3%), 캄보디아(57.4%)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꼭 배우게 하고 싶다.'라는 답이, 한족 및 기타 중국(50.3%)에서 온 응답자들은 '될 수 있으면 배우게 하고 싶다.'라는 답이 많았음.
- 응답자와 배우자의 직업이 사무직(57.1%, 40.6%)의 경우 '꼭 배우게 하고 싶다.'는 답이 많았음.
- 배우자 학력이 대학원(52.5%)인 경우, '꼭 모어를 배우게 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많았음.
- 남성 응답자의 경우 '꼭 배우게 하고 싶다(58.9%).'라는 응답이 많았음(표 9-3).

<그림 47> 응답자의 모어 배우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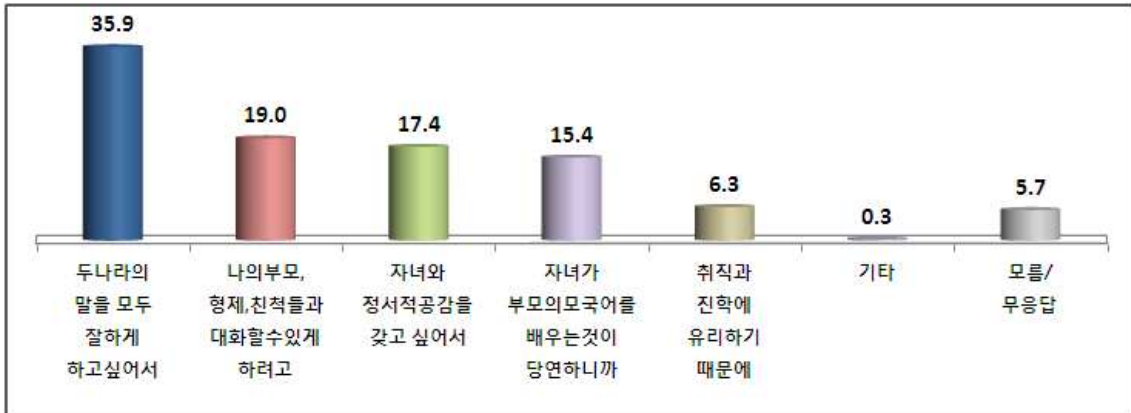
<그림 48> 응답자의 모어 배우기 여부-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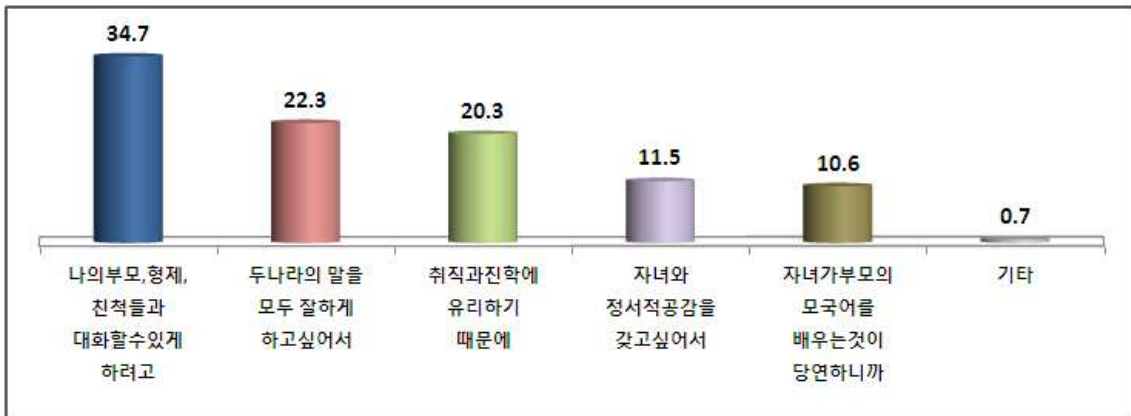
2)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

-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1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35.9%가 '두 나라의 말을 모두 잘하게 하고 싶어서', 19%가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려고', 17.4%가 '자녀와 정서적 공감을 갖고 싶어서', 15.4%가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니까', 6.3%가 '취직과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라는 순으로 답함.
- 한국계 중국(44%), 한족 및 기타 중국(55.3%), 캄보디아(47.8%), 중앙아시아(60.9%) 출신의 경우 '두 나라의 말을 모두 잘하게 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일본(38.4%) 출신의 경우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려고', 몽골(30.8%)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니까 가르치고 싶다.' 등으로 응답함. '취직과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한국계 중국(10.5%)에서 온 응답자들 가운데 비교적 많이 나옴.
- 대전(57%) 지역에서는 '두 나라의 말을 모두 잘하게 하고 싶다.'는 답이 많았으며 울산 지역(35.7%)에서는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대구에서는 '자녀와 정서적 공감을 갖고 싶어서'(29.7%),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니까'(27%) 등이 다른 답들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냄.
- 시 군 지역을 비교해 보면,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 단위에서는 '두 나라의 말을 모두 잘하게 하고 싶어서'라는 답이 군 단위보다 높았고,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려고'라는 답은 시 단위보다 군 단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와 배우자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게 모어를 가르치고 싶다(37.8%, 32.4%).'는 답이 비교적 높았음.
- 남성 응답자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45.5%).'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에 비해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려고'나 '취직과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라는 이유에는 응답이 없었던 점이 특이함(표 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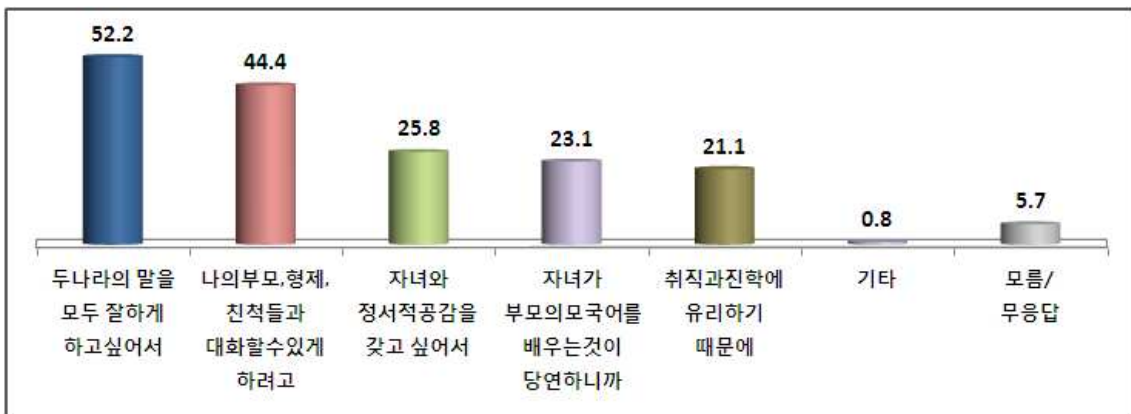
<그림 49>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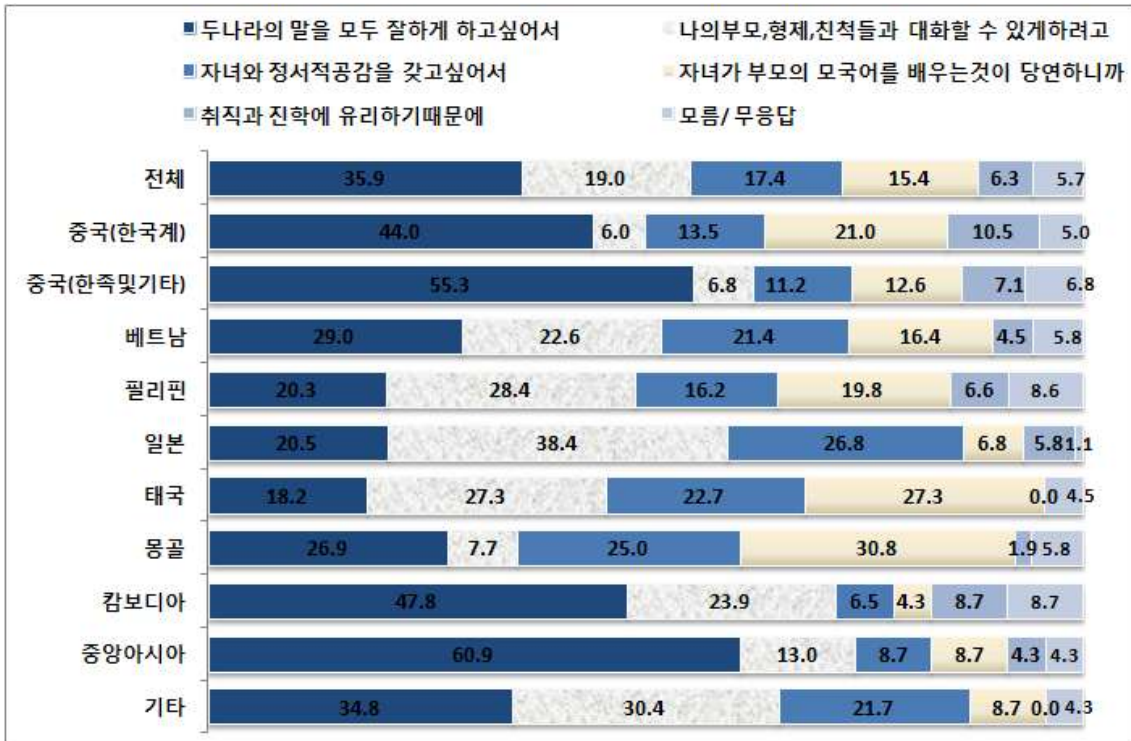
<그림 50>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2순위)



<그림 51>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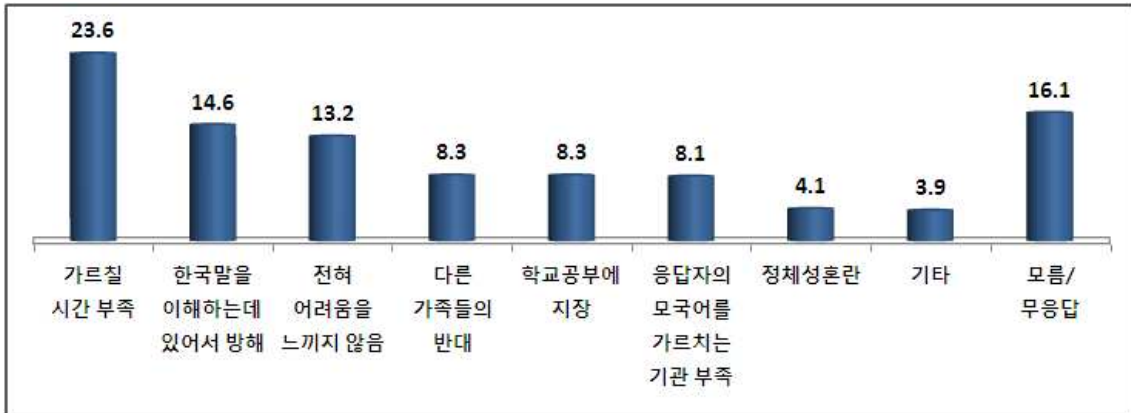
<그림 52>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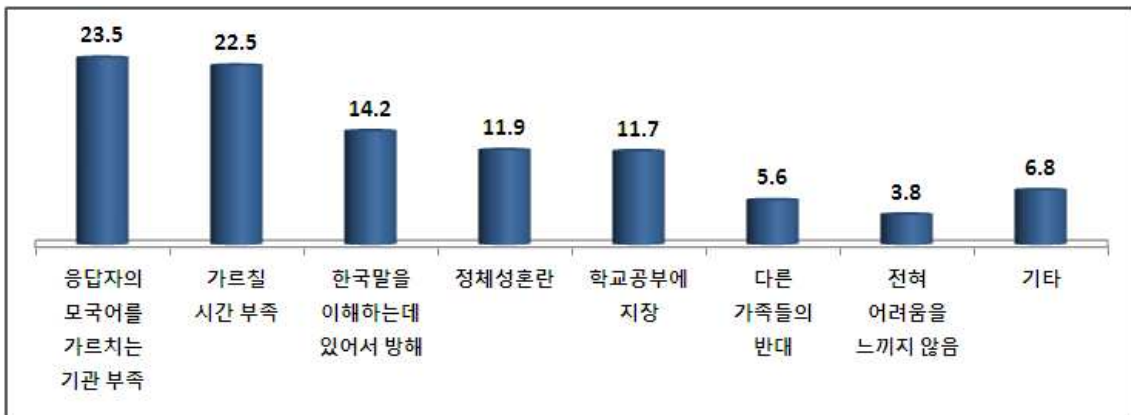
3)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

-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3.6%가 '가르칠 시간 부족', 14.6%가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 13.2%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8.3%가 '다른 가족들의 반대', '학교 공부에 지장', 8.1%가 '응답자의 모어를 가르치는 기관 부족', 4.1%가 '정체성 혼란'을 1순위로 답함.
- 일본에서 온 응답자는 '가르칠 시간 부족(40.5%)'을, 태국에서 온 응답자는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22.7%)'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모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답은 태국(18.2%)과 몽골(13.5%)에서 온 응답자가 많이 택했고, '학교 공부에 지장이 된다.'는 답은 한국계 중국(12%)과 베트남(13.5%)에서 온 응답자들로부터 나왔음.
- 대구의 경우는 '가르칠 시간 부족(45.9%)'을,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다른 가족들의 반대(23.4%)'를, 충청남북도 시 단위에서는 '응답자의 모어를 가르치는 기관 부족(22.7%)'을, 강원 시 단위의 경우는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33.3%)'를 원인으로 답함(표 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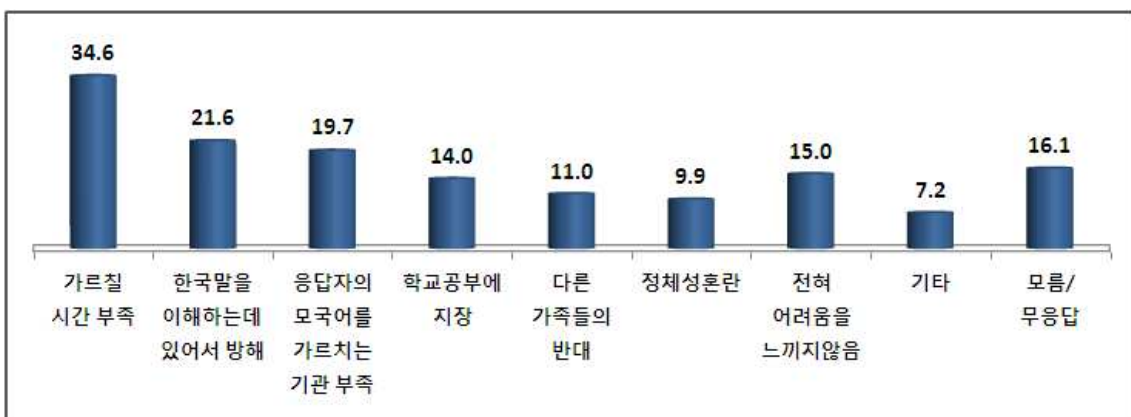
<그림 53>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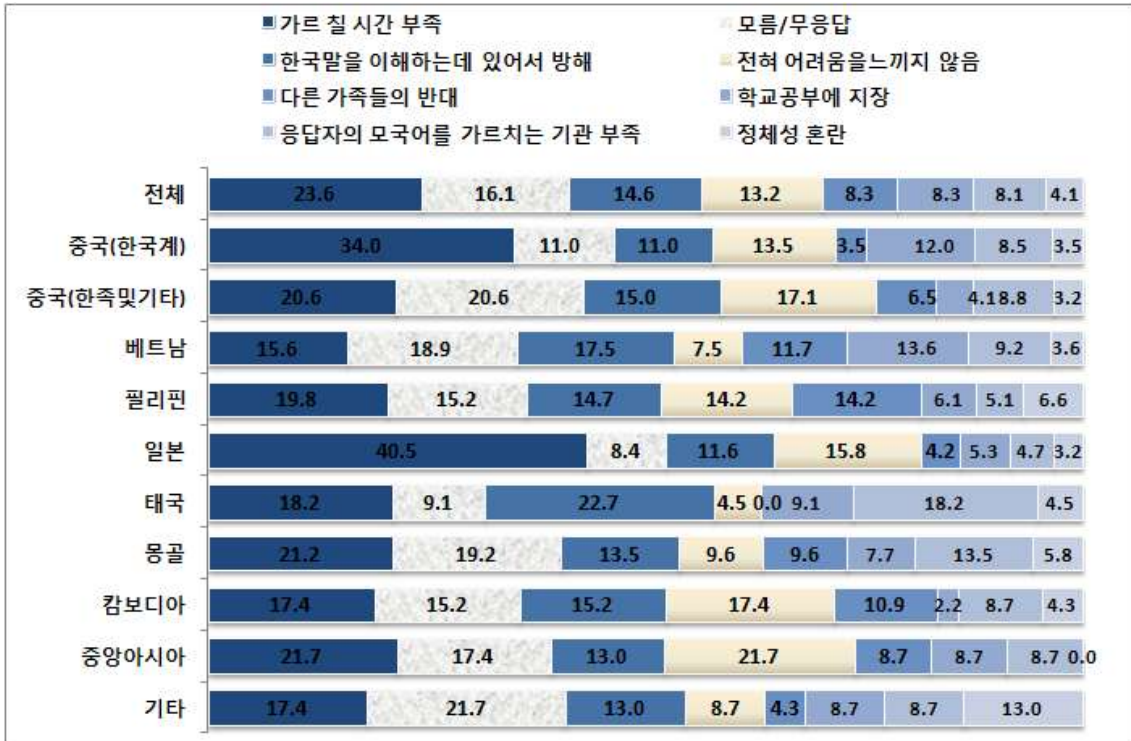
<그림 54>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2순위)



<그림 55>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중복 응답)



<그림 56>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언어권별



제3장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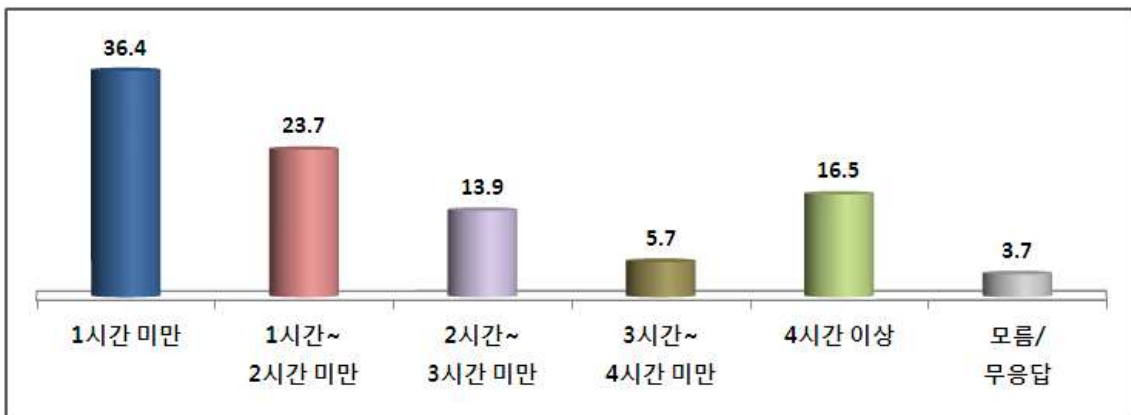
3장에서는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한국인, 모국인,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 공공 기관을 방문할 때의 사용 언어, 모어 위상, 언어 사용 태도 및 방언 사용 여부, 언어 입력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3.1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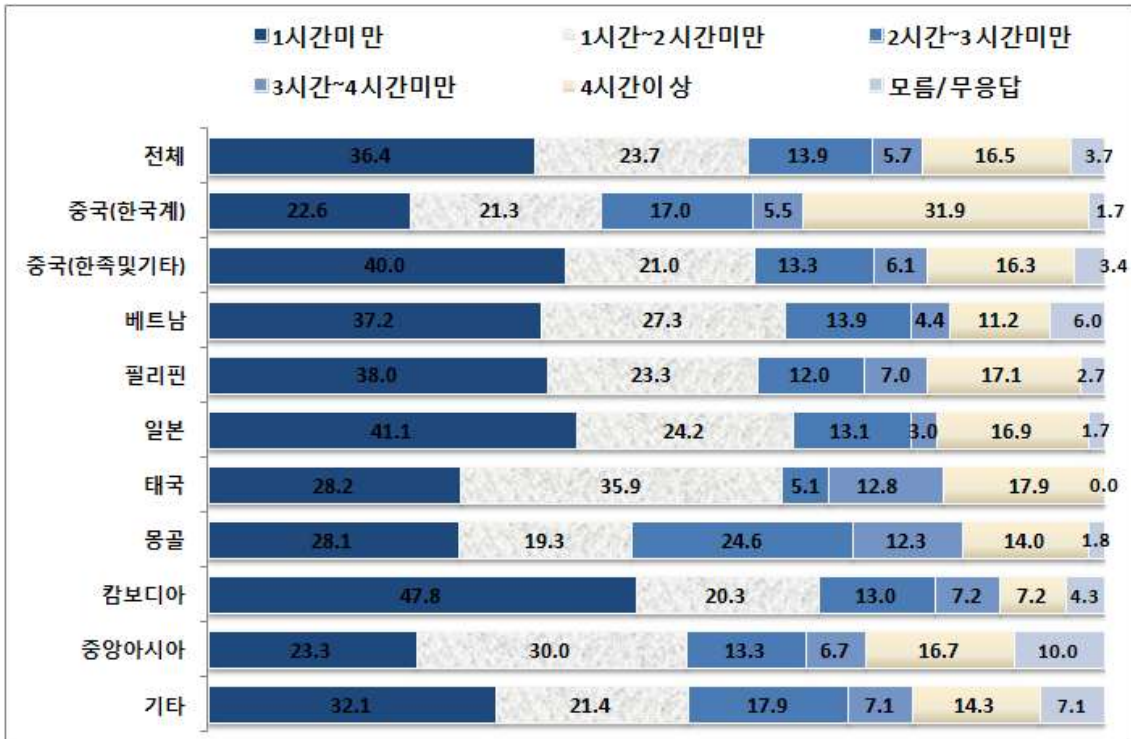
1) 대화 시간

- 하루 동안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평균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6.4%가 '1시간 미만', 23.7%가 '1시간~2시간 미만', 16.5%가 '4시간 이상', 13.9%가 '2시간~3시간 미만', 5.7%가 '3시간~4시간 미만' 순으로 답함. 이는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계 중국 출신의 응답자만이 '4시간 이상(31.9%)'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1시간 미만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 응답자의 직업이 전업 주부의 경우 '1시간 미만(42.3%)', 사무직인 경우 '4시간 이상(55.4%)'이라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가 좋을수록, '1시간 미만'이라고 답하는 비율은 줄고 '4시간 이상'이라 답한 비율이 증가함(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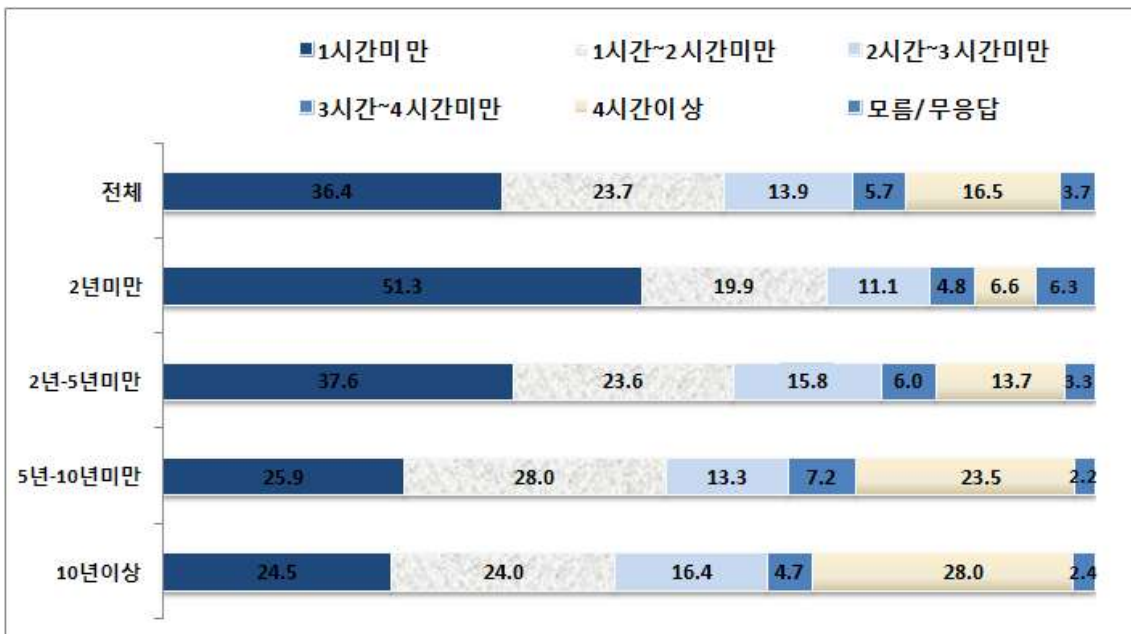
<그림 57>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평균 시간



<그림 58>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평균 시간-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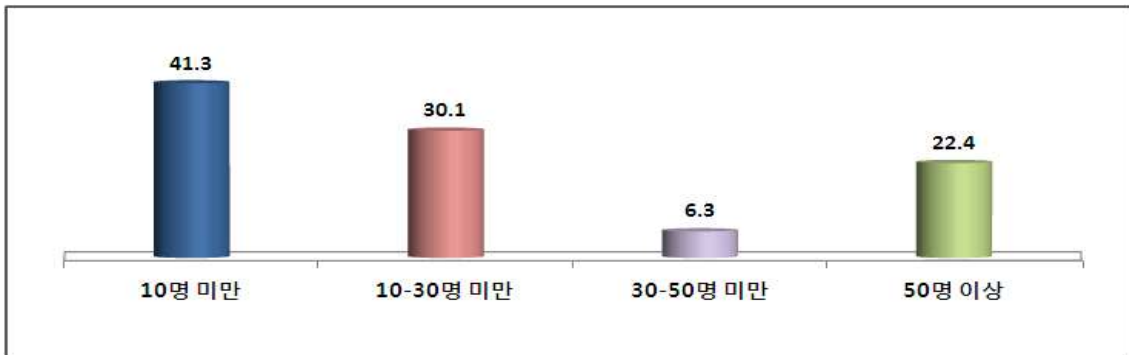
<그림 59> 가족 이외의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평균 시간-거주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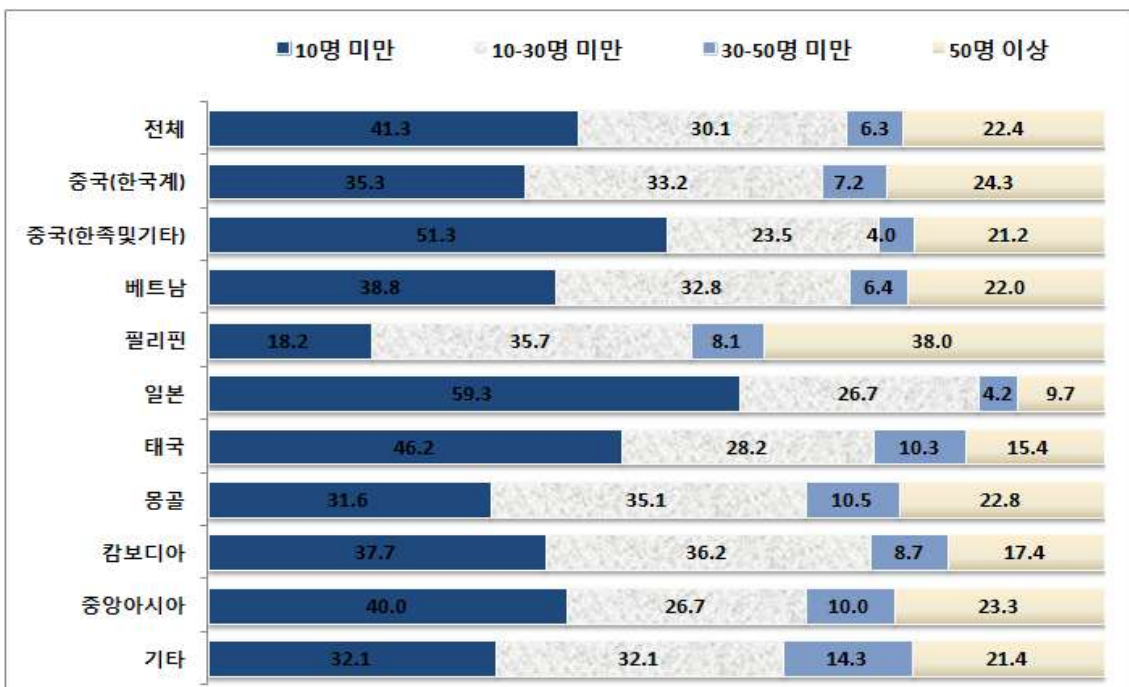
2) 한국인과의 교류

-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는 한국인이 몇 명 정도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3%가 '10명 미만', 30.1%가 '10명~30명 미만', 22.4%가 '50명 이상', 6.3%가 '30~50명 미만' 순으로 응답함.
- 응답자의 대부분이 '10명 미만' 혹은 '10~30명 미만'이라 답한 데 반해, 필리핀에서 온 응답자는 '50명 이상(38%)'을 알고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함.
- 응답자의 종교가 이슬람인 경우 '50명 이상(41.7%)'이라 답한 경우가 다른 종교의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1-1).

<그림 60> 한국인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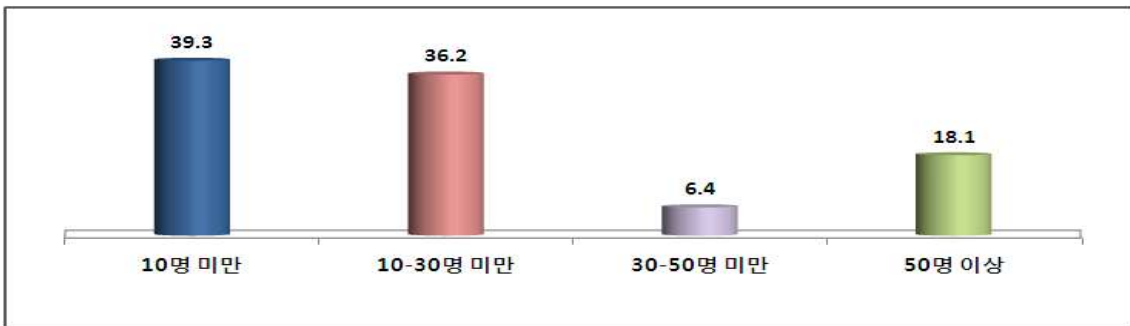
<그림 61> 한국인과의 교류-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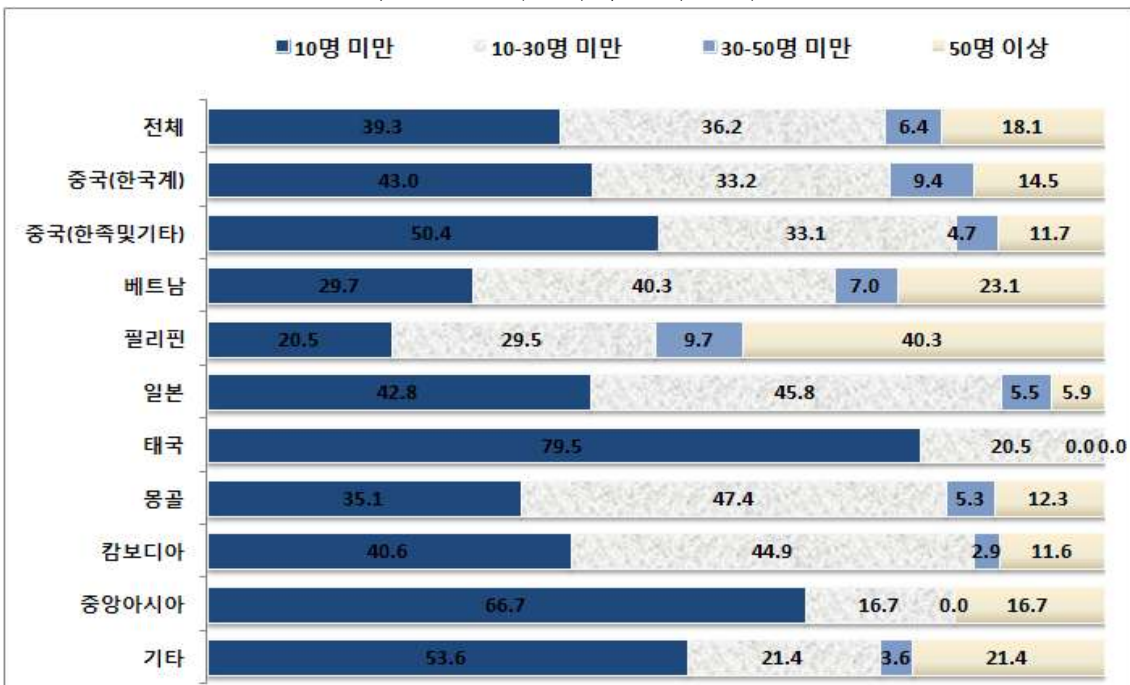
2) 모국인과의 교류

-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는 모국인이 몇 명 정도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3%가 '10명 미만', 36.2%가 '10~30명 미만', 18.1%가 '50명 이상', 6.4%가 '30~50명 미만'이라고 답함.
- 태국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30명 이상'으로 답한 경우가 없는 데에 반해 '10명 미만(79.5%)'이라 답한 응답률은 가장 높았음. 반면 필리핀 출신의 응답자의 경우 '50명 이상(40.3%)'이라 답한 비율이 다른 국가 출신보다 높았음.
- 사무직의 경우 '10명 미만(18.1%)'보다 '50명 이상(35.1%)'이 더 많았음. 응답자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도 다른 학력자들보다 '50명 이상(31%)'이라 답한 비율이 높았음(표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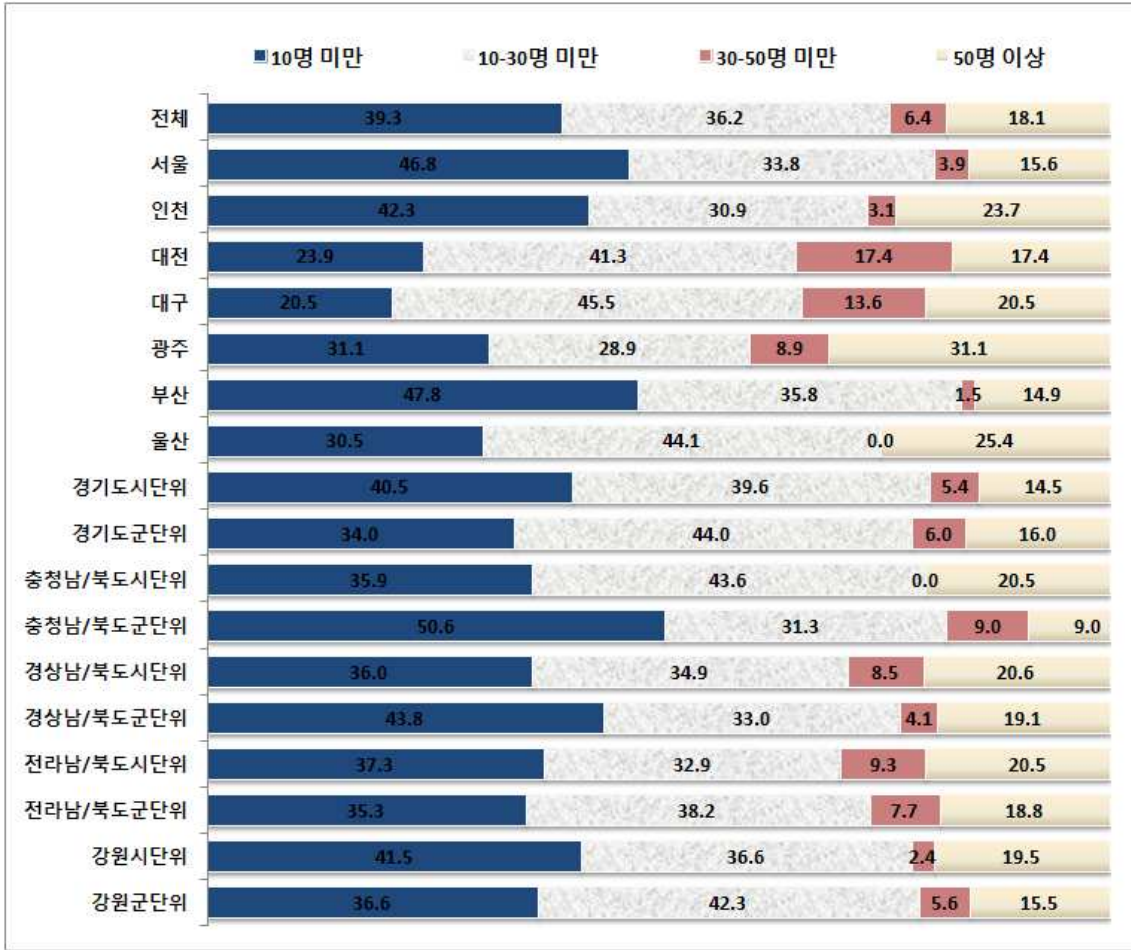
<그림 62> 모국인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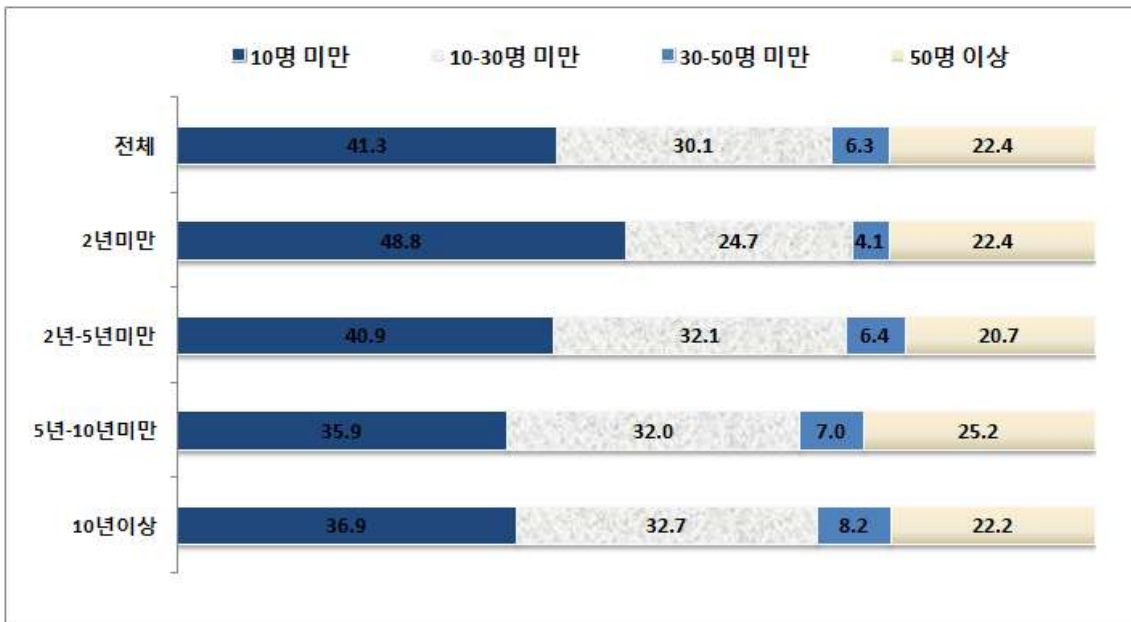
<그림 63> 모국인과의 교류-언어권별



<그림 64> 모국인과의 교류-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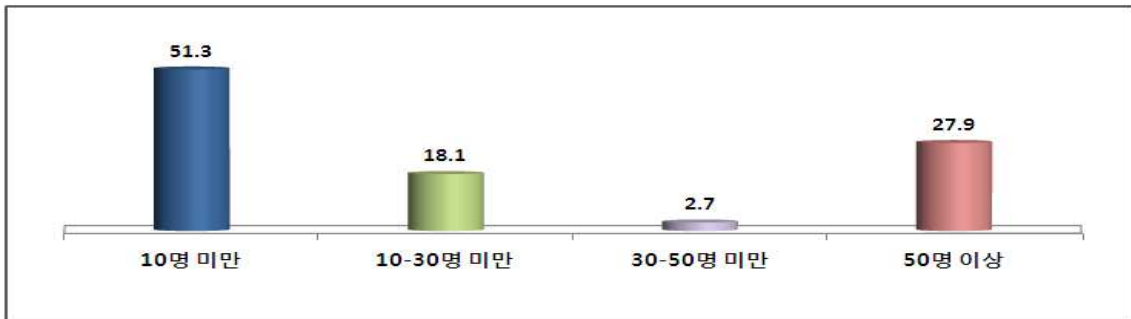
<그림 65> 모국인과의 교류-거주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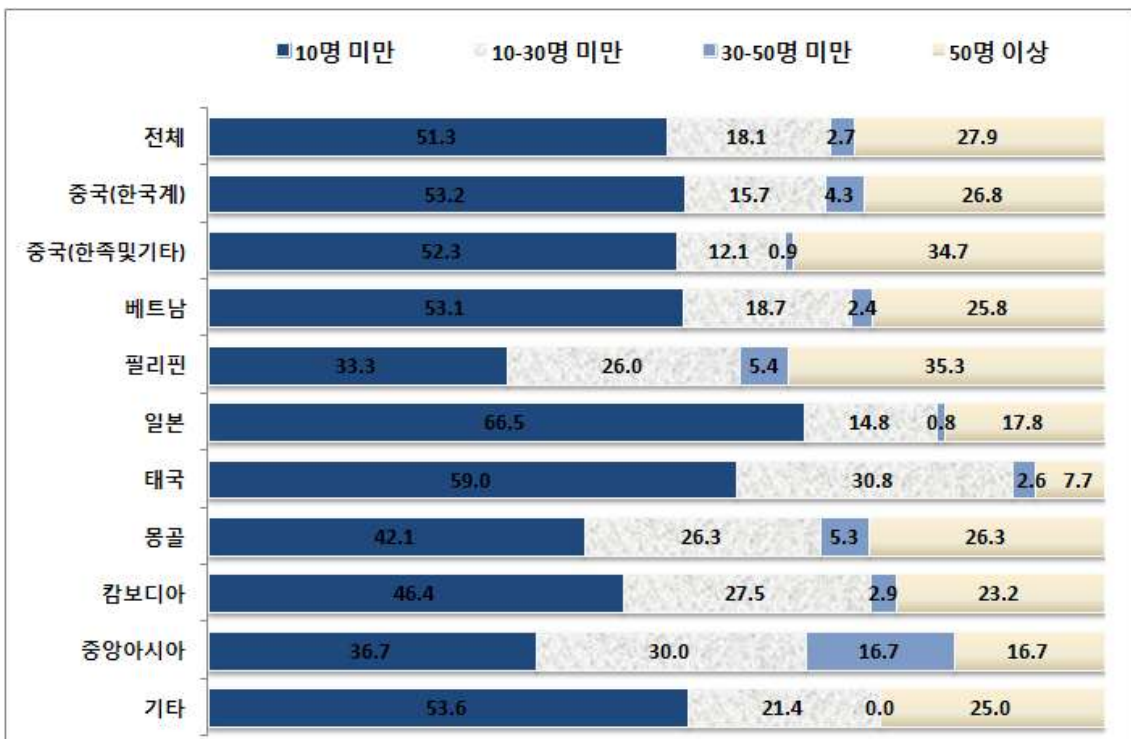
3)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

-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는 다른 나라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3%가 '10명 미만', 27.9%가 '50명 이상', 18.1%가 '10~30명 미만', 2.7%가 '30~50명 미만'이라고 답함.
- 필리핀 출신의 응답자는 50명 이상(35.3%)의 다른 나라 사람과 알고 지낸다고 답한 경우가 다른 나라 출신의 응답자보다 많았음.
- 대구에서는 '10~30명 미만(43.2%)', 광주에는 '50명 이상(41.1%)'의 다른 나라 사람과 교류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표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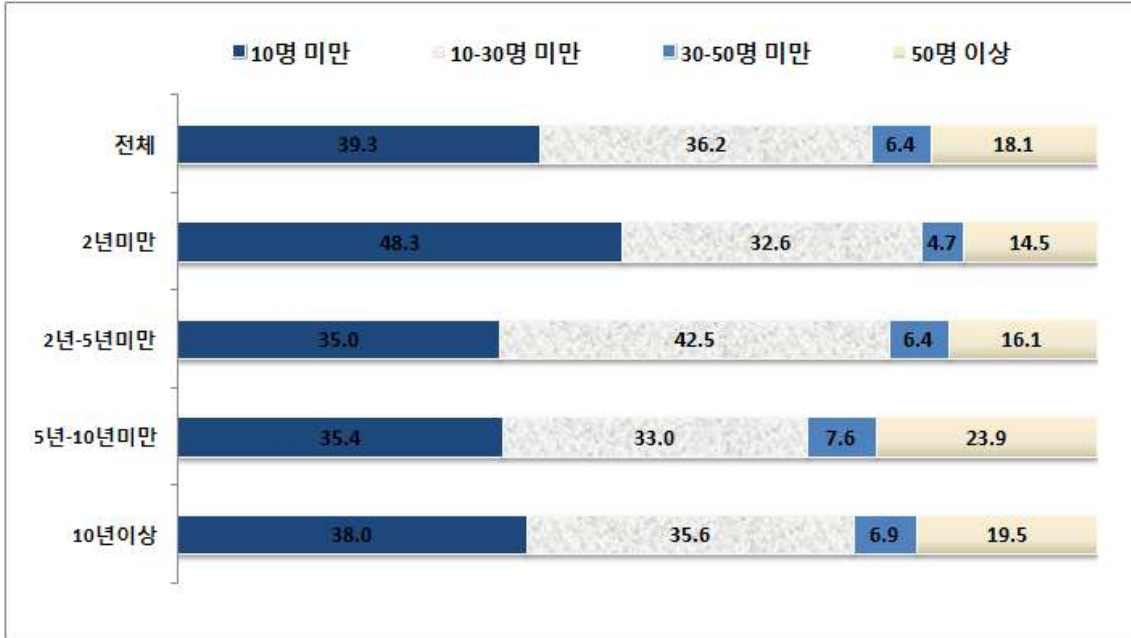
<그림 66>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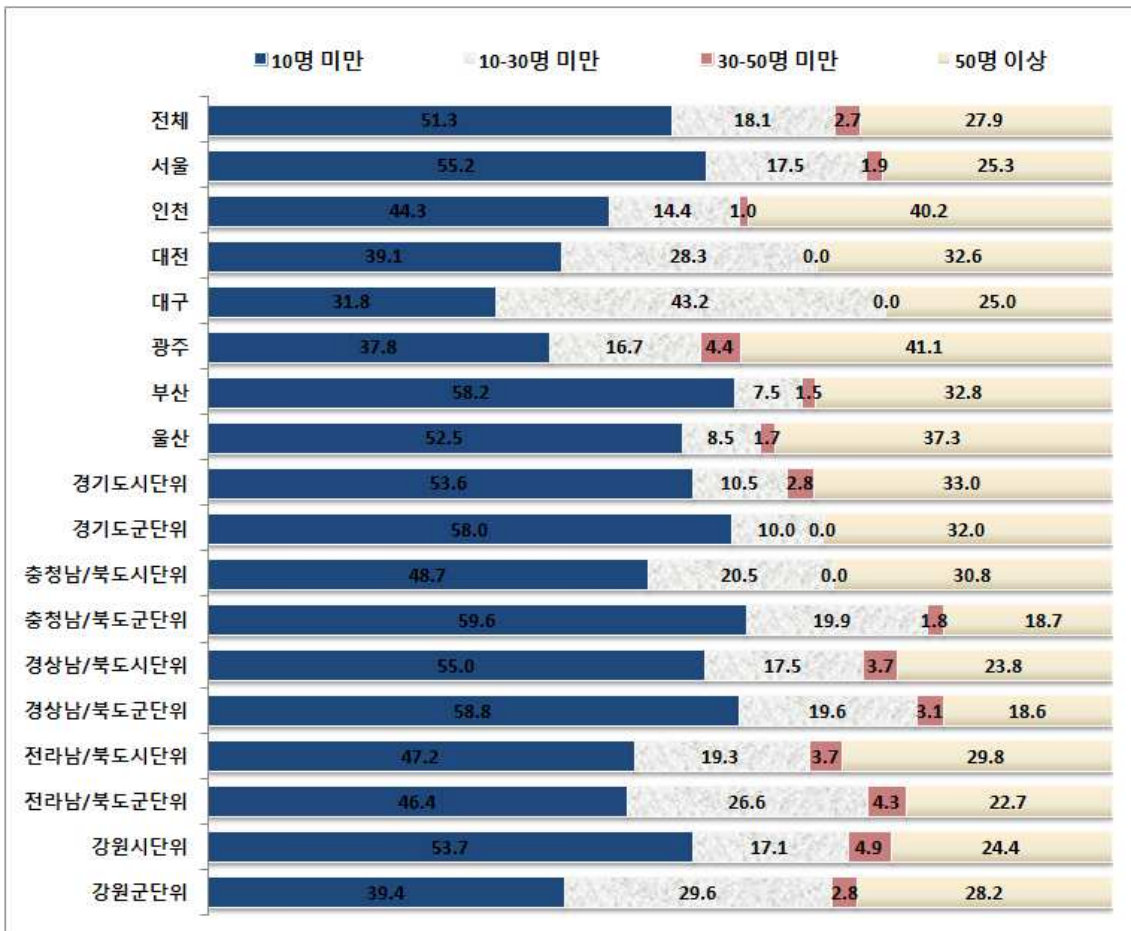
<그림 67>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언어권별



<그림 68>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거주 기간별



<그림 69> 다른 나라 사람과의 교류-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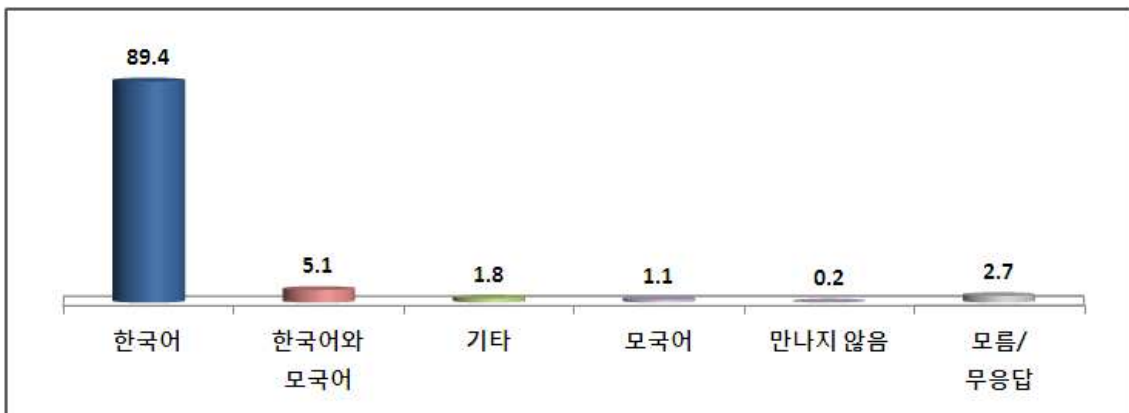


3.2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

1) 한국인 친구와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

- 만나는 한국인 친구와의 대화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4%가 '한국어', 5.1%가 '한국어와 모어', 1.8%가 '기타', 1.1%가 '모어'라고 답함.
- 필리핀(12.8%), 태국(10.8%), 중앙아시아(21.4%) 출신의 응답자는 '한국어와 모어를 둘 다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다른 국가 출신의 응답자에 비해 조금 더 높았음. 특히 필리핀 출신의 응답자는 '기타(10.9%)'를 답한 경우가 다른 응답자보다 높았음.
- 대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97.7%)'로 대화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2년 미만 거주(78.5%)한 응답자는 '한국어와 모어를 사용하는 경우(9%)'가 약간 있었지만, 2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한국어(90% 이상)'만을 사용한다는 답이 많았음.
- 남성(31.3%)의 경우 여성(4.9%)에 비해 '한국어와 모어를 둘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응답자나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이거나 연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한국어와 모어(7.4%, 14.1%)', '기타 언어(13%, 7%)'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더 많음.
-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한국어와 모어', '모어를 사용한다.'는 응답률은 낮았음(표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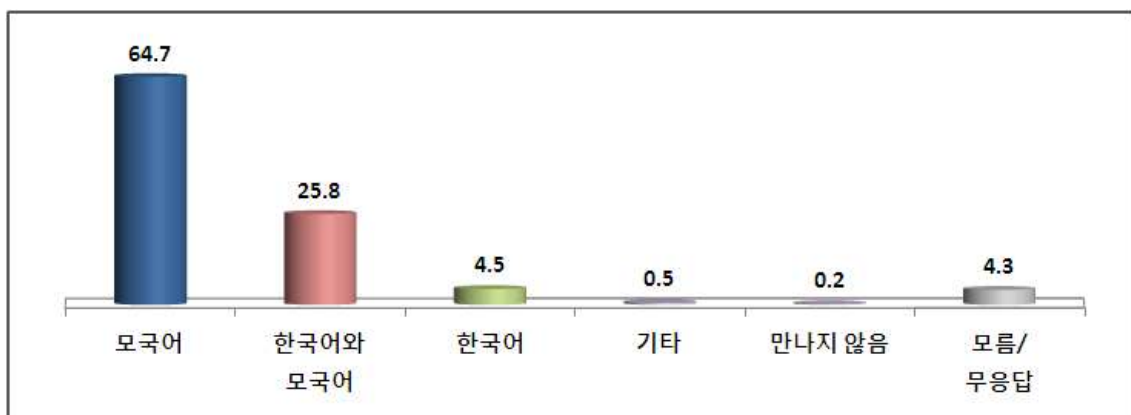
<그림 70> 한국인 친구와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



2) 모국인 친구와의 대화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 만나는 모국인 친구와 대화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4.7%가 '모어', 25.8%가 '한국어와 모어', 4.5%가 '한국어', 0.5%가 '기타' 순으로 응답함.
- 캄보디아(40.6%), 한국계 중국(34.5%), 중앙아시아(34.5%) 출신의 응답자는 '한국어와 모어 둘 다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음. 한국계 중국 출신의 응답자가 '한국어(18.1%)'를, 필리핀 출신의 응답자가 '기타(2.7%)'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았음.
-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가 좋을수록 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줄고, 한국어와 모어를 둘 다 사용하는 경우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늘었음(표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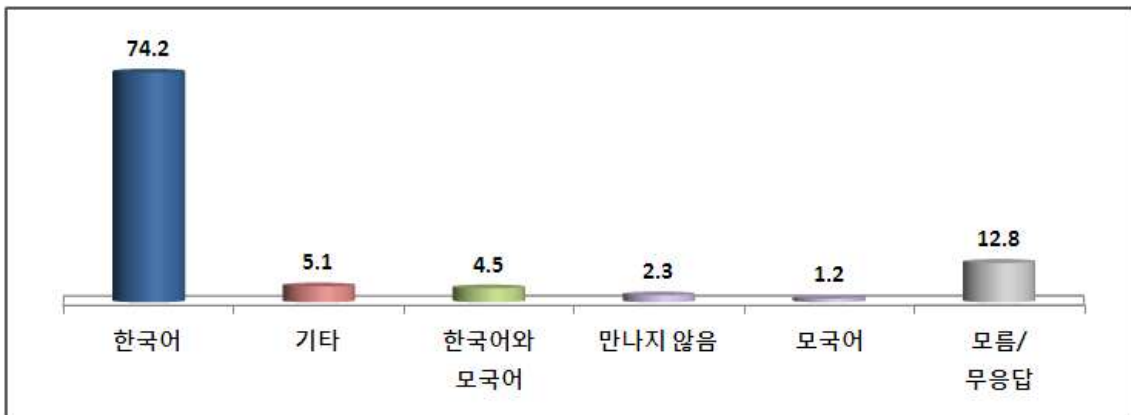
<그림 71> 모국인 친구와 대화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3) 다른 나라 사람과의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2%가 ‘한국어’, 5.1%가 ‘기타’, 4.5%가 ‘한국어와 모어’라고 답함.
- 일본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87.5%)’를 사용해 외국인 친구와 대화한다는 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한국계 중국 출신의 응답자는 ‘한국어(80%)’를 사용한다는 답이 많았음. 필리핀 출신의 응답자는 ‘기타(21.6%)’ 언어를 사용한다는 대답이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많았음. ‘한국어와 모어를 둘 다 사용한다.’는 답은 중앙아시아(14.3%), 태국(13.8%)에서 온 응답자들에게 많이 나옴.
- 거주 지역별로는 시 단위보다 군 단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어와 모어 둘 다 사용하는 경우는 적었음. 응답자가 천주교 신자인 경우 기타(16.7%) 언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비교적 많았는데 필리핀 출신 응답자 가운데 천주교 신자가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 응답자나 배우자가 대학원 학력이거나 연평균 가구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10.1%)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답이 적었고, 기타 언어나 한국어와 모어를 둘 다 사용한다는 답이 비교적 높았음.
- 한국어 능력 검사에 90~100점 이상을 받은 응답자는 한국어(85.3%) 사용에 대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표 12-3).

<그림 72>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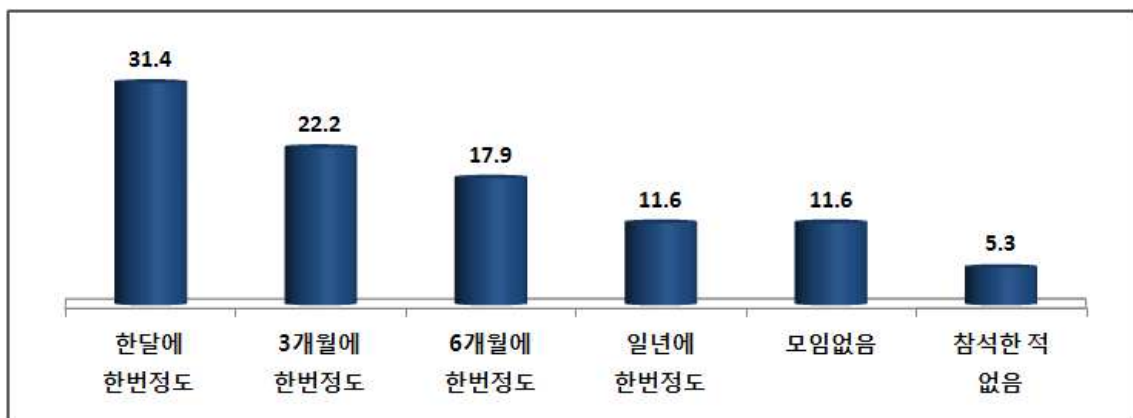


3.3 모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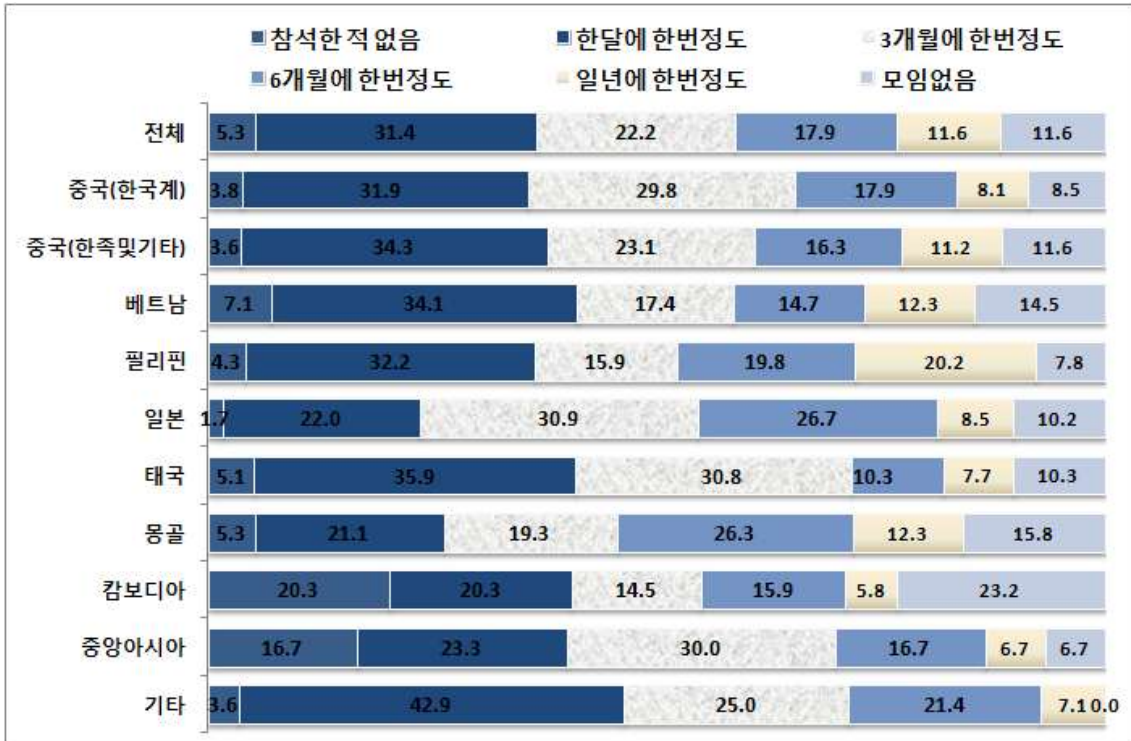
(1) 한국 가족 친척 모임 참여

- 전체 응답자의 31.4%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22.2%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17.9%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8.1%가 ‘일 년에 한 번 정도’, 5.3%가 ‘참석한 적 없음’이라고 답함.
- 캄보디아(20.3%)와 중앙아시아(16.7%) 출신의 응답자는 ‘참석한 적 없다.’라고 답한 경우가 다른 문화권의 응답자들보다 많았으며, 캄보디아 출신 응답자는 ‘모임 없음(23.2%)’이 다른 문화권의 응답자들보다 많았음. 필리핀 출신 응답자는 ‘일 년에 한 번 정도(20.2%)’ 친척 모임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다른 문화권 응답자들보다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참석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줄어들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참석한다는 응답률이 늘어남.
- 응답자(23.4%)나 배우자(22.1%)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는 응답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비교적 높았음(표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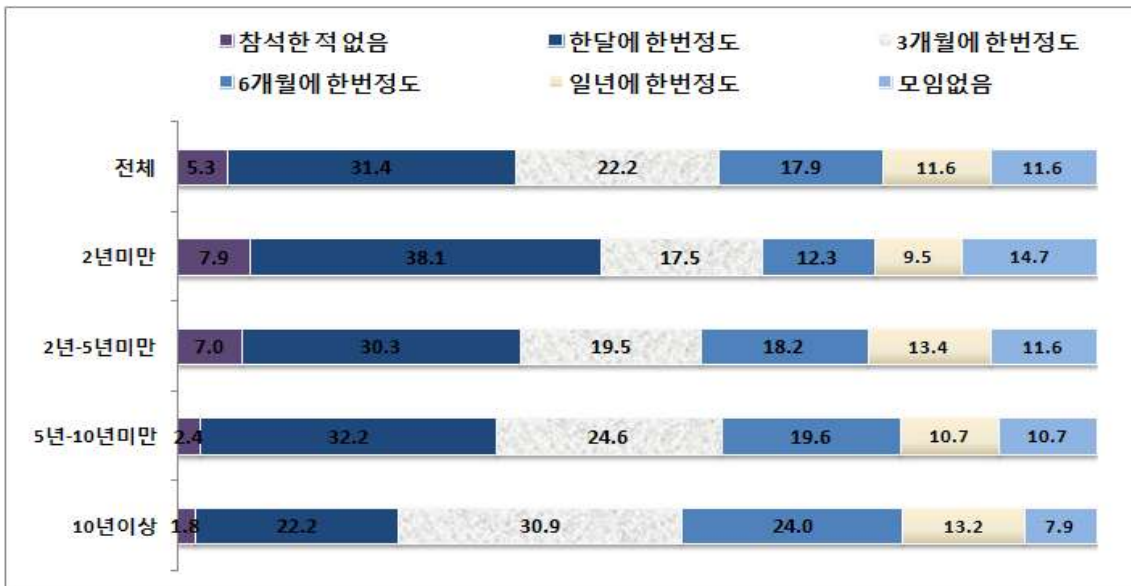
<그림 73> 한국 가족 친척 모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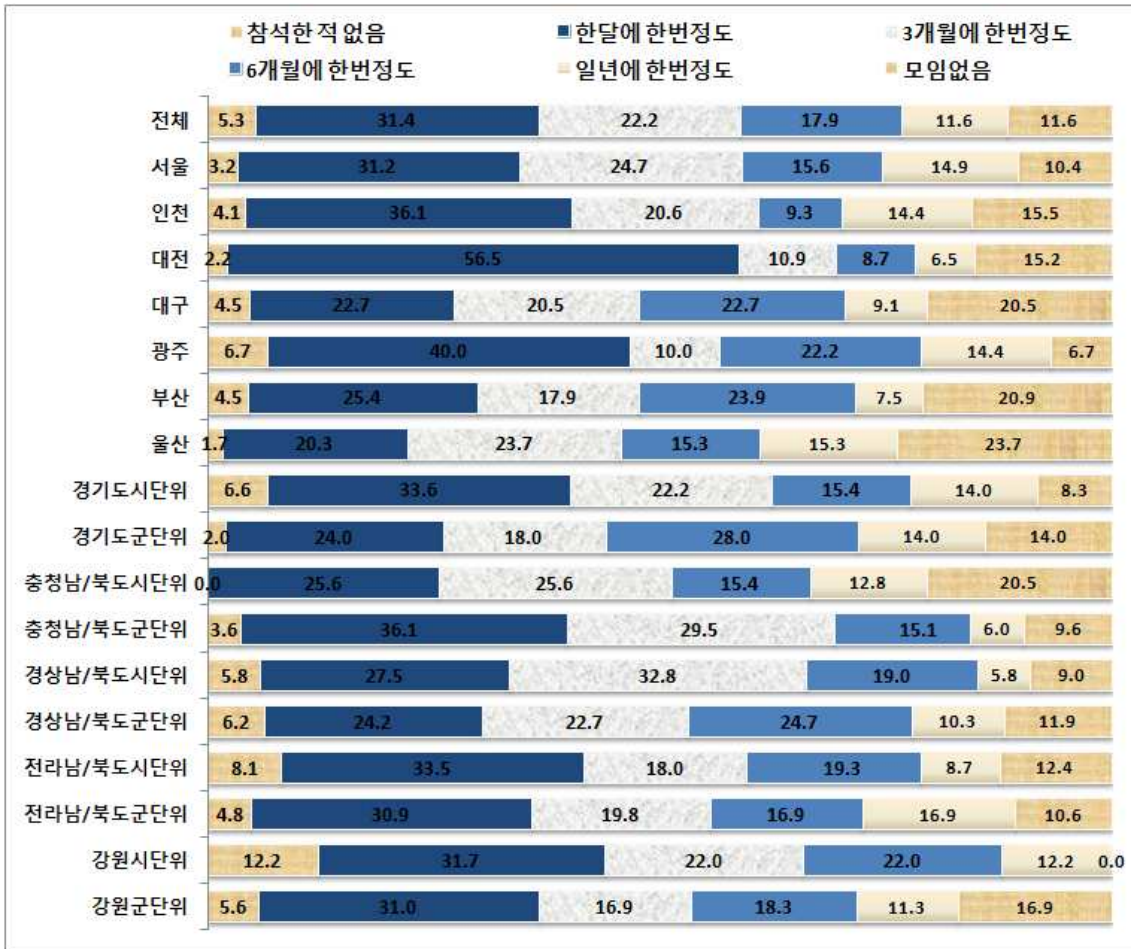
<그림 74> 한국 가족 친척 모임 참여-언어권별



<그림 75> 한국 가족 친척 모임 참여-거주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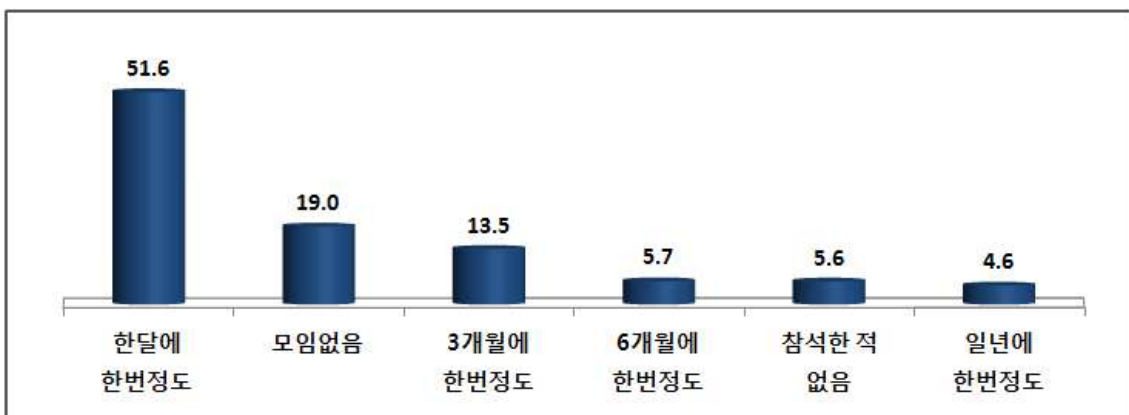
<그림 76> 한국 가족 친척 모임 참여-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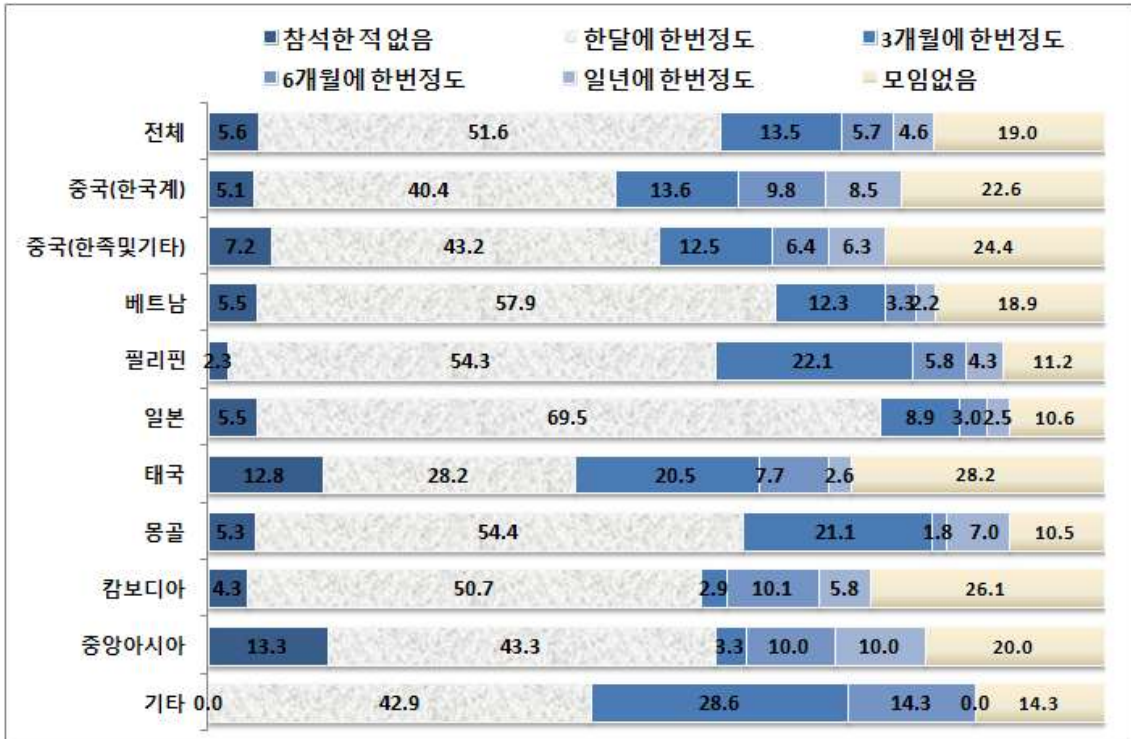
2)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

-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1년에 몇 차례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1.6%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19%가 '모임 없음.', 14.5%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5.7%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5.6%가 '참석한 적 없음.' 순으로 답함.
- 일본에서 온 응답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69.5%)'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중앙아시아(13.3%), 태국(12.8%)에서 온 응답자는 '참석한 적 없다.'에도 응답을 많이 함.
- 대전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71.7%)'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부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참석한 적 없음(13.4%)'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보다 많은 답을 하였음.
-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51.7%)' 모국인 친구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응답자들은 '참석한 적 없음(23.5%)'에 여성(5.4%)보다 답을 많이 함.
- 배우자 연령이 20대 미만의 경우는 '모임에 참석한 적 없음(20.8%)'이나 '모임 없음(25%)'에 응답을 많이 함(표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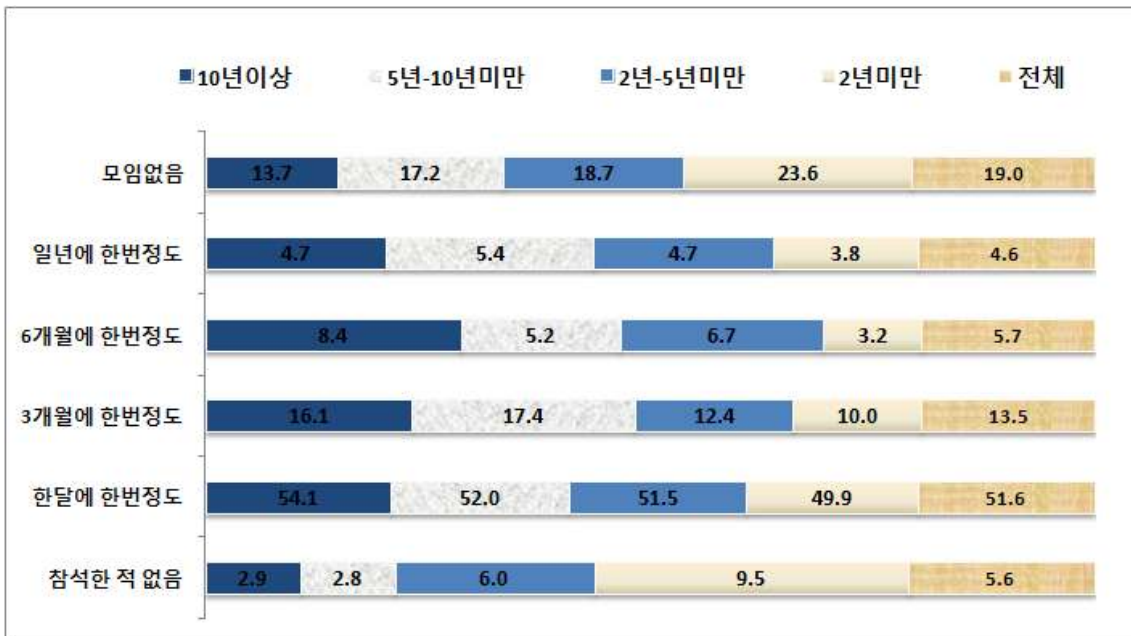
<그림 77>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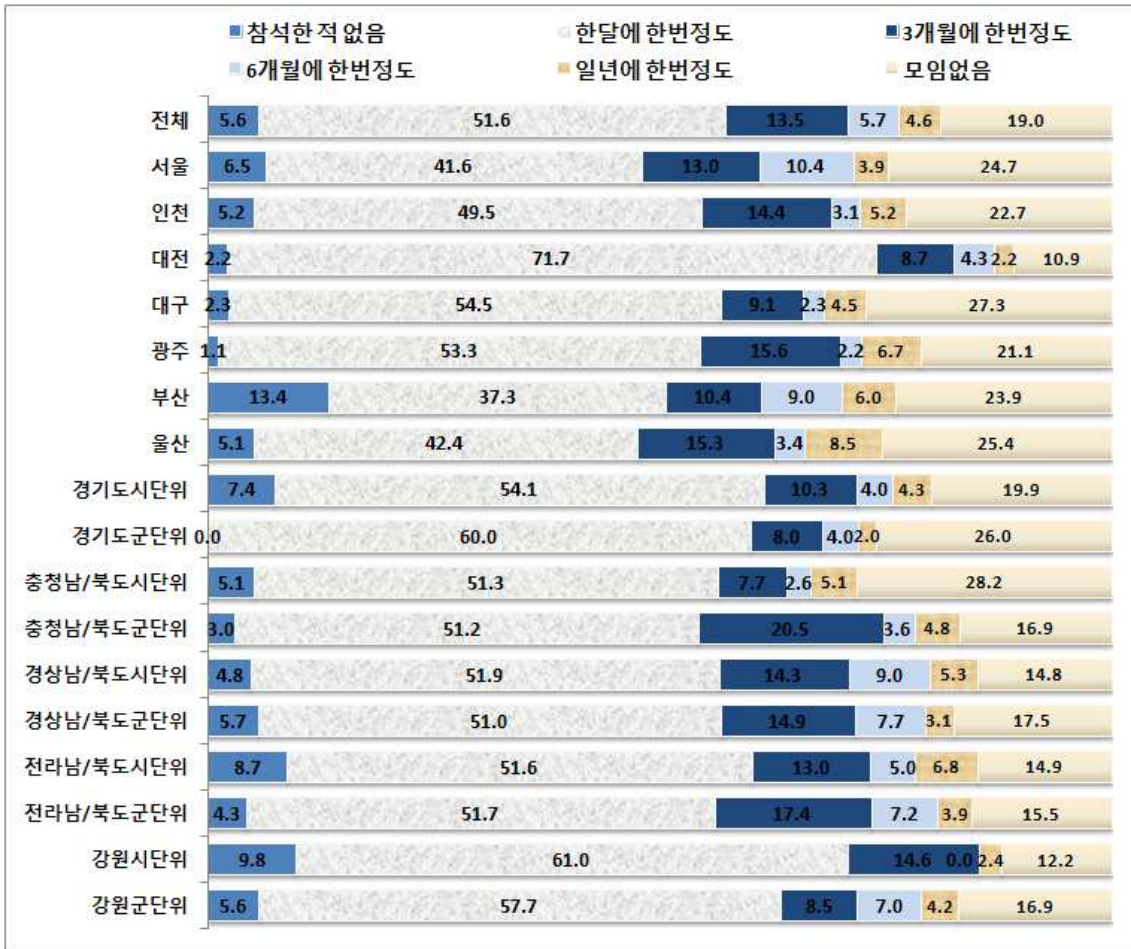
<그림 78>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언어권별



<그림 79>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거주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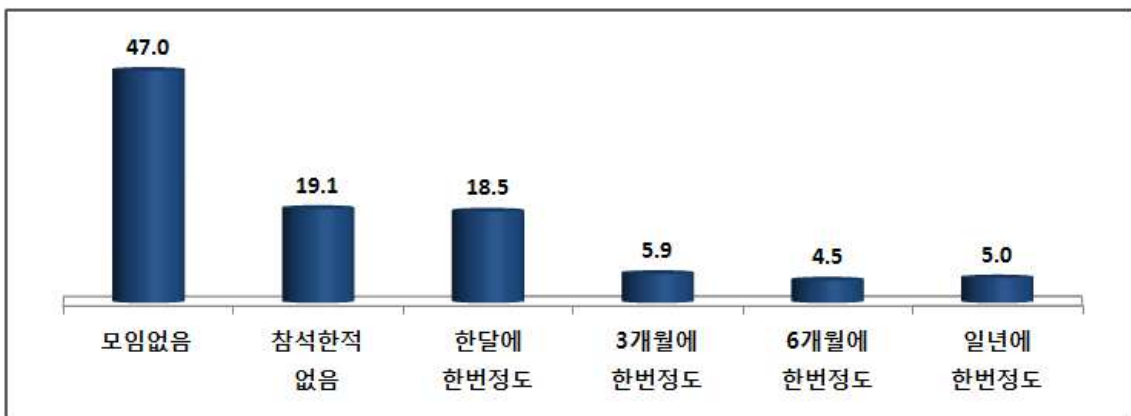
<그림 80> 모국인 친구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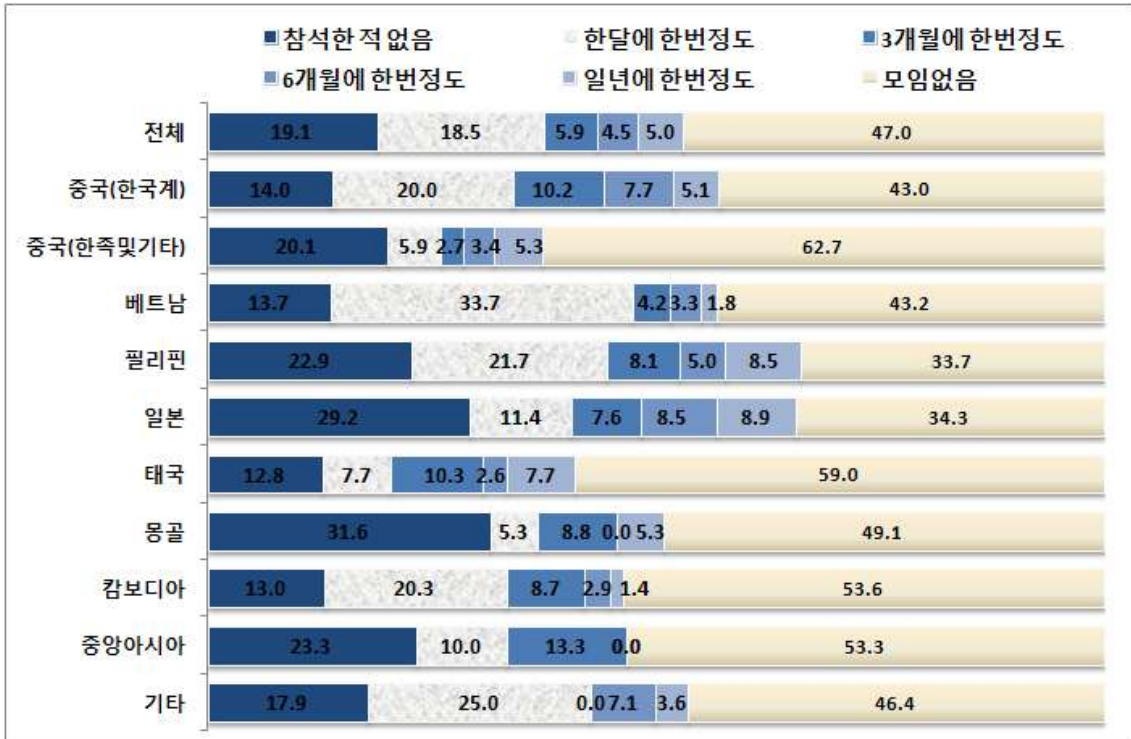
3)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

-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1년에 몇 차례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모임 없음', 19.1%가 '참석한 적 없음', 18.5%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5.9%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5%가 '일 년에 한 번 정도', 4.5%가 '6개월에 한 번 정도'라고 답을 함.
- 몽골 출신 응답자의 경우 '참석한 적 없음(31.6%)'에 많은 답을 하였고, 한족 및 기타 중국 출신 응답자도 '모임 없음(62.7%)'과 '참석한 적 없음(20.1%)'에 답을 많이 해 지역 친구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 출신 응답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33.7%)' 지역 친구 모임에 참석한다는 답을 함.
-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모임 없음(71.1%)'에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응답한 지역은 강원 시 단위(31.7%)가 가장 높았고, '3개월에 한 번 정도'에 응답한 지역은 전라남북도 군 단위(13.5%), 강원 군 단위(12.7%)가 비교적 높았으며,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경기도 군 단위(10%)가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울산(11.9%)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음.
-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한다는 것에 여성(18.6%)이 남성(5.9%)보다 응답률이 높았고, '참석한 적 없음'에 남성(35.3%)이 여성(18.9%)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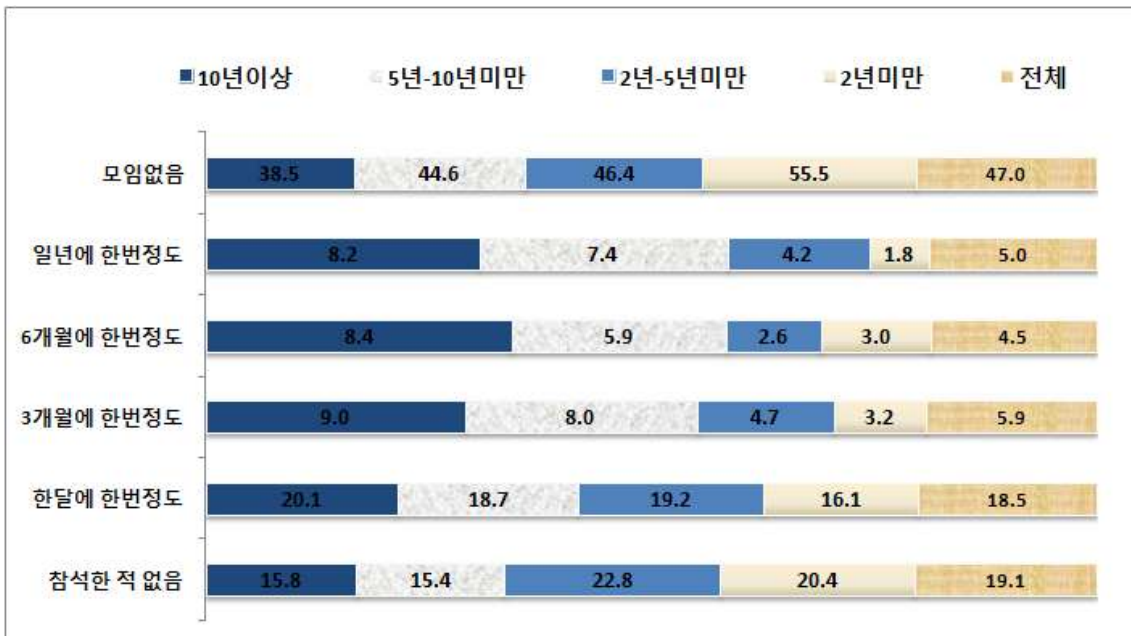
<그림 81>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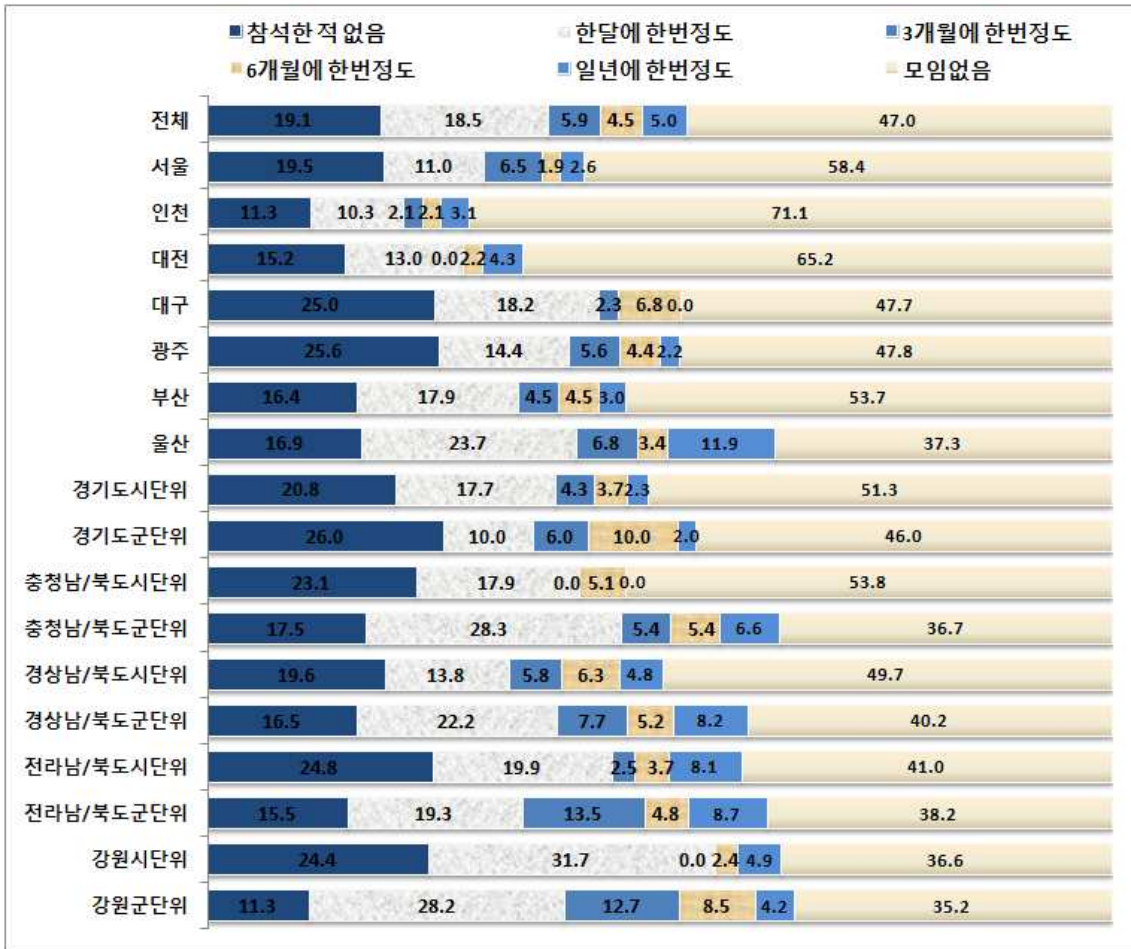
<그림 82>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 참여-언어권별



<그림 83>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 참여-거주 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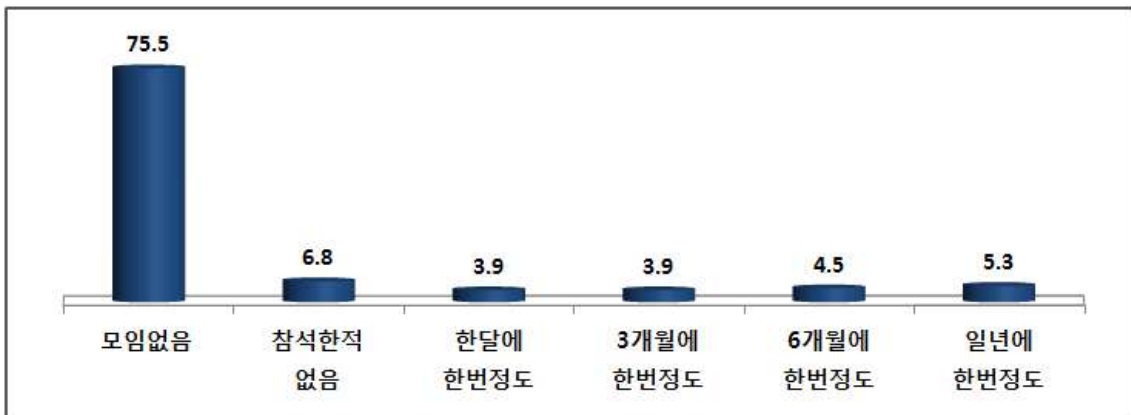
<그림 84> 지역 친구 모임이나 활동 참여-거주 지역별



4) 학부모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

- 학부모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5.5%가 '모임 없음.', 6.8%가 '참석한 적 없음.', 4.5%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3.9%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라고 답함.
- 일본(17.8%)과 태국(17.9%) 출신 응답자가 '일 년에 한 번 정도 참석한다.'는 응답을 다른 언어권 응답자보다 많이 함.
- 필리핀,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출신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학부모 모임에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나 배우자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참석한 적 없다.'고 답한 경우(12.5%,15.2%)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았음. 연평균 가구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의 다문화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11.5%)'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다른 가구보다 높았음(표 13-4).

<그림 85> 학부모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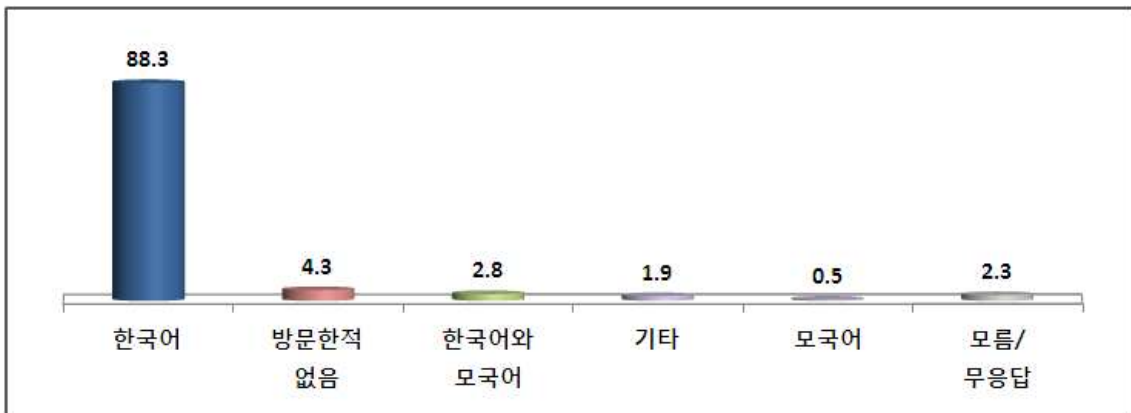


3.4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의 사용 언어

1) 은행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은행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8.3%가 ‘한국어’, 4.3%가 방문한 적 없음’, 2.8%가 ‘한국어와 모어’, 1.9%가 ‘기타’, 0.5%가 ‘모어’라고 답함.
- 필리핀 출신의 응답자는 ‘한국어와 모어 둘 다(9.3%)’ 쓰거나 ‘기타(11.6%)’ 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다른 국가 출신 응답자에 비해 높았음.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응답자는 ‘방문한 적 없음(12.9%)’, ‘한국어와 모어(5.5%)’, ‘기타(4.5%)’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음.
- 응답자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인 경우는 ‘방문한 적 없음(11.5%)’에 답이 비교적 많았고, 대학원 학력인 경우에 ‘기타(19%)’ 언어나 ‘한국어와 모어(10.3%)’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음.
- 한국어 능력 검사의 점수가 좋을수록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점수가 낮을수록 방문한 적 없거나 한국어와 모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언어 및 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표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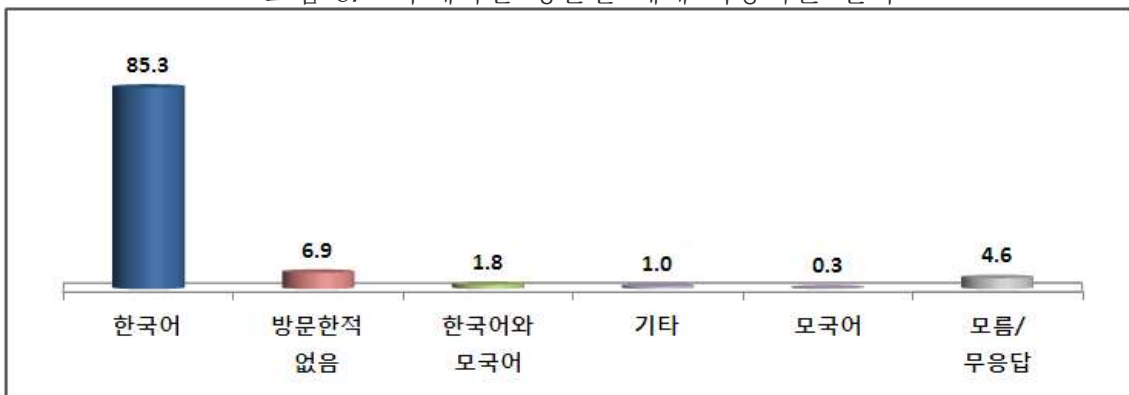
<그림 86> 은행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2) 우체국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우체국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85.3%가 '한국어', 6.9%가 '방문한 적 없음', 1.8%가 '한국어와 모어', 1%가 '기타', 0.3%가 '모어'라고 답함.
- 필리핀 출신의 응답자는 '한국어와 모어 둘 다(5.8%)' 쓰거나 '기타(5.8%)' 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다른 국가 출신 응답자에 비해 높음. '방문한 적 없음'이라는 응답에 한족 및 기타 중국 출신 응답자(10.8%)와 태국(10.3%) 출신 응답자가 다른 국가 출신 응답자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경기도 시 단위(12.3%)와 충청남북도 시 단위(12.8%)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방문한 적 없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음.
- 한국어 능력 검사의 점수가 좋을수록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점수가 낮을수록 방문한 적 없거나 한국어와 모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언어, 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표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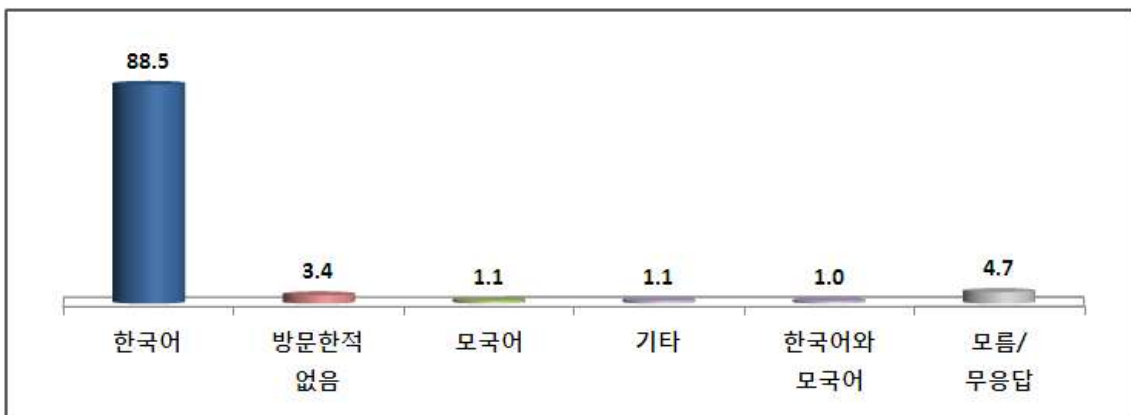
<그림 87> 우체국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3) 자녀 학교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자녀 학교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8.5%가 '한국어', 3.4%가 '방문한 적 없음.', 1.1%가 '모어', 1.1%가 '기타', 1%가 '한국어와 모어'라고 답함.
- 필리핀 출신의 응답자는 '기타(5.1%)' 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다른 국가 출신 응답자에 비해 많음.
- 응답자(13.3%)나 배우자(20%)의 학력이 대학원인 경우 '기타' 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다른 학력군보다 비교적 높았음.
- 한국어 능력 검사의 점수가 좋을수록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점수가 낮을수록 방문한 적이 없거나 한국어와 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표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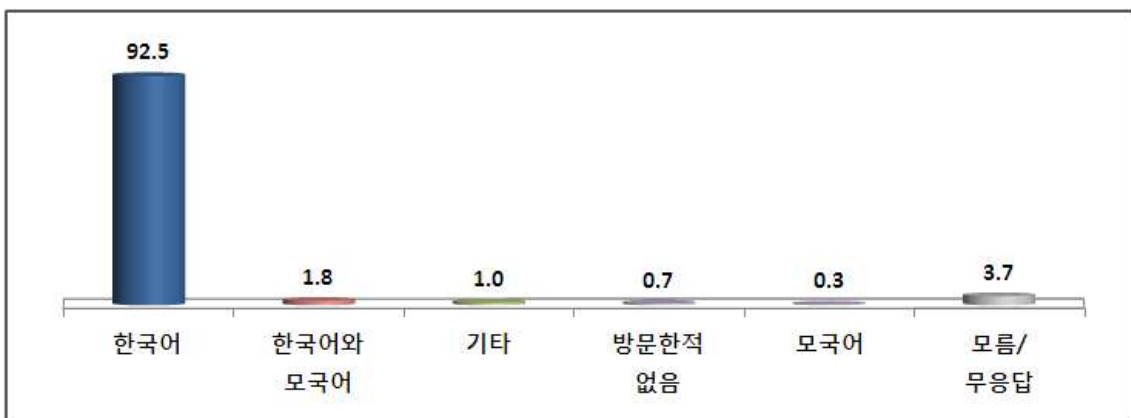
<그림 88> 자녀 학교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4)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을 방문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92.5%가 '한국어'라고 응답함.
-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사용량이 많고 거주 기간이 짧으면 모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는 경향이 있음.
- 강원 시 단위가 97.6%로 시장, 마트, 백화점 방문 시에 한국어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생활 한국어에 비교적 능숙하여 시장이나 마트에서 용이하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표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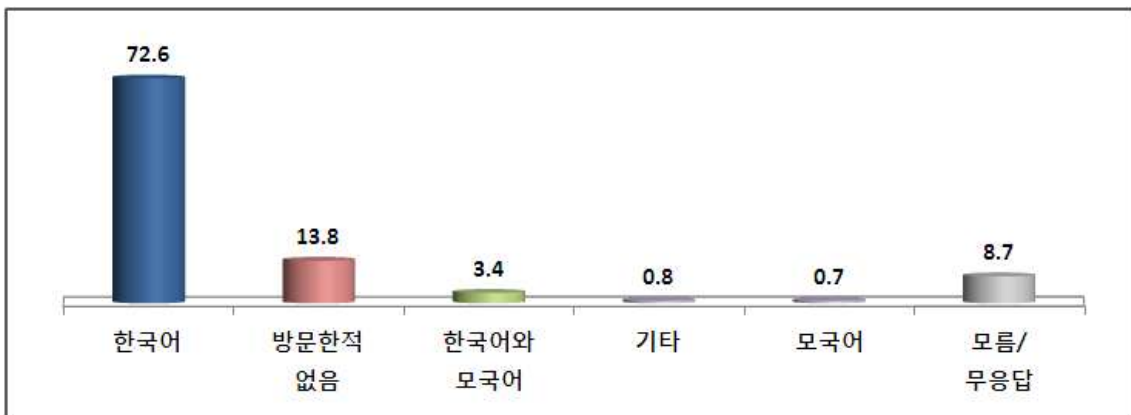
<그림 89>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을 방문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5) 주민 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주민 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2.6%가 ‘한국어’라고 답했고 13.8%가 ‘방문한 적 없음.’이라고 답함.
- 일본이 88.6%로 한국어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족 및 기타 중국이 61.2%로 한국어 사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26.1%로 ‘방문한 적 없음.’이 가장 많았음.
-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남북도 시 단위에서 23.1%가 ‘방문한 적 없음.’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함.
- 2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는 44.9%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90.5%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함.
- ‘방문한 적 없음.’에서는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응답자들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4%로 낮게 나타나 거주 기간이 길수록 주민 센터 방문 경험이 많고 한국어로 말한 경험이 많이 있음을 확인함.
- 주민 센터에 가더라도 한국어와 모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11.8%로 나왔음.
- 배우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주민 센터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배우자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51.3%만이 주민 센터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주민 센터에 가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이는 ‘방문한 적 없음.’의 응답률이 배우자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인 경우에는 4.9%로 낮은 반면, 배우자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15.8%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임.
- 연평균 소득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방문한 적 없음.’에 대한 응답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름/무응답’도 14.5%로 나타났음(표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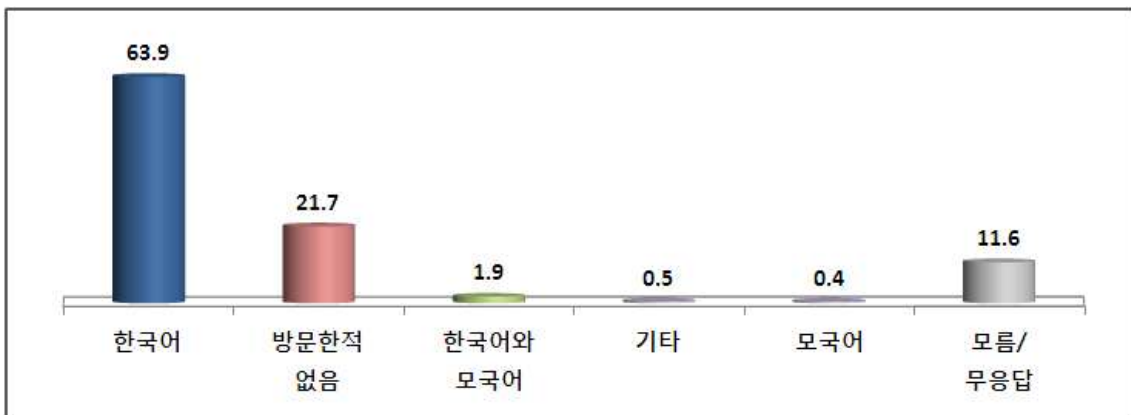
<그림 90> 주민 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6) 마을회관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마을회관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어'가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문한 적 없음.'이 21.7%로 나타남.
- 한국어 사용은 한국계 중국이 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몽골이 77.2%로 나타남. '방문한 적 없음.'이라는 응답은 한족 및 기타 중국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앙아시아가 30%로 다음 순위로 높게 나타남.
- 충청남북도 군 단위(78.9%)와 강원 군 단위(78.9%)에서는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 어업,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을회관 방문 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방문한 적 없음.'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마을회관 방문 횟수가 다른 직업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배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마을회관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7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47.4%로 낮아짐.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마을회관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배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방문한 적 없음'의 비율이 2.4%인데 반해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문한 적 없음'이 3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가구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방문한 적 없음.'이 16.6%인데 반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3.1%가 '방문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함(표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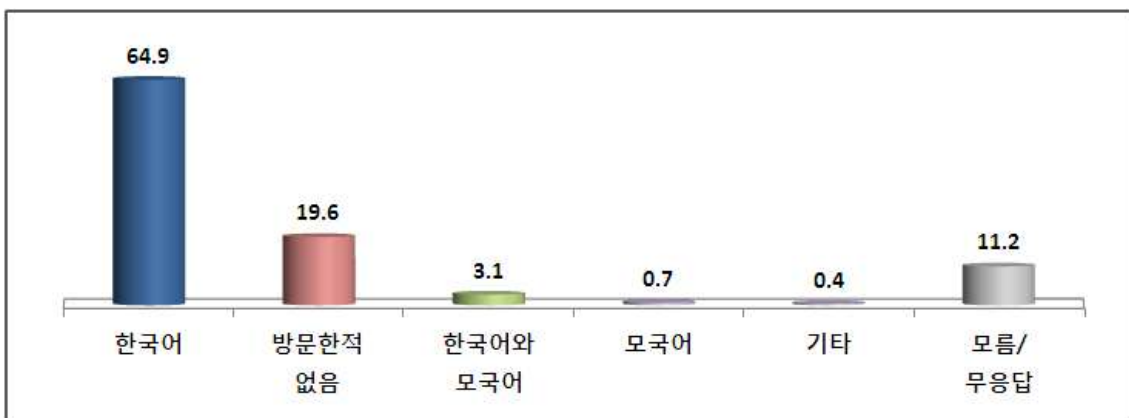
<그림 91> 마을회관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7) 복지회관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복지회관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는 64.9%가 '한국어'라고 답했고 19.6%가 '방문한 적 없음.'이라고 답함.
-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방문한 적 없음.'이라는 응답에 한족 및 기타 중국이 28.6%, 태국이 28.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자는 몽골 80.7%, 한국계 중국 80.4%로 나타남.
- 거주 기간이 길수록 '방문한 적 없음.'의 비율이 줄고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늘어남.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는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35.8%에 불과한 반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85.2%로 늘어남.
-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지회관을 방문하는 횟수도 많아지며 그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횟수도 많아짐을 추측할 수 있음. 20대 미만의 경우 '방문한 적 없음.'이 23.9%에서 40대 이상이 되면 '방문한 적 없음.'이 15%로 줄어듦(표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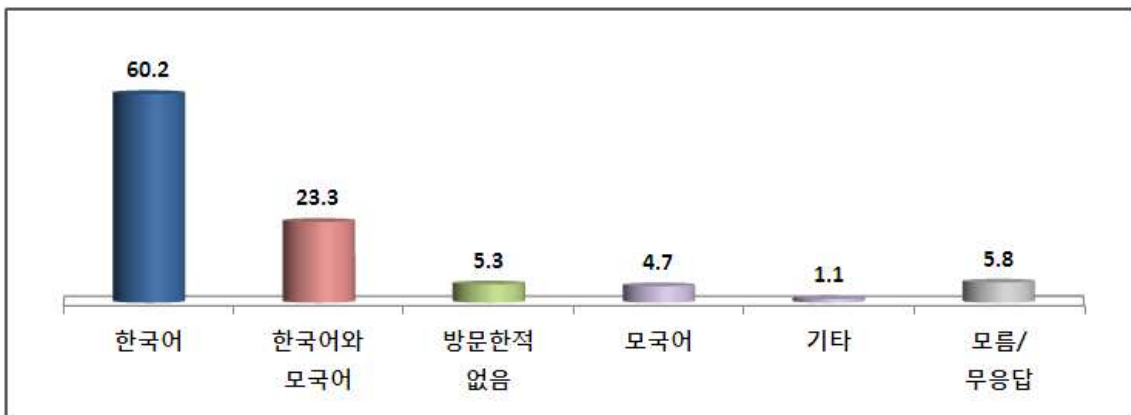
<그림 92> 복지회관을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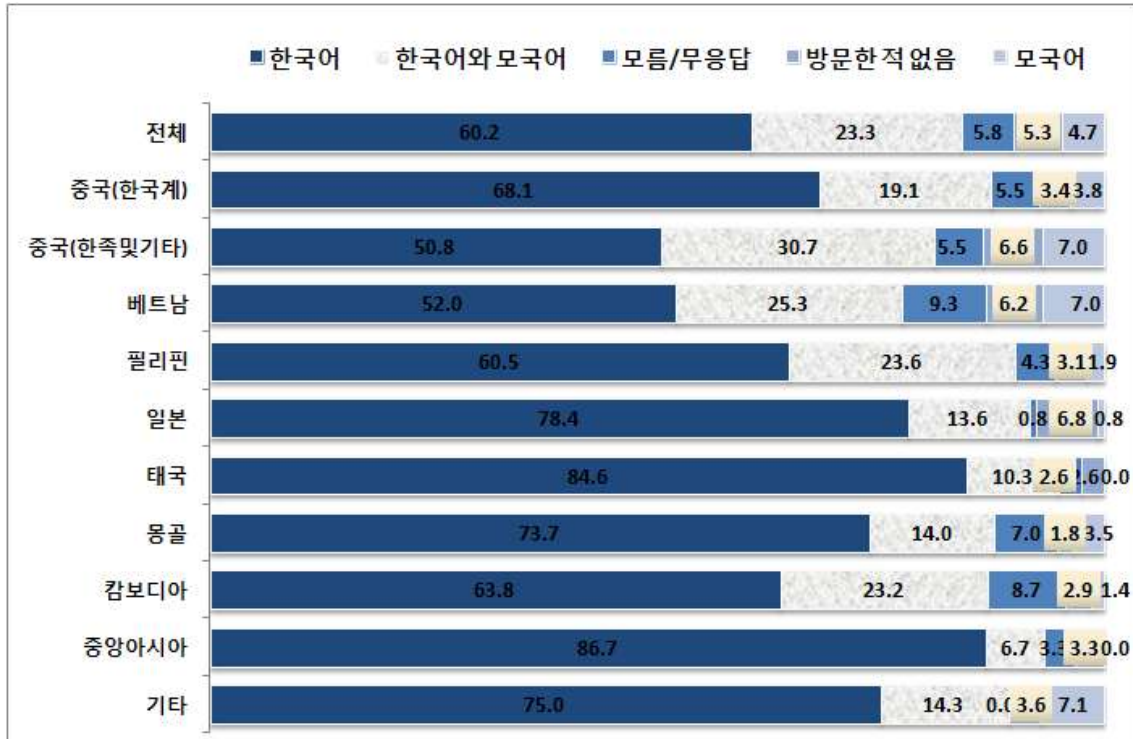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에는 60.2%는 ‘한국어’라고 답했고 23.3%는 ‘한국어와 모어’라고 답함.
- ‘한국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중앙아시아(86.7%)이고 태국(84.6%)이 그다음으로 높음.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한국어’ 사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였으며 점점 늘어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어’ 사용이 75.5%로 늘어남.
- 남성은 여성에 비해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만 사용하기보다는 한국어와 모어를 주로 섞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남성의 한국어 사용은 47.1%이며, 여성은 60.3%임.
- 20대 미만의 응답자는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52.5%이고 40대 이상은 69.1%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함.
- 배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70.7%인 데 반해 배우자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47.4%로 줄어듦.
- 한국어 능력 검사의 결과가 높을수록 한국어 사용이 늘어남(표 14-8).

<그림 9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



<그림 9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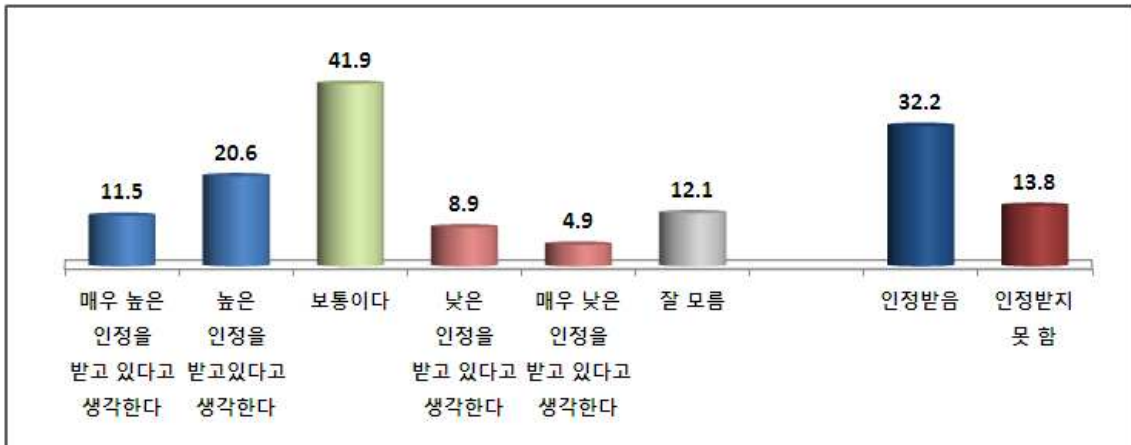


3.5 언어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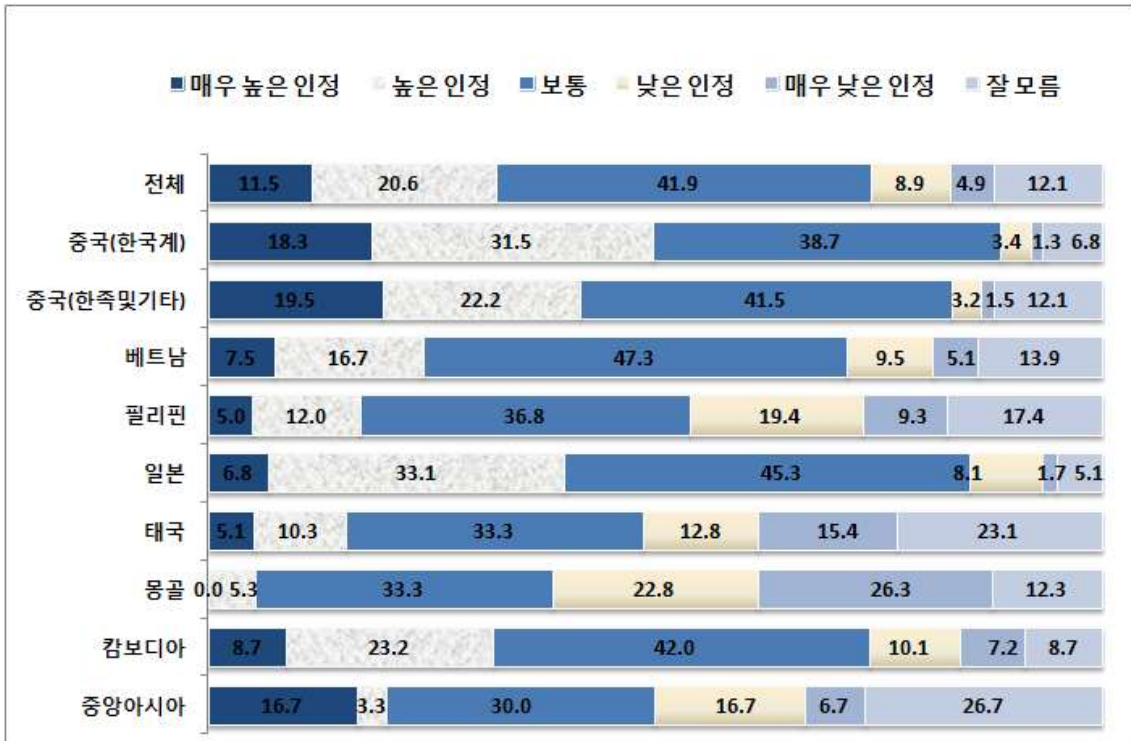
1) 한국 사회에서 모어의 위상

- 응답자의 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란 답변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매우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11.5%,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20.6%로 ‘매우 낮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4.9%).’보다는 높게 나타남.
- ‘한국계 중국(49.8%)’과 한족 및 ‘기타계 중국(41.7%)’은 모어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반면, 몽골에서 온 응답자들은 49.1%가 모어의 위상이 낮은 인정 혹은 매우 낮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자의 모어가 한국 사회에서 높은 인정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높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에 40.1%가 답한 반면, 2년 미만 거주한 사람들은 24.3%만이 그렇다고 응답함.
- 직업별로는 사무 직종에 일하는 사람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자신의 모어가 한국 사회에서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사무직은 ‘높은 인정을 받는다.’에 50.2%가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29.7%만이 모어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답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표 15).

<그림 95> 한국 사회에서 모어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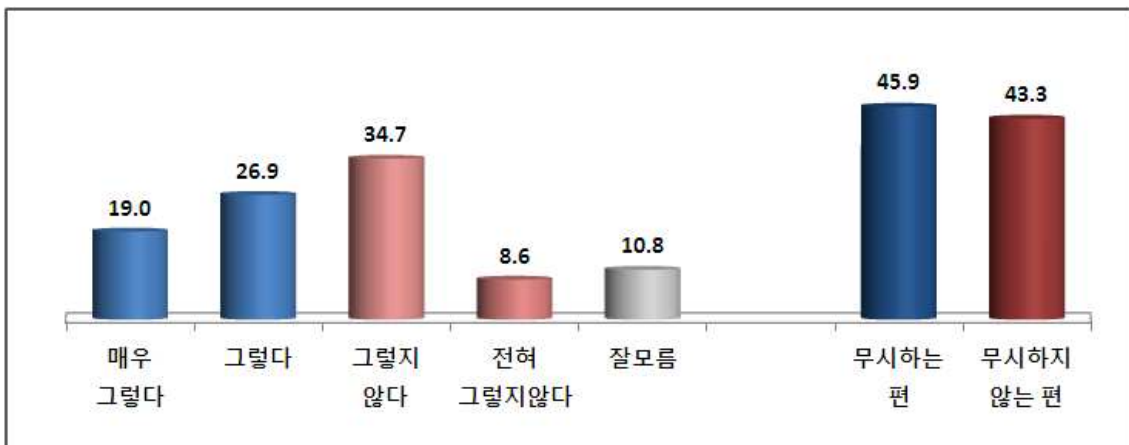
<그림 96> 한국 사회에서 모어의 위상-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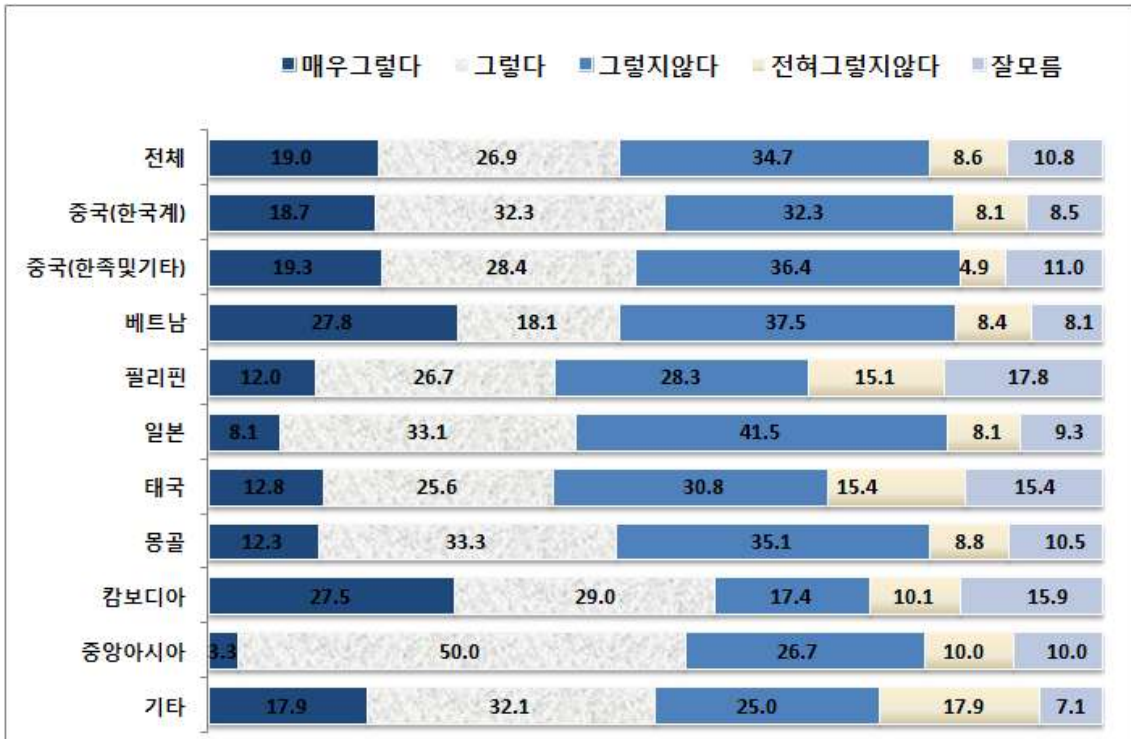
2) 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 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의견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9%가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43.3%가 무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캄보디아에서 온 응답자들의 경우 56.5%로 가장 무시 받는다고 생각함.
- 충청남북도가 56.4%, 전라남북도 51.2%, 경상남북도 51%가 무시하는 편이라 생각하고 대전 32.6%, 인천 35.1%가 무시하는 편이라 생각함.
-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 고득점자일수록 ‘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경향을 보임.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30점 미만인 응답자는 34.8%가 무시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90~100점인 사람은 48.9%가 무시하는 편이라고 생각함(표 16-1).

<그림 97> 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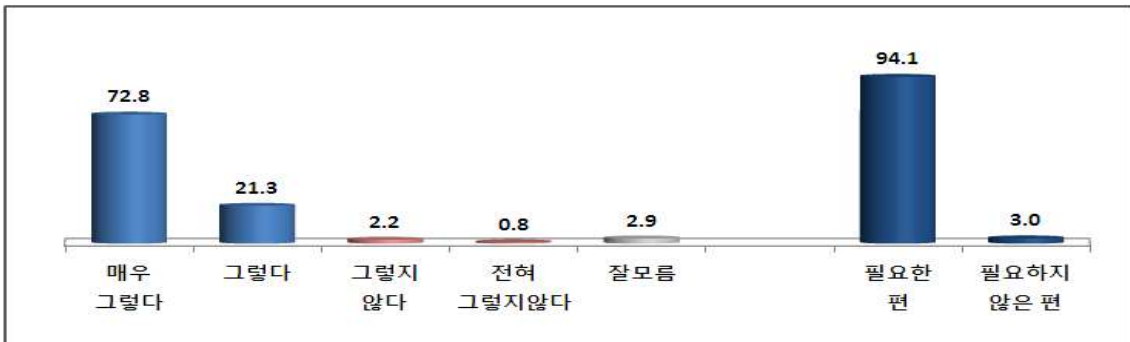
<그림 98> 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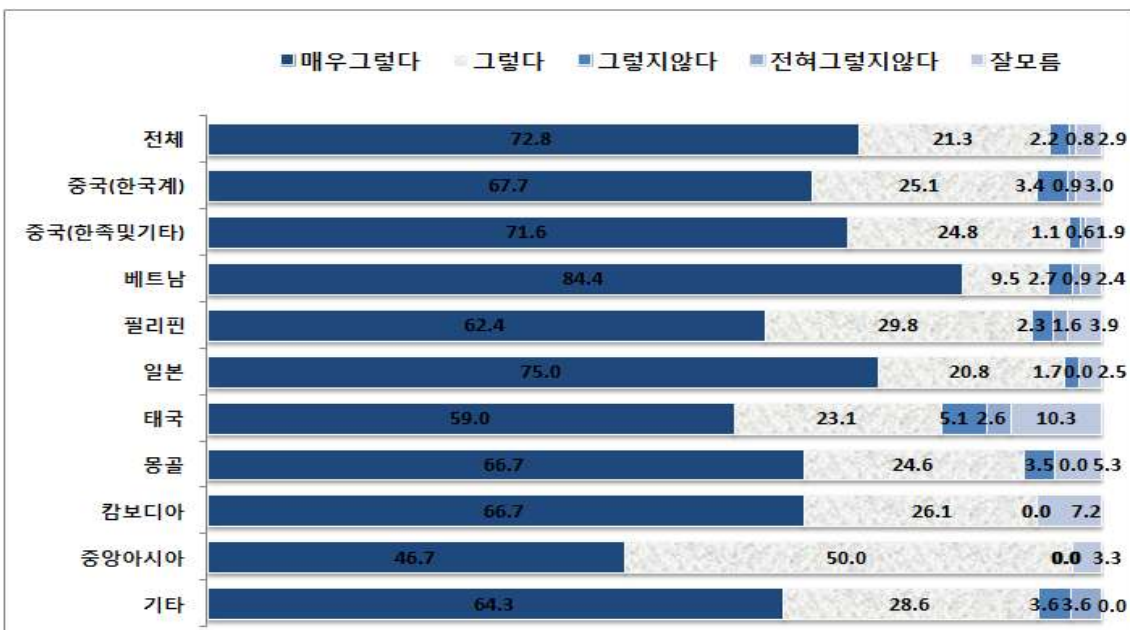
3)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어 필요성

-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어 능력 검사에서 고득점자일수록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30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34.8%가 필요하다고 느낀 반면 90~100점인 사람은 48.9%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90.2%가 한국어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69.7%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 전체적으로는 한국어의 필요성에 대해 94.1%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6-2).

<그림 99>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어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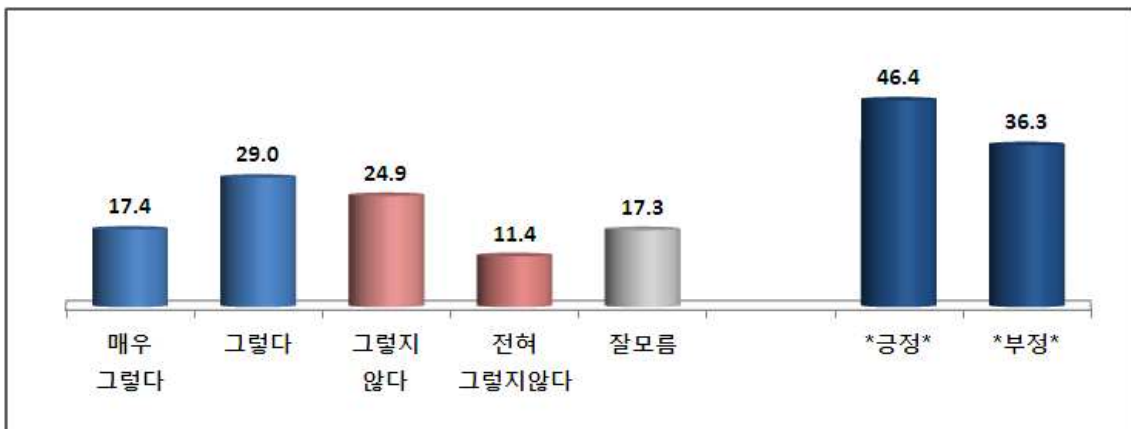
<그림 100>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어 필요성-언어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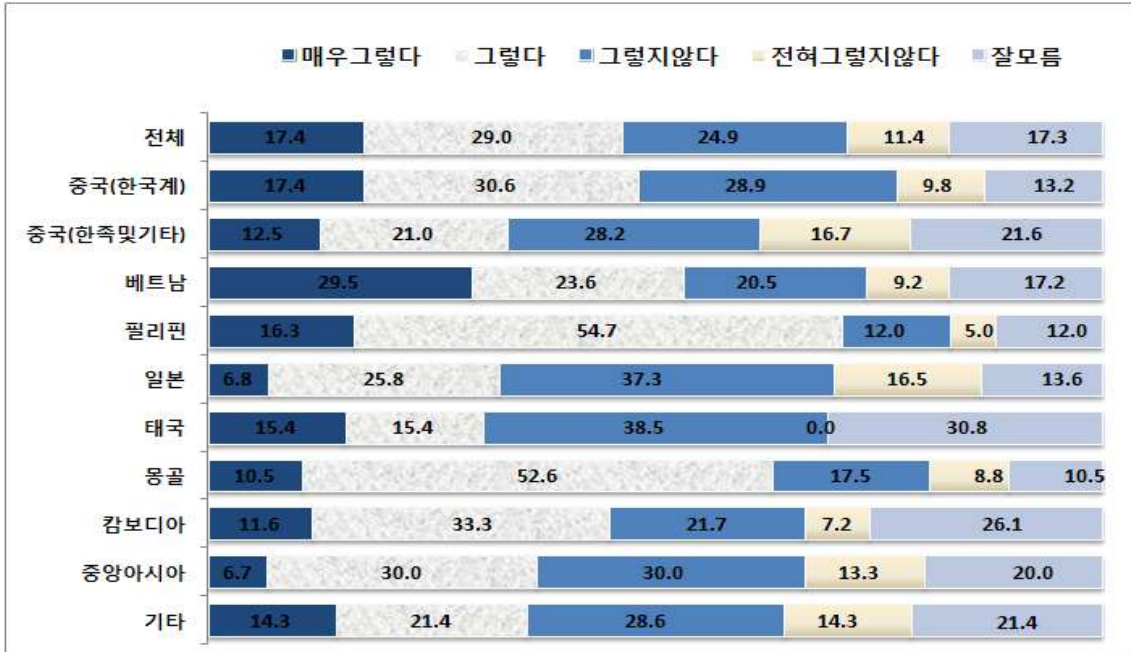
4) 방언

- 한국어 방언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한국어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고 46%가 응답했고, 36.3%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필리핀에서 온 응답자의 70.9%가 방언을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그다음으로는 몽골에서 온 응답자들의 63.2%가 방언을 사용한다고 응답함. 방언 사용에 대해 태국에서 온 응답자들의 30.8%만이 방언을 사용한다고 응답함.
- 거주 지역별로는 전라남북도가 6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울산(66.1%)으로 나타남.
- 남성 응답자의 23.5%가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성 응답자는 46.6%가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함.
- 연평균 가구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방언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인 반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5.4%가 방언을 사용한다는 응답함(표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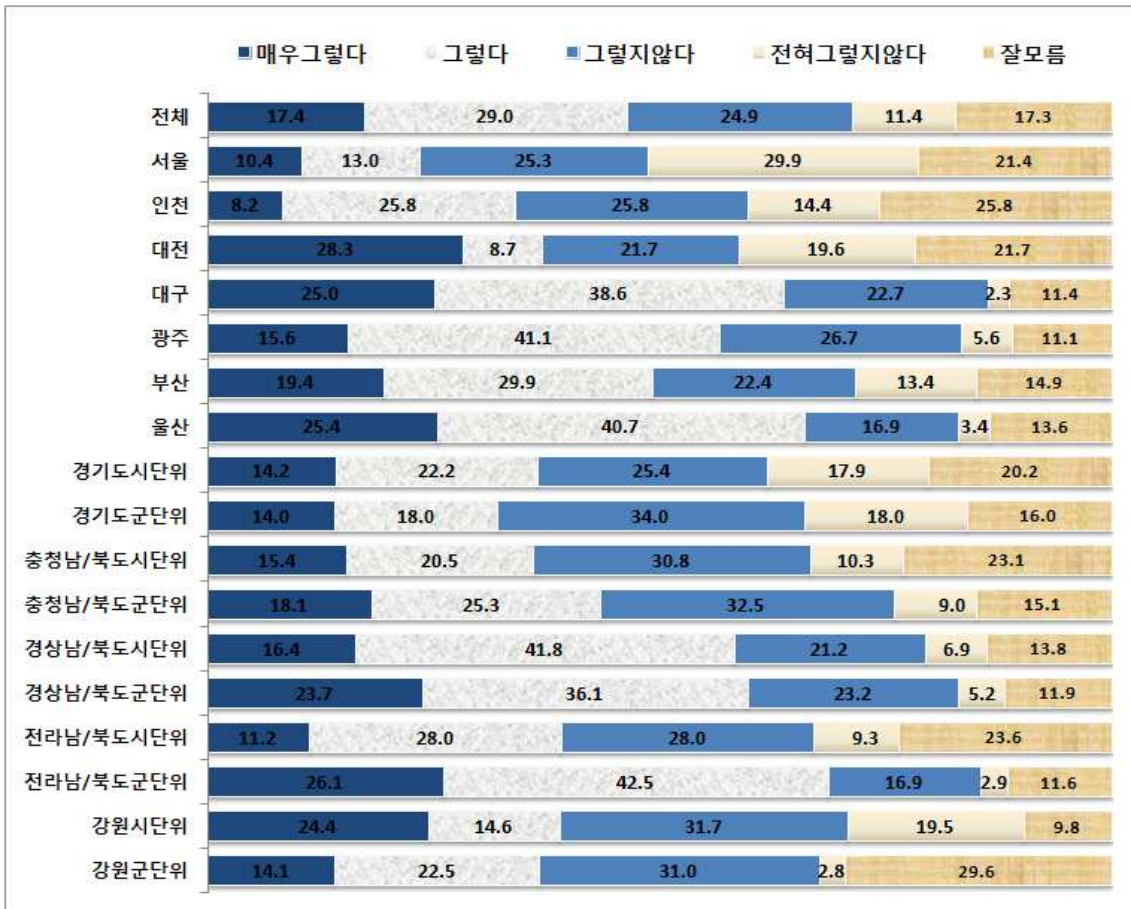
<그림 101> 방언 사용



<그림 102> 방언 사용-언어권별



<그림 103> 방언 사용-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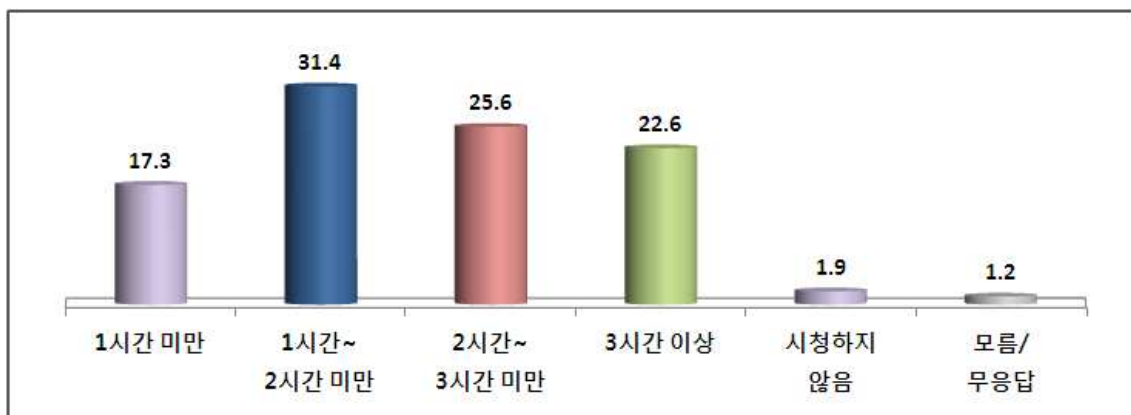


3.6 언어 입력

1) TV 시청 시간

- 하루에 한국어로 방송되는 TV를 시청하는 평균 시간에 대한 질문에 31.4%가 '1시간~2시간 미만'이라고 답했고, 25.6%는 '2시간~3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22.6%는 '3시간 이상'이라고 답하였으며 '시청하지 않음.'은 1.9%에 불과했음.
- '3시간 이상' 시청한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의 비율은 22.7%이며 남성의 비율은 5.9%로 나타남.
- 20대 미만의 응답자 중 '3 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율이 28.5%로 40대 이상의 17%에 비해 높았음.
- 주부의 TV 시청 시간이 제일 많았으며, '3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율이 25.5%로 사무직 직업을 가진 여성(7.3%)에 비해 많았음(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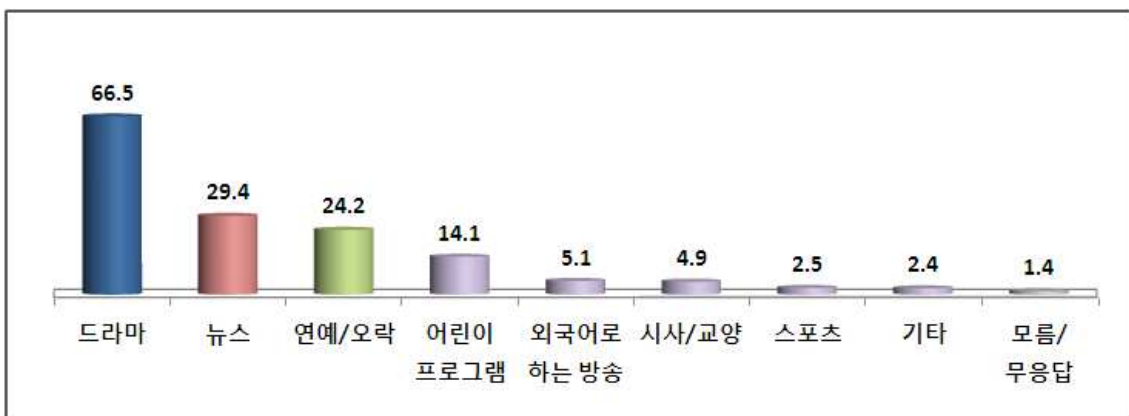
<그림 104> TV 시청 시간



2) TV 시청 프로그램

- TV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66.5%가 ‘드라마’라고 답함. 그 다음으로는 ‘뉴스’가 29.4%, ‘연예/오락’이 24.2%로 높았고 ‘스포츠’는 2.5%로 가장 낮았음.
-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온 응답자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본다는 응답이 0%로 나타남.
- 드라마 시청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구(84.1%)’이며, 그 다음은 ‘울산(78%)’으로 나타남.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시 단위(41%)’, ‘경기도 시 단위(38.1%)’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 군 단위(14.7%)’로 나타남.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도 ‘충청남도 시 단위(43.6%)’로 나타남. ‘오락 프로그램’ 시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17.9%)’로 나타남.
- 배우자의 직업이 농업, 어업, 임업인 경우에 ‘뉴스 프로그램’ 시청이 12.8%로 가장 낮음.
- 연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도 높아짐. 4000만 원 이상의 가구 소득을 가진 응답자의 ‘뉴스 프로그램’ 시청 비율은 40.8%인 반면 2000만 원 미만의 가구 소득을 가진 응답자의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은 27.6%로 나타남(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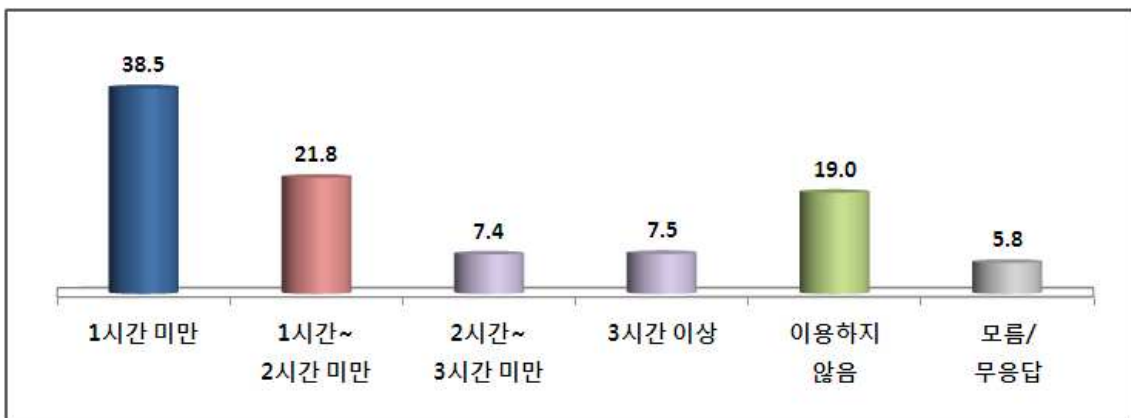
<그림 105> TV 시청 프로그램



3)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간

- 하루 평균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간에 대한 질문에 '1시간 미만'이 38.5%, '1시간~2시간 미만'이 21.8%, '이용하지 않음.'이 19%로 나타남.
- 남성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1시간 미만'이 58.8%, '1시간~2시간 미만'이 17.6%로 나타난 반면, '2시간 이상'은 0%이고, 23.5%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이용하지 않음.'이 38.5%로 나타나 인터넷 활용도가 가장 낮으며, 대부분 '1시간 미만(30.8%)' 혹은 '1시간~2시간(15.4%)'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함(표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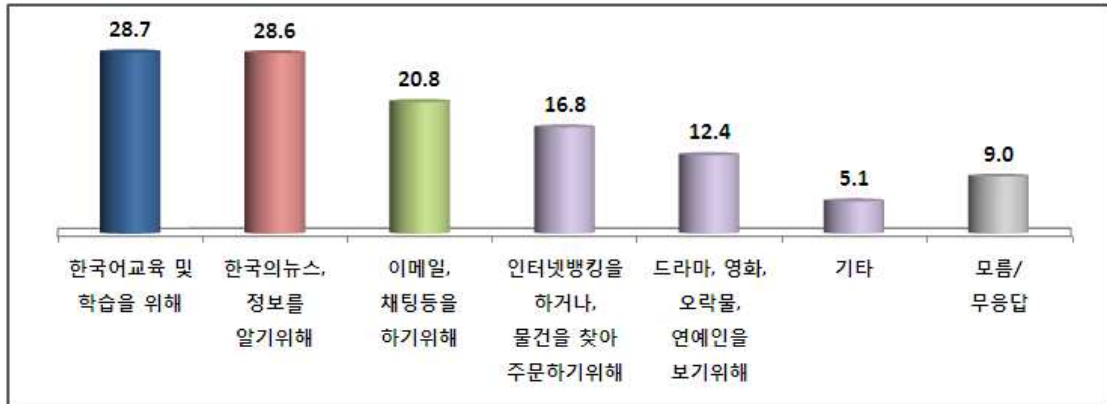
<그림 106>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간



4)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

-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을 위해서(28.7%)’, ‘한국의 뉴스, 정보를 알기 위해서(28.6%)’, ‘한국 내 가족, 친척, 친구들과 이메일 채팅 등을 하기 위해서(20.8%)’의 순으로 나타남.
- 베트남에서 온 응답자들은 45.1%가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을 위해서’라고 답했고 필리핀에서 온 응답자들은 42.6%가 ‘한국의 뉴스, 정보를 알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일본에서 온 응답자들은 36.8%가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물건을 찾아 주문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답해 출신 국가별로 한국어 인터넷 사용 용도에 있어 차이를 보임. 특히,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베트남(6%)’, ‘태국(9.9%)’에서 온 응답자들이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 ‘일본(36.8%)’에서 온 응답자들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타남. 일본에서 온 응답자들은 10년 이상 거주자가 35.1%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실생활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됨.
- ‘서울(40.8%)’과 ‘대구(42.1%)’지역에서는 ‘한국의 뉴스, 정보를 알기 위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강원 시 단위(42.9%)’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함. ‘경기 군 단위(34.1%)’는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을 위해’ 인터넷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답함.
- 남성은 주로 ‘한국어 학습(38.5%)’이나 ‘한국의 정보를 알기 위해(38.5%)’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한국어 학습(28.6%)’, ‘한국의 정보를 위해(28.5%)’ 외에도 ‘한국 내 친척, 친구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21%)’, ‘인터넷뱅킹이나 쇼핑(16.9%)’, ‘드라마, 영화, 오락물을 보기 위해(12.5%)’ 등 남성보다 다양한 이유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고학력일수록 한국어 학습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17.5%만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42%가 인터넷을 활용해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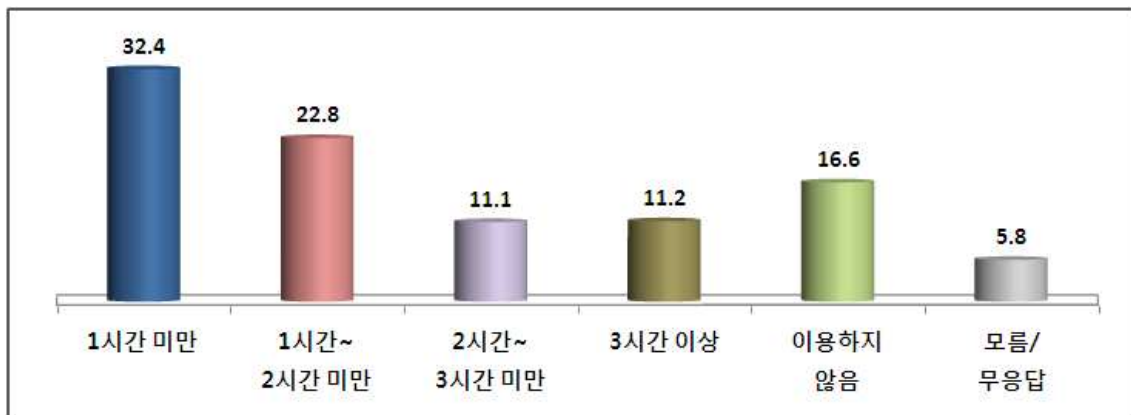
<그림 107>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



5) 모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 시간

- 모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시간 미만’이 32.4%, ‘1시간~2시간 미만’이 22.8%, ‘이용하지 않음.’이 16.6%로 나타남.
- 응답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어 인터넷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중 ‘1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용하지 않음.’이 31.4%로 높게 나타나 모어 인터넷 사용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모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음. 20대 미만 응답자는 ‘1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8%인데 반해 ‘3시간 이상’은 15.2%로 나타났음. 반면 40대 이상인 경우 ‘1시간 미만’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응답은 42.6%이고 ‘3시간 이상’은 5%라고 응답함.
- 응답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모어 인터넷 이용 시간이 적었음.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44.2%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도 9.6%로 가장 낮았음. 반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가 6.9%에 불과해 모어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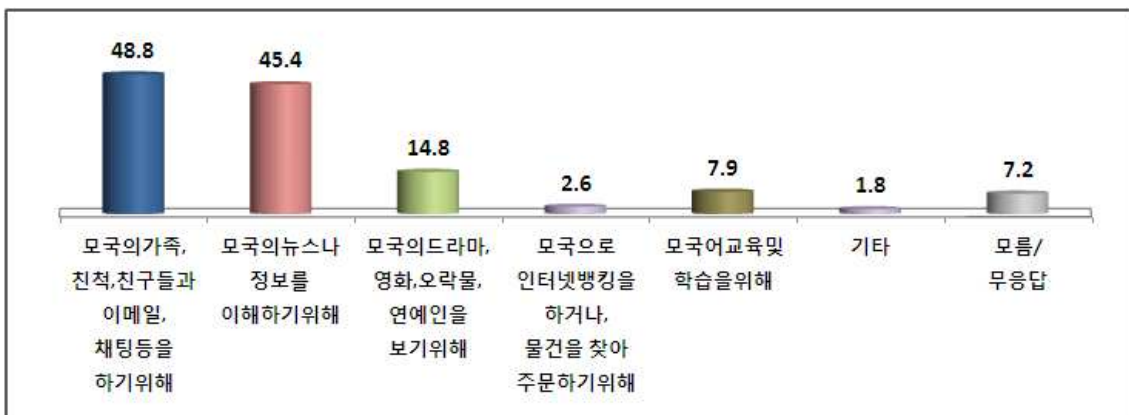
<그림 108> 모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 시간



6) 모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 이유

- 모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48.8%가 '모국의 가족, 친척, 친구들과 이메일, 채팅 등을 하기 위해', 45.4%가 '모국의 뉴스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라고 답함.
- '모국의 뉴스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기타 국가(56%)', '몽골(55.8%)', '일본(55.8%)'에서 온 응답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국의 드라마, 영화, 오락물을 보기 위해'라는 응답은 '한족 및 기타의 중국(66.2%)', '필리핀(64.9%)'에서 온 응답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캄보디아에서 온 응답자의 답(17.9%)이 가장 낮게 나타남. '모어 교육 및 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베트남(16.6%)', '중국(한족10.4%)'에서 조금 높게 나타남.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의 뉴스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늘어남.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40.7%로 나타났고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53.1%로 늘어났음. 반면,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의 드라마, 영화, 오락물을 보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줄어듦.
- 응답자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모국의 뉴스에 관심이 많았음. 응답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 '모국의 뉴스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17.2%에 불과했으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64.8%의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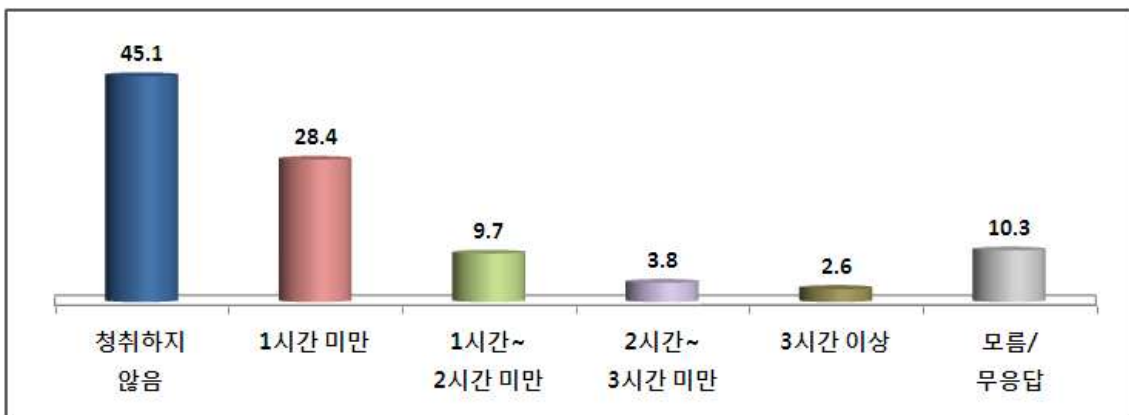
<그림 109> 모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 이유



7) 한국어 라디오 청취 시간

- 한국어 라디오 청취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45.1%가 ‘청취하지 않음.’이라고 답했고, 그다음으로는 28.4%가 ‘1시간 미만’이라고 답함.
- 거주 지역별로는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지역 중에서 ‘강원 시 단위(41.5%)’, ‘인천(40.2%)’이 가장 높았음. ‘청취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지역 중에서는 ‘서울(53.9%)’이 가장 높았음.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청취하지 않음.’이 38.8%인 데 반해,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53.8%가 ‘청취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함.
- 한국어 능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답자일수록 라디오 청취 시간이 줄어듦(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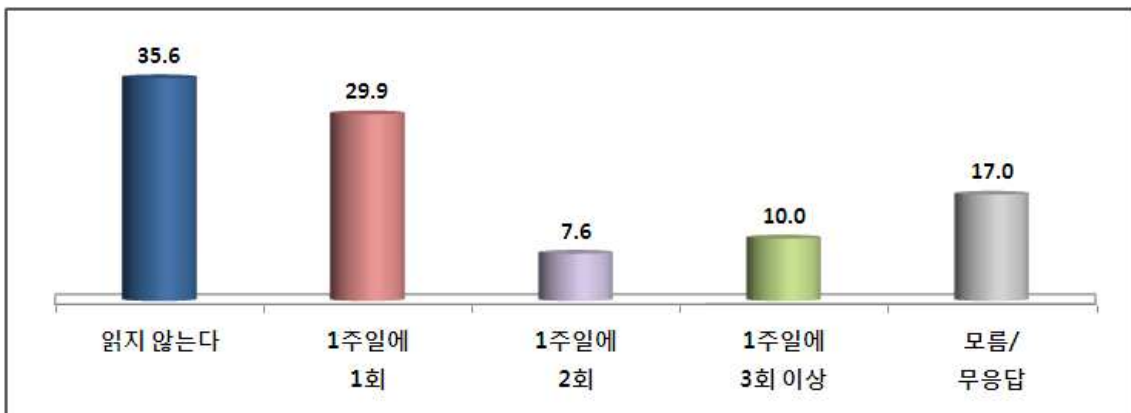
<그림 110> 한국어 라디오 청취 시간



8) 한국어 발행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시간

- 한국어 발행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35.6%가 '읽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29.9%가 '1주일에 1회' 읽는다고 답함.
- 캄보디아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는 '읽지 않는다.'에 52.4%가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로 44.4%로 높은 비율을 보임. '1주일에 3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 중 태국에서 온 응답자의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음. 그다음은 일본에서 온 응답자로 22.4%였다. 몽골과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가 0%인 것에 비해 굉장히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읽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시 단위(54.5%)'였고 그 다음이 '인천(47.2%)'지역으로 나타남. '읽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12.1%)'으로 '1주일에 1회'에 45.5%로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1주일에 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3.8%)'으로 나타남.
- '1주일에 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3.5%로 낮았지만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6.9%로 증가함.
-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신문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읽지 않는다.'에 38.7%가 답한 반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16.7%가 답했다. '1주일에 1회 이상' 읽는다는 응답에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29%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55.6%가 답함(표 24).

<그림 111> 한국어 발행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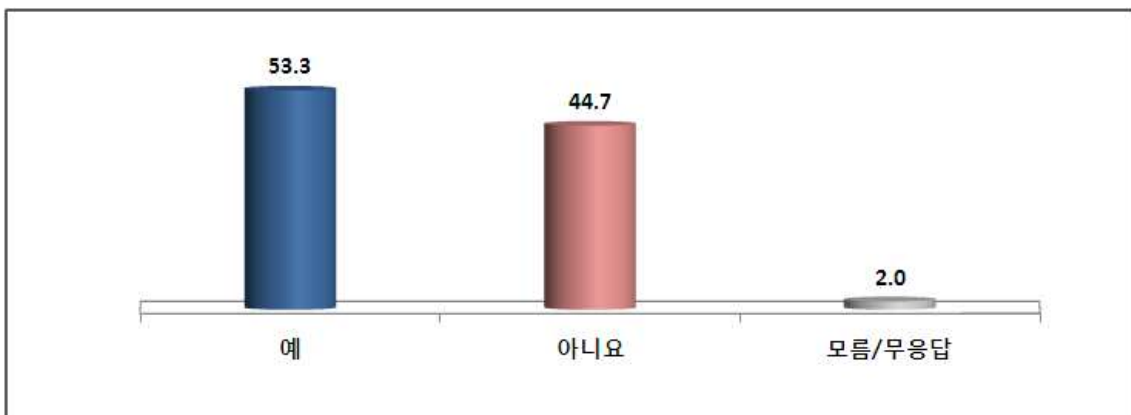


3.7 한국어 교육

1) 한국어 교육 유무

-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교육 유무에 관한 질문에 '예'가 53.3%, '아니요.'가 44.7%로 나타남. 출신 국가별로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 중 '베트남(73.1%)'이 가장 높고 '태국(23.1%)'이 가장 낮았음(표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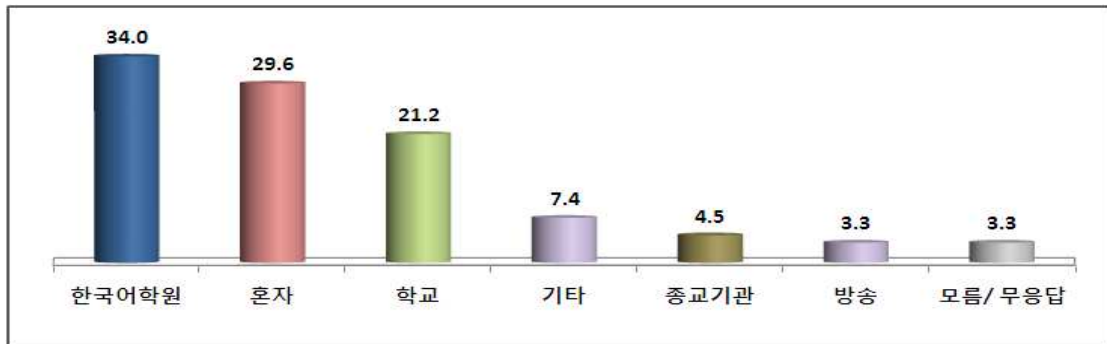
<그림 112> 한국어 교육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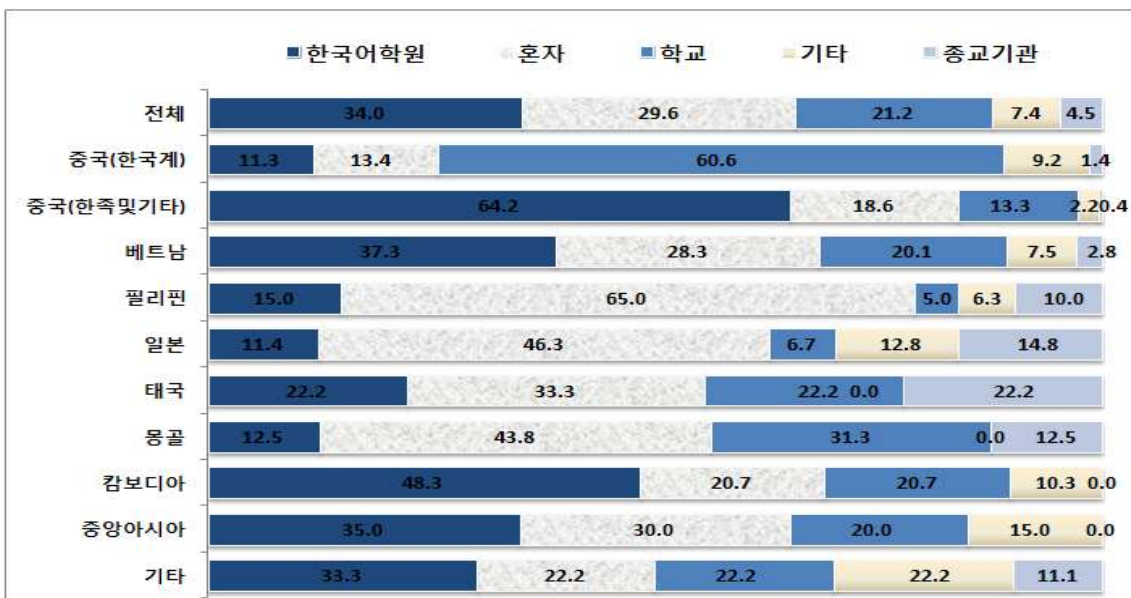
2)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

-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한국어 학원’이 34%, ‘혼자’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중국에서 온 응답자의 64.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가장 낮은 비율은 일본에서 온 응답자로 11.4%가 그렇다고 응답함. ‘혼자’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답한 응답은 필리핀에서 온 응답자로 65%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가장 낮은 비율은 한국계 중국으로 13.4%가 그렇다고 응답함. ‘종교 기관’에서 배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태국(22.2%)’과 ‘일본(14.8%)’에서 온 응답자로 나타남.
- 20대 응답자의 경우 39.2%가 ‘한국어 학원’에서 배웠다고 답했고, 40대 이상은 19.2%가 ‘한국어 학원’에서 배웠고, 35.7%가 ‘혼자’ 공부했다고 응답함(표 25).

<그림 113>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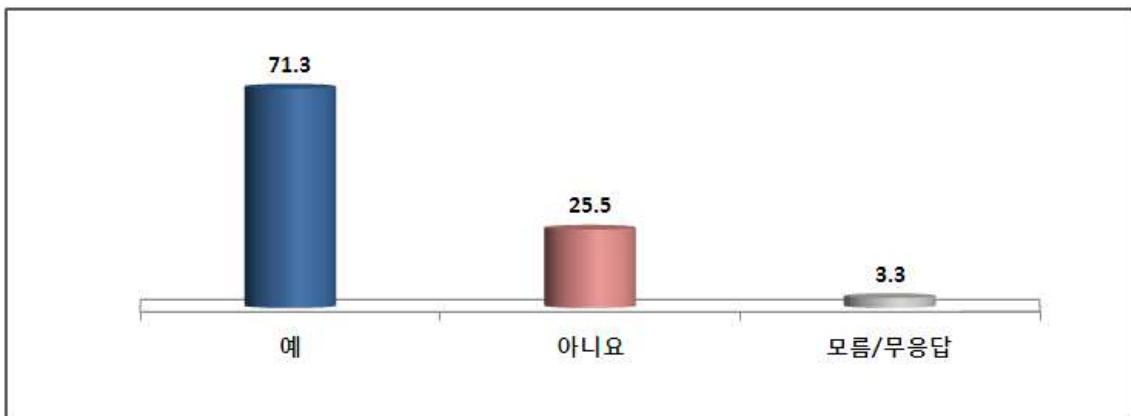
<그림 114>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언어권별



3)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유무

- 한국에 와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1.3%가 '예'라고 답함.
- '예'라는 응답 비율이 '캄보디아(85.5%)', '태국(84.6%)', '중앙아시아(83.3%)' 순으로 높았고, 한국계 중국이 49.4%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라는 응답률이 '강원 시 단위(85.4%)', '부산(82.1%)', '대전(80.4%)' 순으로 높았음. 한국에 와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63.9%)'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높게 나타남.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78.8%가 한국에 온 후 '한국어 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국어 교육의 경험이 줄어들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67.2% 정도가 '한국어 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답함(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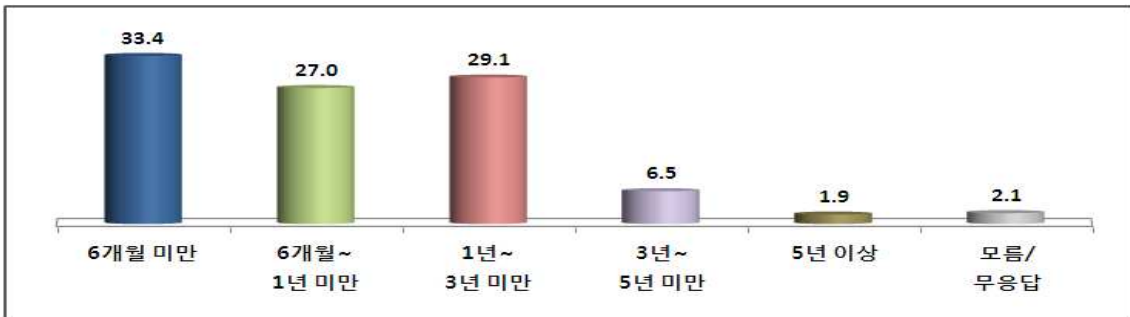
<그림 115>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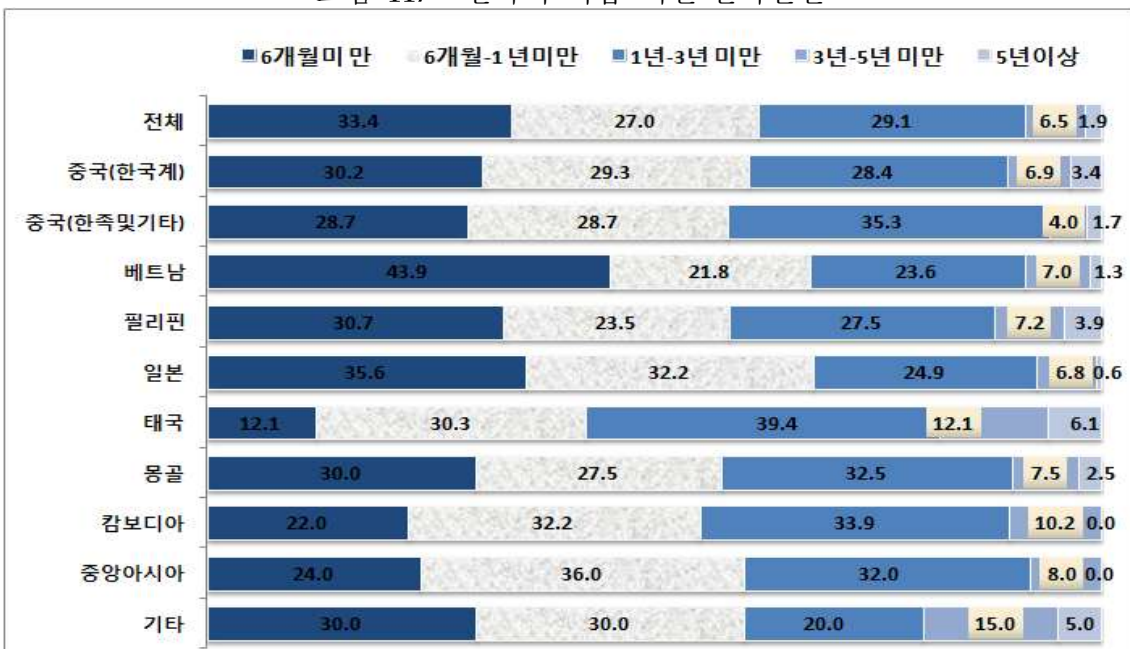
4) 한국어 학습 기간

- 한국어 학습 기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3.4%가 ‘6개월 미만’이라고 답했고 29.1%는 ‘1년~3년 미만’이라고 답함.
- 태국에서 온 응답자들의 경우 한국어 학습 기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6개월 미만’이 12.1%로 가장 낮은 반면, ‘1년~3년 미만’이 39.4%로 가장 높고 ‘3년~5년 미만’도 1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년 이상’도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에 살고 있는 이주자들의 학습 기간이 대체로 긴 편으로 나타남. 대구 지역 이주자들은 한국어 학습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에는 17.2%로 가장 낮게 나온 반면, ‘1년~3년 미만’에는 4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년~5년 미만’에서도 13.8%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표 26-1).

<그림 116> 한국어 학습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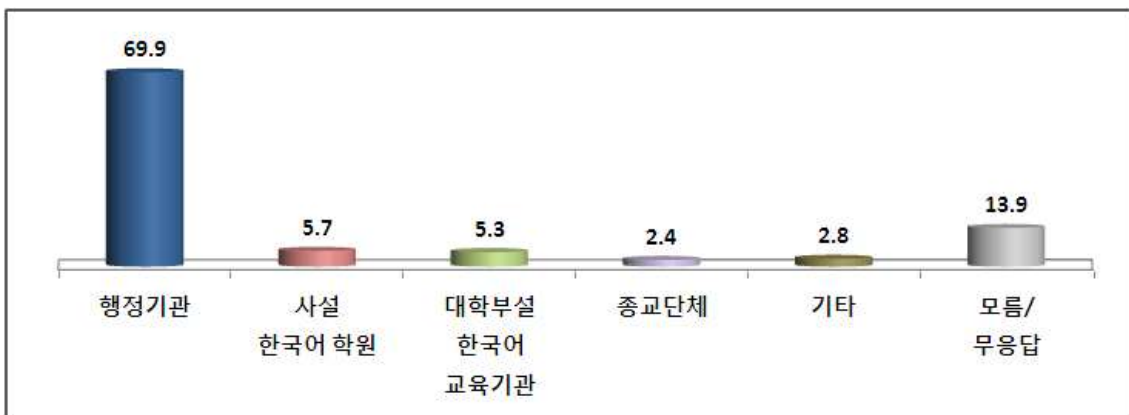
<그림 117> 한국어 학습 기간-언어권별



5) 가장 오랫동안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

- 가장 오랫동안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69.9%, ‘모름/무응답’이 13.9%, ‘사설 한국어 학원’이 5.7%,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 5.3%로 나타남.
- ‘행정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태국(81.8%)’, ‘몽골(80%)’, ‘중국(한족 75.1%)’ 순으로 나타남. 태국에서 온 응답자들은 ‘종교 단체’나 ‘사설 한국어 학원’ 혹은 ‘기타’에 대한 응답이 모두 0%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 특징을 보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대부분 비슷하게 높는데 지역 중에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서울(13.9%)’, ‘대전(13.5%)’, ‘전라남북도(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지역에 대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측됨.
- 응답자의 직업이 농업, 어업, 임업인 경우 ‘행정기관’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은 81%로 나타났고, 사무직의 경우는 61.6%로 가장 낮게 나타남(표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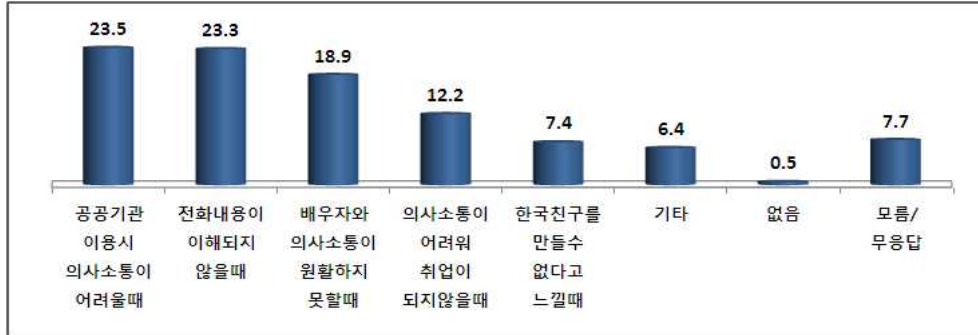
<그림 118> 가장 오랫동안 한국어를 교육받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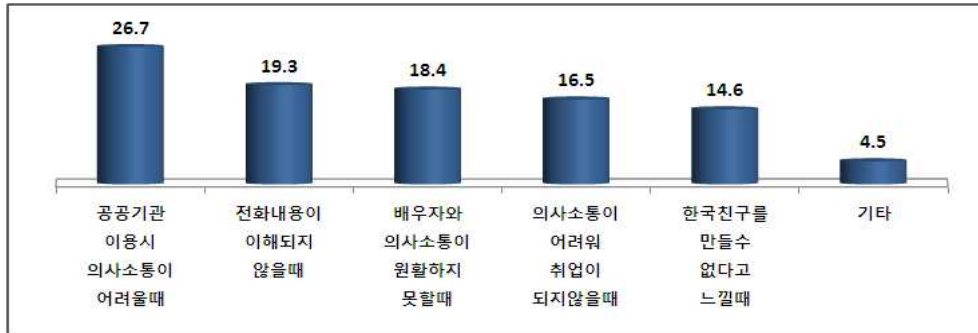
3.8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

-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는 '공공 기관 이용 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23.5%)'였고, '전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23.3%)',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18.9%)', '의사소통이 어려워 취업되지 않을 때(12.2%)', '한국 친구를 만들 수 없다고 느낄 때(7.4%)', '기타(6.4%)', '없음(0.5%)' 순으로 나타남.
- 공공 기관 이용 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힘들다는 응답은 '한족 및 기타 중국(31.1%)'인 경우가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왔고, 한국어로 말하는 전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힘들다는 응답은 '중앙아시아(36.7%)'에서 온 응답자들로부터 많이 나왔음. 배우자와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힘들다는 응답은 '베트남(28.4%)'에서 온 응답자들로부터 많이 나왔음.
- 공공 기관 이용 시 힘들다는 응답은 '인천(33.0%)'에 거주하는 응답자들로부터 많이 나왔고, '경기도 군 단위(14%)'로 가장 적게 나왔음. 한국어로 말하는 전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힘들다는 응답은 '광주(37.8%)' 지역에서 거주하는 응답자로부터 많이 나왔음.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어로 전화하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23.5%)'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모두 합산한 결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에 관계없이 모두 공공 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힘들다는 응답이 많이 나옴(표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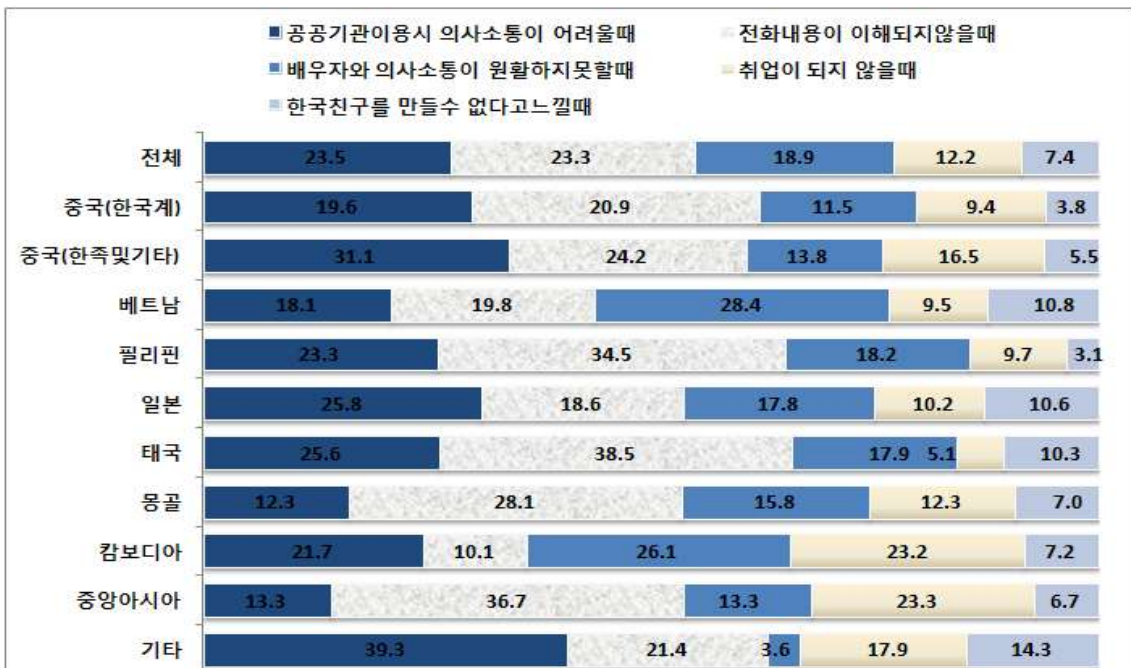
<그림 119>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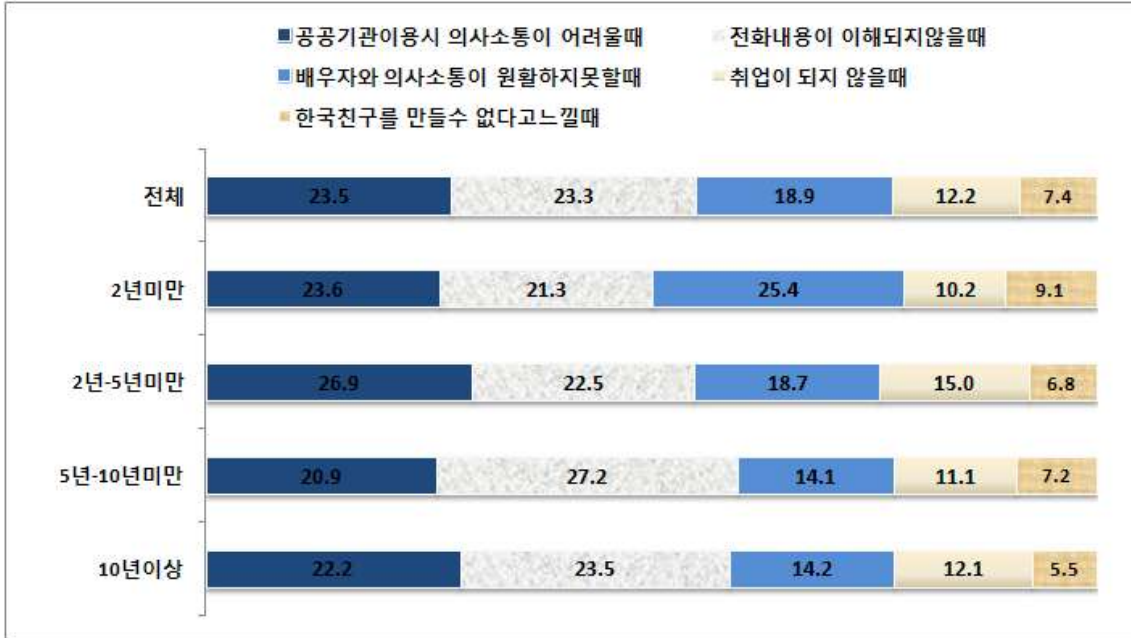
<그림 120>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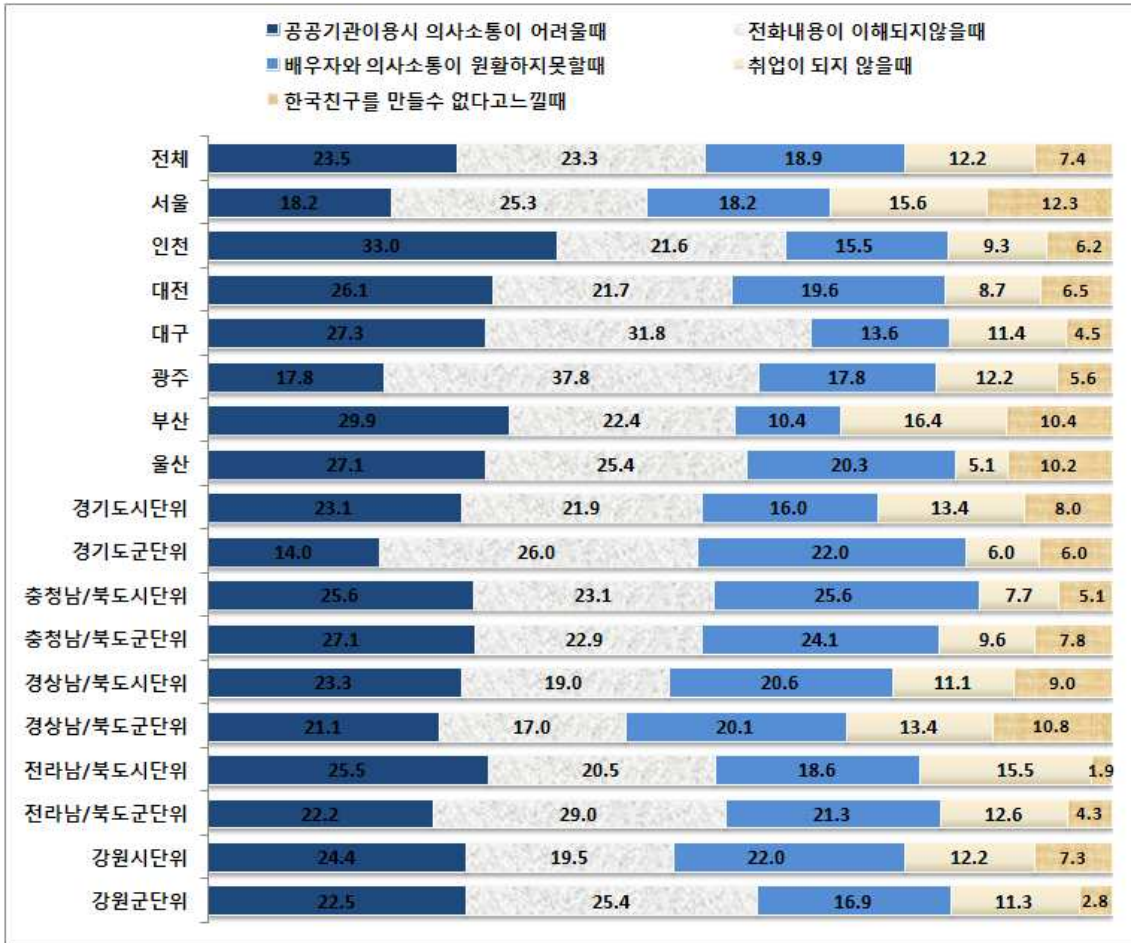
<그림 121>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언어권별



<그림 122>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거주 기간별



<그림 123>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거주 지역별



제4장 언어 기능과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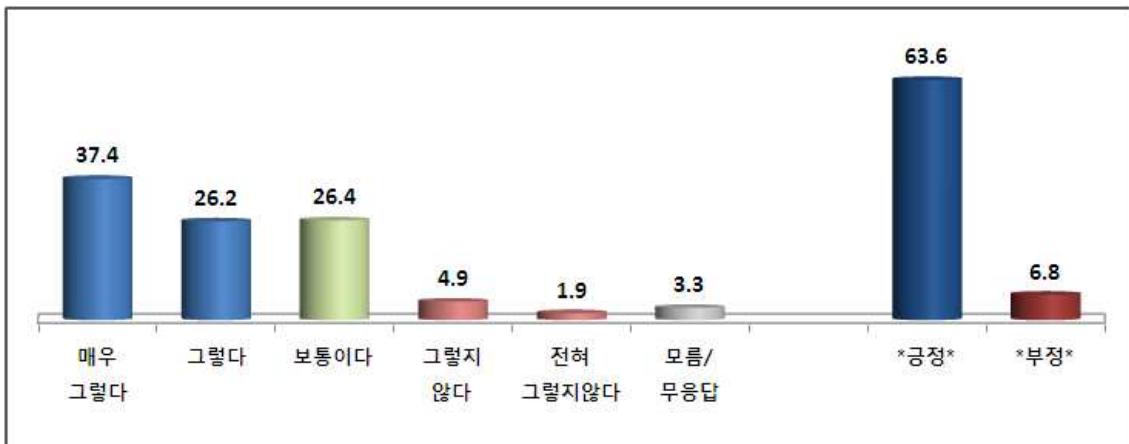
4장에서는 성인 응답자의 언어 기능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와 한국어 능력 검사 개방형과 선택형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4.1 언어 능력

1) 간판 읽기

- 한국어 간판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3.3%가 '읽을 수 있다.'로 응답했고, 6.8%만이 '읽을 수 없다.'고 답함.
- 출신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간판 읽기에 어려움을 보인 경우는 태국에서 온 응답자로 23.1%가 타 문화권에서 온 응답자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좋을수록 간판 읽기에 대한 '긍정'의 비율이 점점 높아짐(표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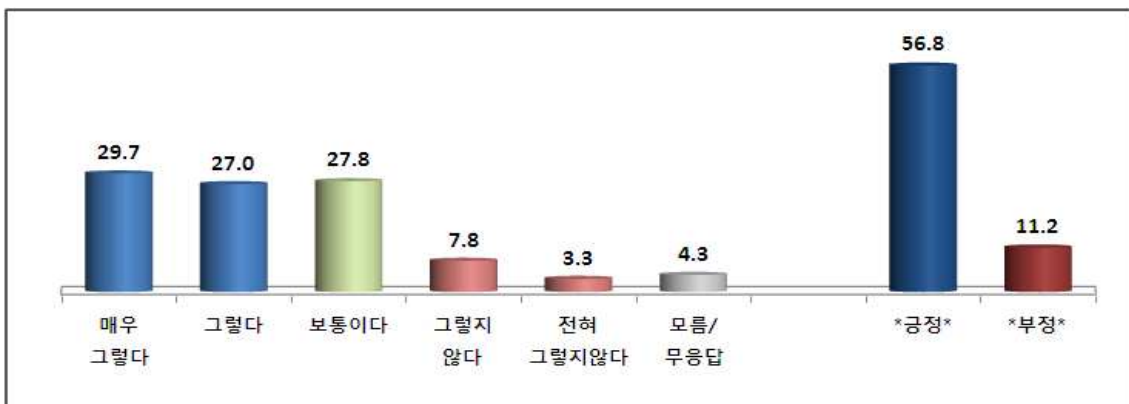
<그림 124> 간판 읽기



2) 메모, 안내문 읽기

- 한국어 메모, 안내문 읽기 능력에 대해 29.7%가 '매우 그렇다.', 27.0%가 '그렇다.', 27.8%가 '보통이다.', 7.8%가 '그렇지 않다.', 3.3%가 '전혀 그렇지 않다.', 4.3%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좋을수록 메모, 안내문 읽기에 대한 '긍정'의 비율이 점점 높아짐(표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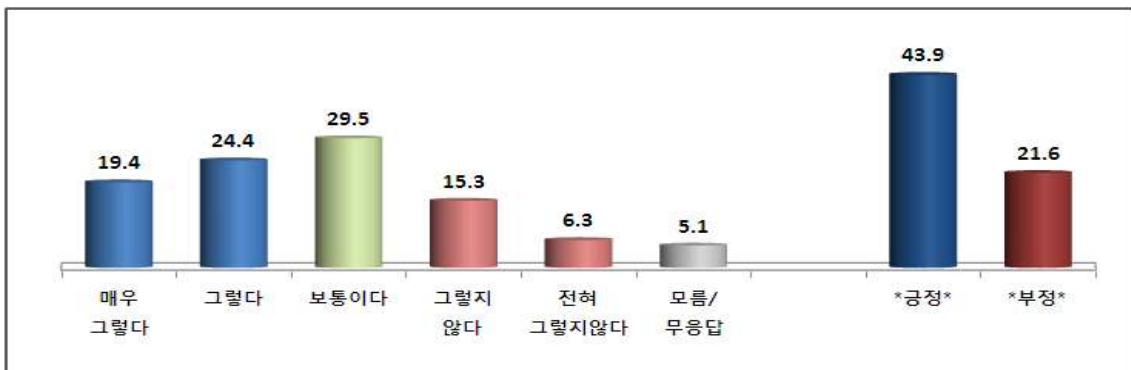
<그림 125> 메모 안내문 읽기



3) 한국어 편지, 설명서 읽기

- 한국어 편지, 설명서 읽기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9.4%가 '매우 그렇다.', 24.4%가 '그렇다.', 29.5%가 '보통이다.', 15.3%가 '그렇지 않다.', 6.3%가 '전혀 그렇지 않다.', 5.1%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한국어 편지, 설명서 읽기에 대해 한국어 능력 검사 30점 미만의 응답자는 5.2%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90~100점의 응답자는 36.6%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 사무직에 일하는 응답자의 77.7%가 '긍정'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주부가 3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응답자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한국어 편지, 설명서 읽기에 자신감을 보였는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긍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21.2%에 불과한 데 반해 대학교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56.7%,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44.8%가 '긍정'이라고 답함(표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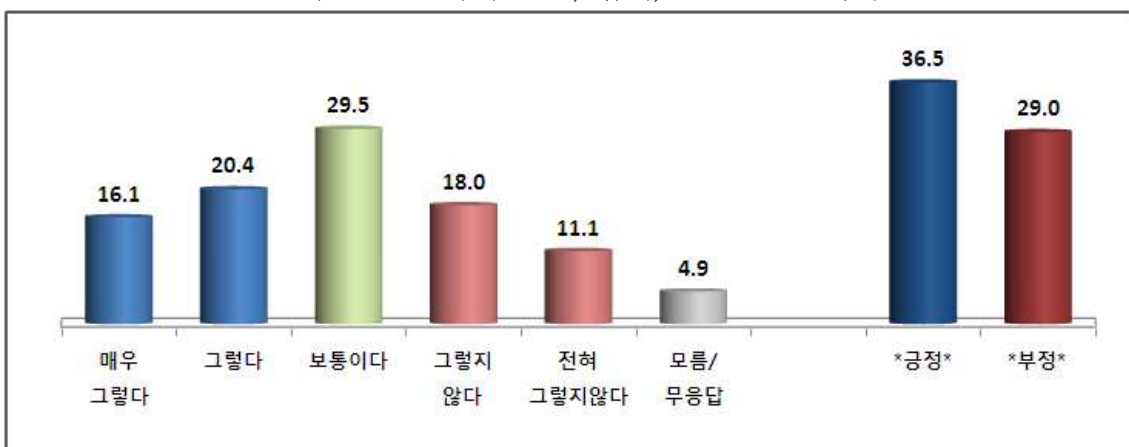
<그림 126> 한국어 편지, 설명서 읽기



4) 한국어 신문, 잡지, 일반 문헌 읽기

- 한국어 신문, 잡지, 일반 문헌 읽기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6.1%가 ‘매우 그렇다.’, 20.4%가 ‘그렇다.’, 29.5%가 ‘보통이다.’, 18.0%가 ‘그렇지 않다.’, 11.1%가 ‘전혀 그렇지 않다.’, 4.9%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언어 능력 중에서 읽기 능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의 텍스트가 가지는 난이도와 비례하여 읽기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줌.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신문, 잡지, 일반 문헌 읽기에 대한 ‘긍정’의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는데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인 데 반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9%로 높아짐.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신문, 잡지, 일반 문헌 읽기에 대한 ‘긍정’의 비율이 높아짐(표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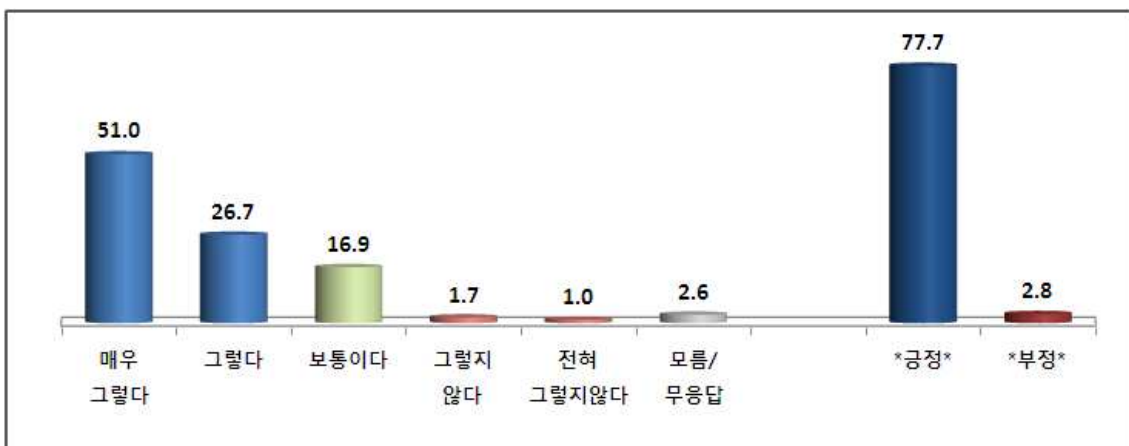
<그림 127> 한국어 신문, 잡지, 일반 문헌 읽기



5) 한국어 인사

- 한국어로 인사를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묻는 질문에 51%가 '매우 그렇다.', 26.7%가 '그렇다.', 16.9%가 '보통이다.', 1.7%가 '그렇지 않다.', 1%가 '전혀 그렇지 않다.', 2.6%가 '모름/응답' 순으로 답함.
- 출신 국가별로는 태국의 경우 '부정'의 비율이 12.8%로 가장 높아 한국어 읽기에 이어 기본적인 인사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 '부정'의 응답 비율이 11.8%로 여성의 2.7%보다 높아,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한국어 인사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직업별로는 사무직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긍정'의 비율이 높았는데, '긍정'의 비율이 90.2%까지 높게 나타남. 또한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한국어 인사 말하기 능력에 '긍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연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아짐(표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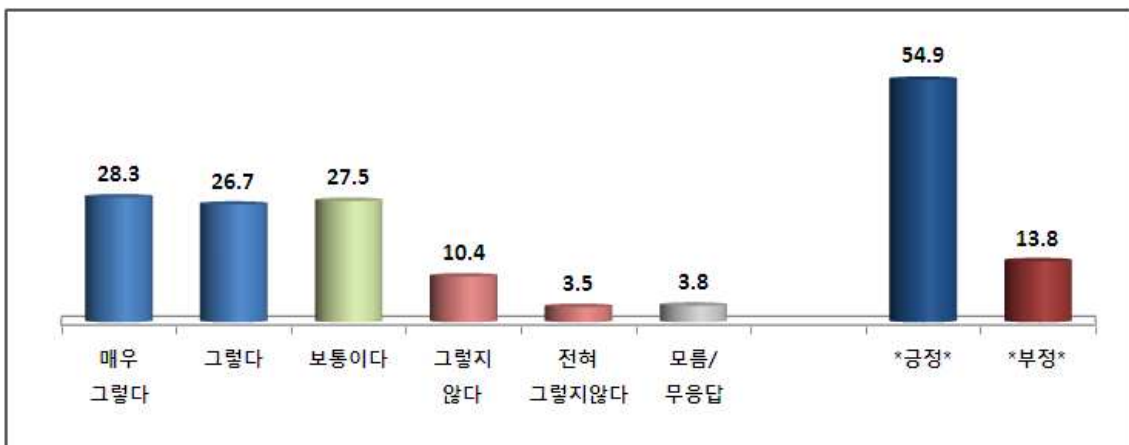
<그림 128> 한국어 인사



6) 한국어 일상 대화

- 한국어 일상 대화의 말하기 능력을 묻는 질문에 28.3%가 ‘매우 그렇다.’, 26.7%가 ‘그렇다.’, 27.5%가 ‘보통이다.’, 10.4%가 ‘그렇지 않다.’, 3.5%가 ‘전혀 그렇지 않다.’, 3.8%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일상 대화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태국에서 온 응답자로 20.5%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문화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역시 높은 수치임.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일상 대화의 말하기 능력 여부에 ‘긍정’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부정’의 비율이 37.7%로 높으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 ‘부정’의 비율이 2.9%로 낮아져 거주 기간에 따른 한국어 숙달도의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됨(표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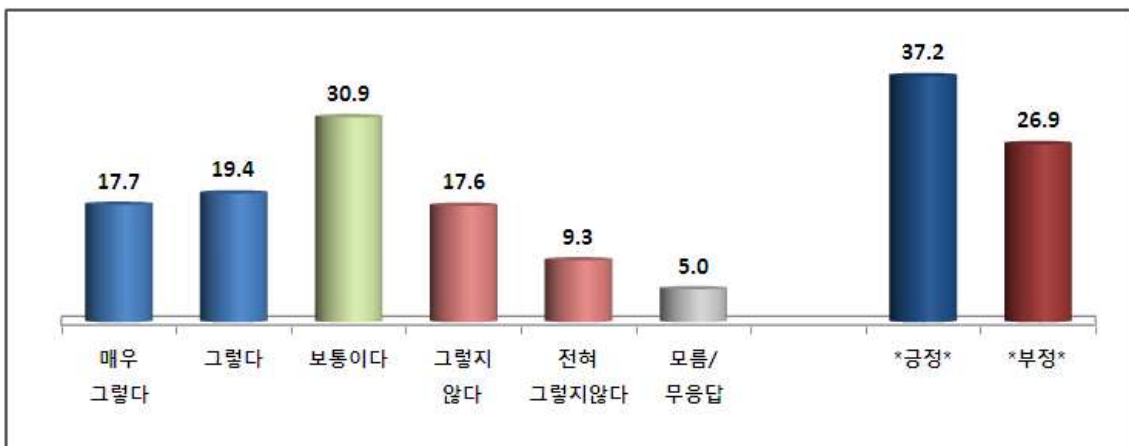
<그림 129> 한국어 일상 대화



7) 설명 및 보고

- 한국어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거나 보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17.7%가 ‘매우 그렇다.’, 19.4%가 ‘그렇다.’, 30.9%가 ‘보통이다.’, 17.6%가 ‘그렇지 않다.’, 9.3%가 ‘전혀 그렇지 않다.’, 5.0%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한국계 중국(72.8%)’ 출신이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32.9%)’ 출신이 가장 낮았음. 또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태국(33.3%)’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대구(52.3%)’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광주(43.3%)’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군 단위의 거주 지역이 시 단위의 거주 지역보다 많게는 15.8%, 적게는 2.5%의 차이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이는 군 단위의 다문화 가정이 시 단위의 다문화 가정보다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거나 보고 말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함(표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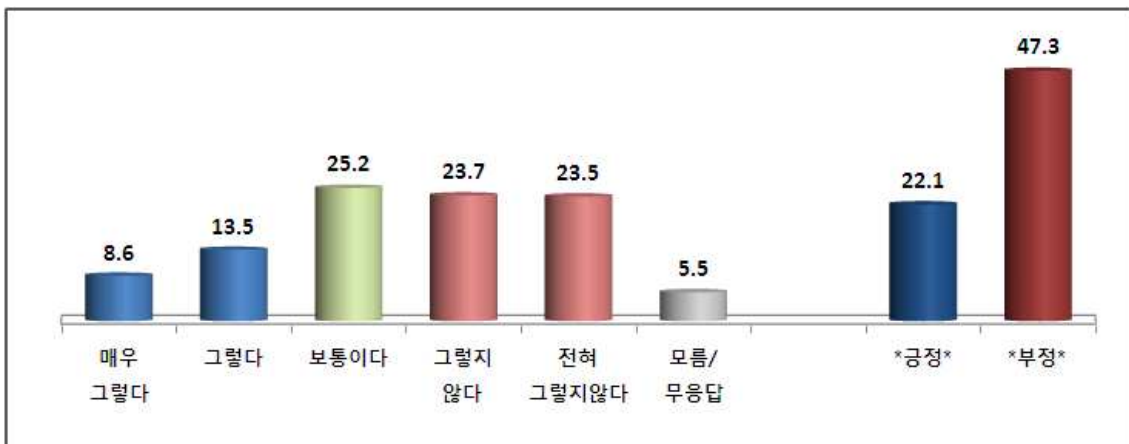
<그림 130> 설명 및 보고



8) 연설이나 토의, 통역

- 한국어로 연설이나 토의, 통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6%가 ‘매우 그렇다.’, 13.5%가 ‘그렇다.’, 25.2%가 ‘보통이다.’, 23.7%가 ‘그렇지 않다.’, 23.5%가 ‘전혀 그렇지 않다.’, 5.5%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대구(31.8%)’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적었고,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거주 지역의 군 단위와 시 단위 간의 편차가 나타났는데 군 단위의 다문화 가정이 시 단위의 다문화 가정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2배가량 많게 나타남. 이는 군 단위의 다문화 가정이 시 단위의 다문화 가정보다 한국어로 연설이나 토의, 통역을 말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함.
- ‘남성(41.2%)’이 ‘여성(21.9%)’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2배가량 높았음(표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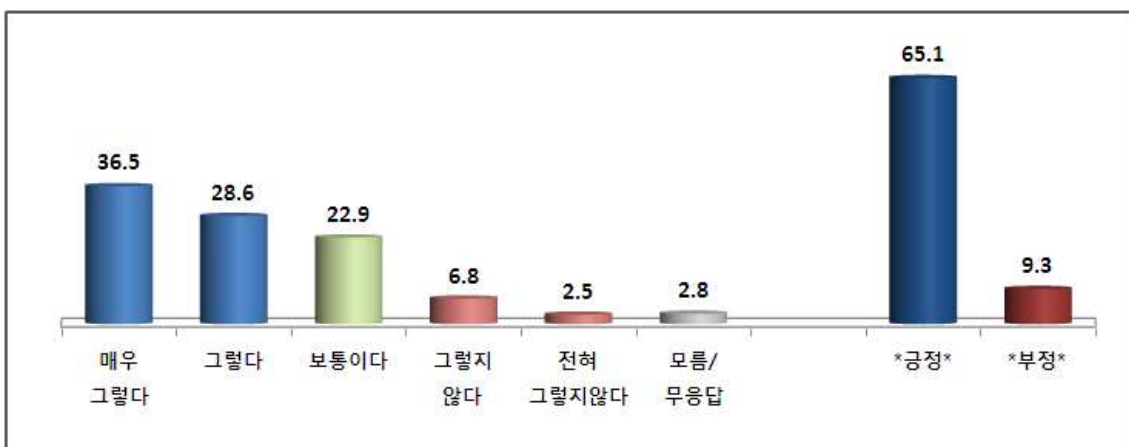
<그림 131> 연설이나 토의, 통역



9) 한국어로 된 간단한 문장을 듣기

- 먼저 한국어로 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5.1%이며, 9.3%가 부정적으로 답함.
- 상당수가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 ‘한국계 중국(81.3%)’이 가장 높았으며 ‘중앙아시아(80.0%)’가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족 및 기타 중국(44.3%)’에서 온 응답자들은 한국어로 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한족 및 기타 중국(21.4%)’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대구(79.5%)’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충청남북도 군 단위(77.7%)’ 지역임. 대체로 거주 지역의 군 단위와 시 단위 간의 편차가 나타났는데, 군 단위의 다문화 가정의 시 단위의 다문화 가정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옴(표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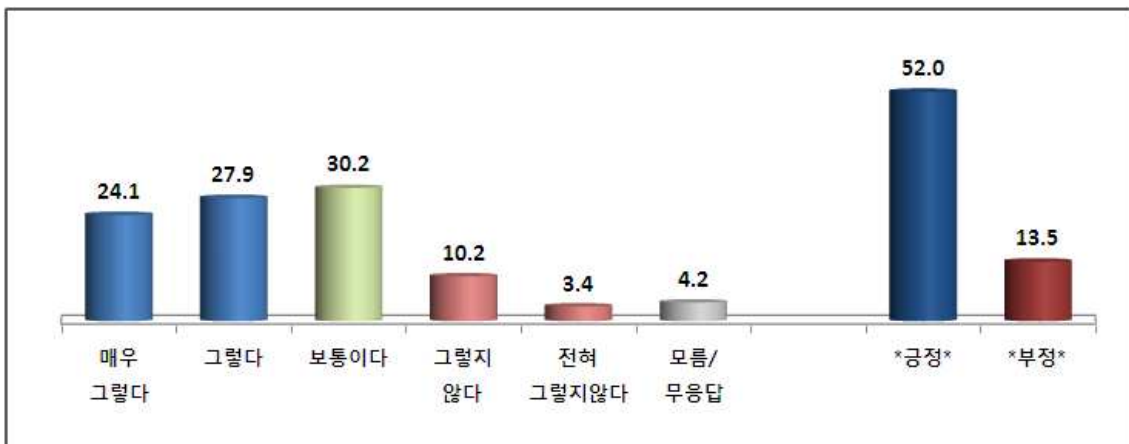
<그림 132> 한국어로 된 간단한 문장 듣기



10) 한국어로 된 일반적인 사항의 대화 내용 듣기

- 한국어로 된 일반적인 사항의 대화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2.0%이며, 13.5%가 부정적으로 답함. 이는 응답자의 반 정도가 일반적인 사항의 대화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77.4%)'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66.9%)'이 그 뒤를 이었다. '필리핀(30.2%)'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태국(23.1%)'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대체로 거주 지역의 군 단위와 시 단위 간의 편차가 나타났는데, 군 단위의 다문화 가정이 시 단위의 다문화 가정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충청남북도 군 단위(61.4%)'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충청남북도 시 단위(25.6%)'와 '광주(25.6%)'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함(표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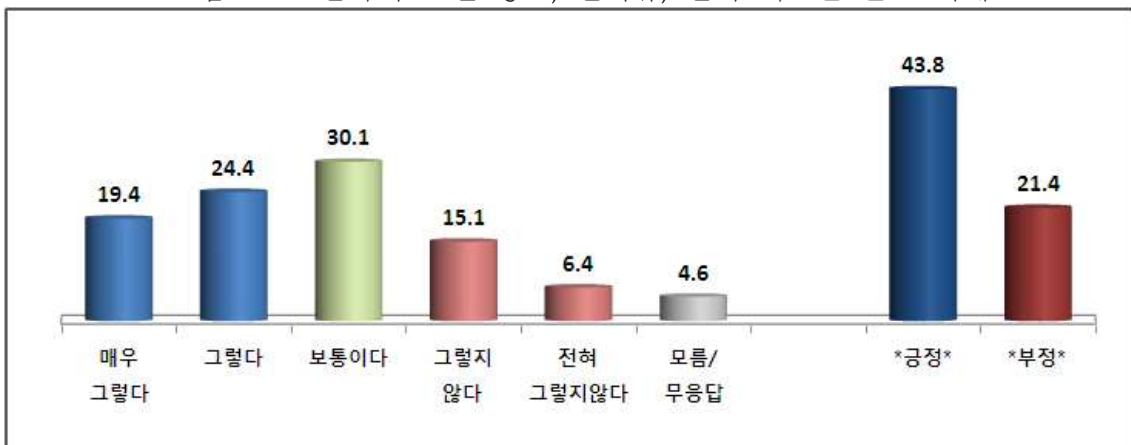
<그림 133> 한국어로 된 일반적인 사항의 대화 내용 듣기



11) 한국어로 된 광고, 인터뷰, 일기 예보를 듣고 이해

- 한국어로 된 광고, 인터뷰, 일기 예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3.8%이며, 21.4%가 부정적으로 답함.
-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서 출신 국가가 '한국계 중국(72.8%)'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63.6%)'이 그 뒤를 이음. '필리핀(33.3%)'에서 온 다문화 가정은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으며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태국(33.3%)'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군 단위의 다문화 가정이 시 단위의 다문화 가정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특히 '충청남북도 군 단위(52.4%)'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함(표 29-3).

<그림 134> 한국어로 된 광고, 인터뷰, 일기 예보를 듣고 이해



12) 한국어 뉴스

- 한국어로 된 뉴스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2.6%가 '매우 그렇다.', 20.1%가 '그렇다.', 31.9%가 '보통이다.', 20.2%가 '그렇지 않다.', 10.2%가 '전혀 그렇지 않다.', 4.9%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69.4%)'이 가장 높았으며 '태국(20.5%)'의 경우는 가장 낮았음.
- '강원 군 단위(47.9%)'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강원 시 단위(43.9%)'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함. 전반적으로 군 단위의 다문화 가정이 시 단위의 다문화 가정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가 '사무직(71.0%)'에 종사하는 경우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부(34.3%)'인 경우가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남(표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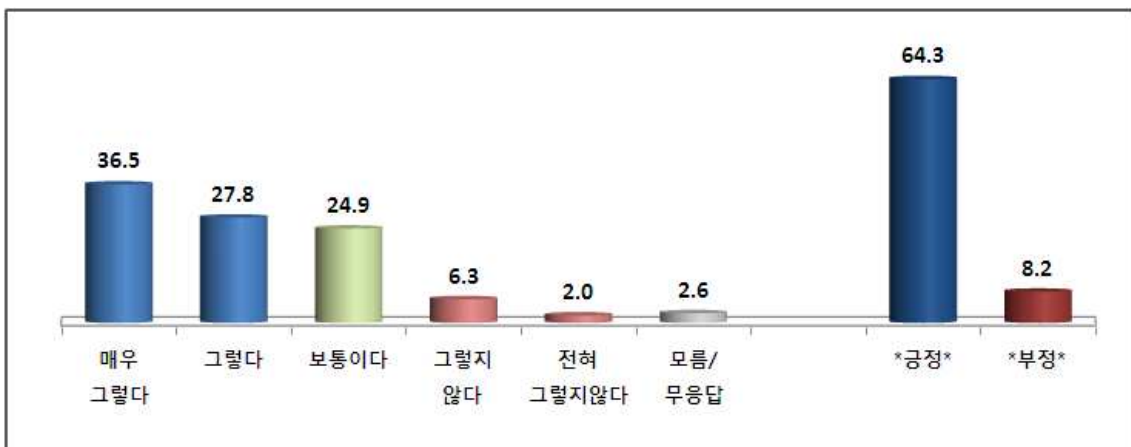
<그림 135> 한국어 뉴스



13) 한국어 사물 이름이나 위치, 숫자 쓰기

- 한국어 사물 이름이나 위치, 숫자 쓰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36.5%가 '매우 그렇다.', 27.8%가 '그렇다.', 24.9%가 '보통이다.', 6.3%가 '그렇지 않다.', 2.0%가 '전혀 그렇지 않다.', 2.6%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거주 지역별로는 '대구(75.0%)'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답함.
- 응답자가 '사무직(84.5%)'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부(62.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표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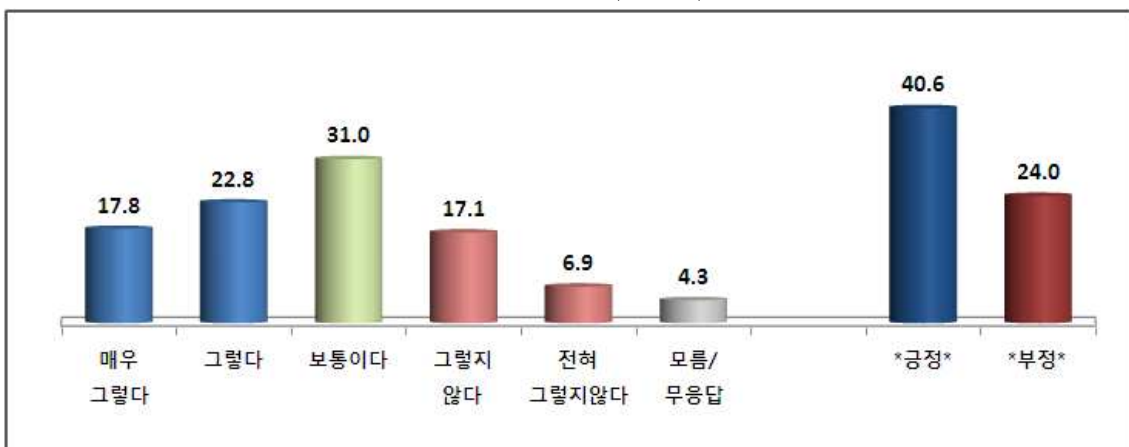
<그림 136> 한국어로 사물 이름이나 숫자, 위치 쓰기



14) 한국어로 편지, 일기, 게시문 쓰기

- 한국어로 편지, 일기, 게시문 쓰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7.8%가 '매우 그렇다.', 22.8%가 '그렇다.', 31.0%가 '보통이다.', 17.1%가 '그렇지 않다.', 6.9%가 '전혀 그렇지 않다.', 4.3%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한국계 중국(68.1%)'에서 온 응답자는 능숙하다는 응답을 많이 함. 반면 '한족 및 기타 중국계(28.2%)'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표 30-2).

<그림 137> 한국어로 편지, 일기, 게시문 쓰기



15) 한국어로 일상적인 내용 쓰기

- 한국어로 일상적인 내용에 대한 쓰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1.9%가 '매우 그렇다.', 17.5%가 '그렇다.', 29.3%가 '보통이다.', 22.9%가 '그렇지 않다.', 13.3%가 '전혀 그렇지 않다.', 5.1%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대부분의 응답자가 다른 언어 기능에 비해 쓰기 기능에서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서 '한족 및 기타 중국(50.9%)'이 가장 높았음.
- 거주 지역별로는 '전라남북도 군 단위(42.5%)'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충청남북도 시 단위(10.3%)'가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음. 대체로 거주 지역의 군 단위와 시 단위 간의 편차가 나타났는데, 특히 충청남북도 시 단위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에 비해 '충청남북도 군 단위(30.7%)'는 부정적인 응답이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거주 지역의 군 단위와 시 단위 간의 편차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군 단위 거주자가 더 긍정적임(표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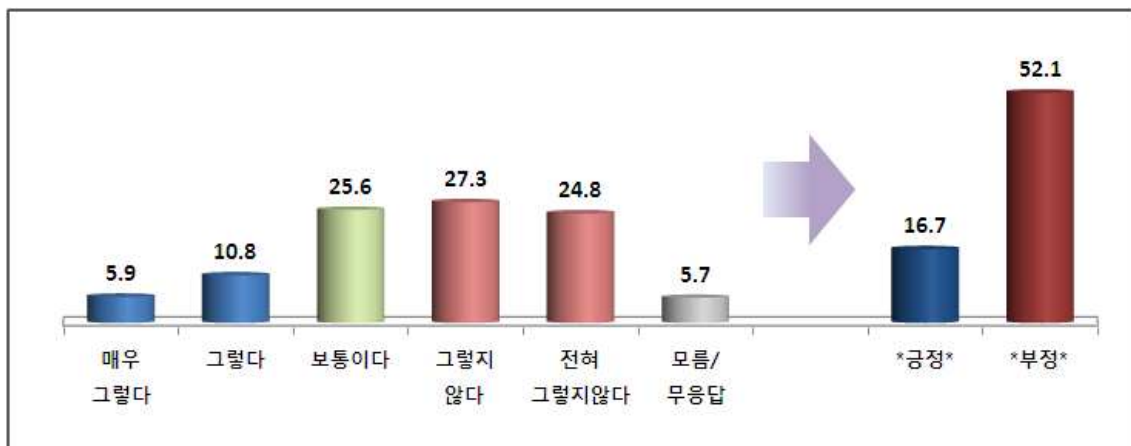
<그림 138> 한국어로 일상적인 내용 쓰기



16) 한국어로 전문적인 글쓰기

- 한국어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쓰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9%가 '매우 그렇다.', 10.8%가 '그렇다.', 25.6%가 '보통이다.', 27.3%가 '그렇지 않다.', 24.8%가 '전혀 그렇지 않다.', 5.7%가 '모름/무응답' 순으로 답함.
- 특히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서 '한족 및 기타 중국(66.9%)'이 가장 높았음.
- '전라남북도 군 단위(29.0%)'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부산(3.0%)'에서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음. 대체로 거주 지역의 군 단위와 시 단위 간의 편차가 나타났는데, 군 단위 거주자가 더 긍정적이었음. 특히 '충청남북도 시 단위'에서 '부정적인 응답(74.4%)'이 높게 나타남(표 30-4).

<그림 139> 한국어로 전문적인 글쓰기



4.2. 개방형 문항 분석

1) 필리핀

- 필리핀 출신의 응답자 수는 101명인데 모어로 답한 경우가 3명 있었음. 2명은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었고 1명은 '5년 미만'이었음. 한국어로 된 질문에 모어로 답한 것으로 보아 한국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생각됨.
- 단답형으로 대답한 경우에는 오류가 많지 않았음. 구절 단위 이상의 서술형으로 응답한 경우는 정문 26명, 비문 25명이었음. 물론 비문은 응답 속에 하나 이상의 오류가 나타난 경우를 말함.
- 거주 지역은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았으나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정문 대 비문의 비율이 17:2로 정문이 월등히 많았음. '5년 미만'의 경우에는 9 대 23으로 비문이 훨씬 많았음. 언어 습득의 경우에는 노출된 기간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오류의 내용을 보면 '사라는고(사는 거)', '한국말(한국말)', '힘드루요(힘들어요).', '땀 땀해요(답답해요).', '가족(가족)', '시성(시선)', '없으요(없어요).', '언아(언어)' 등과 같은 잘못된 형태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이 보임. 통사 의미상의 오류도 보였는데 '한국말을 배워서 힘들어요.', '남편에랑 대화가 힘들어요.', '힘든 점은 말들이이요.' 등으로 나타남. 연결어미의 사용에서도 오류가 나타났는데 '한국말을 못하면서 제일 힘들어요.', '생활 하면서에서 가장 힘든 점은 김치 담겨요.' 등의 예가 있음.

2) 태국

- 대부분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해서 언어상의 오류를 찾기가 어려웠음. 언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단답형이 많았음. '다문화센터 와서 우리한테 많이 도와해줘서 한국 생활이 진짜 좋아요.', '일 다녀고 싶어요.', '모어 가르쳐 방법' 등의 오류가 보임.

3) 캄보디아

-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자는 1명을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이 모두 '10년 미만'이었음.
- 서술형보다는 단답형의 응답이 많아서 역시 오류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키울기(키우기)', '잘 몰랐어 힘들어(몰라서 힘들어)', '남편이 네말을 잘못 알아들을 때(내 말)', '쉬어요(쉬워요).', '힘들러(힘들어)', '한국말을 서툴른다고 느낄때(서투르다고)'와 같은 형태상의 오류가 많았음.

4) 중앙아시아

- 응답 가운데 비문이 별로 없었음 특히 '2년 미만'의 응답자 5명의 응답도 모두 정문이었음.
- 물론 단답형이 많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말이 안통해요.'나, '맨 처음에 가장 힘든 점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였어요.'는 매우 정상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음. 오류로는 '한국말로 대화(한국말로)', '한국요리 만들은줄(만들 줄)', '피부색갈(색깔)'이 있음.

5) 중국

- 중국 출신 가운데 '한국계 중국어 화자'가 아닌 '한족 및 기타 민족' 출신의 중국어 화자 응답자는 모두 339명이었음. 서술형 응답만 보면 '10년 이상' 거주자는 정문 대 비문의 비율이 11:3으로 나타남.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거주자는 25:24, '2년 이상 5년 미만'의 거주자는 41:63, 2년 미만 거주자는 28:36으로 나타남.
-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오류의 비율이 높아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의 오류가 없었는데 '사람을 같이 대화할 하는거(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거)', '애기교육(교육)', '있어요(없어요).', '요리할데(요리할 때)' 등과 같은 오류가 발견됨. 특히 처음에 나타난 오류는 논항 구조의 오류라서 '10년 이상' 거주했음에도 개인에 따라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국어 화자는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어요.'와 같은 상당히 정교한 한국어 문장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힘들니다(힘듭니다).', '한국말 못해는것(못하는 것)', '자녀 교육(자녀 교육)', '생각 달리기 때문에(다르기)', '한국어 몰아요(몰라요).', '애들 키우는 것(키우는 것)', '한국어 잘하기 못해서(잘하지 못해서)', '나과 남편 같이 일하면서도(나와)와 같은 형태상의 오류를 보이기도 함. 통사상의 오류도 보이는데 '한국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올때(할 때)', '제 한국말이 한국사람 못아요(제 한국말을 한국 사람이 몰라요).', '애들을 양육입니다(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의사사통에 안 돼서(의사소통이 안 돼서)' 등의 오류가 보임. 어미의 잘못된 사용도 있음. '나과 남편같이일하면서도 돈이잘안벌어진다(나와 남편이 같이 일해도 돈이 잘 안 벌어진다).', '아기가 봐줘 사람이 없고(아기를 봐 줄 사람이 없고)' 등에서 어미의 오류를 볼 수 있음.
- '2년 이상 5년 미만'의 중국 출신 응답자들도 비슷한 오류를 보이는데 양적으로 더 많음. '2년 미만'의 경우에는 형태상의 오류가 많았음. '힘들어요(힘듭니다).', '어렵어요(어려워요).', '남편회사 된근후에(남편 회사 퇴근 후에)', '한국말 잘 못'

해니까(못하니까)', '힘든 니까(힘드니까)', '힘든어요(힘들어요).', '한국말을 잘 못 들려면(못 들으면)' 등의 오류가 발견되었음. 통사상의 오류도 물론 발견되었음. '다른사람한테 말을 잘 못알아 들었을 때(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한국사람들은 이야기 하기(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대화를 좀 힘들다 (대화가 좀 힘들다).', '한국말을 힘들어요(한국말이 힘들어요).' 등의 오류가 보임.

6) 한국계 중국

- 한국계 중국 출신 응답자는 모두 149명이었음. 한족 및 기타 민족 출신의 중국 출신 응답자들과 비교하면 한국어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한국계 중국 출신 응답자들 사이에서 한국어 능력의 차이가 큰 것도 특징임. 중국에서 이미 한국어를 배워서 사용한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이 모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경우에는 한족이나 기타 민족 출신의 응답자와 비슷한 상황일 것임.
- 다음의 '2년 이상 5년 미만' 거주자의 응답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임. "한국 시집으로 온지 벌써 4년이 되었는데요. 가장 힘든 점은 바로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어서 평일에 말이 별로 없어서 제가 힘들때 이해해주지못하고, 위로해주지못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 실제 오류의 수는 적지 않지만 긴 문장 형식의 응답이라 오류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고 또한 형태상의 오류가 많음.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정문 대 비문이 23:5이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는 정문 대 비문이 20:7로 나타남. '2년 이상 5년 미만'은 10:6, '2년 미만'은 7:1임.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오류가 많아지는데 특이하게도 '2년 미만' 거주한 중국 출신 응답자가 '5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보다 오류가 적었음. 이것은 한국계 중국 출신 응답자들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도 한국어 실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얼마나 습득했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급한 일이 있으때(있을 때)', '전화봐기(받기)', '한국 음식을 안 먹어 싶어(먹고 싶어)', '좋와요(좋아요).', '가르키기 힘드러요(가르치기 힘들어요).', '힘든어요(힘들어요).', '살는것을(사는 것을)' 등의 형태상의 오류가 많고 '우리에게 보는 시각(우리를 보는 시각)', '중국(외국)인 대한 불신(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은 통사상의 오류도 보임.

7) 일본

- 일본 출신 응답자는 186명임. 그런데 '10년 이상' 거주자가 114명임.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2명임. 비교적 장기 거주자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오류의 비율이 낮지는 않음. '10년 이상' 거주자의 정문 대 비문 비율이 서술형과 단답형 각각 20:9, 50:34임.
- 오류의 양상을 보면 발음, 맞춤법, 표준어 오류가 많음. '챙겨들리지(챙겨드리지), 고행(고향)', '갈데도(갈아도)', '사토리(사투리)', '부몬님(부모님)', '안뵈을때(안 뵈을 때)', '친적사이(친척 사이)', '말로로(말로)', '힘들워요(힘들어요).', '가라 놓을때(갈라 놓을 때)', '하지않면(하지 않으면)', '집에 있어서(있어)', '없업니다(없습니다).', '경제적(경제적)', '의경을(의견을)', '설면하는 것(설명하는 것)' 등이 보임.
- 거주 기간이 길어도 체계적인 학습에 의해 규범을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ㄴ'과 'ㅇ'을 혼동하여 '의경, 설면'의 오류가 눈에 보임. 물론 조사나 어미, 단어의 사용 등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음. '배울스 만군 배웠다(배울 만큼 배웠다).', '모자 관계가 증명 못 했을 대(모자 관계를 증명 못했을 때)', '말 전에지 못 달 때(말 전하지 못할 때)', '의존할때가 없을 때(의지할 데가 없을 때)', '의사소통이 마음대로 못할 때(의사소통을 마음대로 못할 때)' 등으로 나타남.

8) 베트남

- 베트남 출신 응답자는 248명임. 일본 출신 응답자와는 달리 '5년 미만'의 거주자가 많았음. '10년 이상' 거주자는 서술형에서는 오류가 없었음. '2년 이상 5년 미만'이 오류가 많았음. '2년 미만'의 경우도 비슷했지만 응답한 내용이 좀 더 단순해서 오류가 적었다고 할 수 있음.
- 오류의 내용은 형태적인 것과 통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음. '몰아서 힘들었다(몰라서 힘들었다).', '앞플때(아플 때)', '한국 생황에(생활에)', '행복해요(행복해요).', '한국문화은 가장 힘들어요(문화는).', '한국말 못대서(못해서)', '경제적인관리과이해(경제적인 관리와 이해)', '나라가난한다(나라 가난하다).', '아기가 학교다녀때 공부를 가져준는 삼람없었어(아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어)', '편견하는 점(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점)', '몰를때(모를 때)', '아이가없어니까(아이가 없으니까)', '못라서(몰라서)', '몰를 때(모를 때)', '힘들 점(힘든 점)', '외국인니까(외국인이니까)', '원급(월급)', '애기키우때(아기 키울 때)', '오회 할때(오해할 때)', '무시을 당하는 것(무시를)', '잘못태서(잘 못해서)', '높잇말(높임말)', '남편랑 사우데(남편이랑싸울 때)' 등은 형태상의 오류임.

- 유음과 관련한 오류가 눈에 보임. ‘몰아서’, ‘힘들었다.’, ‘학교다녀때’, ‘몰를때’, ‘못라서’, ‘원급’, ‘애기키우때’, ‘사우데’ 등에서 ‘ㄹ’을 탈락시키거나 다른 자음으로 대치하여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음. 통사·의미상의 오류는 ‘부부 말을 안 통해요(말이 안 통해요).’, ‘한국이 살면서(한국에 살면서)’, ‘남편을 항상 저한테 잘해주고(남편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고)’, ‘한국어를 가장 힘들어요(한국어가).’, ‘한국말을 이해가 잘 안되서(한국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힘든은 없어요(힘든 점은 없어요).’, ‘어려운입니다(어려운 것입니다).’, ‘한국법에 대한 못랐을때(한국 법에 대해 몰랐을 때)’, ‘한국말을 발음이 잘 안되어서(한국말이)’, ‘외국인을 가볍게 보이는 것(가볍게 보는 것)’, 경‘제적과 자녀교육(경제적인 것과 자녀 교육)’, ‘한국어로 잘안 알아들어 때(잘 못 알아들을 때)’, ‘어머님과 함께 사시면(살면)’, ‘이해해서 못해(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을 잘 안되는 것(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등이 있음.

9) 몽골

- 몽골 출신 응답자는 모두 37명임. 전체적으로 정문이 많았음. 표본이 많지 않아서 몽골 출신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형태상의 오류로는 ‘무든 일(모든 일)’, ‘임신 중(임신 중)’, ‘개인 정부(정보)’, ‘잘살수있었어는데(잘 잘 수 있었었는데)’, ‘가장 힘들는 것은(힘든 것은)’, ‘발정돼지만(발전됐지만)’, ‘다라가지 못하고(따라가지 못하고)’, ‘못 가게 할 데(못 가게 할 때)’, ‘저음에(처음에)’, ‘진정 식구(친정 식구)’, ‘식우들 없을 때(식구들 없을 때)’, ‘상히 하지 아는 것(상의하지 않는 것)’ 등이 있음. 한국어의 ‘오’가 ‘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눈에 보임. 경음과 평음, 격음의 구별에서 오류를 보이는 것 역시 눈에 보임. 통사 의미상의 오류는 ‘남편이랑 통화안 돼서(남편이랑 의사소통 안 돼서)’ 정도로 나타남.

10)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출신 응답자는 14명임. 정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표본의 수가 적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오류는 ‘시엄마 같이 살으면(살면)’, ‘가족들을 그리울 때(가족들이 그리울 때)’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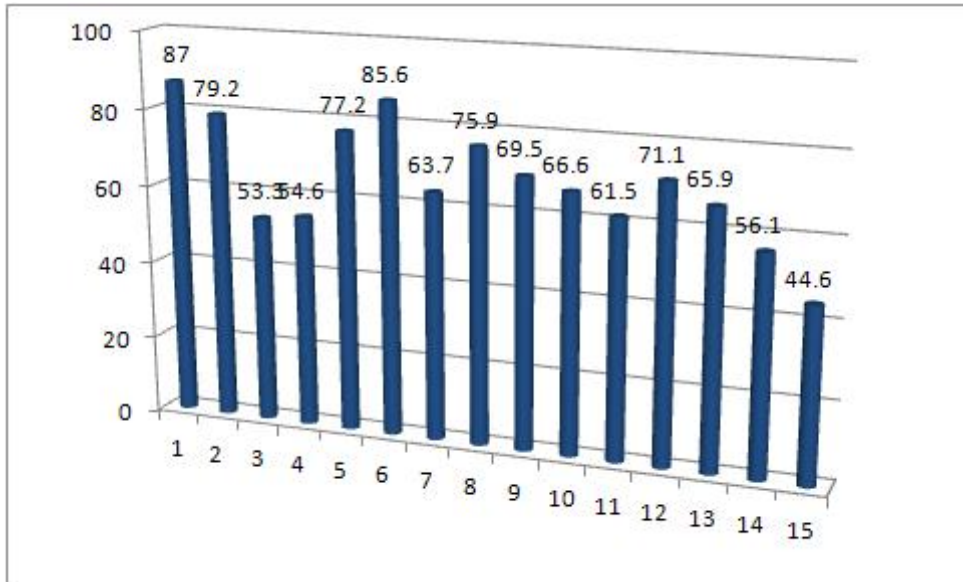
이상에서 10개국 출신 국가별 응답자들의 실제 응답에 나타난 언어적인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출신 국가별로 오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오류의 유형을 보면 쓰기에서 정확한 형태를 모르거나 조사나 어미 사용에 있어서 형태적인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4.3. 선택형 문항 분석

4.3.1. 정답률 개관

- 한국어 능력 검사는 초, 중, 고급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가장 정답률이 낮은 것은 고급 문제인 15번 문제로 단순히 문법 지식을 묻지 않고 담화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였음.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낮에 너무 피곤해요.'라는 발화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상황을 상정함. 적절한 반응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 보지 그래요?'와 같은 제안임. 15번의 정답률은 '44.6%'였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오답을 선택하였음.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절반 정도가 넘는 응답자가 아직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도 오답이 많았음. 3번은 유의어를 고르는 문제로 '틀림없다.'에 대한 유의어는 '확실하다.'인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오답을 선택함. 4번의 경우에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어 표현에 대한 유의 표현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성공하고서도'라는 어미를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을 조금 넘었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서 응답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음. 유의 표현을 관련시켜 학습하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유의어 '만나다.'와 '보다.'를 아는지 묻는 1번 문항이었음. 87%의 응답자가 정답을 선택하였음. 매우 일상적인 단어라서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함.
-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접속 조사 '하고'를 아는지 묻는 문항인 6번 문항에 대한 정답률도 85.6%로 높게 나타남. 유의 관계인 '알고 싶다.'와 '궁금하다.'를 연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인 2번 문항에는 79.2%의 응답자가 올바른 대답을 하였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의 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익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4> 성인 전체 정답률 분포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어 능력 검사 문항을 구성할 때 초급, 중급, 고급의 문제를 고루 다루었다. 초급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는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예상했던 대로 낮게 나타났다. 매우 일상적인 단어를 묻는 질문이나 자주 사용하는 유의어 문제,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접속 조사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어 표현에 대한 유의 표현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정답률이 낮아졌고,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에서는 정답률이 더욱 낮아졌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 정도가 초급의 수준은 넘었으나 아직 고급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각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2. 문항별 정답률 분석

문항 1

- '다음에 만나요.'에서 '만나요.'와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문제의 결과임.
- 전체 응답자의 87.0%가 정답인 '봐요.'를 답하였으며, 8.6%가 무응답을 하였고, 3.6%가 오답인 '가요.'로 답하였음. 특히 '한국계 중국(94.0%)'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앙아시아(76.7%)'가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표 A1).

문항 2

- '엄마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에서 '알고 싶어요.'와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79.2%가 정답인 '궁금해 요.'라고 답하였으며, 13.6%가 무응답을 하였고, 4.1%가 오답인 '답답해요.'로 답하였음.
- 특히 '일본(91.9%)'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태국(69.2%)'이 가장 낮게 나타남. '태국(23.1%)'의 경우 오답 '답답해요.'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표 A2).

문항 3

- '잘 팔리는 것을 보니까 그 소설은 재미있는 것이 틀림없다.'에서 '틀림없다.'와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53.3%가 정답인 '확실하다.'를 답하였으며, 17.4%가 무응답을 하였고, 11.7%가 오답인 '정확하다.'로, 11.3%가 오답인 '당연하다.'로 답하였음.
- 특히 '일본(82.6%)'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42.1%)'이 가장 낮게 나타남. '태국(20.5%)'의 경우 오답 '정확하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표 A3).

문항 4

- '김 감독의 이번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에게서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와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54.6%가 정답인 '성공하고서도'를 답하였으며, 24.2%가 무응답을 하였고, 9.9%가 오답인 '성공하더라도'으로, 7.6%가 오답인 '성공한 까닭에'로 답하였음.
- 특히 '한국계 중국(77.0%)'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한족 및 기타 중국(45.8%)'이 가장 낮게 나타남. '태국'의 경우 오답 '성공하더라도(15.4%)'과 '성공한 까닭에(17.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표 A4).

문항 5

- '어제 선물을 받았습시다.'에서 조사 '을'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77.2%가 정답인 '을'로 답하였으며, 10.5%가 무응답을 하였고, 5.1%가 오답인 '이'로, 3.7%와 3.5%가 오답인 '으로'와 '에'로 답하였음.
- 특히 '일본(91.9%)'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67.8%)'이 가장 낮게 나타남. '태국'의 경우 오답 '이(10.3%)'와 '으로(12.8%)'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표 A5).

문항 6

- '가게에서 우유하고 빵을 삽니다.'에서 조사 '하고'를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85.6%가 정답인 '하고'를 답하였으며, 10.6%가 무응답을 하였고, 1.6%가 오답인 '는'으로, 1.2%와 1.0%가 오답인 '에게'와 '의'로 답하였음.
- 특히 '일본(95.3%)'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태국(76.9%)'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태국의 경우 오답 '는(7.7%)'과 '에게(7.7%)', '의(7.7%)'를 많이 선택하였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정답률이 비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다른 문항에 비해 이 문항에서는 '10년 이상(92.9%)'인 경우가 '5년~10년 미만(93.0%)'인 경우보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음(표 A6).

문항 7

- '동생은 고집이 조금 세기는 하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에서 '세기는 하지만'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63.7%가 정답인 '세기는 하지만'을 답하였으며, 15.3%가 무응답을 하였고, 11.4%가 오답인 '강하기는 하지만'으로, 3.7%가 오답인 '무겁기는 하지만'으로 답하였음.
- 특히 '몽골(84.2%)'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46.9%)'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필리핀'의 경우 오답 '강하기는 하지만(16.7%)'을 많이 선택했으며, '태국'의 경우 오답 '크기는 하지만(15.4%)'을 많이 선택하였음. 큰 격차는 아니지만 '전라남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군 단위'의 정답률이 '시 단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남. '사무직(80.8%)'에 종사하는 경우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주부(61.1%)'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7).

문항 8

- '일요일에 뭐했어요?'의 질문에 '일요일에 공부했어요.'의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75.9%가 정답인 '공부했어요.'를 골랐으며, 11.0%가 무응답을 하였고, 6.7%가 오답인 '공부해요.'로, 4.5%가 오답인 '공부할 거예요.'로, 1.9%가 '공부하겠어요.'로 응답했음.

- 특히 '일본(90.3%)'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64.0%)'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태국'의 경우 오답 '공부해요(12.8%)'를 많이 선택하였음.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군 단위'의 정답률이 '시 단위'의 정답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정답률이 비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다른 문항에 비해 이 문항에서는 '10년 이상(79.9%)'인 경우가 '5년~10년 미만(84.6%)'인 경우보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음(표 A8).

문항 9

- '지금 뭐해요?'의 질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를 해요.'의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68.5%가 정답인 '들으면서'를 골랐으며, 12.2%가 무응답을 하였고, 11.5%가 오답인 '들어도'로, 5.7%가 오답인 '들으면서'로, 2.1%가 '들으니까'로 응답함.
- 특히 '일본(90.7%)'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57.0%)'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태국'의 경우 오답 '들어도(25.6%)'를 많이 선택하였음. 큰 격차는 아니지만 '강원도'를 제외하고 '군 단위'의 정답률이 '시 단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성별은 '남성(58.8%)'보다 '여성(68.6%)'이 좀 더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사무직(89.1%)'에 종사하는 경우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주부(65.6%)'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9).

문항 10

-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의 질문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정류장을 지나쳤어요.'의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66.6%가 정답인 '오다가'를 골랐으며 15.1%가 무응답을 하였고, 9.8%가 오답인 '오던데'로, 4.6%가 오답인 '오기로'로, 3.8%가 '오려면'으로 응답했음.
- 특히 '몽골(87.7%)'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태국(51.3%)'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태국'의 경우 오답 '오던데(25.6%)'와 '오려면(12.8%)'을 많이 선택하였음.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군 단위'의 정답률이 '시 단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사무직(85.0%)'에 종사하는 경우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노무직(62.4%)'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10).

문항 11

-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문화센터에서 배우기로 했어요.’의 알맞은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61.5%가 정답인 ‘배우기로 했어요.’를 골랐으며, 13.3%가 무응답을 하였고, 11.7%가 오답인 ‘배워도 돼요.’로, 7.0%가 오답인 ‘배운 적이 있어요.’로, 6.5%가 ‘배우는군요.’로 응답했음.
- 특히 ‘몽골(80.7%)’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47.7%)’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필리핀’과 ‘태국’의 경우 오답 ‘배운 적이 있어요.(12.8%).’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태국’의 경우 오답 ‘배우는군요(10.3%).’를 그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였음.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군 단위’의 정답률이 ‘시 단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사무직(82.4%)’에 종사하는 경우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주부(58.6%)’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11).

문항 12

-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 다 했어?’라는 질문에 ‘아니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려고요.’의 알맞은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71.1%가 정답인 ‘읽고 나서’를 골랐으며, 15.8%가 무응답을 하였고, 6.0%가 오답인 ‘읽고 나도록’으로, 4.5%가 오답인 ‘읽고 나니까’로, 2.6%가 ‘읽고 나느라고’로 응답했음.
- 특히 ‘한국계 중국(88.1%)’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61.5%)’이 가장 낮게 나타남. ‘태국’의 경우 오답 ‘읽고 나니까(12.8%)’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오답인 ‘읽고 나도록(10.3%)’을 많이 선택하였음.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군 단위’의 정답률이 ‘시 단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성별은 ‘남성(47.1%)’보다 ‘여성(71.3%)’이 좀 더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사무직(83.4%)’에 종사하는 경우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주부(69.0%)’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12).

문항 13

- ‘병원에는 무슨 일로 가요?’와 ‘아버님이 입원하셨어요.’로 이루어진 대화의 마지막 발화로 알맞은 말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65.9%가 정답인 ‘걱정되지겠어요.’를 골랐으며, 14.7%가 무응답을 하였고, 8.8%가 오답인 ‘걱정해야지요.’로, 5.4%가 오답인 ‘걱정하는 중이에요.’로, 5.1%가 ‘걱정하

더라고요.’로 응답함.

- 특히 ‘일본(87.3%)’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캄보디아(55.1%)’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태국’의 경우 오답 ‘걱정해야지요(17.9%).’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오답 ‘걱정하더라고요(10.3%).’을 많이 선택하였음. 정답률이 낮은 ‘캄보디아’의 경우 오답으로 ‘걱정하는 중이에요(11.6%).’를 많이 선택하였음.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군 단위’의 정답률이 ‘시 단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성별은 ‘남성(58.8%)’보다 ‘여성(66.0%)’이 좀 더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사무직(82.9%)’에 종사하는 경우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주부(63.1%)’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13).

문항 14

-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의 말에 ‘잘하거든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로 대화를 완성하는 말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56.1%가 정답인 ‘잘하거든요.’를 골랐으며, 17.5%가 오답인 ‘잘하기는 어려워요.’로, 15.2%가 무응답을 하였고, 6.4%가 오답인 ‘잘하다던데요.’로, 4.9%가 오답인 ‘잘한다고 봐요.’로 응답했음.
- 특히 ‘몽골(78.9%)’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42.9%)’와 ‘필리핀(44.6%)’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필리핀’의 경우 오답 ‘잘하기는 어려워요(18.6%)’를 많이 선택했으며, ‘태국’의 경우도 오답 ‘잘하기는 어려워요(23.1%), 오답 ‘잘하다던데요(12.8%).’를 많이 선택하였음. 오답 ‘잘한다고 봐요.’는 캄보디아(11.6%)가 특히 많이 선택하였음.
-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구(75.0%)’의 경우 가장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부산(38.8%)’의 경우 가장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음. ‘부산’의 경우 오답 ‘잘하기는 어려워요(20.9%).’를 많이 선택하였음. 대체적으로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큰 격차는 아니지만 ‘군 단위’의 정답률이 ‘시 단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특히 ‘강원도’는 ‘강원 군 단위(59.2%)’가 ‘강원 시 단위(41.5%)’보다 정답을 더 많이 선택하였음. ‘사무직(81.3%)’에 종사하는 경우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주부(52.7%)’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14).

문항 15

-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낮에 너무 피곤해요.’라는 말에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 보지 그래요?’로 대화를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응답자의 44.6%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지 그래요?'로 정답을 골랐으며, 23.4%가 오답인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게 나아요.'로, 16.3%가 무응답을 하였고, 8.6%가 오답인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 드릴까요?'로, 7.0%가 오답인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실까 말까 해요.'로 응답했음.

- 특히 '한국계 중국(65.1%)'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21.4%)'와 '필리핀(30.6%)'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오답 '~마시는 게 나아요.'를 '태국(41.0%)', '중앙아시아(36.7%)'가 많이 선택하였음. 오답 '~마셔드릴까요?'는 '태국(17.9%)'이 많이 선택하였으며, 오답 '~마실까 말까 해요.'는 '중앙아시아(10.0%)'가 많이 선택하였음.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기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군단위'의 정답률이 '시 단위'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음. 거주 기간에 따라 정답률이 비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다른 문항에 비해 이 문항에서는 '10년 이상(53.8%)'인 경우가 '5년~10년 미만(56.3%)'인 경우보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음. 성별은 '남성(23.5%)'보다 '여성(44.8%)'이 좀 더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표 A15).

문항 1부터 문항 15까지에 나타난 현상을 정리해 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정답률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고, 60~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각 문항에 나타난 응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출신 국가에 따른 특징으로는 문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출신국가가 일본인 경우 대체적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한국계 중국, 그리고 몽골인 경우가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출신국가가 태국이나 필리핀인 경우는 오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학력별로 나타난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응답자의 학력이 대학교인 경우에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인 경우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제5장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환경

5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알기 위해 조사한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결과 분석을 하였다. 자녀의 국어 사용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환경과 학교에서의 언어 사용 환경, 언어 입력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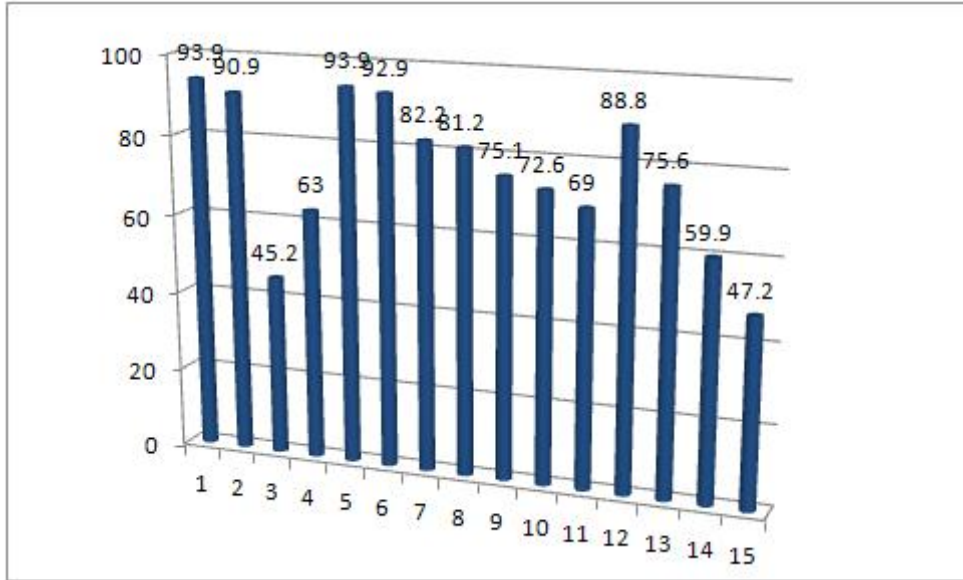
5.1 응답자 변인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 응답자 변인에 따른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결과는 전체 응답자 중 '70~90점 미만(32.0%)'이 가장 많았으며 '90~100점(31.5%)', '50~70점 미만(23.4%)', '30~50점 미만(11.2%)' 순으로 많았고, '30점 미만(2.0%)'이 가장 적었음.
- 부모의 출신 국가에 따른 응답으로 '50점 이상'의 점수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부모가 '필리핀'과 '일본' 출신인 경우 '90~100점(42.8%, 42.4%)'이 유독 많았음. 또한 '베트남' 출신의 경우 '90~100점(17.8%)'이 유독 적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응답 역시 '50점 이상'의 점수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90~100점(12.1%)'이 유독 적었음.
- 거주 기간에 따른 응답 역시 '50점 이상'의 점수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외국에서 이주한 부모가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 '90~100점(45.3%)'이 유독 많았음. 또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50~70점 미만'과 '70~90점 미만'의 비율이 증가했음.
- 결혼 이민자인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득점의 비율이 감소했고 고득점의 비율이 증가했음. 또한 결혼 이민자인 부모의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90~100점'은 증가했음. 종교에 따른 응답 역시 '50점 이상'의 점수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부모가 '불교' 신자인 경우 '50점 미만'의 점수대가 없었음.
- 결혼 이민자의 직업에 따른 응답 역시 아동의 점수가 '50점 이상'의 점수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부모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저득점이 유독 많았음. 결혼 이민자 부모의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응답 역시 '50점 이상'의 점수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90~100점(64.7%)'이 유독 많았음.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 '90~100점(43.5%, 75.0%)'이 유독 많았음. 또한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70점 미만'의 점수대는 감소했고, '90~100점'은 증가했음.
-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와 아동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는 비례했음. 결혼 이민자가 남성인 경우가 너무 적었기에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와 연관을 지을 수 없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저득점인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고득점이 많았음.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가 고득점이 더 많았음. 아동의 학년에 따른 응답 역시 '50점 이상'의 점수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3학년'인 경우는 '30점 미만'이 없었음(표 SUMS).

5.2 선택형 문항 결과 분석

- 한국어 능력 검사는 초, 중, 고급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음. 초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가장 정답률이 낮은 것은 고급 문제인 3번으로 유의어를 고르는 문제임. '틀림없다.'에 대한 유의어는 '확실하다.'인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오답을 선택했음. 4번 문항에도 오답이 많았음. 4번의 경우에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어 표현에 대한 유의 표현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정답인 '성공하고서도'라는 어미를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을 조금 넘었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서 응답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음. 유의 표현을 관련시켜 학습하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두 번째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15번 문제임. 15번은 단순히 문법 지식을 묻지 않고 담화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였음. 15번의 정답률은 44.6%였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오답을 선택하였음.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절반 정도가 넘는 응답자가 아직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것임. 14번 문제도 정답률이 낮았음. 14번 문항은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의 말에 '잘하기는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로 대화를 완성하는 말을 고르는 문제인데, 고급 수준이라서 어려운 문제지만 59.9%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혔음.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일종의 화용론적인 지식도 필요한 문제임. 14번과 15번 문제 모두 문법 지식과 화용론적인 지식을 모두 요구하는 문항이라서 학생들에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유의어 '만나다.'와 '보다.'를 아는지 묻는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었음. 모두 93.9%의 학생이 정답을 선택하였음. 이 수치는 성인들보다 더 높은 수치임. 매우 일상적인 단어라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임. '어제 선물() 받았습시다.'란 문장에 쓰이는 조사 '을'을 고르는 문제인 5번 문항에 대해서도 93.9%의 학생이 '을'을 선택한 것임.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접속 조사 '하고'를 아는지 묻는 문항인 6번 문항에 대한 정답률도 92.9%로 나타났는데 성인의 85.6%보다 높게 나타났음. 조사와 같은 통사적인 단위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학습된 결과로 보임. 유의 관계인 '알고 싶다.'와 '궁금하다.'를 연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인 2번 문항에는 90.9%의 학생이 올바른 대답을 하였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의 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익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41> 선택형 질문의 정답률



문항 1

- '다음에 만나요.'란 대화의 응답인 '네, 또 ()'의 결과에 대한 분석임. 유의어를 묻는 문제로 93.9%가 '봐요.'를 정답으로 택하여 높은 정답률을 보임.
- 부모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부모가 '필리핀'과 '일본' 출신인 경우는 100% 정답률을 보였고, 가장 낮은 정답률은 '베트남(88.9%)'이었음. '베트남'은 '가요.'를 정답으로 고른 비율이 8.9%로 나타남. 부모의 직업별로는 '사무직'인 경우가 정답률이 100%였고 '농업, 어업, 임업'인 경우는 정답률이 89.5%로 가장 낮았음. 결혼 이민자 부모의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정답률을 보였고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93.1%의 정답률을 보임.
-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가 높을수록 더 높은 정답률을 보여 '50점 미만'의 경우 87.9%의 정답률을 나타냈고 '90~100점'의 경우 96.9%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음(표 A1).

문항 2

- '엄마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의 유의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임. 유의어의 예로는 '궁금해요.', '답답해요.', '당황해요.', '지루해요.'가 주어졌는데 90.9%가 '궁금해요.'라고 답했고 '답답해요.'라고 답한 비율은 5.6%였음.
-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정답률이 가장 높은 부모의 출신 국가는 '필리핀(96.9%)'이고 '기타(87.5%)'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음. '답답해요.'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은 국가는 '한국계 중국'으로 8.7%를 나타냈다. 부모의 직업별로는 '사무직'은 100% 정답률을 보였고 부모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정답률은 78.9%로 낮았음. 또한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아졌는데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50점 미만'의 경우 84.8%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90~100점'의 경우 98.4%의 정답률을 보였다.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게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음(표 A2).

문항 3

- '잘 팔리는 것을 보니까 그 소설은 재미있는 것이 틀림없다.'의 문장에서 '틀림없다.'의 유의어에 대해 묻는 결과에 대한 분석임. 유의어의 예로는 '확실하다.', '당연하다.', '정확하다.', '특별하다.'가 있었음. '확실하다.'라고 선택한 응답률은 45.2%, '당연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4.4%, '정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3%로 다소 정답률이 낮은 편이었음.
- 부모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정답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으로 62.5%이고, 정답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33.3%에 불과했다. '베트남'은 '당연하다.'를 선택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음. 또한 부모가 '한족 및 기타계의 중국' 출신인 경우는 '정확하다.'를 선택한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음.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광역시'의 정답률은 24.2%로 가장 낮고 '도 단위 시 지역'의 정답률은 50%로 가장 높았음. 부모의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40.7%의 정답률을 보였고 '고졸 이상'의 경우 58.7%의 정답률을 보였음. 또한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정답률도 높아지는데 '50점 미만'의 경우 30.3%, '90~100점'의 경우 67.2%의 정답률을 보였음. 구문 이해력의 점수에서도 '30점 미만'의 경우 0%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90~100점'의 경우 80.6%의 정답률을 보여 구문 이해력에 따른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표 A3).

문항 4

- '김 감독의 이번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에게서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는 문장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의 유의어를 찾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임. 사례로는 '성공하고서도', '성공한 까닭에', '성공하더라도', '성공할 바에야'가 있었음. 이에 대해 '성공하고서도'의 선택률이 68%였고, '성공한 까닭에'를 선택한 비율이 16.8%, '성공하더라도'를 선택한 비율이 12.2%로 나타났음.

- 부모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족 및 기타 중국’의 정답률이 74.2%로 가장 높았고 ‘기타’의 정답률이 54.2%로 가장 낮았음. ‘베트남’은 ‘성공한 까닭에’의 비율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부모의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고졸 이상’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음. 연평균 가구 소득이 높으면 정답률이 조금 높았는데 ‘2000만 원 미만’이 58.2%, ‘2000만 원 이상’은 72.9%로 나타났음.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30점 미만’인 경우는 25%인 반면 ‘90~100점’은 96.8%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음(표 A4).

문항 5

- ‘어제 선물() 받았습시다.’란 문장의 ()를 고르는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임. 사례로는 ‘을’, ‘에’, ‘으로’, ‘이’가 있었다. ‘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3.9%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에’와 ‘으로’가 각각 2%를 차지했음.
- 부모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과 ‘일본’이 100%의 정답률을 보였고,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가 97%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음. 부모의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100% 정답률을 보인 반면 ‘농업, 어업, 임업’은 84.2%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음.
- 특히 가장 큰 차이는 구문 이해력 검사 점수에 따른 차이였는데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아졌으며, ‘30점 미만’의 경우는 0%인데 ‘90~100점’의 경우는 100%의 정답률을 보여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났음(표 A5).

문항 6

- ‘가게에서 우유() 빵을 삽니다.’에서 조사 ‘하고’를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92.9%가 정답인 ‘하고’를 답하였으며, 3.0%가 오답인 ‘는’으로, 2.5%와 1.0%가 오답인 ‘에게’와 ‘의’로 답하였다.
- 특히 부모의 출신 국가가 ‘필리핀(100.0%)’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84.4%)’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베트남의 경우 오답 ‘는(6.7%)’과 ‘에게(8.9%)’를 많이 선택했음. ‘일본(89.5%)’의 경우 다른 출신 국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 비해 오답 ‘의(5.3%)’를 많이 선택하였음.
-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이 ‘30대(95.0%)’인 경우 ‘20대 미만(84.2%)’의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 정답을 많이 선택하였음. 다문화 가정이 ‘사무직(100.0%)’에 종사하는 경우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으며, ‘주부(94.7%)’인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았음(표 A6).

문항 7

- '동생은 고집이 조금 세기는 하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에서 '세기는 하지만'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82.2%가 정답인 '세기는 하지만'을 답하였으며, 9.6%가 오답인 '강하기는 하지만'으로, 7.6%가 오답인 '크기는 하지만'으로 답하였음. 특히 부모의 출신 국가가 '필리핀(87.5%)'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71.1%)'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베트남'의 경우 오답 '크기는 하지만(17.8%)'을 많이 선택했으며, '한국계 중국'의 경우 오답 '강하기는 하지만(13.0%)'을 많이 선택하였음.
-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이 '30대(86.7%)'인 경우 '20대 미만(63.2%)'의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 정답을 많이 선택하였음. 종교적인 차이에서는 '불교(97.1%)'를 믿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종교가 없는(76.7%)'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다 더 정답률이 높았음. 다문화 가정이 '주부(85.8%)'인 경우 '농업, 어업, 임업(63.2%)'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보다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7).

문항 8

- '일요일에 뭐했어요?'의 질문에 '일요일에 공부했어요.'의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81.2%가 정답인 '공부했어요.'를 골랐으며, 12.7%가 오답인 '공부해요.'로, 3.6%가 오답인 '공부하겠어요.'로, 2.0%가 '공부할 거예요.'로 응답했음.
- 특히 부모의 출신 국가가 '일본(94.7%)'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68.9%)'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특히 '베트남'의 경우 다른 출신 국가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다 오답 '공부해요(20.0%)'를 많이 선택하였음.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울 및 광역시(90.9%)'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도 단위 군 지역(77.7%)'에 비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90.7%)'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10년 이상(75.4%)' 거주한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 정답률이 더 높았음.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이 '20대 미만(84.2%)'인 경우 '40대 이상(77.6%)'의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 정답을 많이 선택하였음. 다문화 가정이 '사무직(100.0%)'에 종사하는 경우와 '주부(82.3%)'인 경우 '농업, 어업, 임업(68.4%)'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보다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음.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의 직업이 '사무직(88.2%)'인 경우 정답률이 높았음(표 A18).

문항9

- ‘지금 뭐해요?’의 질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를 해요.’의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75.1%가 정답인 ‘들으면서’를 골랐으며, 13.2%가 오답인 ‘들으면’으로, 9.1%가 오답인 ‘들어도’로, 2.0%가 ‘들으니까’로 응답했음.
- 특히 부모의 출신 국가가 ‘필리핀(87.5%)’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62.2%)’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베트남’의 경우 오답 ‘들어도(15.6%)’를 다른 출신 국가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다 많이 선택하였음. 또한 ‘한국계 중국’은 오답 ‘들으면(19.6%)’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음.
-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 단위 시 지역(78.8%)’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서울 및 광역시(60.6%)’에 비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의 연령도 큰 차이가 없었음. 종교적인 차이에서는 ‘불교(97.1%)’를 믿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종교가 없는(76.7%)’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다 더 정답률이 높았음. 또한 다문화 가정이 ‘사무직(100.0%)’에 종사하는 경우와 ‘농업, 어업, 임업(78.9%)’에 종사하는 경우 ‘노무직(66.0%)’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보다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음.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의 직업이 ‘사무직(100.0%)’인 경우 정답률이 높았음(표 A9).

문항 10

-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의 질문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정류장을 지나쳤어요.’의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72.6%가 정답인 ‘오다가’를 골랐으며, 11.2%가 오답인 ‘오려면’으로, 9.1%가 오답인 ‘오기로’로, 6.6%가 ‘오던데’로 응답했음.
- 부모의 출신 국가가 ‘일본(89.5%)’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53.3%)’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베트남의 경우 오답 ‘오려면(24.4%)’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한족 및 기타 중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오답인 ‘오기로(19.4%)’를 많이 선택하였음.
-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 단위 군 지역(75.9%)’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서울 및 광역시(57.6%)’에 비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종교적인 차이에서는 ‘불교(85.3%)’를 믿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종교가 없는(60.5%)’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다 더 정답률이 높았음. 또한 다문화 가정이 ‘사무직(100.0%)’에 종사하는 경우와 ‘주부(74.3%)’인 경우 ‘노무직(63.8%)’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보다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10).

문항 11

-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의 질문에 '아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문화센터에서 배우기로 했어요.'의 알맞은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69.0%가 정답인 '배우기로 했어요.'를 골랐으며, 15.2%가 오답인 '배워도 돼요.'로, 12.2%가 오답인 '배우는군요.'로, 3.0%가 '배운 적이 있어요.'로 응답했다.
- 특히 부모의 출신 국가가 '일본(94.7%)'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46.7%)'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베트남'의 경우 오답 '배워도 돼요.(26.7%).'와 '배우는군요(12.2%).'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 단위 군 지역(72.3%)'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서울 및 광역시(54.5%)'에 비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의 연령에서는 '30대(70.8%)'와 '40대(70.7%)'의 다문화 가정이 '20대 미만(52.6%)' 연령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종교적인 차이에서는 '불교(85.3%)'를 믿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종교가 없는(55.8%)'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다 더 정답률이 높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사무직(92.3%)'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다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11).

문항 12

-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준 숙제 다 했어?'의 질문에 '아니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려고요.'의 알맞은 대답을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88.3%가 정답인 '읽고 나서'를 골랐으며, 5.6%가 오답인 '읽고 나도록'으로, 5.6%가 오답인 '읽고 나니까'로, 0.5%가 '읽고 나느라고'로 응답함.
- 특히 부모의 출신 국가가 '일본(100.0%)'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필리핀(93.8%)'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동이 정답을 많이 선택하였음. 반면에 '한족 및 기타 중국(80.6%)'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동이 가장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음. '한족 및 기타 중국(9.7%)'의 경우 오답 '읽고 나니까'를 많이 선택했으며, '베트남(11.1%)'의 경우 오답 '읽고 나도록'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음.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 단위 시 지역(98.1%)'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서울 및 광역시(78.8%)'에 비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의 연령에서는 '40대(96.6%)의' 다문화 가정이 '20대

미만(63.2%) 연령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종교적인 차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또한 다문화 가정이 '사무직(92.3%)'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다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음.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의 직업이 '사무직(70.6%)'인 경우 정답률이 높았으나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표 A12).

문항 13

- '병원에는 무슨 일로 가요?'와 '아버님이 입원하셨어요.'로 이루어진 대화의 마지막 발화로 알맞은 말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75.6%가 정답인 '걱정되시겠어요.'를 골랐으며, 14.2%가 오답인 '걱정해야지요.'로, 5.1%가 오답인 '걱정하는 중이에요.'로, 4.6%가 '걱정하더라고요.'로 응답했음.
- 특히 부모의 출신 국가가 '일본(84.2%)'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오답으로 '걱정하는 중이에요(10.5%).'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음. '베트남(57.8%)'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 오답 '걱정해야지요(31.1%).'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음.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 단위 군 지역(79.5%)'과 '서울 및 광역시(78.8%)'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도 단위 시 지역(65.4%)'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도 단위 시 지역'에서는 오답으로 '걱정해야지요(26.9%).'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음. 종교적인 차이에서는 '불교(82.4%)'를 믿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종교가 없는(67.4%)'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 정답을 많이 선택하였음. 또한 다문화 가정이 '사무직(92.3%)'에 종사하는 경우가 '주부(72.6%)'인 경우에 비해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13).

문항 14

-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의 말에 '잘하기는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로 대화를 완성하는 말을 고르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59.9%가 정답인 '잘하기는요.'를 골랐으며, 17.3%가 오답인 '잘한다던데요.'로, 12.2%가 오답인 '잘한다고 봐요.'를, 10.2%가 오답인 '잘하기는 어려워요.'를 정답으로 선택했음.
- 특히 부모의 출신 국가가 '필리핀(71.9%)'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한족 및 기타 중국(45.2%)'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동이 가장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음. '베트남(22.6%)'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오답

‘잘한다던데요(28.9%).’와 ‘잘한다고 봐요(20.2%).’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지역별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 단위 시 지역(71.2%)’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서울 및 광역시(45.5%)’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 서울 및 광역시에서는 오답으로 ‘잘한다던데요(27.3%).’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음.

-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의 연령에서는 ‘40대(70.7%)’의 다문화 가정이 ‘20대 미만(42.1%)’ 연령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종교적인 차이에서는 종교가 ‘불교(70.6%)’인 다문화 가정 아동이 ‘종교가 없는(48.8%)’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 정답을 많이 선택하였음. 또한 다문화 가정의 직업이 ‘사무직(69.2%)’인 경우가 ‘농업, 어업, 임업(57.9%)’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음.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의 직업이 ‘사무직(88.2%)’인 경우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학년에 따른 차이가 보이는데 ‘1학년’과 ‘2학년’은 정답률이 각각 54.1, 52.1%인데 ‘3학년’은 74.2%였음(표 A14).

문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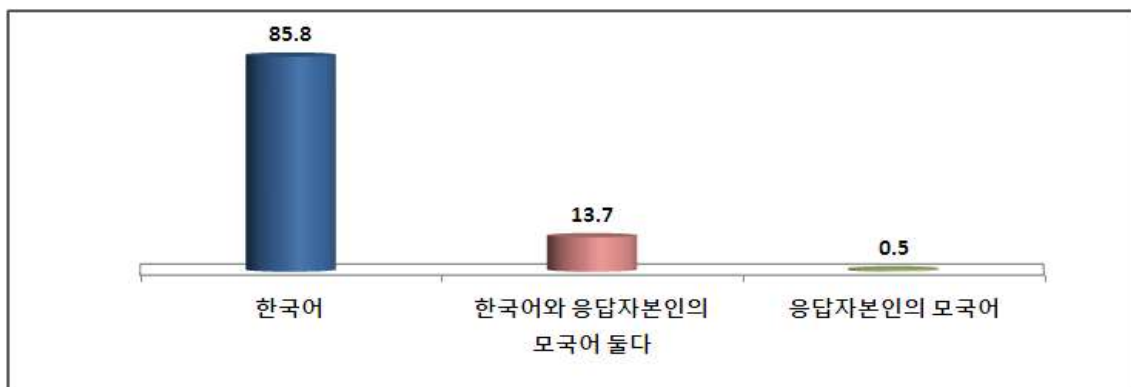
-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낮에 너무 피곤해요.’의 말에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 보지 그래요?’로 대화를 완성하는 한국어 능력 검사 분석 결과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응답자의 47.2%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지 그래요?’로 정답을 골랐으며, 26.4%가 오답인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게 나아요.’로, 22.8%가 오답인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실까 말까 해요.’로, 3.0%가 오답인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 드릴까요?’로 응답했음.
- 특히 부모의 출신 국가가 ‘필리핀(65.6%)’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한국계 중국(37.6%)’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동이 가장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음. ‘한국계 중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동은 오답인 ‘~마시는 게 나아요(28.3%).’와 ‘~마실까 말까 해요(22.6%).’를 다른 출신 국가의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 정답으로 많이 선택했음. 오답인 ‘~마시는 게 나아요?’는 ‘베트남(37.8%)’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동이 많이 선택하였음.
-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의 연령에서는 ‘30대(49.2%)’의 다문화 가정이 ‘40대 이상(43.1%)’ 연령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종교적인 차이에서는 ‘불교(58.8%)’를 믿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기독교(36.6%)’를 믿는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 정답을 많이 선택하였음. 또한 다문화 가정이 ‘주부(52.2%)’인 경우가 ‘노무직(36.2%)’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 비해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음(표 A15).

5.3 가정에서 아동의 국어 사용 환경

1) 아버지나 어머니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 ‘아버지나 어머니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이나’는 질문에 ‘한국어(85.8%)’, ‘한국어와 응답자 본인의 모어 둘 다(13.7%)’, 응답자 본인의 ‘모국어(0.5%)’ 순으로 응답함.
- 필리핀 출신의 경우 ‘한국어(93.8%)’가 평균보다 더 많았고 기타 지역 출신의 경우 ‘한국어와 모어 둘 다(25.0%)’가 많았음.
- 도 단위 지역의 경우 ‘한국어(94.2%)’ 사용이 평균보다 많았음.
- 아동의 부모 중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어’의 비율은 증가했고, ‘한국어와 모어 둘 다’의 비율은 감소함.
- 부모 가운데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50~70점 미만, 70~90점 미만까지의 점수대인 경우 ‘한국어와 모어 둘 다(18.2%, 17.9%)’ 사용한다는 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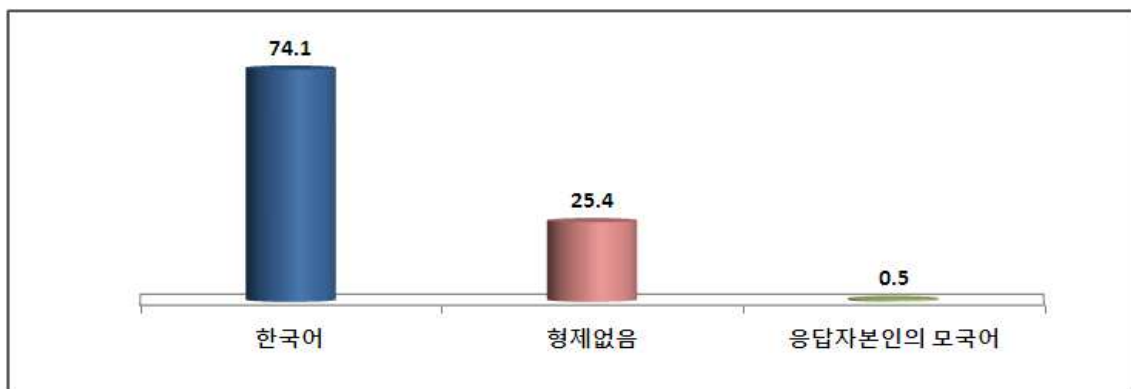
<그림 142> 아버지나 어머니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2) 형제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 '형제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이나'는 질문에 '한국어(74.1%)'가 가장 많았으며 '형제 없음(25.4%)', '결혼이주자 부모의 모어(0.5%)' 순으로 응답함.
- 도 단위 시 지역의 경우 '한국어(82.7%)' 사용이 평균보다 많았음(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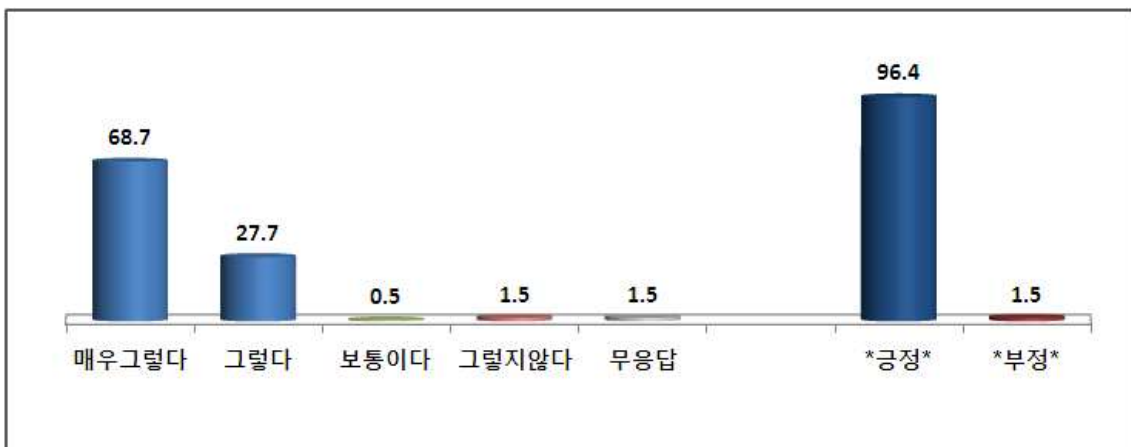
<그림 143> 형제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3) 아동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 정도

- 응답자의 한국어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 정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로 '매우 그렇다(68.7%)', '그렇다(27.7%)', '그렇지 않다(1.5%)', '무응답(1.5%)', '보통이다(0.5%)' 순으로 응답함.
- 부모가 일본 출신인 경우 '매우 그렇다(80.5%)'가 많았음. 또한 베트남과 기타 출신의 경우 '그렇지 않다(4.2%)'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도 단위 군 지역의 경우 '매우 그렇다(75.7%)'가 많았음. 또한 도 단위 시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매우 그렇다.'는 증가했고,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감소했다. 연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매우 그렇다.'는 증가했고, '그렇다.'는 감소했음
-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아질수록 '매우 그렇다.'는 증가했고, '그렇다.'는 감소했음 (표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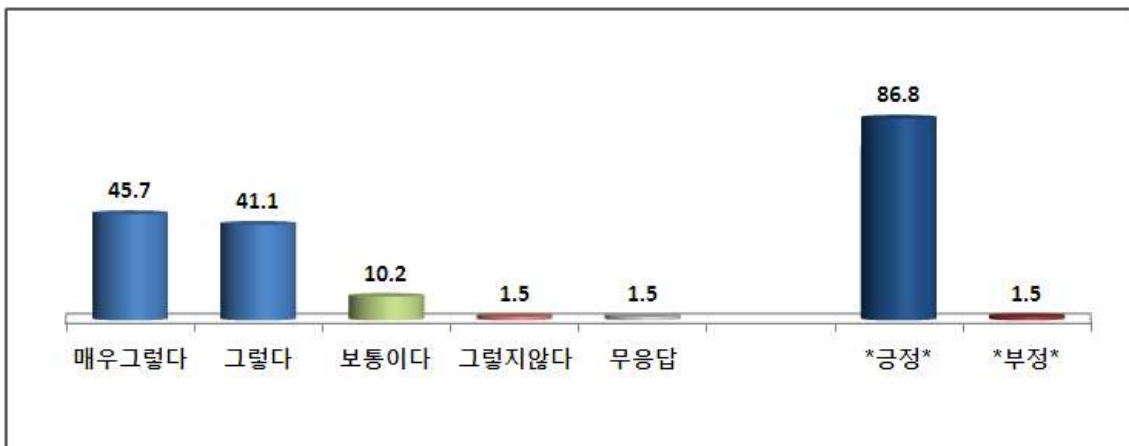
<그림 144> 한국어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 정도



4) 아동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 정도

- 응답자의 한국어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 정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45.7%)', '그렇다(41.1%)', '보통이다(10.2%)', '그렇지 않다(1.5%)', '무응답(1.5%)' 순으로 나타남.
- 부모가 베트남 출신인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긍정(75.6%)'적인 답이 적었음.
- 한국어 능력 검사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의 비율은 증가함(표 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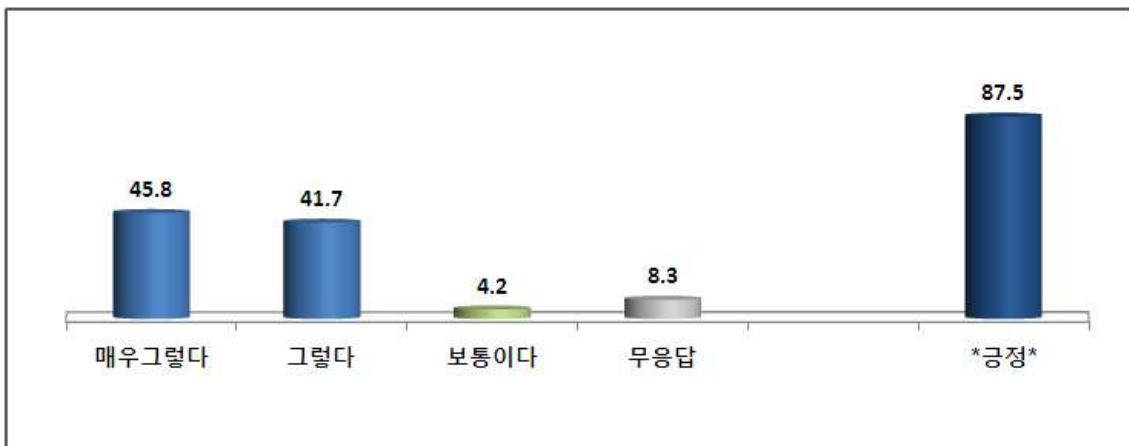
<그림 145> 한국어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 정도



5) 아동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해 정도

- 응답자의 한국어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해 정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45.8%)', '그렇다(41.7%)', '무응답(8.3%)', '보통이다(4.2%)' 순으로 답함.
-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긍정(66.7%)'이 적었음. 일본의 경우 '매우 그렇다(100.0%)'라고 전원 답한 점이 특이함(표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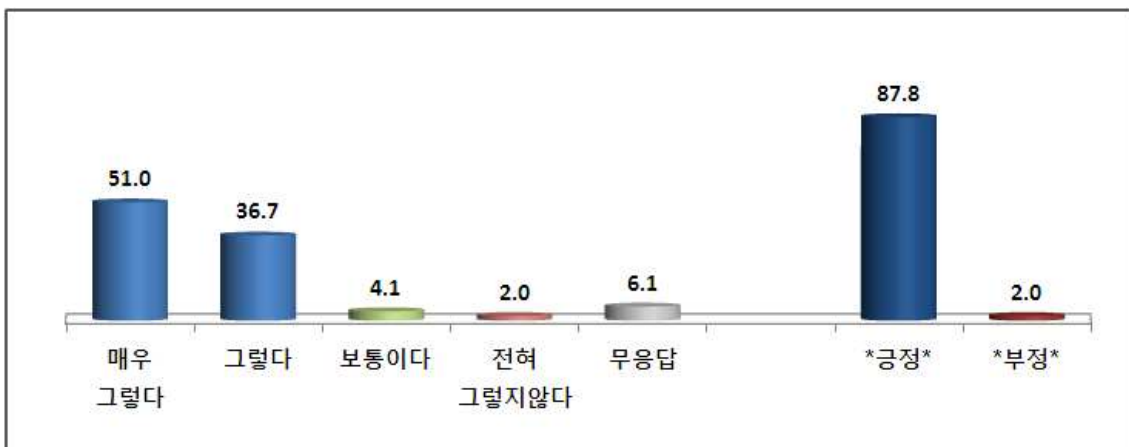
<그림 146> 한국어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해 정도



6) 아동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할머니의 이해 정도

- 응답자의 한국어에 대한 할머니의 이해 정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51.0%)', '그렇다(36.7%)', '무응답(6.1%)', '보통이다(4.1%)', '전혀 그렇지 않다(2.0%)' 순으로 답함.
- 부모가 한국계 중국 출신인 경우 '매우 그렇다(70.0%)'가 유독 많았다. 도 단위 군 지역의 경우 '매우 그렇다(69.2%)'가 유독 많았기에 '긍정(92.3%)'이 가장 많았음. 또한 도 단위의 경우 시 군 단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렇다.'의 비율이 증가하였기에 '긍정'의 비율이 증가함. 아버지가 결혼 이민자인 경우, 대체적으로 '긍정'이 많았음.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의 비율이 증가함.
- 한국인 부모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역시 '긍정(60.0%)'이 유독 적었음.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은 감소했음(표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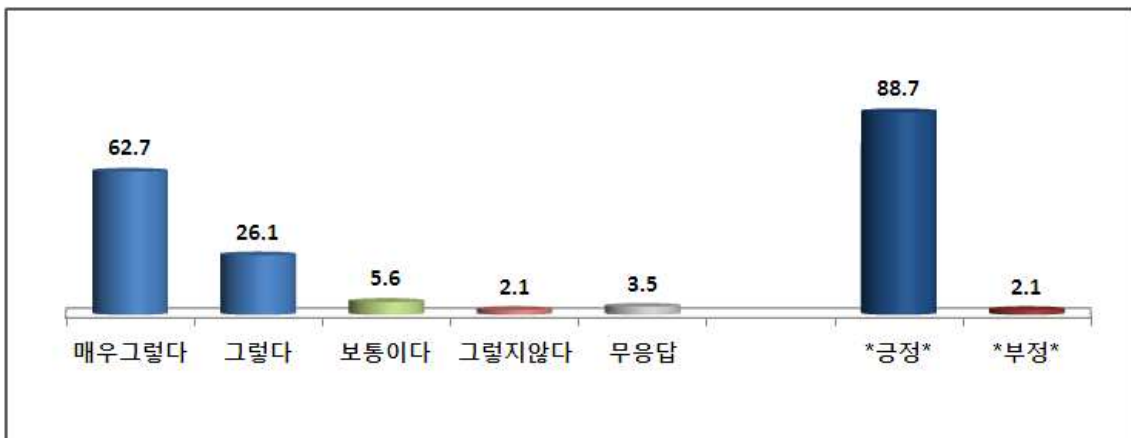
<그림 147> 한국어에 대한 할머니의 이해 정도



7) 아동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형제의 이해 정도

- 응답자의 한국어에 대한 형제의 이해 정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62.7%)’, ‘그렇다(26.1%)’, ‘보통이다(5.6%)’, ‘무응답(3.5%)’, ‘그렇지 않다(2.1%)’ 순으로 응답함.
- 도 단위 군 지역의 경우 ‘매우 그렇다(71.6%)’가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이 증가했음. 결혼 이민자가 아버지인 경우 대체적으로 ‘긍정’이 많았다.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우 그렇다.’가 증가했기에 ‘긍정’이 많았음.
- 외국 출신 부모의 직업이 농업, 어업, 임업인 경우 ‘매우 그렇다(81.3%)’가 유독 많았고, 주부인 경우 ‘긍정(85.9%)’이 유독 적었음. 한국인 부모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긍정(66.7%)’이 유독 적었음.
- 부모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아질수록 ‘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증가했다. 결혼 이민자가 아버지인 경우, 대체적으로 ‘긍정’이 많았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매우 그렇다(66.2%)’가 많았음.
-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아질수록 ‘매우 그렇다.’가 증가했고 ‘그렇다.’가 감소했기에 ‘긍정’이 증가했음(표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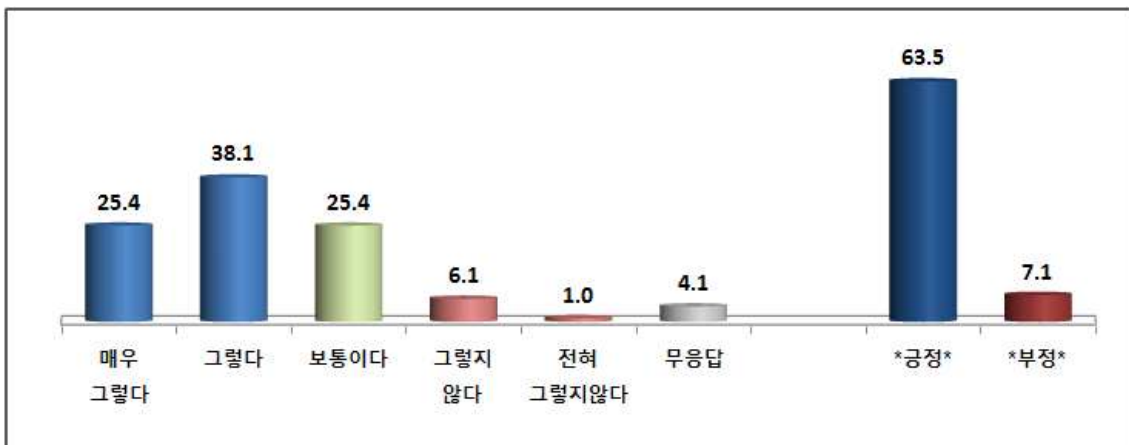
<그림 148> 아동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형제의 이해 정도



8) 부모의 모어

- '부모의 모어를 배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8.1%가 '그렇다.', 25.4%가 '매우 그렇다.', 25.4%가 '보통이다.', 6.1%가 '그렇지 않다.', 1%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함.
- 어머니가 '20대 미만(15.8%)'이거나 어머니가 '농업, 어업, 임업(15.8%)'에 종사하거나 연평균 가구 소득이 '2000만 원 미만(10.4%)'의 다문화 가정에서는 '부정'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음.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거나 자녀의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의 답을 많이 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음.

<그림 149> 부모의 모어를 배우고 싶은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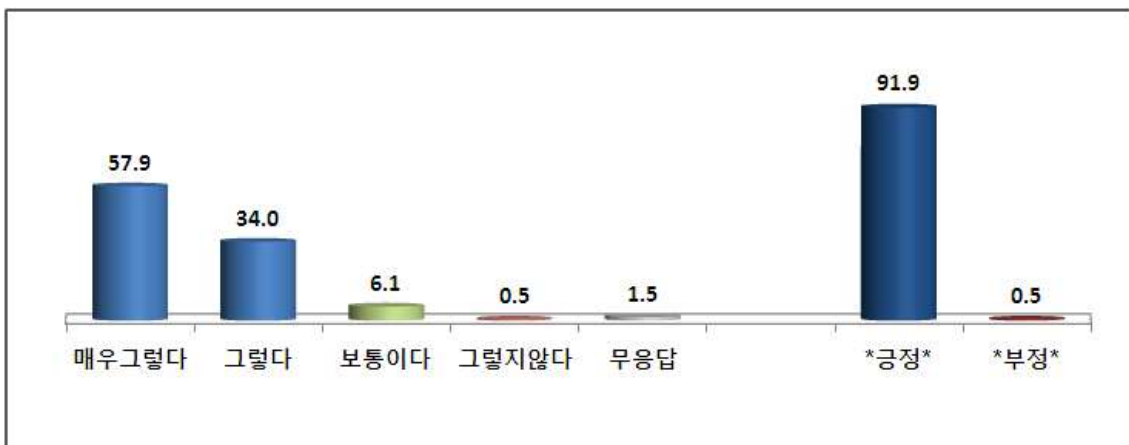


5.4 아동의 학교 생활 및 교우 관계

1) 친구의 본인 한국어 이해 정도

- ‘친구들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4%가 ‘그렇다.’, 6.1%가 ‘보통이다.’, 0.5%가 ‘그렇지 않다.’ 순으로 응답함.
-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의 자녀는 ‘매우 그렇다(35.6%).’의 응답률이 ‘그렇다(53.5%).’보다 낮고, ‘보통이다(11.1%).’의 응답률이 다른 국가 출신 이주 여성의 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에 답하는 경우가 많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그렇다.’에 답한 확률이 높았음. 특히 점수가 30점 미만인 아동은 ‘무응답’ 확률(25%)이 높았는데, 이는 설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어머니(63%)’와 ‘아버지(80%)’가 고졸 이상의 학력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매우 그렇다.’를, 고졸 이하 학력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그렇다.’를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눈여겨볼 점은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5.9%)’이거나 아버지가 ‘고졸 이상(5%)’의 학력인 경우 ‘부정’의 답을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특이함(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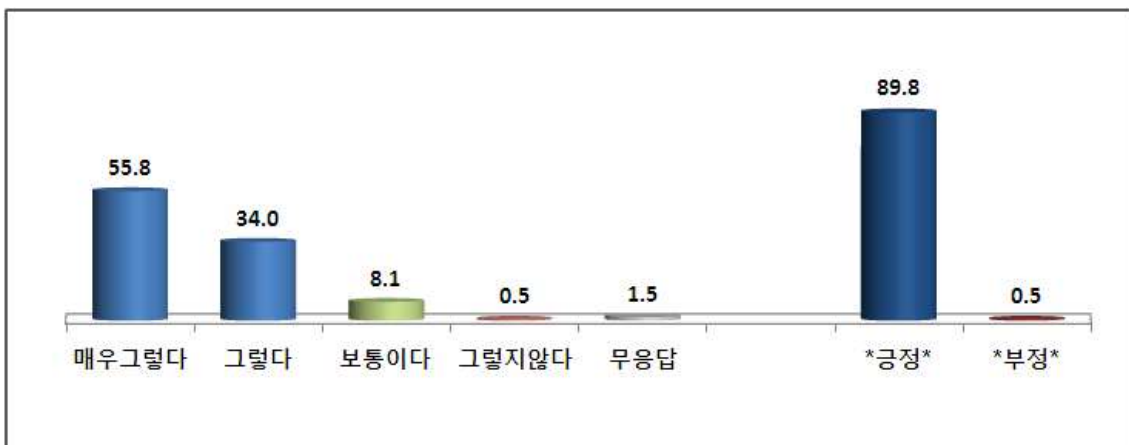
<그림 150> 친구의 본인 한국어 이해 정도



2) 본인의 친구 한국어 이해 정도

- 본인의 친구 한국어 이해 정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의 55.8%가 '매우 그렇다.', 34%가 '그렇다.', 8.1%가 '보통이다.', 0.5%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답함.
-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의 자녀는 '매우 그렇다(37.8%).'의 응답률이 '그렇다(46.7%).'보다 낮고, '보통이다(13.3%).'의 응답률이 다른 국가 출신 이주여성의 자녀보다 높고 '그렇지 않다(2.2%).'라고 답한 점을 보아 친구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이와 대조적으로 필리핀에서 이주해 온 여성의 자녀는 '매우 그렇다(81.3%).'는 답이 '그렇다(15.6%).'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을 보여 다른 국가 출신의 다문화 가정 자녀보다 친구 관계가 원활한 것으로 보임.
- 거주 지역별로도 특이한 점을 보이는데, 서울 및 광역시 단위보다 도 단위 군 지역으로 갈수록 '매우 그렇다.'에 답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에 답하는 경우가 적었음. 또한 도 단위 시 지역에서 '보통이다(21.2%).'의 응답률이 높았음(표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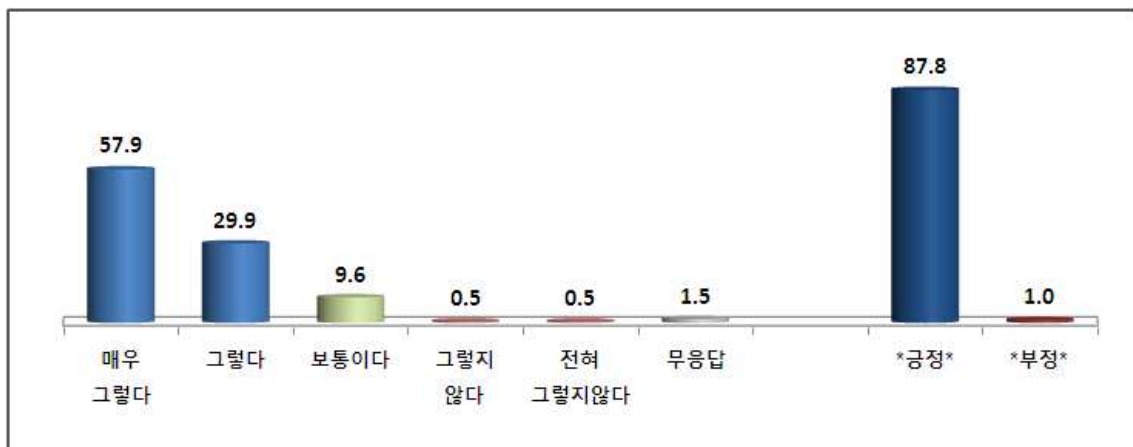
<그림 151> 본인의 친구 한국어 이해 정도



3) 친하게 지내는 친구

- ‘친하게 지내는 한국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가 ‘매우 그렇다.’, 29.9%가 ‘그렇다.’, 9.6%가 ‘보통이다.’, 0.5%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함.
-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부정’의 대답이 없었음.
-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 가정 자녀는 ‘매우 그렇다(35.6%).’에 비해 ‘그렇다(51.1%).’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부정(4.4%)’의 응답률도 높아 다른 국가 출신 자녀보다 문제를 겪고 있음(표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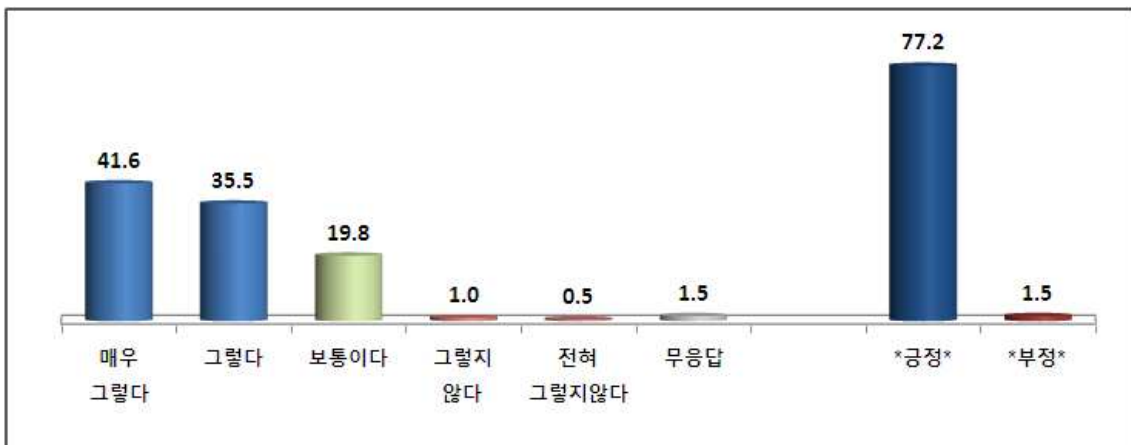
<그림 152> 친하게 지내는 친구



4) 수업 내용 이해 정도

-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6%가 ‘매우 그렇다.’, 35.5%가 ‘그렇다.’, 19.8%가 ‘보통이다.’, 1%가 ‘그렇지 않다.’, 0.5%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함.
- 필리핀 출신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높은 ‘긍정(90.6%)’ 응답률을 보임.
-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아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자녀의 학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에 답한 경우가 많았고, 30~50점 미만의 아동은 ‘부정(9.1%)’ 응답률이 높은 것을 보아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수업 내용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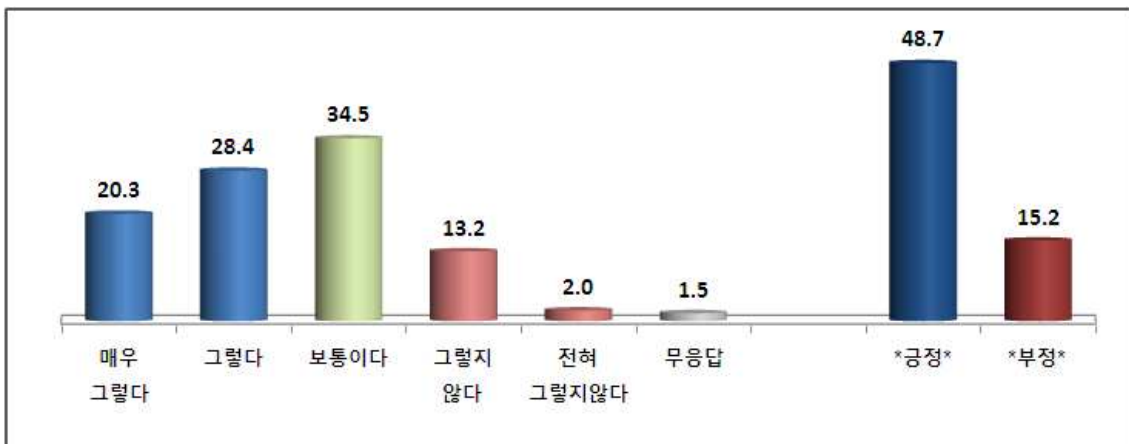
<그림 153> 수업 내용 이해 정도



5) 수업 시간 발표 횟수

-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자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5%가 '보통이다.', 28.4%가 '그렇다.', 20.3%가 '매우 그렇다.', 13.2%가 '그렇지 않다.', 2%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함.
- '일본 출신(31.6%)' 가정의 자녀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필리핀 출신 가정의 자녀는 '부정(21.9%)'의 응답률이 높았음.
- 아동의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90~100점의 아동은 '긍정(69.4%)' 응답률이 유난히 높았음.
-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90~100점인 경우 '긍정(64.1%)' 응답이 많았음 (표 8-4).

<그림 154> 수업 시간 발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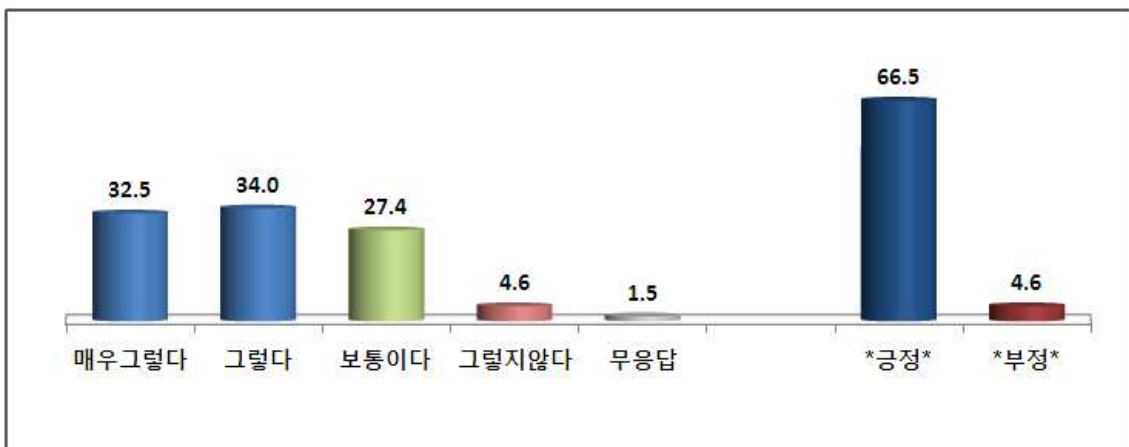


5.5 학업 및 언어 입력

1) 공부할 때 필요한 책 또는 자료 소유

- ‘공부할 때 필요한 책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5%가 ‘매우 그렇다.’, 34%가 ‘그렇다.’, 27.4%가 ‘보통이다.’, 4.6%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함.
- 일본 출신의 다문화 가정에서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고 답함.
- 도 단위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정(1.9%)’ 응답률이 가장 낮았음.
- 어머니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부모님이 고졸 이상이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부정’ 응답이 없어, 자녀의 공부에 필요한 책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아동의 구문 이해력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의 대답이 많았음(표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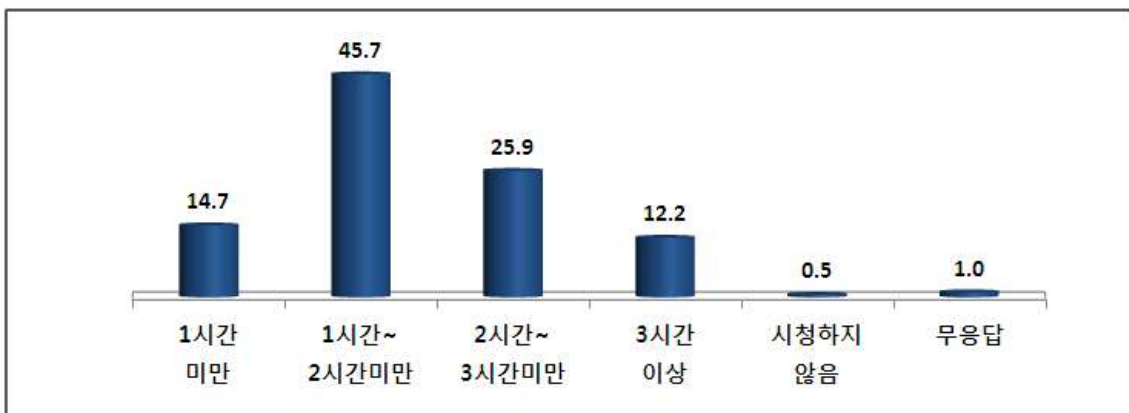
<그림 155> 공부할 때 필요한 책 또는 자료 소유



2) TV 시청 시간

- ‘하루에 한국어로 방송되는 TV 시청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7%가 ‘1시간~2시간 미만’, 25.9%가 ‘2시간~3시간 미만’, 14.7%가 ‘1시간 미만’, 12.2%가 ‘3시간 이상’, 1%가 ‘무응답’, 0.5%가 ‘시청하지 않음.’으로 응답함.
- 베트남 출신 응답자의 자녀는 ‘1시간 미만(4.4%)’의 응답이 다른 국가 출신의 자녀보다 현저히 낮았고, ‘3시간 이상(34.4%)’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음.
- 거주 지역이 서울 및 광역시 단위로 갈수록 시청 시간이 짧았음. 거주 기간이 길수록 TV 시청 시간이 많았음.
-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나 아동 구문 이해력 점수가 좋은 가정일수록 TV 시청 시간이 짧고, 점수가 낮을수록 시청 시간이 길었음. 이는 부모와 자녀의 한국어 실력과 TV 시청이 반비례함을 알 수 있음(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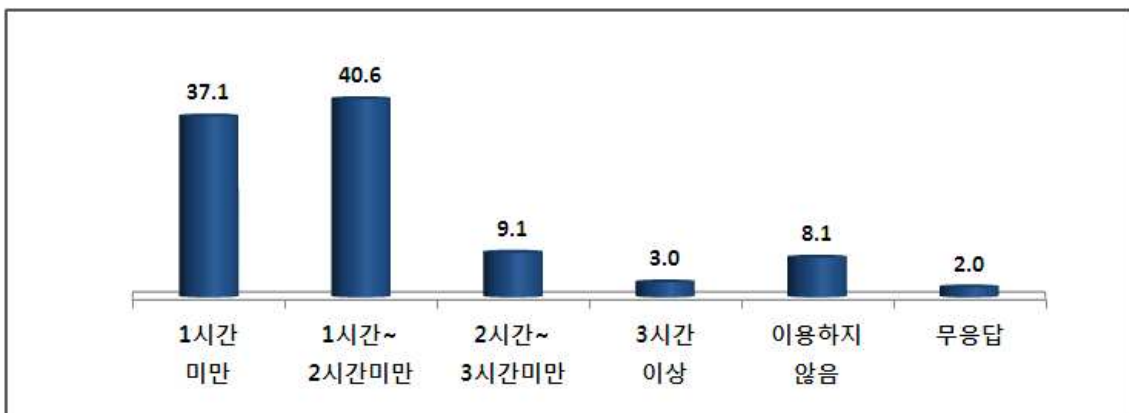
<그림 155> TV 시청 시간



3) 컴퓨터 사용 시간

- ‘하루에 컴퓨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6%가 ‘1시간~2시간 미만’, 37.1%가 ‘1시간 미만’, 9.1%가 ‘2시간~3시간 미만’, 8.1%가 ‘사용하지 않음.’, 3%가 ‘3시간 이상’이라고 답함.
- ‘필리핀(59.4%)’, ‘일본(57.9%)’ 출신의 다문화 가정에서는 ‘1시간 미만’으로 답하였고, 한국계 중국 출신 가정의 자녀는 3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일본 출신 가정의 자녀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음.
- 어머니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구문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1시간 미만’이라 답한 경우가 많았음(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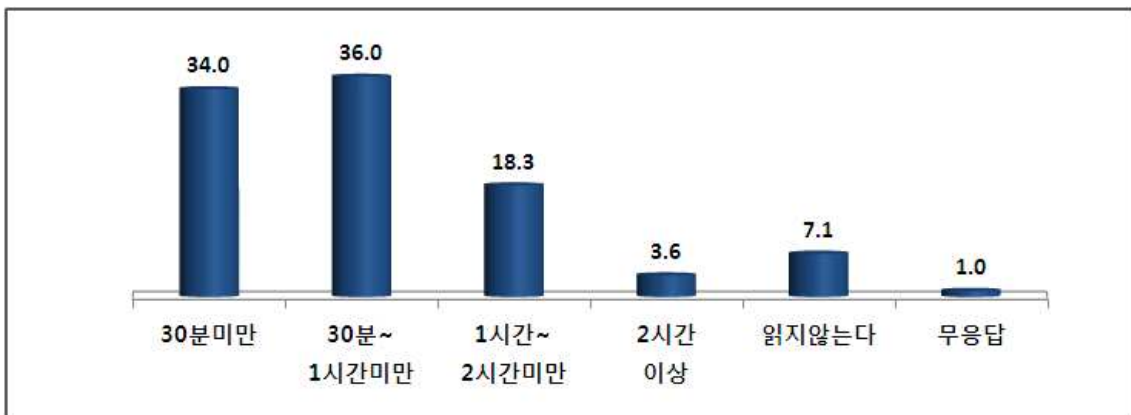
<그림 157> 컴퓨터 사용 시간



4) 한국어 책 독서 시간

- 아동의 하루 평균 한국어 책을 독서하는 시간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 36%가 '30분~1시간 미만'이라고 답했고 34%가 '30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읽지 않는다.'란 응답은 7.1%였음.
- '읽지 않는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11.1%)'이고, 일본은 0%로 나타나 100%가 책을 읽는다고 답했다 일본의 경우 '2시간 이상' 읽는다고 답한 응답률이 10.5%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베트남은 '2시간 이상' 읽는다고 답한 응답률이 0%가 나왔음.
- 외국 출신 부모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의 경우 '읽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0%로 나와 100%가 책을 읽는다고 답했으며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7%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에 비해 '노무직'이나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읽지 않는다.'의 비율은 10.6%와 10.5%로 나타나 '사무직'에 비해 책을 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한국 부모의 직업이 농업, 어업, 임업인 경우에도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11.9%로 가장 높게 나왔음.
- 외국 출신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0%가 나온 반면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9.3%가 나와 학력에 따라 한국어 책을 읽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읽지 않는다.'의 응답률이 낮아짐을 볼 수 있는데,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50점 미만의 경우 '읽지 않는다.'의 응답률이 15.2%인 반면,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가 90~100점인 경우는 '읽지 않는다.'의 비율이 4.7%로 낮아짐(표 11).

<그림 158> 한국어 책 독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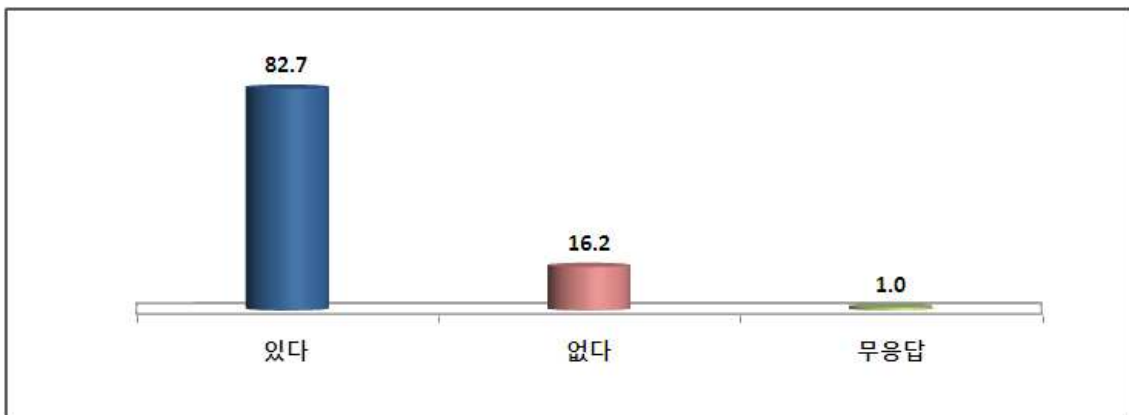


5.6 학업 보조

1)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의 유무

-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2.7%가 '있다.'라고 답했고 16.2%가 '없다.'라고 답함.
-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있다.'의 응답률이 78.7%였고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있다.'의 비율이 85.2%로 늘어남.
- '없다.'라고 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6.3%)'으로 나타남(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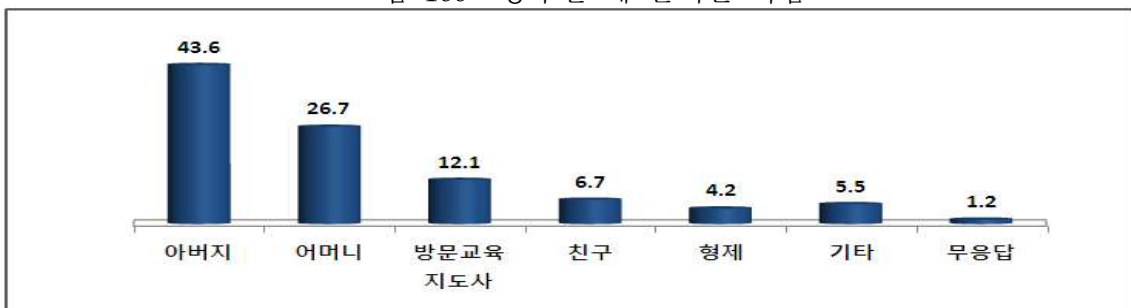
<그림 159>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



2) 공부할 때 물어볼 사람

- ‘공부할 때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43.6%가 ‘아버지’라고 답했으며, 26.7%가 ‘어머니’라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12.1%가 ‘방문 교육 지도사’라고 답함.
-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2.9%)’이고 ‘아버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53.8%)’이며,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10.3%)’이고, ‘방문 교육 지도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계 중국(23.1%)’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는 55.6%가 ‘아버지’라고 응답했으며,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 교육 지도사’에게 물어보는 비율에 차이가 생기는데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8.5%가 ‘방문 교육 지도사’에게 물어 본다고 답한 반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4.2%가 ‘방문 교육 지도사’에게 묻는다고 답함.
- 외국 출신 부모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의 경우 70%가 ‘어머니’에게 물어 본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 직업이 주부인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묻는다는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음.
-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방문 교육 지도사’에게 묻는 비율이 7.8%에 불과했으나,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방문 교육 지도사’에게 묻는 비율이 27.8%로 높아짐.
- 한국어 능력 검사의 결과가 90~100점의 고득점자들의 경우 ‘어머니’에게 묻는 비율이 57.1%로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한국어 능력 검사 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아버지’에게 묻는다가 50%로 나타남.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90~100점인 고득점자들의 경우 ‘친구’에게 묻는다는 비율이 0%로 나왔음(표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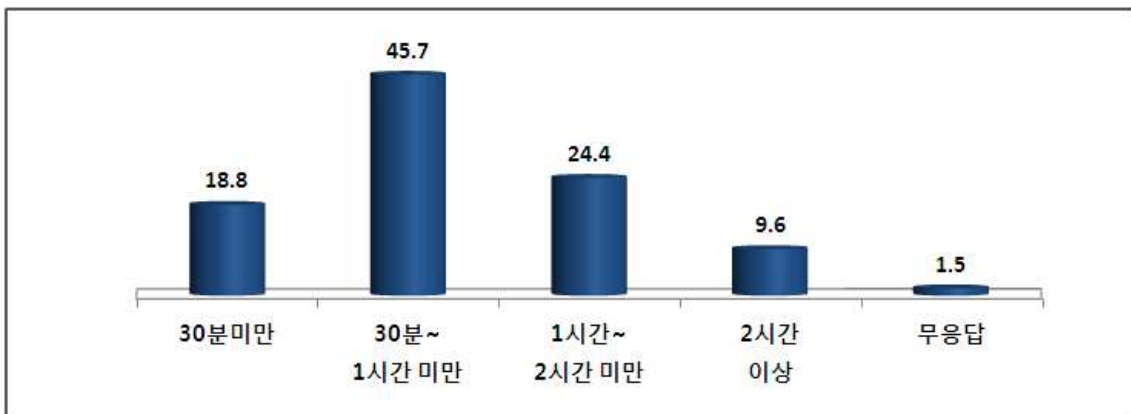
<그림 160> 공부할 때 물어볼 사람



3) 방과 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 방과 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45.7%가 '30분~1시간 미만'이라고 답했고 24.4%가 '1시간~2시간 미만'이라고 답함.
- '30분~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 중 한족 및 기타계 중국이 51.6%로 가장 높았고, 한족 및 기타계 중국은 '2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률도 12.9%로 두 번째로 높았음. 그다음으로는 일본이 '2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21.1%로 가장 높았음.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6.4%)'로 시간이 늘어날수록 응답률이 떨어지거나 무응답이 3%인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에 비해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추측됨 (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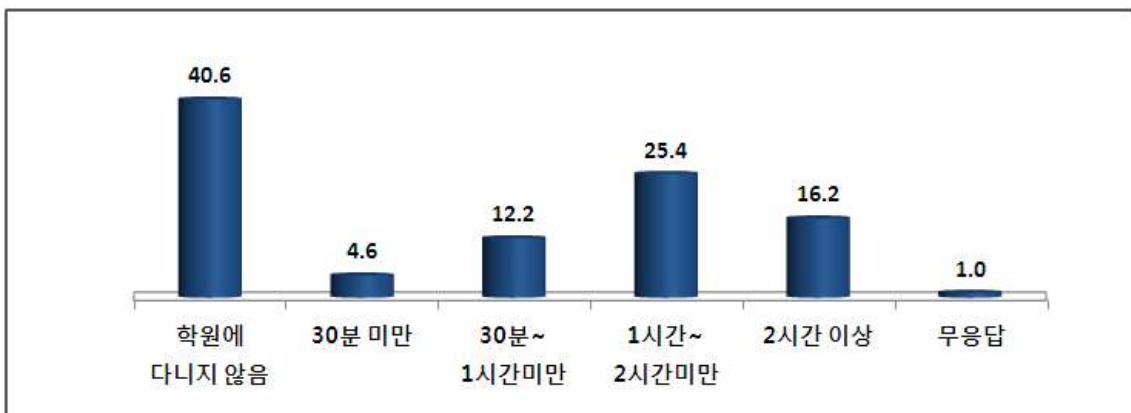
<그림 161> 방과 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4) 방과 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 '방과 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라는 질문에 40.6%가 '학원에 다니지 않음.'이라고 답했고 25.4%가 '1시간~2시간 미만'이라고 답함.
- 부모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학원에 다니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52.6%였고, 다음은 베트남으로 48.9%였으며, 필리핀이 46.9%였다. '2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계 중국으로 23.9%이며 기타가 20.8%로 나타남.
- 사무직인 경우 '학원에 다니지 않음.'이 30.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시간 이상'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평균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아동보다 연평균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아동이 방과 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은 특이한 점으로 나타남.

<그림 162> 방과 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제6장 다양한 변인들과 한국어 사용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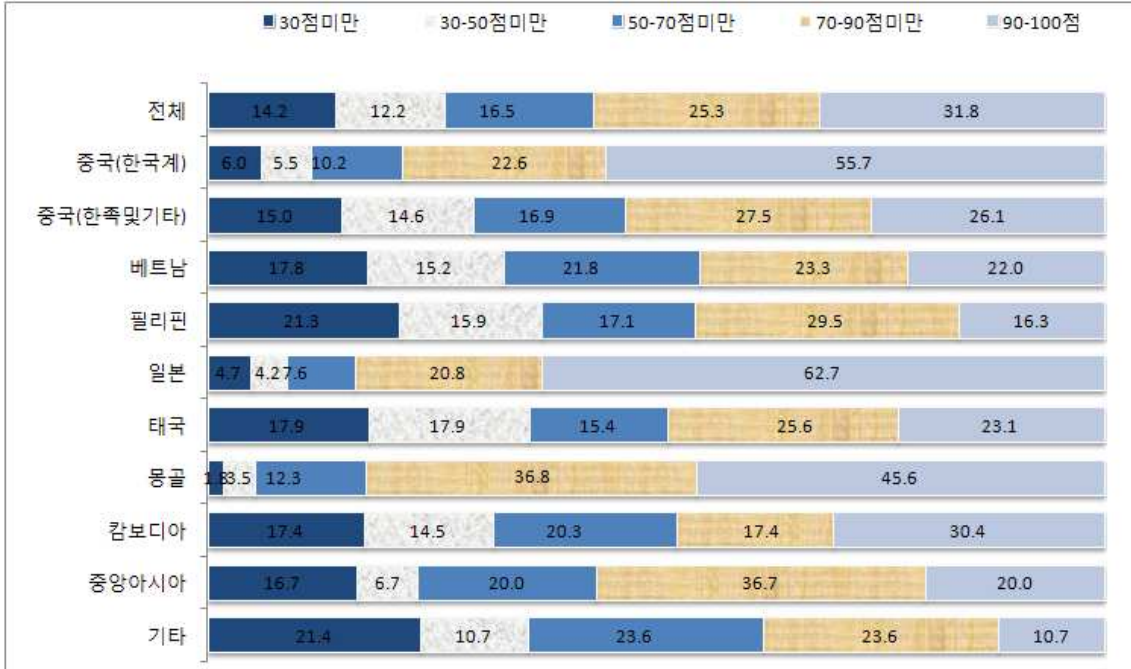
6장에서는 여러 변인들과 한국어 사용 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6.1.에서는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성별, 직업, 소득 등과 한국어 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6.2.에서는 교차 분석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대화 이해도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한국어 이해 정도와 대화 시간과의 관계,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모어 교육 간의 관계, 응답자의 모어 위상과 대화할 때사용 언어와의 관계, 모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와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관계, 한국어 사용과 한국인과의 대화 시간, 모임 참석 여부와 한국어 습득의 의지 등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6.1 한국어 능력

1) 언어권과 한국어 능력

- 언어권별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봄. 우선 전체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를 살펴보면 '90~100점(31.8%)', '70~90점 미만(25.3%)', '50~70점 미만(16.5%)', '30점 미만(14.2%)', '30~50점 미만(12.2%)' 순으로 나타남.
- '일본(62.7%)'과 '한국계 중국(55.7%)' 출신인 경우 예상대로 고득점대에서 넓은 분포를 차지함.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언어 습득이 우수한 경우는 '몽골'에서 온 응답자로 '30점 미만'은 1.8%밖에 되지 않아 낮은 점수대의 분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고득점(45.6%)'은 가장 넓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중양아시아(36.7%)'와 '몽골(36.8%)' 출신의 경우 '70~90점 미만'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남. '필리핀(21.3%)'과 '기타 지역(21.4%)'에서 온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분포가 넓고 '고득점(16.3%, 10.7%)' 분포는 좁은 것으로 나타남.
- 언어권별로 한국어 능력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3> 언어권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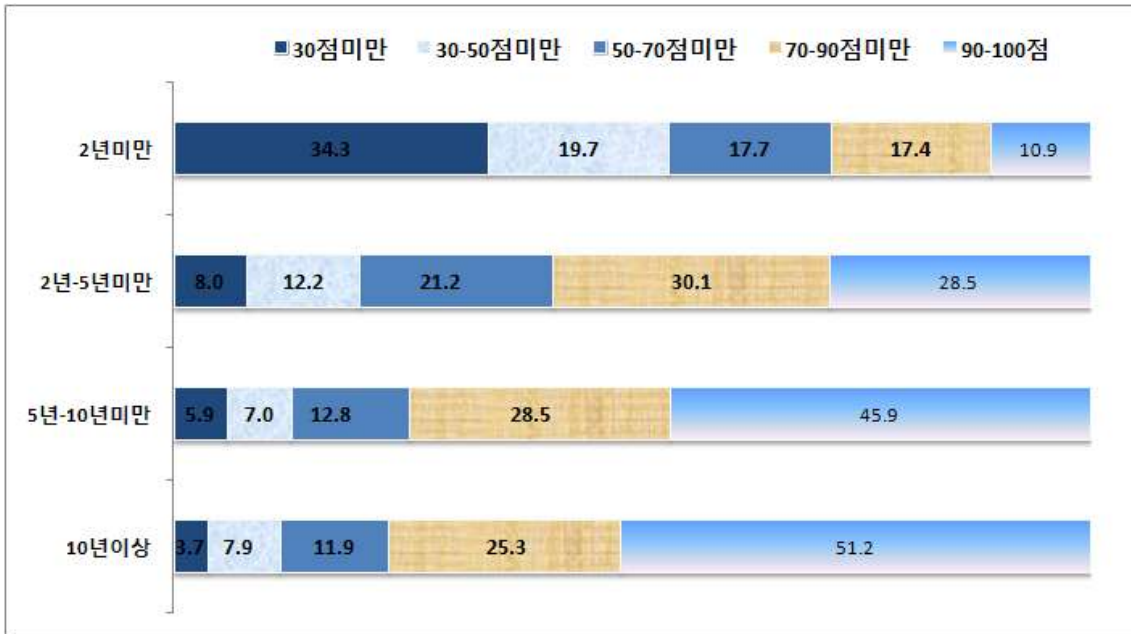
<표 7> 언어권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사례수	30점 미만	30~50점 미만	50~70점 미만	70~90점 미만	90~100점	계	
■전체■	(2026)	14.2	12.2	16.5	25.3	31.8	100.0	
■출신국가	중국(한국계)	(235)	6.0	5.5	10.2	22.6	55.7	100.0
	중국(한족및기타)	(528)	15.0	14.6	16.9	27.5	26.1	100.0
	베트남	(546)	17.8	15.2	21.8	23.3	22.0	100.0
	필리핀	(258)	21.3	15.9	17.1	29.5	16.3	100.0
	일본	(236)	4.7	4.2	7.6	20.8	62.7	100.0
	태국	(39)	17.9	17.9	15.4	25.6	23.1	100.0
	몽골	(57)	1.8	3.5	12.3	36.8	45.6	100.0
	캄보디아	(69)	17.4	14.5	20.3	17.4	30.4	100.0
	중앙아시아	(30)	16.7	6.7	20.0	36.7	20.0	100.0
기타	(28)	21.4	10.7	23.6	23.6	10.7	100.0	

2)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

- 응답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는 비례하여 향상됨.
- '30점 미만'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를 받은 경우는 '2년 미만(34.3%)', '2년~5년 미만(8.0%)', '5년~10년 미만(5.9%)', '10년 이상(3.7%)'에 걸쳐 점차 감소함. '2년~5년 미만' 기간 사이 저득점은 8%대로 급격히 줄어듦. 이는 기초 한국어 실력이 이 기간 동안 쌓인다는 것을 의미함.
- 고득점 분포는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의 응답자가 '90~100점'을 받은 경우는 10.9%였으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1.2%까지 차지하게 됨.
- 언어 습득에서 거주 기간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즉 해당 언어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동안 언어 실력이 또한 같이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4>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표 8>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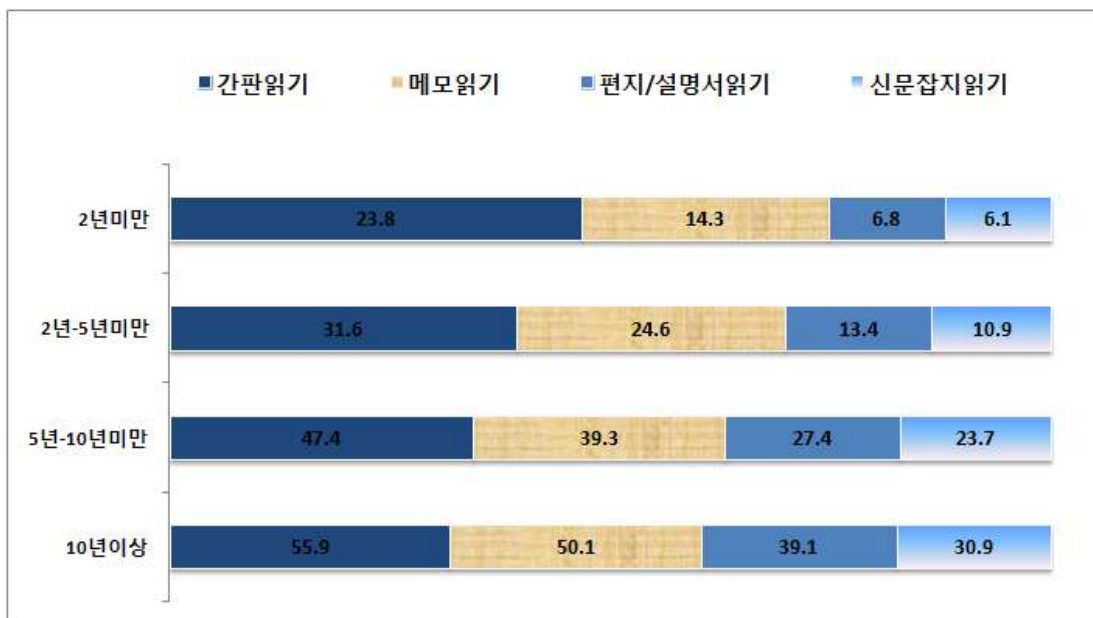
		사례수	30점 미만	30~50점 미만	50~70점 미만	70~90점 미만	90~100점	계
■거주 기간■	2년 미만	(559)	34.3	19.7	17.7	17.4	10.9	100.0
	2년~5년 미만	(614)	8.0	12.2	21.2	30.1	28.5	100.0
	5년~10년 미만	(460)	5.9	7.0	12.8	28.5	45.9	100.0
	10년 이상	(379)	3.7	7.9	11.9	25.3	51.2	100.0

2-1) 거주 기간과 한국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1) 읽기

-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읽기 영역에서 단계별로 언어 점수는 상승세를 보임.
- '2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편지나 설명서를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경우는 14.3%임.
- '5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간단한 메모 읽기의 수월성에 대해 39.3%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 신문이나 잡지 읽기의 경우 '10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30.9%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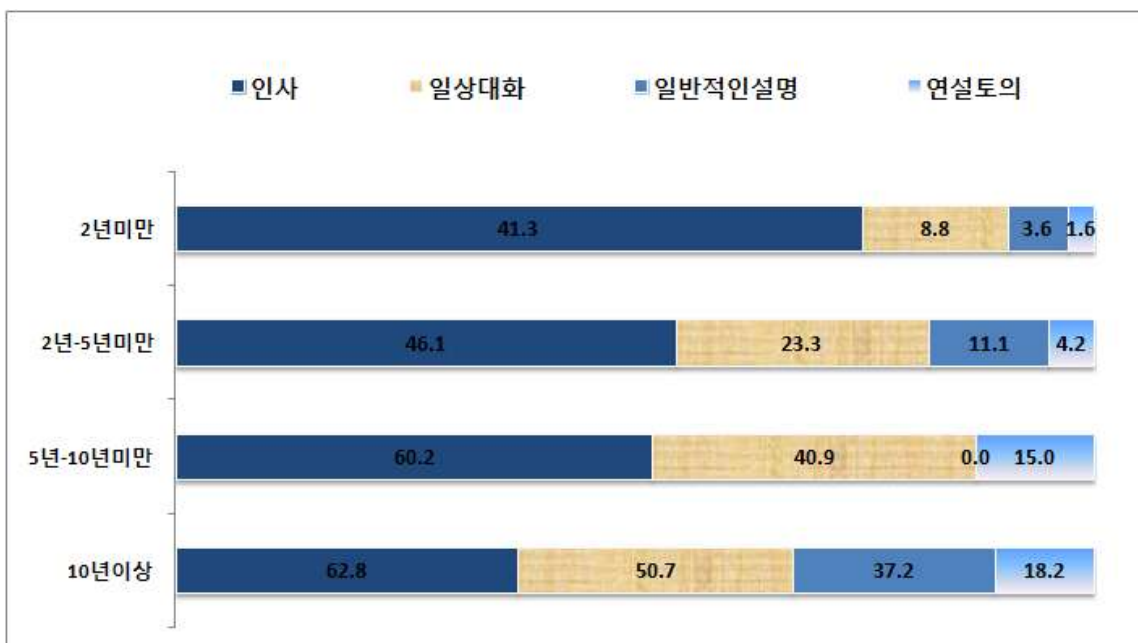
<그림 165> 거주 기간과 한국어 읽기



2) 말하기

- 말하기 기능 역시 거주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능숙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일상 대화의 수월성에 대해 50.7%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로 일반적인 보고나 설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답한 경우는 37.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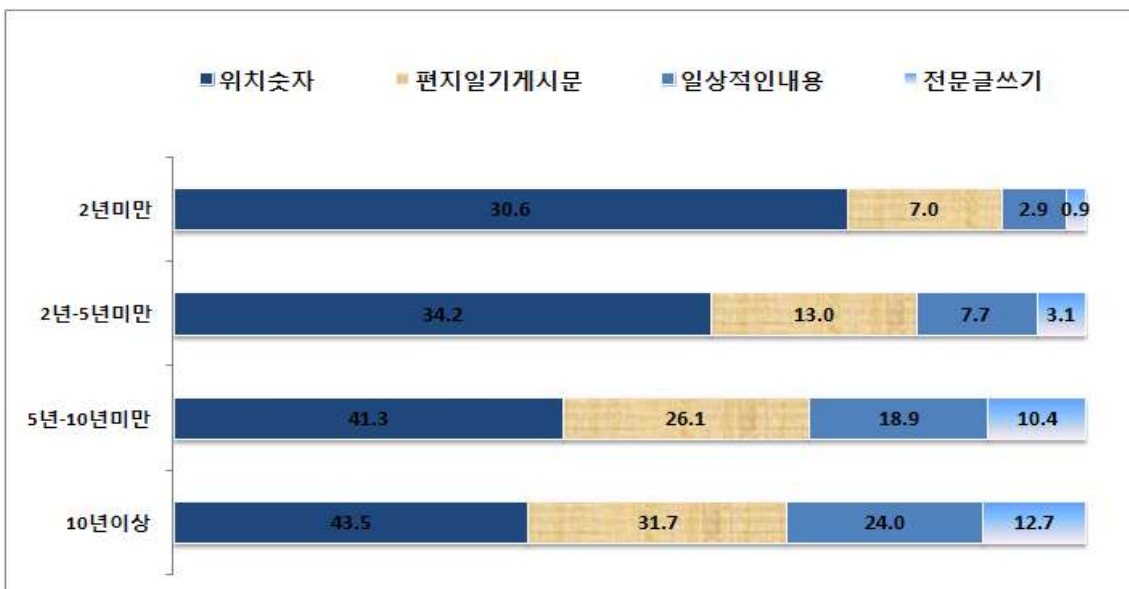
<그림 166> 거주 기간과 한국어 말하기



3) 듣기

- 거주 기간에 따라 듣기 기능도 역시 단계별로 숙달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인 대화를 잘 알아듣는다고 답한 경우는 8.9%로 나타남.
-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말하기(62.8%)'나 '읽기(55.9%)'보다 '듣기(49.1%)' 영역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뉴스를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가에 대해 29.0%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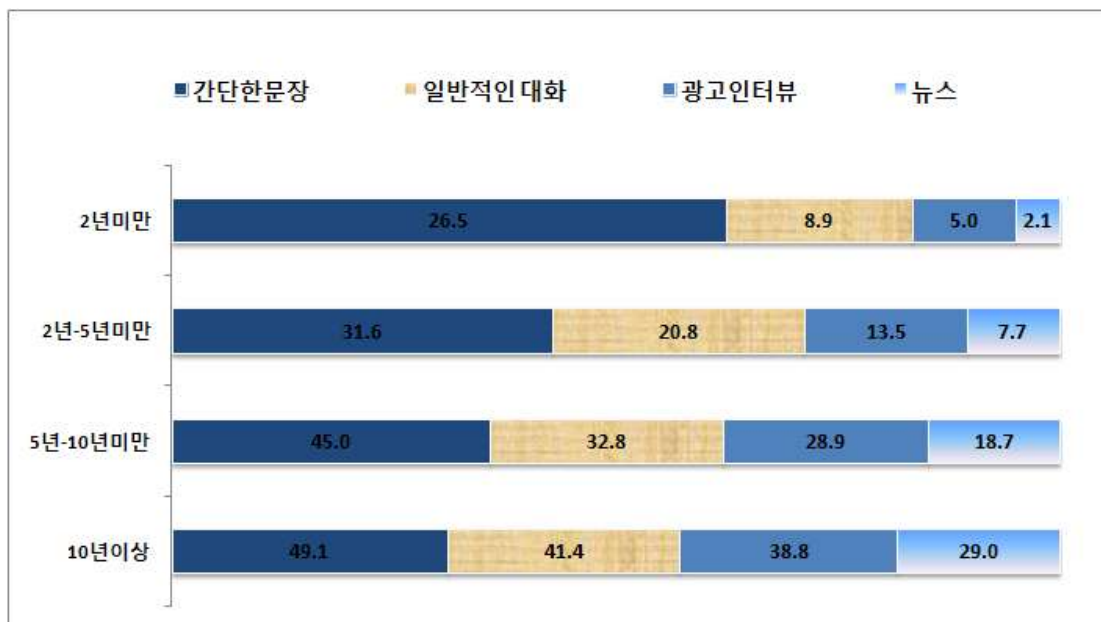
<그림 167> 거주 기간과 한국어 듣기



4) 쓰기

- 쓰기 기능 역시 거주 기간이 지날수록 단계별 숙달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10년 이상'의 거주자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내용의 글쓰기가 수월한가라는 질문에 24.0%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일상적인 내용의 글쓰기가 수월한가라는 질문에 7.7%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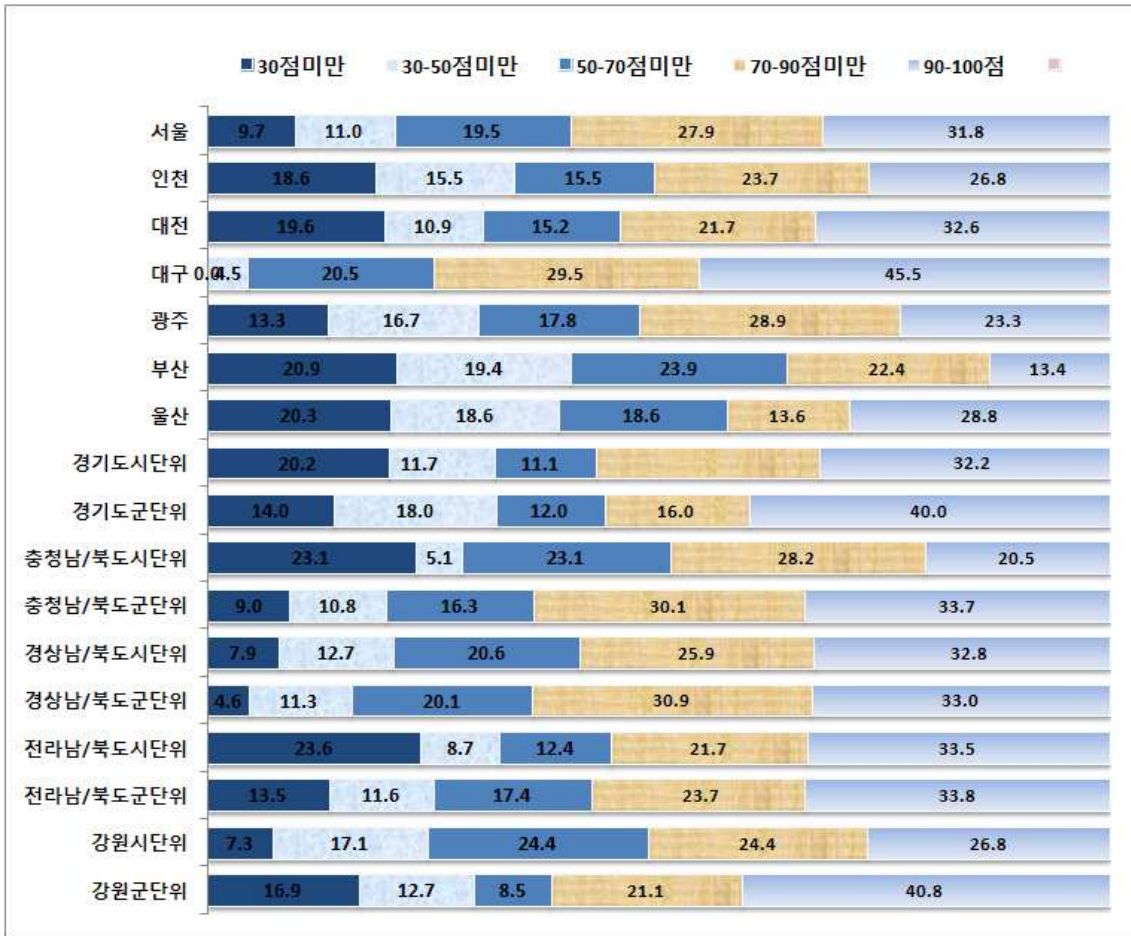
<그림 168> 거주 기간과 한국어 쓰기



3) 거주 지역과 한국어 능력

- 거주 지역별로 언어 점수에 차이가 나타남.
- '30점 미만'의 저득점 분포가 가장 좁게 나타난 지역은 '경상남북도 군 단위(4.65%)'로 나타났고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 지역은 '전라남북도 시 단위(23.6%)'로 나타남.
- 저득점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군 단위와 시 단위 지역 간의 점수 편차가 나타남. 군 단위보다 시 단위에서 저득점자가 조금 더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남.
- '90~100점'까지의 고득점 분포가 좀 더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구(45.5%)'와 '강원 군 단위(40.8%)', '경기도 군 단위(40.0%)'임. '대구' 지역의 경우 '30점 미만'의 저득점자가 0%로 나타난 유일한 지역이었음. '부산(13.4%)'은 고득점 분포가 가장 좁은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169> 거주 지역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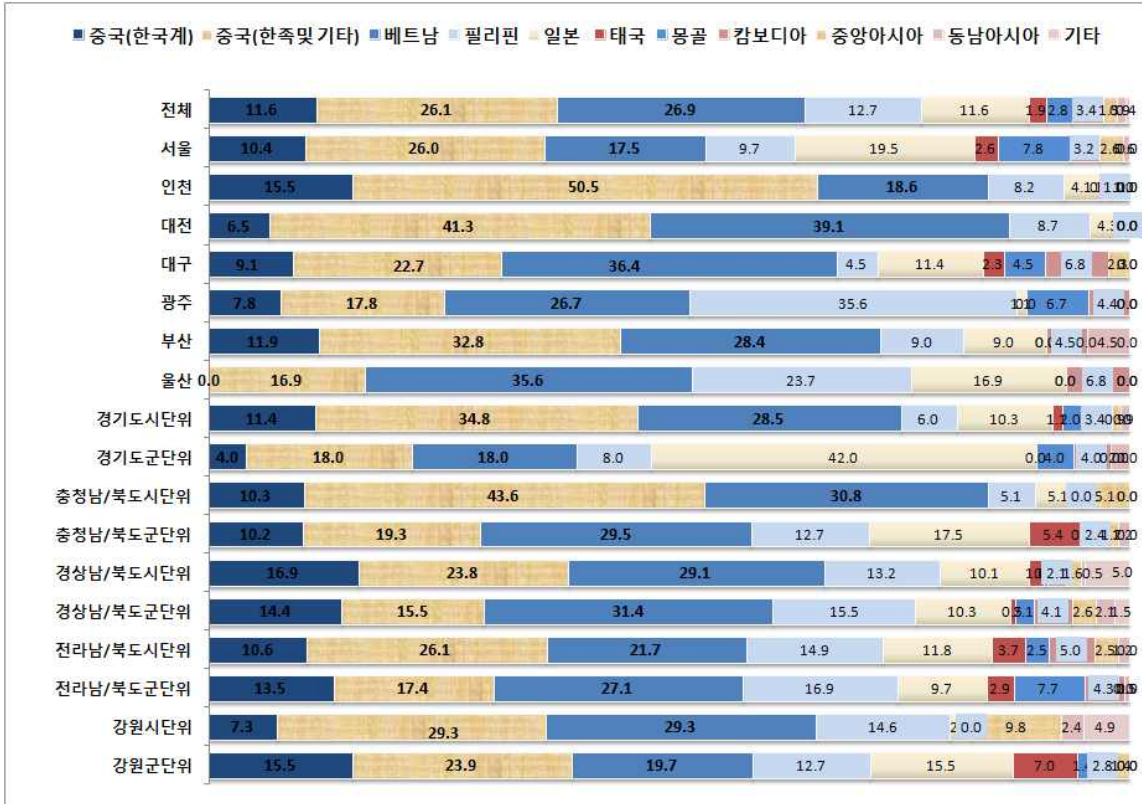
<표 9> 거주 지역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사례수	30점 미만	30~50점 미만	50~70점 미만	70~90점 미만	90~100점	계
■ 거주 지역	서울	(154)	9.7	11.0	19.5	27.9	31.8	100.0
	인천	(97)	18.6	15.5	15.5	23.7	26.8	100.0
	대전	(46)	19.6	10.9	15.2	21.7	32.6	100.0
	대구	(44)	0.0	4.5	20.5	29.5	45.5	100.0
	광주	(90)	13.3	16.7	17.8	28.9	23.3	100.0
	부산	(67)	20.9	19.4	23.9	22.4	13.4	100.0
	울산	(59)	20.3	18.6	18.6	13.6	28.8	100.0
	경기도 시 단위	(351)	20.2	11.7	11.1	24.8	32.2	100.0
	경기도 군 단위	(50)	14.0	18.0	12.0	16.0	40.0	100.0
	충청남/북도 시 단위	(39)	23.1	5.1	23.1	28.2	20.5	100.0
	충청남/북도 군 단위	(166)	9.0	10.8	16.3	30.1	33.7	100.0
	경상남/북도 시 단위	(189)	7.9	12.7	20.6	25.9	32.8	100.0
	경상남/북도 군 단위	(194)	4.6	11.3	20.1	30.9	33.0	100.0
	전라남/북도 시 단위	(161)	23.6	8.7	12.4	21.7	33.5	100.0
	전라남/북도 군 단위	(207)	13.5	11.6	17.4	23.7	33.8	100.0
	강원 시 단위	(41)	7.3	17.1	24.4	24.4	26.8	100.0
	강원 군 단위	(71)	16.9	12.7	8.5	21.1	40.8	100.0

3-1) 거주 지역별 특성

- '인천' 지역에서는 '중국(한족 및 기타 50.5%)' 출신이 많았고 '대전' 지역에서는 '중국(한족 및 기타 41.3%)'과 '베트남(39.1%)'이 많았고 '대구'나 '울산' 지역에서는 '베트남(36.4%, 35.6%)' 출신이 많았고 '광주'에서는 '필리핀(35.6%)' 출신이 많았음.
- '경기도 군 단위'에서는 '필리핀(42.0%)' 출신이 많은 반면 '경기도 시 단위'에서는 '중국(한족 및 기타 34.8%)'이 많았음.
- '충청남북도 시 단위'나 '군 단위'에는 '베트남(29.5%, 30.8%)' 출신이 많았음. '충청남북도 시 단위'에는 '중국(한족 및 기타 43.6%)' 출신이 많은 것에 비해 '충청남북도 군 단위'에는 19.3% 정도만 차지함. 반면 필리핀 출신이 '시 단위(5.1%)'에 비해 '군 단위(17.5%)'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북도 시 단위'나 '군 단위'는 언어권별로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임. '중국(한국계 16.9%, 14.4%)', '중국(한족 및 기타, 23.8%, 15.5%)', '베트남(29.1%, 31.4%)', '필리핀(13.2%, 15.5%)', '일본(10.1%,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라남북도 시 단위'나 '군 단위' 또한 언어권별로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임. '중국(한국계 10.6%, 13.5%)', '중국(한족 및 기타 26.1%, 21.7%)', '베트남(14.9%, 16.9%)', '필리핀(11.8%, 9.7%)', '일본(5.7%, 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강원 군 단위(15.5%)'에 중국(한국계) 출신이 '강원 시 단위(7.3%)'보다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원 군 단위'에 필리핀 출신은 15.5% 정도의 분포를 보였지만 '시 단위'에서는 2.4% 정도만 분포하였고 '태국(7.0%)' 출신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았음.

<그림 170> 다문화 가족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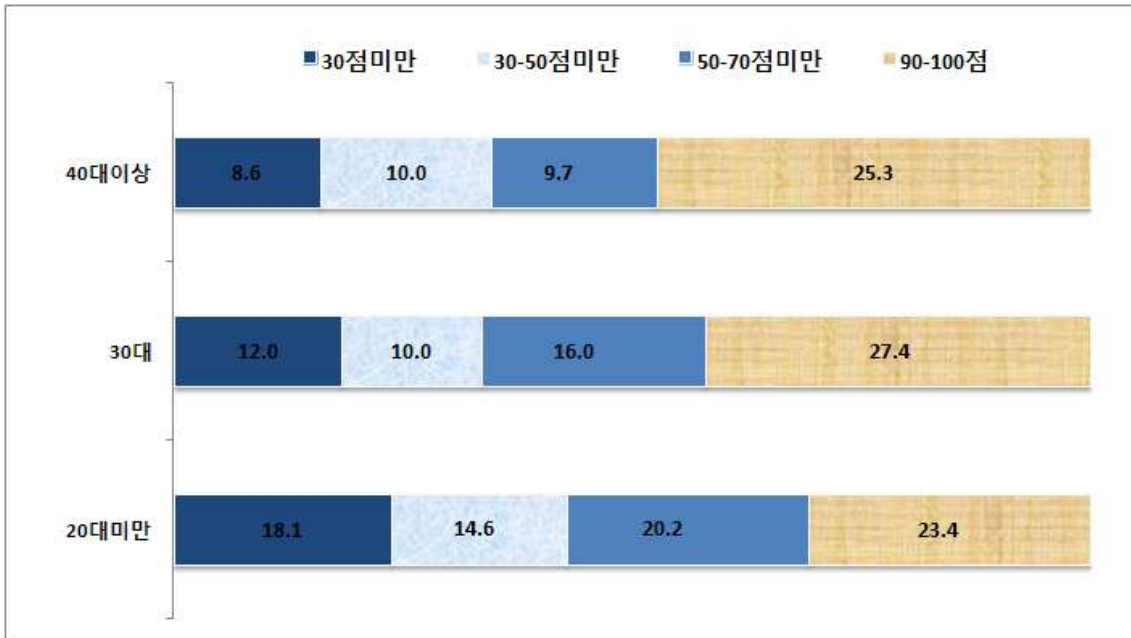
<표 10> 다문화 가족 거주 지역

	사례수	중국(한국계중국)	중국(한족,기타민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기타	기타	계	
전체	(2026)	11.6	26.1	26.9	12.7	11.6	1.9	2.8	3.4	1.5	0.9	0.4	100.0	
거주 지역	서울	(154)	10.4	26.0	17.5	9.7	19.5	2.6	7.8	3.2	2.6	0.6	0.0	100.0
	인천	(97)	15.5	50.5	18.6	8.2	4.1	0.0	1.0	1.0	1.0	0.0	0.0	100.0
	대전	(46)	6.5	41.3	39.1	8.7	4.3	0.0	0.0	0.0	0.0	0.0	0.0	100.0
	대구	(44)	9.1	22.7	36.4	4.5	11.4	2.3	4.5	6.8	2.3	0.0	0.0	100.0
	광주	(90)	7.8	17.8	26.7	35.6	1.1	0.0	6.7	4.4	0.0	0.0	0.0	100.0
	부산	(67)	11.9	32.8	28.4	9.0	9.0	0.0	0.0	4.5	0.0	4.5	0.0	100.0
	울산	(59)	0.0	16.9	35.6	23.7	16.9	0.0	0.0	6.8	0.0	0.0	0.0	100.0
	경기도 시 단위	(351)	11.4	34.8	28.5	6.0	10.3	1.1	2.0	3.4	0.9	0.9	0.9	100.0
	경기도 군 단위	(50)	4.0	18.0	18.0	8.0	42.0	0.0	4.0	4.0	0.0	2.0	0.0	100.0
	충청남/북도 시 단위	(39)	10.3	43.6	30.8	5.1	5.1	0.0	0.0	0.0	5.1	0.0	0.0	100.0
	충청남/북도 군 단위	(166)	10.2	19.3	29.5	12.7	17.5	5.4	0.6	2.4	1.2	1.2	0.0	100.0
	경상남/북도 시 단위	(189)	16.9	23.8	29.1	13.2	10.1	1.6	0.5	2.1	1.6	0.5	0.5	100.0
	경상남/북도 군 단위	(194)	14.4	15.5	31.4	15.5	10.3	0.5	2.1	4.1	2.6	2.1	1.5	100.0
	전라남/북도 시 단위	(161)	10.6	26.1	21.7	14.9	11.8	3.7	2.5	5.0	2.5	1.2	0.0	100.0
전라남/북도 군 단위	(207)	13.5	17.4	27.1	16.9	9.7	2.9	7.7	4.3	0.0	0.5	0.0	100.0	
강원 시 단위	(41)	7.3	29.3	29.3	14.6	2.4	0.0	0.0	0.0	9.8	2.4	4.9	100.0	
강원 군 단위	(71)	15.5	23.9	19.7	12.7	15.5	7.0	1.4	2.8	1.4	0.0	0.0	100.0	

4) 연령과 한국어 능력

- '30점 미만'의 언어 점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함. '20대'의 경우 18.1%, '30대'에서는 12.0%, '40대 이상'인 경우 8.6%까지 최저 점수를 받는 비율은 감소함.
- 연령과 거주 기간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예상됨.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령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90~100점'의 고득점 대 분포에서는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즉 일상 한국어는 오래 머물면서 늘어날 수 있으나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언어 환경뿐 아니라 별도의 노력과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171> 연령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표 11> 연령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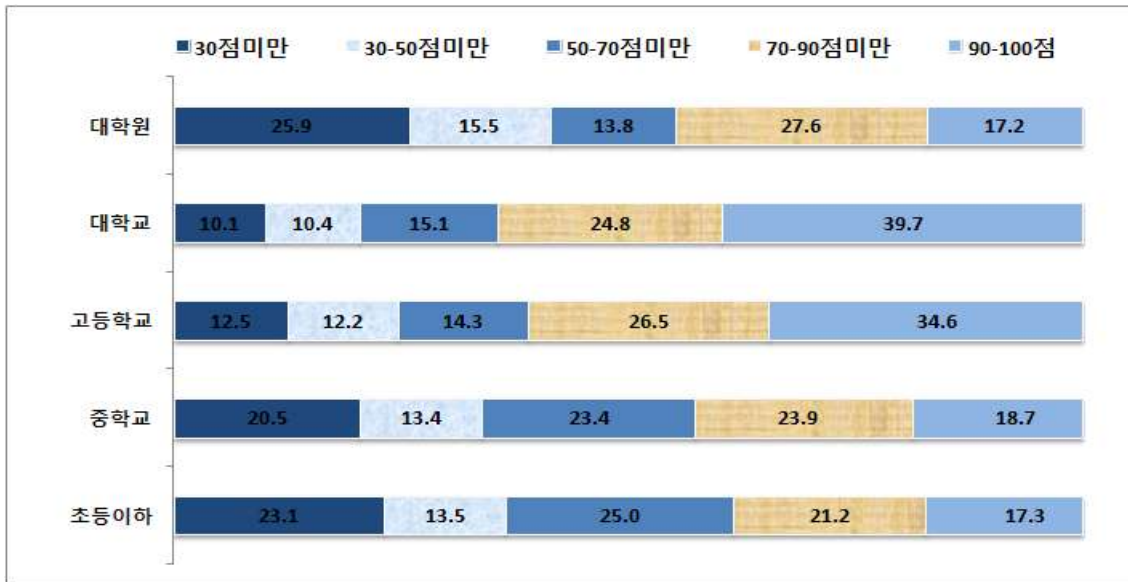
응답자 연령	사례수	30점 미만	30~50점 미만	50~70점 미만	70~90점 미만	90~100점	계
20대 미만	(836)	18.1	14.6	20.2	23.4	23.7	100.0
30대	(793)	12.0	10.0	16.0	27.4	34.7	100.0

	40대 이상	(359)	8.6	10.0	9.7	25.3	46.2	100.0
--	--------	-------	-----	------	-----	------	------	-------

5) 학력과 한국어 능력

-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자까지 점수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득점자가 많아졌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저득점자가 많아짐.
- '30점대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23.1%)', '중학교(20.5%)', '고등학교(12.5%)', '대학교(10.1%)' 순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인 경우 저득점도 가장 넓게 분포됨.
- '90~100점'까지의 고득점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17.3%)', '중학교(18.7%)', '고등학교(34.6%)', '대학교(39.7%)'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점수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고학력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의외로 '30점 미만'의 점수대가 높았고 고득점 분포도 좁게 나타남.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등을 사용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측됨.

<그림 172> 학력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표 12> 학력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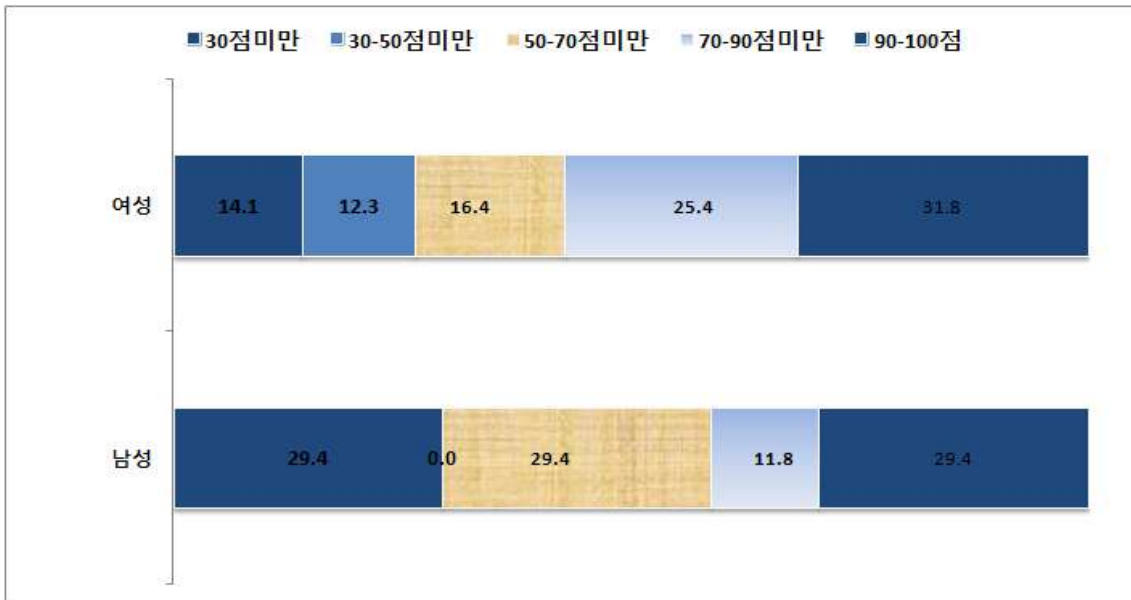
응답자 학력	사례수	30점	30~50점	50~70점	70~90점	90~100점	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응답자 학력	초등학교 이하	(52)	23.1	13.5	25.0	21.2	17.3	100.0
	중학교	(380)	20.5	13.4	23.4	23.9	18.7	100.0
	고등학교	(952)	12.5	12.2	14.3	26.5	34.6	100.0

	대학교	(557)	10.1	10.4	15.1	24.8	39.7	100.0
	대학원	(58)	25.9	15.5	13.8	27.6	17.2	100.0

6) 성별과 한국어 능력

- '여성(14.1%)'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29.4%)'보다 '3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가 더 적었음.
- '70~90점 미만'의 점수대는 '여성(25.4%)' 응답자가 '남성(11.8%)' 응답자보다 많았음. 고득점인 '90~100점대'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남.

<그림 173> 성별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표 13> 성별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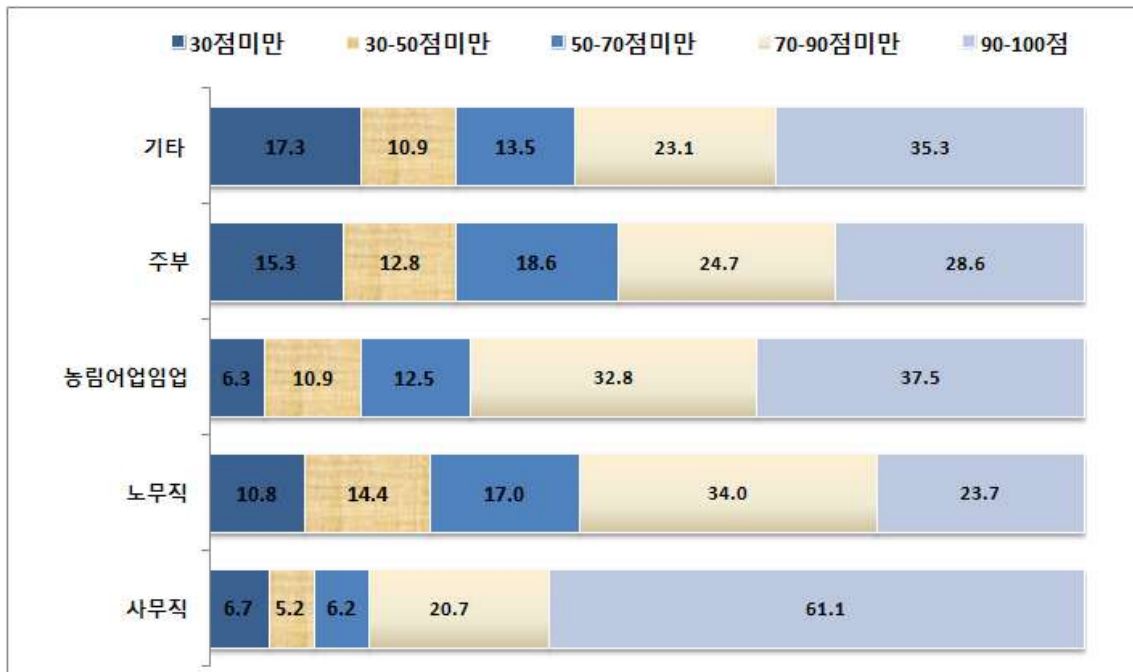
	사례수	30점 미만	30~50점 미만	50~70점 미만	70~90점 미만	90~100점	계	
■전체■	(2026)	14.2	12.2	16.5	25.3	31.8	100.0	
▣성별▣	남성	(17)	29.4	0.0	29.4	11.8	29.4	100.0

	여성	(2007)	14.1	12.3	16.4	25.4	31.8	100.0
--	----	--------	------	------	------	------	------	-------

7) 직업과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와 직업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3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기타(17.3%)', '주부(15.3%)', '노무직(10.8%)', '농업, 어업, 임업(6.3%)', '사무직(6.7%)' 순으로 나타남.
- '사무직(61.1%)' 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90~100점대'인 고득점자가 많았음.

<그림 174> 직업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표 14> 직업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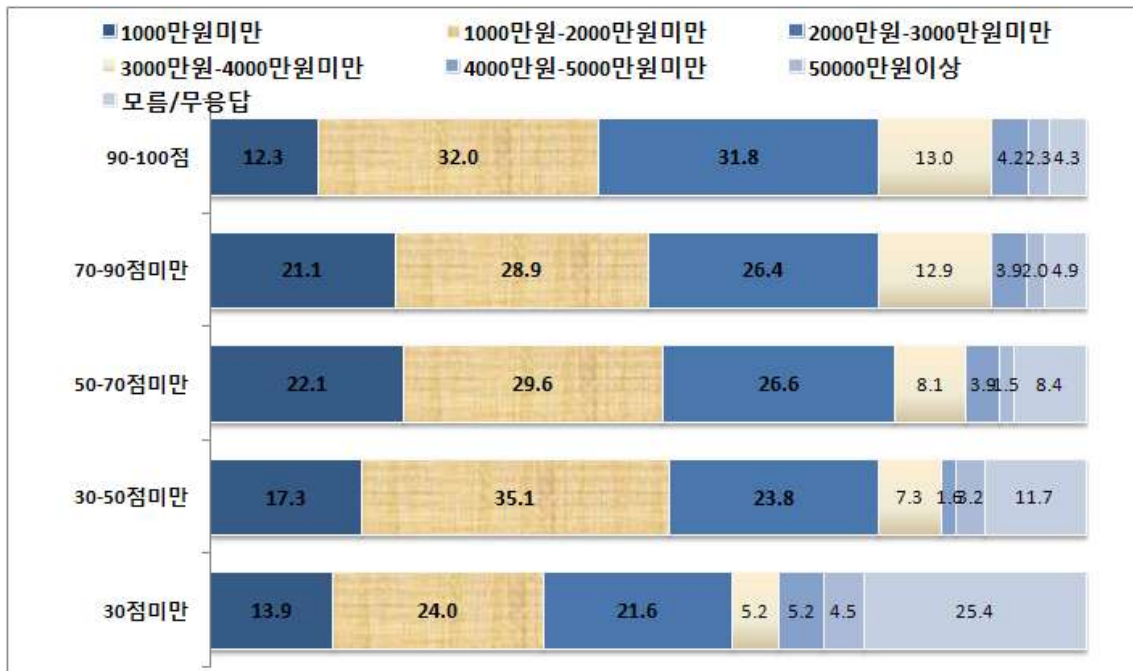
		사례수	30점 미만	30~50점 미만	50~70점 미만	70~90점 미만	90~100점	계
■응답자직업■	사무직	(193)	6.7	5.2	6.2	20.7	61.1	100.0
	노무직	(194)	10.8	14.4	17.0	34.0	23.7	100.0
	농업,어업,임업	(64)	6.3	10.9	12.5	32.8	37.5	100.0

	주부	(1386)	15.3	12.8	18.6	24.7	28.6	100.0
	기타	(156)	17.3	10.9	13.5	23.1	35.3	100.0

8) 소득과 한국어 능력

- 응답자 가정의 소득과 한국어 능력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본인의 한국어 능력과 연소득과는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즉 응답자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가정의 연소득이 느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연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님. 대부분의 응답자가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가계 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림 175> 소득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표 15> 소득과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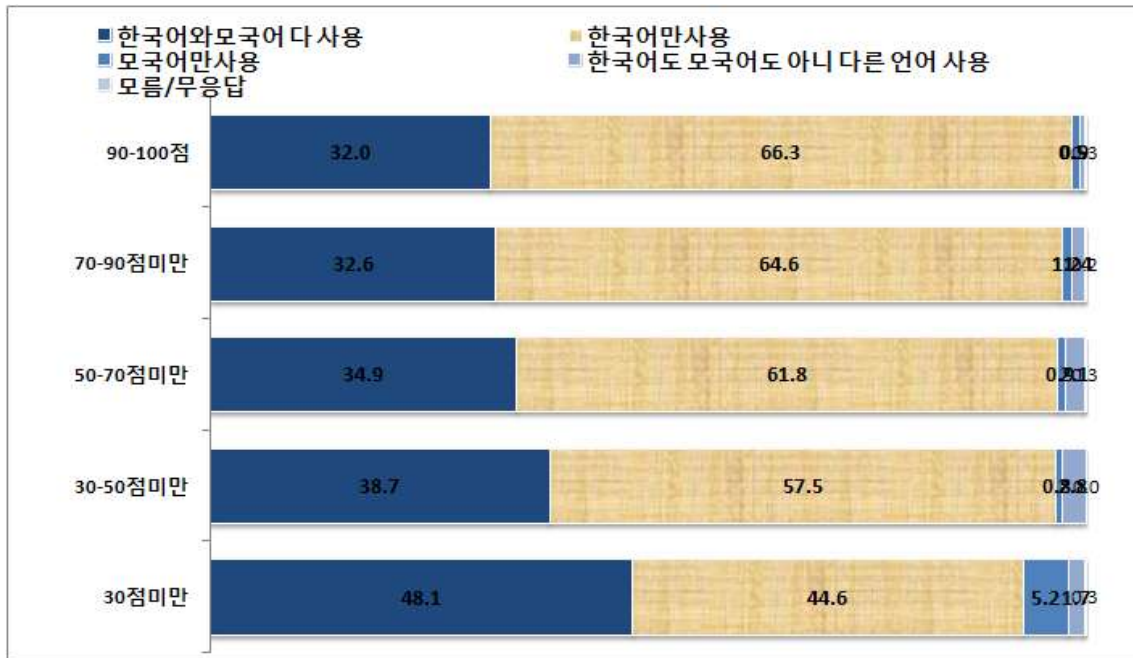
	1000만 원 미만	1000~2000만 원 미만	2000~3000만 원 미만	3000~4000만 원 미만	4000~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모름/무응답
30점 미만	13.9	24.0	21.6	5.2	5.2	4.5	25.4
30~50점 미만	17.3	35.1	23.8	7.3	1.6	3.2	11.7
50~70점 미만	22.1	29.6	26.6	8.1	3.9	1.5	8.4

70~90점 미만	21.1	28.9	26.4	12.9	3.9	2.0	4.9
90~100점	12.3	32.0	31.8	13.0	4.2	2.3	4.3

9)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한국어 능력

- 가정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언어 점수도 비례하여 고득점으로 상승함.
- 가족과 대화할 때 한국어와 모어를 같이 사용하는 언어 전환을 많이 하는 응답일수록 한국어 능력 검사에서 '30점 미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어만 사용하려 노력하는 응답자일수록 '90~100점대'의 고득점 분포가 가장 넓게 나타남.
- 놀라울 정도로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과 점수간의 관계가 비례하여 나타남.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어와 모어 언어 전환은 사회언어학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한국어 미숙으로 일어나는 것임.

<그림 176>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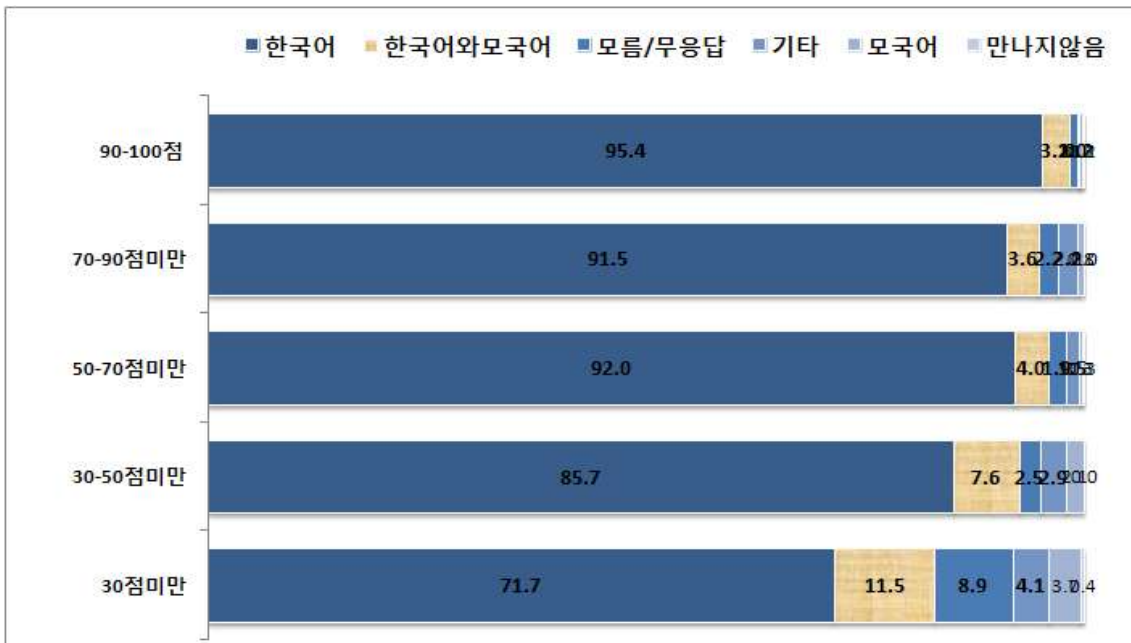
<표 16>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사례수	한국어와 모어 둘 다 사용한다	한국어만 사용한다	모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도 모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모름/무응답	계
한국어 능력 검사	30점 미만	(287)	48.1	44.6	5.2	1.7	0.3	100.0
	30~50점 미만	(248)	38.7	57.7	0.8	2.8	0.0	100.0
	50~70점 미만	(335)	34.9	61.8	0.9	2.1	0.3	100.0
	70~90점 미만	(512)	32.6	64.6	1.2	1.4	0.2	100.0
	90~100점	(644)	32.0	66.3	0.9	0.5	0.3	100.0

10) 사회에서 한국인과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와 한국어 능력

- 사회에서 만나는 한국인과 대화할 때에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응답자일수록 역시 언어 점수도 비례하여 상승하였음.
- 반면 응답자가 한국어와 모어 전환을 사용하는 경우 언어 점수는 비례하여 약간씩 하강하였음.
- 응답자가 사회에서 만나는 한국인과 대화할 때 언어 전환을 하는 이유는 사회언어학적인 이유 보다는 역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것이 원인임을 예상할 수 있음.

<그림 177> 사회에서 한국인과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와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표 17> 사회에서 한국인과 대화할 때의 사용 언어와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사례 수	한국어	한국어와 모어	모름/무응답	기타	모어	만나지 않음
■ 한국어 능력 검사	30점 미만	(269)	71.7	11.5	8.9	4.1	3.7	0.4
	30~50점 미만	(238)	85.7	7.6	2.5	2.9	2.1	0.0
	50~70점 미만	(324)	92.0	4.0	1.9	1.5	0.3	0.3
	70~90점 미만	(496)	91.5	3.6	2.2	2.2	0.8	0.0
	90~100점	(629)	95.4	3.2	1.0	0.2	0.3	0.2

11) 다문화 가족 아동과 한국어 능력

- 방과 후 1시간 정도의 교류를 친구들과 갖는 아동의 경우 '90~100점대(54.8%)'의 언어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음.
- 학습 내용에 대해 물어 볼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언어 점수는 비례하여 상승하였음.
-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할수록 역시 언어 점수도 비례하여 상승하였음.
- 발표를 적극적으로 잘한다고 응답한 아동일수록 언어 점수 역시 비례하여 상승함.
-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가 많다고 답할수록 언어 점수 역시 비례 관계를 형성하여 상승함.
- 아버지, 형제, 친구들이 본인이 말하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할수록 역시 언어 점수도 비례하여 상승함. 아동이라 하더라도 주위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아버지가 본인의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 '90~100점대'의 언어 점수를 이루는 경우가 98.5%를 차지함.

<표 18> 다문화 가족 아동과 한국어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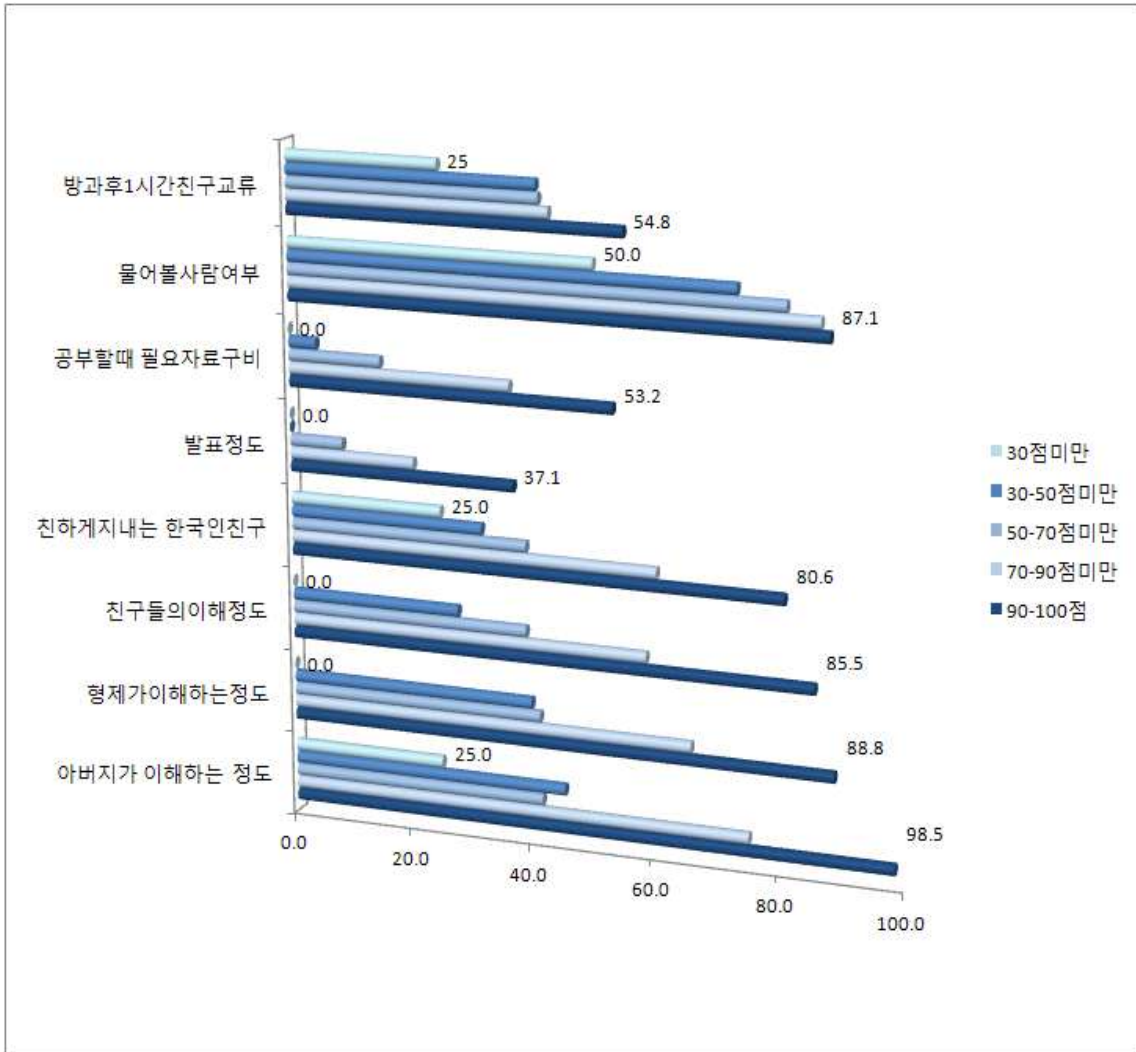
		아버지 이해	형제 이해	친구 이해	친구 교류	발표 정도	공부 자료	물어볼 사람	방과 후 교류
■한국어 능력 검사	30점 미만	25.0	0.0	25.0	25.0	0.0	0.0	50.0	25.0
	30~50점 미만	45.5	40.0	31.8	31.8	0.0	4.5	72.7	40.9
	50~70점 미만	41.8	41.4	39.1	39.1	8.7	15.2	80.4	41.3
	70~90점 미만	75.4	66.0	60.3	60.3	20.6	36.5	85.7	42.9
	90~100점	98.5	88.8	80.6	80.6	37.1	53.2	87.1	54.8

<그림 178> 다문화 가족 아동의 한국어 능력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변인들

6.2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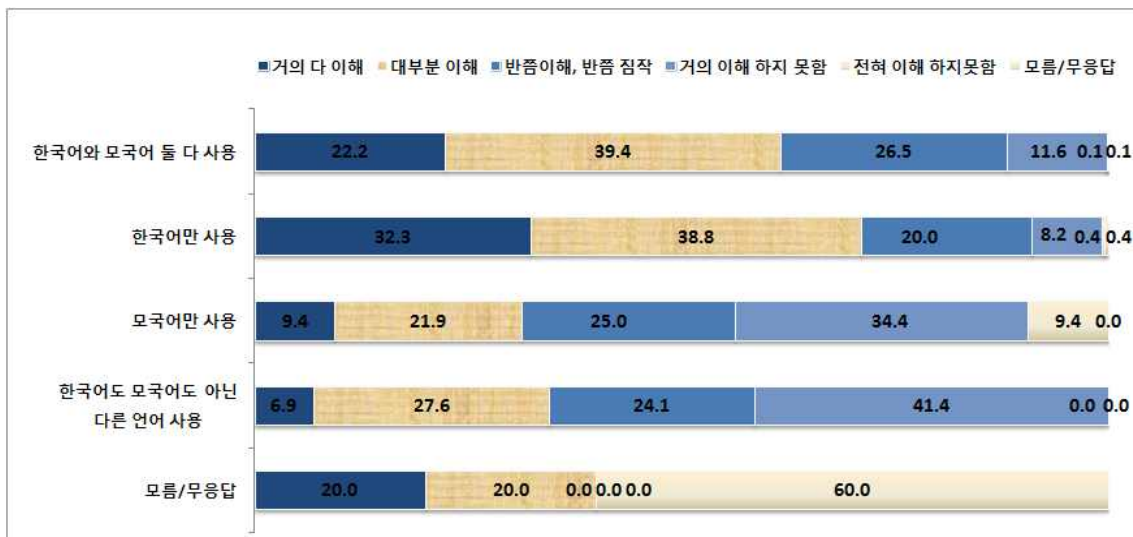
1)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가족과의 대화 이해 정도

- 가족과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가족과의 대화 이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모어를 둘 다 사용하는 언어 전환을 하는 경우 가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정에서 한국어도 모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어만 사용하는 것은 가족 간의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모어만 사용하는 경우 대화 내용을 25.0%가 '반쯤 이해 반쯤 짐작한다.'라고 했고 34.4%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답함.



- 응답자는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어를 배워야만 가족 관계에서조차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정착 초기에는 가정에서의 대화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어려움은 굉장히 클 것으로 짐작됨. 한국어를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이해도도 조금씩 증진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79>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대화 이해도 관계



<표 16>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대화 이해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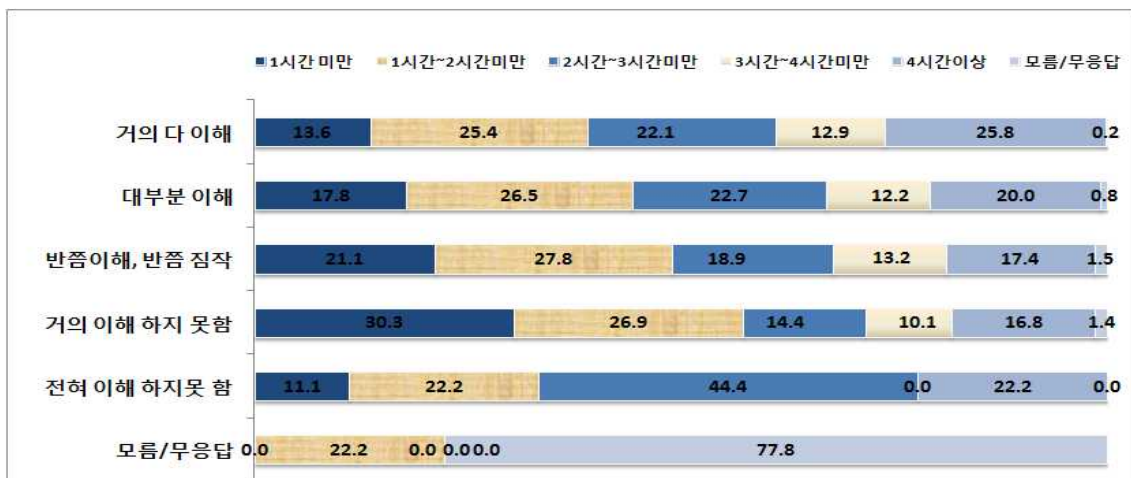
	거의 다 이해	대부분 이해	반쯤 이해, 반쯤 짐작	거의 이해 하지 못함	전혀 이해 하지 못함	모름/무응답	전체
모름/무응답	20.0	20.0	0.0	0.0	0.0	60.0	100
한국어도 모국어도 아닌 다른 언어 사용	6.9	27.6	24.1	41.4	0.0	0.0	100
모국어만 사용	9.4	21.9	25.0	34.4	9.4	0.0	100
한국어만 사용	32.3	38.8	20.0	8.2	0.4	0.4	100
한국어와 모국어 둘 다 사용	22.2	39.4	26.5	11.6	0.1	0.1	100
계	27.9	38.5	22.4	10.3	0.4	0.4	100

카이 531.938 p<.000

2) 가정에서 한국어 이해 정도와 대화 시간

- 대화의 이해도와 대화 시간과는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응답자들은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에 이해하든 거의 이해하지 못하든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여 의사소통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시간~4시간’에 이르기까지 끌고루 응답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이해도보다는 가족 간의 협력 속에서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이한 점은 다문화 가족의 경우 서로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한국어로, 모어로, 한국어와 모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남.
- 한국인이 외국인을 가족으로 맞이하였을 경우 엄청난 포용력으로 이들을 수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임. 대화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와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2~3시간’씩 다양한 언어 코드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가족들의 노력이 보이는 결과임.

<그림 180>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이해 정도와 대화 시간



<표 20>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이해 정도와 대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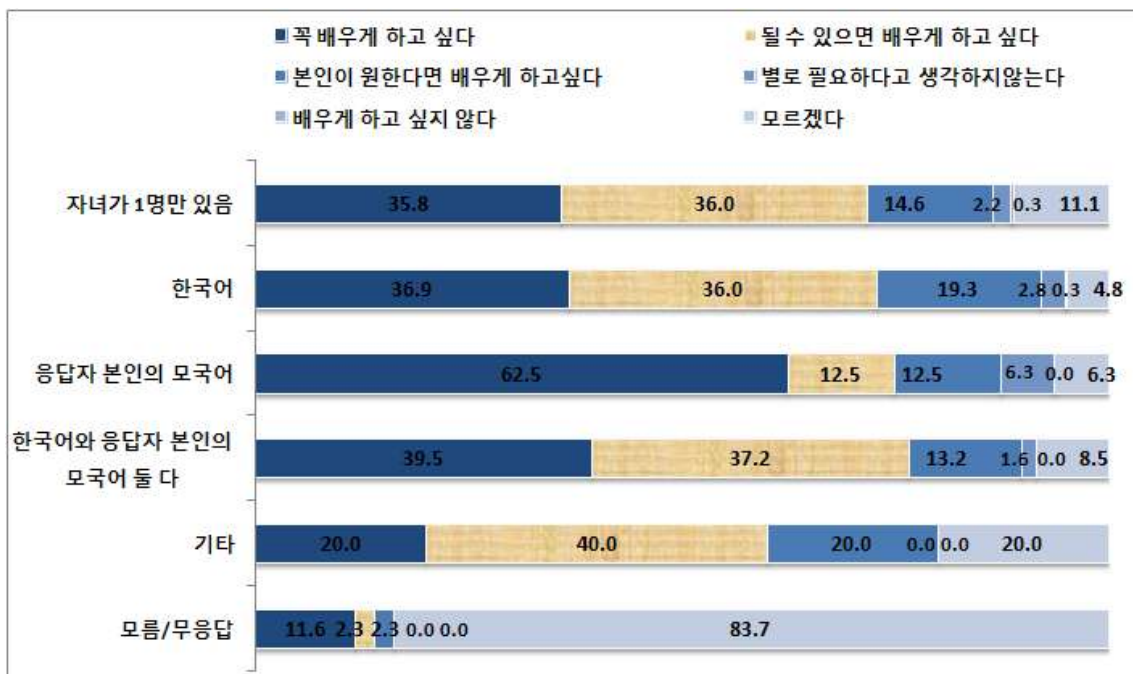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간미만	2시간~3시간 간미만	3시간~4시간 간미만	4시간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모름/무응답	0.0	22.2	0.0	0.0	0.0	77.8	100
전혀 이해 하지못 함	11.1	22.2	44.4	0.0	22.2	0.0	100
거의 이해 하지 못함	30.3	26.9	14.4	10.1	16.8	1.4	100
반쯤이해, 반쯤 짐작	21.1	27.8	18.9	13.2	17.4	1.5	100
대부분 이해	17.8	26.5	22.7	12.2	20.0	0.8	100
거의 다 이해	13.6	25.4	22.1	12.9	25.8	0.2	100
계	18.6	26.5	20.8	12.3	20.6	1.2	100

카이 296.138 P<.000

3)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응답자의 모어 교육

- 응답자의 모어 교육 의향이 강할수록 자녀들끼리 대화할 때 응답자의 본인의 '모어 사용(62.5%)'이나 '한국어와 응답자 본인의 모어를 같이 사용'하는 언어 전환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자녀들끼리 가정에서 응답자의 모어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모어를 가르치고 싶은 의지가 있고 이런 생각이 자녀끼리의 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1>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응답자 모어 교육 태도



<표 21>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응답자 모어 교육 태도

	꼭 배우게 하고 싶다	될 수 있으면 배우게 하고 싶다	본인이 원한다면 배우게 하고 싶다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전체
모름/무응답	11.6	2.3	2.3	0.0	0.0	83.7	100
기타	20.0	40.0	20.0	0.0	0.0	20.0	100
한국어와 응답자 본인의 모국어 둘 다	39.5	37.2	13.2	1.6	0.0	8.5	100
응답자 본인의 모국어	62.5	12.5	12.5	6.3	0.0	6.3	100
한국어	36.9	36.0	19.3	2.8	0.3	4.8	100
자녀가 1명만 있음	35.8	36.0	14.6	2.2	0.3	11.1	100
계	36.2	34.9	16.2	2.3	0.3	10.2	100

카이 289.9516 P<.000

4) 모어 위상과 한국인과 대화할 때 사용 언어

- 응답자들은 한국인과 대화할 때 절대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어 위상이 높은 낮은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과 만날 때는 반드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의 모어 위상이 매우 높은 인정’을 받고 있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91.1%로 나타났고 ‘모어 위상이 매우 낮은 인정’을 받아도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83.8%로 나타남. 이는 응답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본인들이 언어 적응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2> 모어 위상과 한국인과 대화할 때 사용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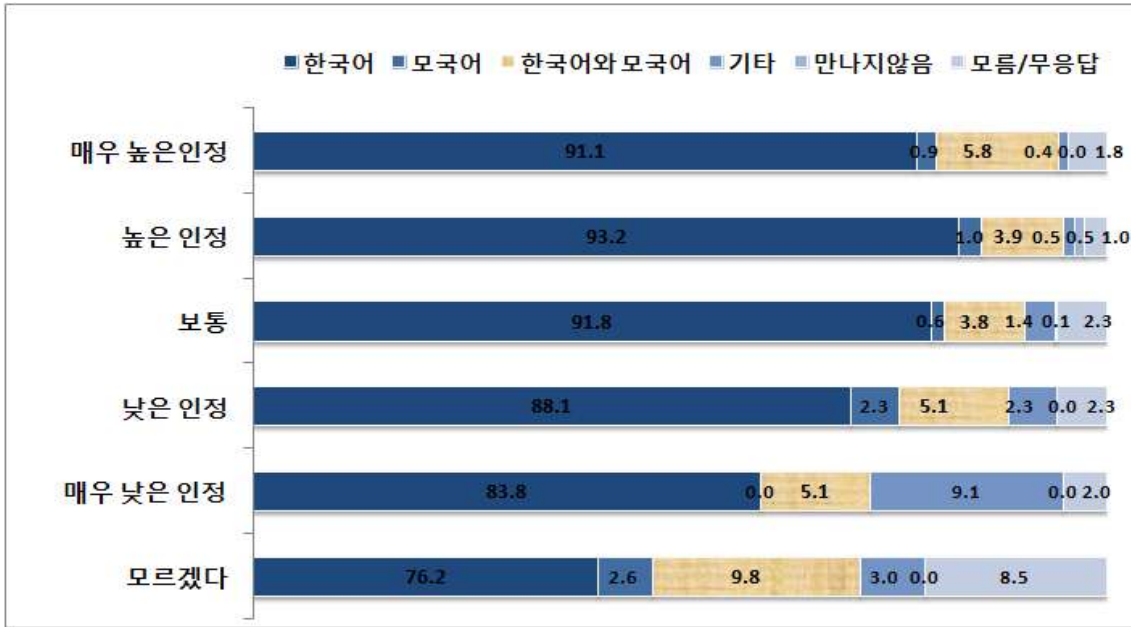
<표 22> 모어 위상과 한국인과 대화할 때 사용 언어

	한국어	모국어	한국어와 모국어	기타	만나지않음	모름/무응답	전체
매우 높은인정	204(91.1)	2(0.9)	13(5.8)	1(0.4)	0(0)	4(1.8)	224(100)
높은 인정	381(93.2)	4(1)	16(3.9)	2(0.5)	2(0.5)	4(1)	409(100)
보통	746(91.8)	5(0.6)	31(3.8)	11(1.4)	1(0.1)	19(2.3)	813(100)
낮은 인정	155(88.1)	4(2.3)	9(5.1)	4(2.3)	0(0)	4(2.3)	176(100)
매우 낮은 인정	83(83.8)	0(0)	5(5.1)	9(9.1)	0(0)	2(2)	99(100)
모르겠다	179(76.2)	6(2.6)	23(9.8)	7(3)	0(0)	20(8.5)	235(100)
전체	1748(89.4)	21(1.1)	97(5)	34(1.7)	3(0.2)	53(2.7)	1956(100)

카이 109.532 P<.000

5) 모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와 이후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

- 응답자가 모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한국에 와서도 한국어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 오기 전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혼자 공부한 경우 '한국에서 한국어를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40.2%, 30.4%).'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음. 모국의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도 한국에서 언어 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혼자 '독학(66.1%)'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도 한국에서 언어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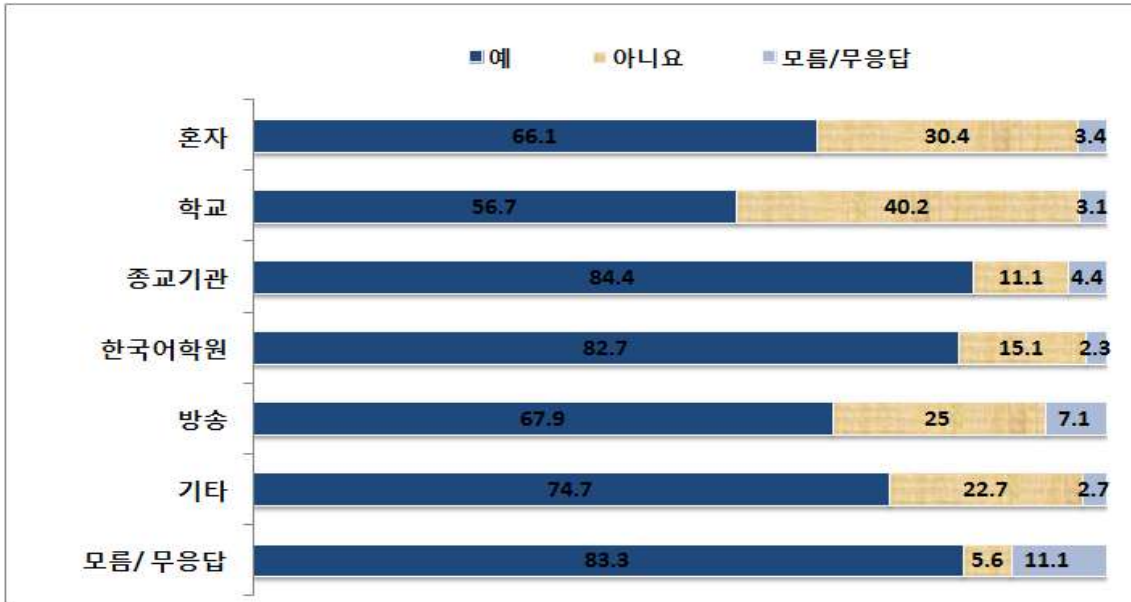
<그림 183> 모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와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

<표 23> 모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와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여부

	예	아니요	모름/무응답	전체
모름/ 무응답	83.3	5.6	11.1	100
기타	74.7	22.7	2.7	100
방송	67.9	25	7.1	100
한국어학원	82.7	15.1	2.3	100
종교기관	84.4	11.1	4.4	100
학교	56.7	40.2	3.1	100
혼자	66.1	30.4	3.4	100
계	71.5	25.1	3.3	100

카이 72.584 P<.000

6) 서툰 한국어 사용과 한국인과의 대화 시간



- 한국인과 만날 때 한국어가 서툴러 대화가 힘들니까 대화 시간이 감소한다거나 하는 관계는 성립되지 않음.
- 한국어가 서툴든 그렇지 않든 한국인과의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속에서 한국인들과 지속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에서 나타는 현상과 비슷하게 사회 속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남. 사회 속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에게 한국어가 서툴러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건 안 들건 한국인과 한국어로 대화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4> 서툰 한국어 사용과 대화 시간

<표 24> 서툰 한국어 사용과 대화 시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전체
1시간 미만	131(17.8)	196(26.6)	247(33.5)	68(9.2)	96(13)	738(100)
1시간~2 시간 미만	97(20.2)	118(24.5)	173(36)	51(10.6)	42(8.7)	481(100)
2시간~3 시간 미만	54(19.1)	71(25.2)	109(38.7)	21(7.4)	27(9.6)	282(100)
3시간~4 시간 미만	21(18.3)	38(33)	32(27.8)	9(7.8)	15(13)	115(100)
4시간이 상	72(21.5)	101(30.1)	121(36.1)	20(6)	21(6.3)	335(100)
모름/ 무응답	10(13.3)	21(28)	21(28)	6(8)	17(22.7)	75(100)
계	385(19)	545(26.9)	703(34.7)	175(8.6)	218(10.8)	2026(100)

카이 40.375 p<.004

7) 모임 참석 여부와 한국어 습득 의지



- 한국 사회에서의 모임 참석 여부와 한국어 습득 의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습득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모임에 더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습득 의지가 약하다고 해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5> 모임 참석 여부와 한국어 습득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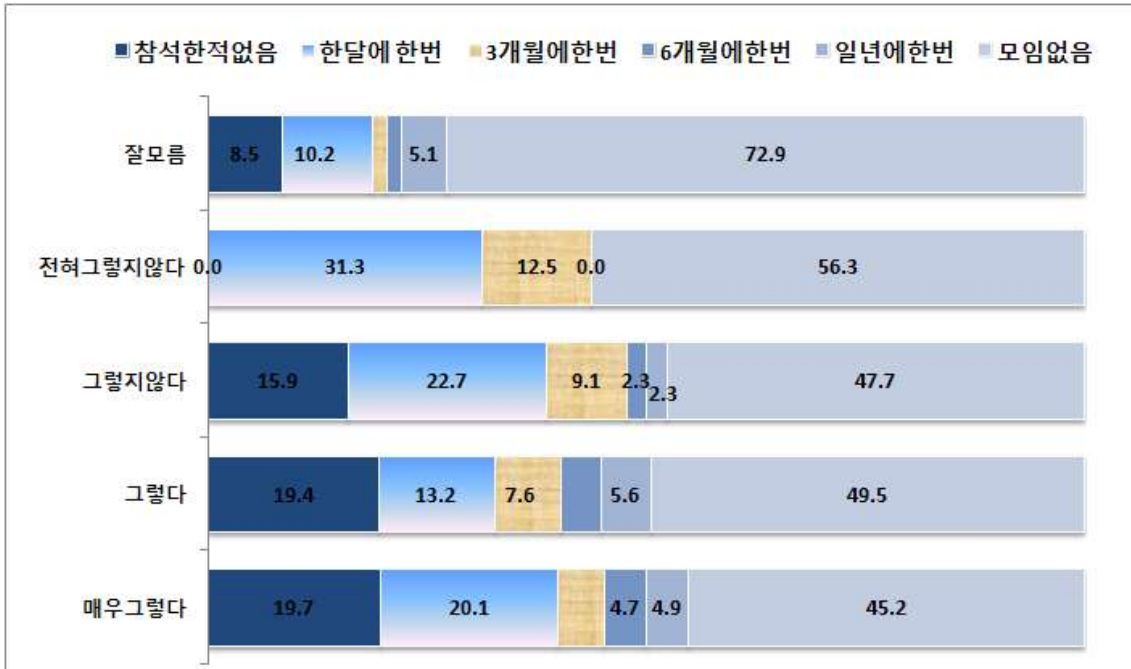
<표 25> 모임 참석 여부와 한국어 습득 의지

	참석 한 적 없음	한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일년에 한 번	모임없음	전체
매우그렇다	290(19.7)	297(20.1)	79(5.4)	70(4.7)	73(4.9)	666(45.2)	1475(100)
그렇다	84(19.4)	57(13.2)	33(7.6)	20(4.6)	24(5.6)	214(49.5)	432(100)
그렇지않다	7(15.9)	10(22.7)	4(9.1)	1(2.3)	1(2.3)	21(47.7)	44(100)
전혀그렇지않다	0(0)	5(31.3)	2(12.5)	0(0)	0(0)	9(56.3)	16(100)
잘모름	5(8.5)	6(10.2)	1(1.7)	1(1.7)	3(5.1)	43(72.9)	59(100)
계	386(19.1)	375(18.5)	119(5.9)	92(4.5)	101(5)	953(47)	2026(100)

카이 41.011 P<.004

제7장 결론 및 제언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2세를 양육하게 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직접 간접 영향을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 비해 적은 숫자이나 근본적으로 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결혼 이민자는 한국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동화 및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국어 능력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생활 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본 실태 조사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다문화 가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인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국어 사용 환경 역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안고 있는 국어 사용 환경이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 즉 한국어 능력과 맞물려 그 양상이 잘 투영되어 나타났다. 실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권에 따라 한국어 능력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62.7%)'과 '한국계 중국(55.7%)' 출신인 경우 예상대로 고득점대에서 넓은 분포를 했고 이 두 언어권을 제외한 나머지 중 언어 습득에 우수한 경우는 몽골에서 온 응답자로 '30점 미만'은 1.8%밖에 되지 않아 전체 언어권 중 낮은 점수대의 분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득점(45.6%)'은 가장 넓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시아(36.7%)' 출신의 경우도 '70~90점대' 점수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21.3%)'과 '기타 지역(21.4%)'에서 온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분포가 넓고 '고득점(16.3%, 10.7%)' 분포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어권에 따라 한국어 능력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능력은 비례하여 향상되었다. '30점 미만'의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를 받은 경우는 '2년

미만(34.3%)', '2년~5년 미만(8.0%)', '5년~10년 미만(5.9%)', '10년 이상(3.7%)'에 걸쳐 점차 감소했다. '2년~5년 미만' 기간 사이 저득점은 8%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고득점 분포도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의 응답자가 '90~100점'을 받은 경우는 10.9%였으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1.2%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언어 습득에서 거주 기간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했다.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전체 응답 중 '2년~5년 미만(30.3%)'이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18.7%)'이 가장 적었다. '2년 미만'이라 답한 경우는 '베트남(39.0%)'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으며 '2년~5년 미만'이라 답한 경우는 '캄보디아(63.8%)'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고, '5년~10년 미만'이라 답한 경우는 '태국(41.0%)'에서 온 응답자가 많았고, '10년 이상'이라 답한 경우는 '일본(35.1%)'과 '한국계 중국인(22.7%)'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국 지역별로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고득점자(45.5%)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저득점자는 0%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일부 지역의 경우 '군 단위'보다 '시 단위'에서 저득점자가 좀 더 많이 분포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자까지 점수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득점자가 많아졌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저득점자가 많아졌다. '90~100점'까지의 고득점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17.3%)', '중학교(18.7%)', '고등학교(34.6%)', '대학교(39.7%)'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점수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온 응답자의 수가 감소한 반면 필리핀에서 온 응답자의 수는 증가했다. 배우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필리핀, 일본, 몽골, 캄보디아,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대학교(46.9, 54.2%, 54.4%, 43.3%, 50.0%)'를 졸업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본인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경상남도 군 단위(19.2%)'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전라남도 군 단위(22.0%)'에서 많이 나타났다. 경기, 충청, 전라, 강원 지역의 경우 시 군 단위에 따라 거주하는 응답자의 학력 편차가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환경을 살펴보면 한국어는 가족 구성원 의사소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이중 혹은 다중 언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언어 전환 현상 또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이민자는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는 한국어로 주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자녀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훨씬 편하게 자주 언어 전환을 시도하거나 응답자의 모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한족), 필리핀, 일본, 태국, 중앙아시아에서 온 응답자들은 대화할 때 40% 정도의 비율로 언어 전환을 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한국계)의 경우 20% 정도의 비율로 언어 전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전환 현상은 이중 다중 언어 사용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언어학적 현상이다. 하지만 언어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원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한국어 숙달도의 영향으로 인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거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자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만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녀끼리 대화할 때에도 역시 한국어 사용 정도도 다르고 언어 전환 역시 언어 문화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용의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났다. 본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언어 전환은 두 언어가 능숙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한국어 미숙도로 인한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언어 전환은 사회언어학적 목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한국어 미숙인 경우가 절대적인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가족과 대화할 때의 한국어 사용 정도와 대화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모어를 둘 다 사용하는 언어 전환을 하는 경우 가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에서 한국어도 모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어만 사용하는 것은 가족 간이라도 의사소통이 힘들게 이루어지거나 잘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착 초기에는 가정에서의 대화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어려움은 굉장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대화 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응답자들은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에 이해하든 거의 이해하지 못하든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여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부터 4시간에 이르기까지 끌고루 응답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이해도보다는 가족 간의 협력 속에서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다문화 가족 아동의 한국어 능력은 방과 후 교류할 수 있는 한국 친구가 있는 경우, 학습 내용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경우,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 구비 여부 등에 비례하여 언어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형제, 친구들이 본인의 한국어 구사를 잘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아동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가늠하고 있었고 '매우 그렇다.'고 답할수록 아동의 언어 점수도 비례하여 상승되었다. 주목할 점은 아버지의 이해도는 가장 정확하게 아동의 한국어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였다. 즉 다문화 가족 아동에게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구성원인 아버지와 형제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사회에서 만나는 한국인과 대화할 때에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응답자일수

록 역시 언어 점수도 비례하여 상승하였다. 반면 응답자가 한국어와 모어 전환을 사용하는 경우 언어 점수는 비례하여 약간씩 하강하였다. 응답자가 사회에서 만나는 한국인과 대화할 때에 언어 전환을 하는 이유는 사회언어학적인 이유보다는 역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것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아홉째, 놀라운 점은 응답자들은 한국인과 만날 때 한국어가 서툴러도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간다는 점이다. 한국어가 좀 서툴러도 한국인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속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이 한국어가 서툴러도 우호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서로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열 번째, 한국 사회에서의 모임 참석 여부와 한국어 습득 의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습득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모임에 더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습득 의지가 약하다고 해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응답자들 대부분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국 TV, 인터넷, 드라마, 신문, 잡지 등 정도 차이는 있으나 다양하게 한국어 입력을 제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권별로 역시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인, 모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열한 번째, 응답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공공 기관 이용 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23.5%)'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와의 의사소통(25.4%)'이 가장 힘들고,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어로 전화하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23.5%)'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으로 인해 그들이 만들어 내는 국어 사용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것이 본 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현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러 언어 관련 프로그램들은 수요자의 특성 및 환경을 파악한 맞춤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언어 문화권, 거주 기간, 거주 지역, 학력 등을 재고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획일화된 방법만으로 전국에 분포된 다양한 변수를 가진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응답자의 언어권별, 거주 기간별, 학력별 등등으로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이 자료를 근간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재고한 맞춤형 언어 교재, 교수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 지역의 경우 '중국(한국계 15.5%)', '중국(한족 50.5%)', '베트남(18.6%)' 출신이 대부분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반면 '경기도 군 단위'의 경우 '일본(42.0%)', '중국(한국계 4.0%)', '중국(한족 18.0%)', '베트남(18.0%)' 출신이 대부분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 두 지역의 특성이 확연히 다른데 획일화된 언어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미비하다 할 수 있다. 본 실태 조사를 근간으로 지역별 맞춤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를 근간으로 언어 교육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전국 다문화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 곳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 등에 대해 기관별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대구' 지역의 경우 '90~100점' 상위 고득점 분포가 45.5%인 반면 '부산' 지역의 경우 고득점 분포가 13.4% 정도에 그쳤다. '대구'의 경우 '30점 미만'의 저득점이 0%인 반면 '전라남북도 시 단위'의 경우 23.6% 정도가 분포되었다.

셋째,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성인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주목했다면 이제는 아동 이주자를 위한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초혼의 형태로 시작한 다문화 가족의 형성이 최근에 와서는 재혼의 형태로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 조사에 한국에 올 때 데려온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47.3%)'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족 아동들이 보여주는 언어 발달 현상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모어로 접하게 되는 경우와 한국어를 제2언어로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경우 모두 어머니나 아버지의 한국어 입력은 모어 화자인 부모보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성인 이주자뿐 아니라 아동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이주해 온 아동의 경우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 자리 잡게 된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자신이 제1언어로 먼저 습득한 언어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묻어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두 언어를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모든 다문화 가족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아동의 언어 습득 및 발달은 분명 성인의 언어 습득 및 발달 과정과는 다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아동에게는 언어 습득 시기(critical period)가 존재하고 이는 가산적 이중 언어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점이 예견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없이는 이루어 내기 어려운 과제이다. 현재로서는 많은 다문화 가족 아동들이 감산적 이중 언어자로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서양의 경우 성공적인 이중 언어 구사자(가산적 이중 언어자)에 대한 사례 연구를 많이 발표해 왔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이 안고 있는 한국의 사회 언어 문화적 배경이 이들을 이중 언어 구사자로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가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적응의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이 필요하다. 방향성에 따라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에 따른 언어 교육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 정책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책적으로 이민자의 모어 유지 정책을 고수하며 다문화 통합을 이끌어 낼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한국어 강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통합에 힘을 쓸 것인가의 선택에 따라 다문화 정책 및 지원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응답자의 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어로 인해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받게 될 것이라든지, 가족 구성원이 반대한다든지 등의 답을 선택한 이유는 다문화 가족이 자녀를 이중 언어 구사자로 양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언어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자녀들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꼭 가르치고 싶다는 답한 경우는 부모가 고학력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저학력자들로부터는 모어 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시도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들을 토대로 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가산적 이중 언어 구사자가 양육되기 위한 여건은 외국의 환경과는 다른 여건 아래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 교실 혹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과 더불어 전문화된 이중 언어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이주아동의 모어로 교과교육을 설명해 이해를 돕고 동시에 한국어로 교과 수학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두 언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화된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중 언어 구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교육 시스템에 정성이 많이 필요하며 아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급 인력의 교사 인프라 구축은 필수이다.

다섯째, 아동 인재들을 이중 혹은 다중 언어 구사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다양한 언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응답자 상당수가 자녀가 모어를 배우기를 바라고 있으나 ‘대구’ 지역은 ‘가르칠 시간 부족(45.9%)’, ‘광주’ 지역은 ‘다른 가족들의 반대(23.4%)’, ‘충청남도 시 단위’ 지역은 ‘모어를 가르치는 기관 부족(22.7%)’, ‘강원 시 단위’ 지역은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33.3%)’ 등을 모어 교육의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답하였다. 모어 교육 기관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보조해 주는 것만으로 다문화 자녀들이 이중 언어 구사자로 자라나는데 기회의 폭을 넓게 해 주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일곱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을 위한 방문 교육 지도사를 파견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견 사업의 내

용을 교과목 지도 이외에 독서 교육까지 더욱 강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에서 온 응답자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과제 등을 도와주기 위해 ‘행정기관 담당자(17%)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답한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 온 응답자보다 높았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부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43.6%)’, ‘어머니(26.7%)’, ‘방문 교육 지도사(12.1%)’ 순으로 답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고학력자일수록,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보다는 오히려 방문 교육 지도사에게 의존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즉 방문 교육 지도사는 다문화 가족 아동 교육을 위해 여러 가정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 스스로가 ‘집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한 응답이 11.9%로 가장 높게 나왔다.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결손, 한국어 이해 능력 부족이 학습 결손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여덟째, 은행, 우체국 등 공공 기관 이용 안내를 위한 한국어 혹은 다중 언어로 쓴 매뉴얼 보급이 매우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공공 기관에서의 한국어 사용이다. 응답자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용하는 생활 어휘 등은 익숙한 반면 은행, 우체국 등 공공 기관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매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관 이용을 위한 설명 책자를 다국어 판으로 내어 접근이 용이하게 하거나 공공 기관 이용 시 이해해야 할 어휘, 문장 등을 정리한 책자를 만들고 이를 학습시켜 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응답자들은 공공 기관에서 소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한국어 방언 사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답은 17.3% 정도만 나온 것으로 보아 자신의 방언 사용 여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응답에서 ‘시어머니가 사투리 사용하는 것 알아듣기 힘들고 헛갈린다.’, ‘시어머니가 방언을 많이 사용해서 힘들다.’ 등의 응답이 간간히 나왔다. 응답자들은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습자들이 방언과 표준어 사용의 차이점을 인지하기 시작하며 교육 기관에서 배운 언어와 시어머니 하는 언어 사용에 괴리감과 어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때 방언에 대한 내용(어휘나 문법)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언어권별 독학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교육 경험 여부에 관한 질문에 53.3%가 교육을 받은 경험 있다고 답하였다. 본국에서의 교육 경험은 ‘한국어 학원(34.0%)’, ‘혼자(29.6%)’, ‘학교(21.2%)’, ‘기

타(7.4%)', '종교기관(4.5%)', '방송(3.3%)', '모름/무응답(3.3%)'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자는 한국어 학원을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보급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인터넷 이용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경우 '이용하지 않음(38.5%)'이 가장 많이 나와 인터넷 활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42%가 인터넷을 활용해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학습은 결국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획일화된 한국어교육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학용 교재, 독학용 한국어학습지 개발이 오히려 다문화 가족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한 번째, 다문화 센터의 한국어 교육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 많은 응답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쓰기 능력은 일정 거주 기간이 지나도 가장 힘들어 하는 언어 기능으로 나타났다. 말하기도 초급 단계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으나 오히려 고급 단계에 가면 쓰기만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생존 수준의 한국어 습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고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태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협조 없이는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간접적으로 한국인들도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결과는 정착 초기 한국어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족과 대화 시간을 두세 시간씩 가진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가정 내에서 가족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의 한국어가 서투러도 어떻게든 한국인과 대화 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사회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항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되는 결과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의 시각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본 연구는 언어권별, 거주 기간, 거주 지역별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2026명을 분류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노력했다. 여러 변인들과의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다문화 가족 아동의 경우 200명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언어권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국어 사용에 대해 연령별, 언어권별, 지역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조사

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언어적 특징보다는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가 집중되었으나 향후 이들의 언어적 특징을 보다 세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자극을 준 조사를 통해 성인과 아동의 언어 발달 현상을 이해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진숙(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강현화(2006),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 - 문화 교재 개발을 위해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1, 연세대 어학당.
- 강현화(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 교수요목,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의 내용 정립,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지집.
- 강현화 외(2008),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1~3, 한국문화사(비매품).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 구현정 · 서승아(2008.03), 이민자를 위한 한국 사회 이해, 정인출판사.
- 국립국어원(2002), 우리 문화 길라잡이, 학교재.
- 국립국어원(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 교육실태 및 방문교육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 권미지(2010),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 간 음운처리에 관한 메타언어 능력의 비교 분석,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 권수진(2006),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비교,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 권순희(2009a),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 이중언어학회 제23차 전국 학술대회 춘계대회발표집.
- 권순희(2009b),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 국어교육학연구 36, 국어교육학회.
- 권영민 외(2009.03),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 권오경(2006),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화 교육의 방향,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 권오경(2009),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문화 5-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 어휘 능력 및 관련 변인, 연세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나영(2009),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특성, 한림대 석사학위 논문.
- 김도영(2008), Teaching Korean with Three Language Formula of Phonetic and Semantic Application in Multicultural Environment, 한국언어문화학 5,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선정(2007), 이중언어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획발표 :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 김안나(2008),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환경변인과 유아기 자녀들의 언어 능력과의 관계,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2011),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취학 전 아동의 언어특성 및 CAI를 활용한 부모훈련의 효과,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김태우(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 언어 문화 교재 개발 방안, 언어와 문화 4-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영호(2008),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마찰음 산출의 음향학적 특성 연구, 원광대 동서보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명사 및 동사 이름대기, 한림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2010),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자녀교육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김진욱(2007), 발표논문 : 행정학 교육, 연구 공동체의 미래와 정책 재창조; 국제결혼가정 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농촌지역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계학술대회 2, 한국정책학회.
- 김해옥(201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에피스테메).
- 김효정(2008), 다문화언어 환경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휘능력, 한림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2010),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발음오류와 발음 교육 : 평음, 적음, 경음을 중심으로, 군산대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박기옥(2010),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이중 언어 교육 정책 방안,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박미단(2009),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비교, 나사렛대 재활복지대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2006),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제14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 박상희(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산출에 관한 종단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18, 한국언어치료학회.
- 박성준·이선이(2011.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8.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국문화, 현암사.
- 박지윤(2007), 이중 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박지윤·박상희·석동일(2007), 학령전기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언어학적 특성, 언어치료연구 16(2), 한국언어치료학회.
- 박지윤·석동일(2007),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언어연령과 평균형태소길이의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실천 8(3),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박진욱(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과적응을 위한 학습언어 연구: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한나(2009.10), 통으로 읽는 한국문화, 박이정.
- 배소영(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발달지원자 설문을 통해 본 아동의 언어 환경 및 언어발달 실태, 언어치료연구 18, 한국언어치료학회.
- 선애순, 권순향(2010), 그림동화책 읽어주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한국특수아동학회.
- 설동훈·한건수·김현미 외(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손연자 외(2003), 정규 과정용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송복희(2008),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가정생활교육 효과 : 익산시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송유미(2009),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주(2010),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 연결어미 이해 및 표현능력 비교,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신미주(2008),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다문화가정 발달지체 유아의 요구하기 표현 언어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신영주·안성우(2008a),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음운 인식 발달, 언어치료연구 17(3), 한국언어치료학회.
- 신영주·안성우(2008b), 저소득층 일반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음운 인식 능력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7(4), 한국언어치료학회.
- 안원석(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안혜옥(2007),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양서원(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 양성오(2009a),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대불대 석사학위논문.
- 양성오(2009b),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8, 한국언어치료학회.
- 어수진(2010), 협동학습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 오경석(2009), 한국적 다문화주의, 또 하나의 새마을 운동,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 오성숙(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 가정환경자극과 유아 언어 능력의 관계,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 오소정(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8,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왕한석(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 왕한석(2007), 또 다른 한국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교문

사.

-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영·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한국아동학회.
- 유승애(2009a), 4, 5, 6세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유승애(2009b), 4, 5, 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 육아지원연구 4, 한국육아지원학회.
- 유지현(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문문 이해발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유현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윤여탁(2011),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의 내용 정립,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지집.
- 윤영숙(2009),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방문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배재대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2009), 다문화 가정 집단과 단일 문화 가정 집단의 마찰음 /ㅅ, ㅆ/의 음향학적 분석: 중국 출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풍(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문 특징 연구,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연(2009), 다문화 가정 아동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달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 이상억(2008.01), 한국어와 한국문화, 소통.
- 이상희 외(2010), 다문화가정 유아동 자녀의 언어구사에 관한 실태조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한국특수아동학회.
- 이석주(2002),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단계별 목록 작성 시고,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이선이(2007.08),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한국문화사.
- 이선이·이명순(2011.02), (외국인을 위한) 오늘의 한국, 한국문화사.
- 이선이·조운아(2011.08), (외국인을 위한) 살아있는 한국현대문화, 한국문화사.
- 이소연(2010), 초등학교 1,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기초학력 검사 결과 및 문항 분석, 독서연구 23, 한국독서학회.
- 이수정(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 K-BNT-C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2010),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읽기·쓰기 통합교육 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이주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2008),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운율 발화의 음향적 특징,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2010),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언어 발달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2008),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단모음 산출에 대한 음향적 특성 연구,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영(1974), 어린이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해영(2002),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교육,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이해영 외(2011.04), (생활 속) 한국문화 77, 한글파크.

- 이현숙(2008), 이중언어환경이 운율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베트남어의 영향을 중심으로,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임경순(2009.06),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임진숙(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승심(2009),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사용 실태와 그 함의 (교육과학연구), 백록논총 11(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교육과학연구소.
- 전은주(2009), 특집 : 국어교육 정책의 방향 ;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 국어교육학 36, 국어교육학회.
- 정미정(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과학습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정책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정순연(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육원대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한국언어치료학회.
- 조재윤 외(2009.0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박이정.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1),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제1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논문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조항록(2004), 한국언어문화교육론의 내용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2, 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항록·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 개발 1,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 저·왕청청 역(2008.11), 한국 사회와 문화, 소통.
- 조현용(2003),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 천숙향(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또래관계와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성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양숙(1996), 어머니의 언어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아동교육 5, 한국아동교육학회.
- 최운식 외(2009.12),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 보고서.
- 최자인(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화속도와 씬의 음향적 특성,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이동원(2010), 다문화 사회 정착과 이민 정책, 삼성경제연구소.
- 황상심(2008a),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 황상심(2008b),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관련 상관 연구, 언어치료연구 17, 한국언어치료학회.
- 황상심(2008c), 경상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3,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황상심(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5세 전 후 집단 간 언어발달특성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황상심(2010a), 3세 중국다문화아동의 조음음운 특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19, 한국언어치료학회.

황상심(2010b),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표현어휘 발달과 성차, 언어치료연구 19, 한국언어치료학회.

황인교(2008),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언어와 문화 4-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Heugh. K.(2009), Contesting the monolingual practices of a bilingual to multilingual policy, Research Centre for Languages and Cultures,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Kamarul K.M.(2009), Critical considerations for planning and mplementing a CALL program, Volume 6, No.11 (Serial No.60), Mikyung Kim Wolf, Noelle Griffin, Jenny C.

Kao, Sandy M. Chang, & Nichole M. Rivera(2009), Connecting Policy to Practice: Accommodations in St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bharwal, S.(2009), EFFECT OF GROUPING ON LANGUAGE, Argosy University, San Francisco, Doctor of Education.

Yuh Fang Chang(2008), Parents' Attitudes toward the English Education Policy in Taiwan,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Taiwan.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Vol. 9, No.4.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문항에 귀하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항목에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9.

주관: 국립국어원
시행: 숙명여자대학교,
(주)리서치앤리서치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 문의 전화: (주) 리서치앤리서치 실사팀 김명희 차장 (02-3484-3045)
(주) 리서치앤리서치 사회조사팀 김남인 연구원(02-3484-3085)

SQ1. 현재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 ① 혼자 또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살고 있음(☞설문 중단)
- ②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SQ2. 어느 나라 출신이십니까?

- ① 중국(한국계 중국) ② 중국(한족, 기타 민족) ③ 베트남 ④ 필리핀
- ⑤ 일본 ⑥ 태국 ⑦ 몽골 ⑧ 캄보디아 ⑨ 미국 ⑩ 남부아시아 ⑪ 중앙아시아
- ⑫ 동남아시아 기타(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제외) ⑬ 기타

SQ3.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 ① 서울 ② 인천 ③ 대전 ④ 대구 ⑤ 광주 ⑥ 부산 ⑦ 울산
- ⑧ 경기도 시 단위 ⑨ 경기도 군 단위
- ⑩ 충청남도, 충청북도 시 단위 ⑪ 충청남도, 충청북도 군 단위
- ⑫ 경상북도, 경상남도 시 단위 ⑬ 경상북도, 경상남도 군 단위
- ⑭ 전라북도, 전라남도 시 단위 ⑮ 전라북도, 전라남도 군 단위
- ⑯ 강원 시 단위 ⑰ 강원 군 단위

SQ4. 한국에서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2년 미만 ② 2년-5년 미만 ③ 5년-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1. 국어 사용 및 환경

□ 가정 환경

1. 가족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 ① 한국어와 모어 둘 다 사용한다.
- ② 한국어만 사용한다.
- ③ 모어만 사용한다.
- ④ 한국어도 모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2. 가족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 ① 거의 다 이해한다.
- ②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한다.
- ③ 반쯤 이해하고, 반쯤 짐작한다.
- ④ 조금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 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3. 가족과 대화 시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③ 2시간-3시간 미만
- ④ 3시간-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4. 가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4-1.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모두 표시)	4-2.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 (모두 표시)	4-3.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의 현재 나이	4-4.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자녀의 한국 체류 기간	4-5. 가족과 주로 사용하는 언어 (하나만 표시)	4-6.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 (한 명만 표시)	4-7.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사람 (한 명만 표시)
배우자	①	--			① 한국어 ② 모어 ③ 한국어와 모어 ④기타()	①	①
첫째 자녀	②	②	()살	()년	① 한국어 ② 모어 ③ 한국어와 모어 ④기타()	②	②
둘째 자녀	③	③	()살	()년	① 한국어 ② 모어 ③ 한국어와 모어 ④기타()	③	③
셋째 자녀	④	④	()살	()년	① 한국어 ② 모어 ③ 한국어와 모어 ④기타()	④	④
배우자의 아버지	⑤	--			① 한국어 ② 모어 ③ 한국어와 모어 ④기타()	⑤	⑤
배우자의 어머니	⑥	--			① 한국어 ② 모어 ③ 한국어와 모어 ④기타()	⑥	⑥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	⑦	--			① 한국어 ② 모어 ③ 한국어와 모어 ④기타()	⑦	⑦

5. 현재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자녀 없음(☞문10으로 이동)
- ② 미취학 자녀만 있음(☞문6으로 이동)
- ③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음(☞문7로 이동)
- ④ 미취학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모두 있음(☞문8로 이동)
- ⑤ 기타(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 등)(☞문9-1로 이동)

6. (5번 문항에서 2를 선택한 사람만 답변) 미취학 자녀만 있는 경우 아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6-1.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냅니까?

(미취학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문9-1로 이동) ② 아니요(☞문6-2로 이동)

6-2.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자녀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 ① 응답자 본인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자녀의 형제
- ⑤ 자녀 혼자 있음 ⑥ 기타()

(☞ 응답 후 9-1번으로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7. (5번 문항에서 3을 선택한 사람만 답변) 초등학생 자녀만 있는 경우 아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7-1. 자녀가 방과 후 집에 가면 주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응답자 본인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자녀의 형제
- ⑤ 자녀 혼자 있음 ⑥ 기타()

7-2. 자녀의 학교 과제는 누가 확인해 주십니까?

- ① 응답자 본인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자녀의 형제
- ⑤ 자녀 혼자 함 ⑥ 기타()

(☞ 응답 후 9-1번으로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8. (5번 문항에서 4를 선택한 사람만 답변)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아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의 경우>

8-1.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십니까?

(미취학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문9-1로 이동) ② 아니요(☞문8-2로 이동)

8-2.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자녀를 가정에서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 ① 응답자 본인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자녀의 형제
⑤ 자녀 혼자 있음 ⑥ 기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8-3. 자녀가 방과 후 집에 가면 주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응답자 본인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자녀의 형제
⑤ 자녀 혼자 있음 ⑥ 기타()

8-4. 자녀의 학교 과제는 누가 확인해 주십니까?

- ① 응답자 본인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자녀의 형제
⑤ 봐주는 사람 없음(자녀 혼자 함) ⑥ 기타()

(☞ 응답 후 9-1번으로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9-1. 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 ①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 없음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이웃 ⑤ 행정 기관 담당자(다문화지원센터 등)
⑥ 그냥 넘어간다 ⑦ 기타()

9-2. 자녀들끼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가 1명만 있음 ② 한국어 ③ 응답자 본인의 모어
④ 한국어와 응답자 본인의 모어 둘 다 ⑤ 기타()

9-3. 자녀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의 모어도 꼭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 ① 꼭 배우게 하고 싶다(☞문9-4번으로 이동)
- ② 될 수 있으면 배우게 하고 싶다(☞문9-4번으로 이동)
- ③ 본인이 원한다면 배우게 하고 싶다(☞문9-4번으로 이동)
- ④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문10번으로 이동)
- ⑤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문10번으로 이동)
- ⑥ 모르겠다

9-4. 자녀에게 응답자의 모어를 가르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자녀와 정서적 공감을 갖고 싶어서
- ② 자녀가 부모의 모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니까
- ③ 두 나라의 말을 모두 잘하게 하고 싶어서
- ④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려고
- ⑤ 취직과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 ⑥ 기타()

9-5. 응답자의 모어를 자녀에게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다른 가족들의 반대
- ② 학교 공부에 지장
- ③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
- ④ 정체성 혼란
- ⑤ 가르칠 시간 부족
- ⑥ 응답자의 모어를 가르치는 기관(학원 등) 부족
- ⑦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 ⑧ 기타()

□ 사회 환경

10. 하루 동안 가족 이외에 다른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미만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11.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숫자로 응답해주세요)

11-1. 한국인	() 명
11-2.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	() 명
11-3.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 명

12. 만나는 한국인/모국인/외국인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한국어	모어	한국어 와 모어	기타	해당 없음
12-1. 한국인	①	②	③	④()	⑧ 만나지 않음
12-2.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	①	②	③	④()	⑧ 만나지 않음
12-3.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①	②	③	④()	⑧ 만나지 않음

13. 다음 모임이나 활동에 1년에 몇 차례나 참여하십니까?

	참석한 적 없음	한 달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한 번 정도	해당 없음
13-1. 가족, 친척 모임	①	②	③	④	⑤	⑧ 모임 없음
13-2. 모국인 친구 모임	①	②	③	④	⑤	⑧ 모임 없음
13-3. 지역 주민 모임	①	②	③	④	⑤	⑧ 모임 없음
13-4. 학부모 모임	①	②	③	④	⑤	⑧ 모임 없음

14. 다음 장소를 방문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한국어	모어	한국어와 모어	기타	방문 한 적 없음
14-1. 은행	①	②	③	④()	⑧
14-2. 우체국	①	②	③	④()	⑧
14-3. 자녀의 학교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만)	①	②	③	④()	⑧
14-4. 시장, 마트, 백화점	①	②	③	④()	⑧
14-5. 주민 센터	①	②	③	④()	⑧
14-6. 마을 회관	①	②	③	④()	⑧
14-7. 복지 회관	①	②	③	④()	⑧
1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⑧

□ 언어 태도

15. 응답자의 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매우 낮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⑥ 모르겠다.

16. 다음 중 해당 항목에 표시하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16-1.한국어를 서툴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 나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3. 나는 한국어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언어 환경

17. 하루에 한국어로 방송되는 TV 시청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미만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⑤ 시청하지 않음(☞문19번으로 갈 것)

18.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드라마 ② 연예·오락 ③ 뉴스 ④ 스포츠 ⑤ 시사/교양
⑥ 어린이 프로그램 ⑦ 외국어로 하는 방송(한국어 외 다른 나라 언어) ⑧ 기타

19. 하루에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미만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⑤ 이용하지 않음(☞문21번으로 갈 것)

20.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의 뉴스, 정보를 알기 위해
② 드라마, 영화, 오락물, 연예인을 보기 위해
③ 한국 내 가족, 친척, 친구들과 이메일, 채팅 등을 하기 위해
④ 한국에서 인터넷 बैं킹을 하거나, 물건을 찾아 주문하기 위해
⑤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을 위해
⑥ 기타()

21. 하루에 응답자의 모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미만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⑤ 이용하지 않음(☞문23번으로 갈 것)

22. 응답자의 모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모국의 뉴스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 ② 모국의 드라마, 영화, 오락물, 연예인을 보기 위해
- ③ 모국의 가족, 친척, 친구들과 이메일, 채팅 등을 하기 위해
- ④ 모국으로 인터넷 बैं킹을 하거나, 물건을 찾아 주문하기 위해
- ⑤ 모어 교육 및 학습을 위해
- ⑥ 기타()

23. 한국어로 방송하는 라디오 청취 시간은 하루에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미만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⑤ 청취하지 않음

24. 한국어로 발행된 신문이나 잡지 등을 1주일에 몇 번 읽습니까?

- ① 읽지 않는다 ② 1주일에 1회 ③ 1주일에 2회 ④ 1주일에 3회 이상

□ 한국어 교육

25.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문25-1로 이동) ② 아니요(☞문26으로 이동)

25-1.(25번 문항에서 1을 선택한 사람만 답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운 방법이나 다닌 기관을 한 곳만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혼자 ② 학교 ③ 종교 기관 ④ 한국어 학원 ⑤ 방송 ⑥ 기타()

26. 한국에 오신 후 교육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국어를 교육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문26-1로 이동) ② 아니요(☞문27로 이동)

26-1.(26번 문항에서 1을 선택한 사람만 답변) 교육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3년 미만 ④ 3년-5년 미만
- ⑤ 5년 이상

26-2. (21번 문항에서 1을 선택한 사람만 답변) 가장 오랫동안 한국어를 배운 기관이나 단체를 한 곳만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② 종교 단체 ③ 사설 한국어 학원

- ④ 행정 기관(주민자치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⑤ 기타()

27. 한국어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7-1. 한국어로 쓴 거리 간판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2. 한국어로 쓴 간단한 메모,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3. 한국어로 쓴 편지,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4. 한국어로 쓴 신문, 잡지, 일반 문헌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8-1.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2. 공공장소에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3. 한국어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 보고 등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8-4. 한국어로 연설, 토의, 통역 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한국어 듣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9-1.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2.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3. 광고, 인터뷰, 일기 예보 등의 실용 담화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4. 한국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한국어 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1. 한국어로 간단한 사물 이름, 위치, 숫자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2. 한국어로 간단한 편지, 일기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3. 한국어로 일상적인 내용을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4 전문적인 내용의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인지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한국어로 말하는 전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 ② 공공 기관 이용 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 ③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취업이 되지 않을 때
- ④ 가족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 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한국 친구를 만들 수 없다고 느낄 때
- ⑥ 기타()

II. 통계 처리 문항

DQ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② 여자

DQ2. 응답자 본인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

DQ3. 배우자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세

DQ4. 종교는 무엇입니까? ()

- ① 불교 ② 천주교 ③ 기독교 ④ 힌두교 ⑤ 이슬람 ⑥ 종교 없음 ⑦ 기타

DQ5. 응답자 본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업 주부
- ② 판매·서비스(가게 운영, 보험설계사, 관광가이드, 음식점 종업원, 간병인 등)
- ③ 농림·어업·임업
- ④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숙련 공장 노동자 등)

- ⑤ 단순 노무(건설 노동자 등 육체 노동자)
- ⑥ 사무(일반 행정 등 사무직 종사자)
- ⑦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통·번역사 등)
- ⑧ 무직 및 기타

DQ6.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림·어업·임업
- ②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숙련 공장 노동자 등)
- ③ 단순 노무(건설 노동자 등 육체 노동자)
- ④ 판매·서비스(가게 운영, 보험설계사, 관광가이드, 음식점 종업원, 간병인 등)
- ⑤ 사무(일반 행정 등 사무직 종사자)
- ⑥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통·번역사 등)
- ⑦ 전업 주부
- ⑧ 무직 및 기타

DQ7. 응답자 본인은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DQ8. 배우자는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DQ9. 가족 구성원들의 1년 총 소득을 합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000만 원 미만 ② 1000만원-2000만 원 미만 ③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 ④ 3000만 원-4000만원 미만 ⑤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⑥ 5000만 원 이상

I. 아동 설문

문1.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외국에서 오셨습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문2. 학생 성별①남 ②여

문3. 학생 학년① 초등학교 1학년② 초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문4. 학생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한국에서 태어남(☞문5번으로 갈 것)
② 외국어에서 태어남(☞문3-1번으로 갈 것)

문4-1.(4번 문항에서 2를 선택한 사람만 답변) 한국에서는 얼마나 생활하셨습니까?

- ① 2년 미만② 2년-5년 미만③ 5년 이상

문5. (문1에서 표시한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 ② (문1에서 표시한 사람)의 모어
③ 한국어와(문1에서 표시한 사람)의 모어 둘 다 ④ 기타()

문6. 형제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형제 없음 ② 한국어 ③ (문1에서 표시한 사람)의 모어
③ 한국어와 (문1에서 표시한 사람)의 모어 둘 다 ④ 기타()

문7. 우리 가족이 내가 말하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7-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모두 표시해 주세요)	7-2. 우리 가족은 내가 말하는 한국어를 잘 이해한다. (7-1번에서 표시한 가족 각각에 대해 6-2번을 응답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②	①	②	③	④	⑤
할아버지	③	①	②	③	④	⑤
할머니	③	①	②	③	④	⑤
형제	④	①	②	③	④	⑤

문8. 해당 사항에 표시하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1. 친구들은 내가 하는 한국말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2. 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3. 친하게 지내는 한국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4.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5.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6. 공부할 때 필요한 책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7. (문1에서 표시한 사람)의 모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9. 하루에 한국어로 방송되는 TV 시청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⑤ 시청하지 않음

문10. 하루에 컴퓨터 사용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⑤ 이용하지 않음

문11. 하루에 한국어 책을 몇 분(시간) 정도 읽습니까?

-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미만 ③ 1시간-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 ⑤ 읽지 않는다

문12.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문12-1로 가세요) ② 없다(☞문13으로 가세요)

문12-1 (문12번에서1번에 표시한 학생만)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친구 ④ 방문교육 지도사 ⑤ 형제
- ⑥ 이웃 ⑦ 기타

문13.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미만 ③ 1시간-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문14. 방과 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학원에 다니지 않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 ④ 1시간-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한국어 능력 검사

I. 단답형 질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II. 선택형 질문

※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1. 가: 다음에 만나요.

나: 네, 또 ().

- ① 가요 ② 봐요 ③ 사요 ④ 써요

2. 엄마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 ① 궁금해요 ② 답답해요 ③ 당황해요 ④ 지루해요

3. 잘 팔리는 것을 보니까 그 소설은 재미있는 것이 틀림없다.

- ① 특별하다 ② 당연하다 ③ 정확하다 ④ 확실하다

4. 김 감독의 이번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에게서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

- ① 성공하고서도 ② 성공한 까닭에 ③ 성공하더라도 ④ 성공할 바에야

※ 아래 문장의 ()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5. 어제 선물() 받았습시다.

- ① 이 ② 에 ③ 으로 ④ 을

6. 가게에서 우유() 빵을 샀시다.

- ① 는 ② 의 ③ 하고 ④ 에게

7. 제 동생은 고집이 조금 () 정말 마음이 따듯해요.

- ① 세기는 하지만 ② 크기는 하지만
③ 강하기는 하지만 ④ 무겁기는 하지만

※ 아래 대화의 ()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8.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일요일에 ().

- ① 공부해요 ② 공부했어요 ③ 공부하겠어요 ④ 공부할 거예요

9. 가: 지금 뭐 해요?

나: 음악을 () 청소를 해요.

- ① 들으면 ② 들어도 ③ 들으면서 ④ 들으니까

10. 가: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 버스를 타고 () 깜빡 잠이 들어서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 ① 오려면 ② 오기로 ③ 오던데 ④ 오다가

11. 가: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나: 아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문화센터에서 ().

- ① 배우는군요 ② 배워도 돼요.
③ 배우기로 했어요 ④ 배운 적이 있어요

12. A: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준 숙제 다 했어?

B: 아니요, 이 책을 () 하려고요.

- ① 읽고 나니까 ② 읽고 나서 ③ 읽고 나도록 ④ 읽고 나느라고

※ 아래 문장의 밑줄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13. 가: 병원에는 무슨 일로 가요?

나: 아버님이 입원하셨어요.

가: 그래요?__.

- ① 걱정해야지요 ② 걱정되시겠어요 ③ 걱정하더라고요 ④ 걱정하는 중이에요

14. 가: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나:__.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 ① 잘하거든요 ② 잘한다던데요 ③ 잘한다고 봐요 ④ 잘하기는 어려워요

15. 가: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낮에 너무 피곤해요.

나:__

- 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 드릴까요?

- ②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실까 말까 해요.
- ③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게 나아요.
- ④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 보지 그래요?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하신 분의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연락 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후 질문이 있을 경우를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전화번호: ☎ _____

조사원 성명/전화번호	성명:	☎
-------------	-----	---

연구책임자: 김경령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Ph.D)

현 숙명여자대학교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조사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3동 827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11년 11월 일
발행일	2011년 11월 일
인쇄	
